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4. 11 (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리나(위원장), 김명규, 김재열, 나선화,
박문열, 송하경, 신승운, 전경목, 정우택,
조선미, 최성은, 최응천(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2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공개
2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공개
3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4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진적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5	보물 제1443호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1건 1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개
6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무신진찬의궤’ 등 3건 4점 국외반출 허가	공개
7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등 21건 26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공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8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현상변경 허가	공개
9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등 2건 현상변경 허가	공개
10	국보 제119호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현상변경 허가	공개
11	보물 제1327호 ‘석조지장보살좌상’ 현상변경 허가	공개
12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허가	공개
【검토사항】 7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동래부순절도	공개
2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	공개
3	서울 태종 현릉 구신도비	공개
4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공개
5	충주 이상급 신도비	공개
6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공개
7	능창대군 이전묘 출토 망건	공개
【보고사항】 1건		
1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국외반출 허가 현황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3-04-001

1.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陝川 海印寺 地藏十王圖)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경상남도 지역)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대상 소위원회에서 관련문화재와 비교검토하기로 보류되었음.
- 관련문화재인 전라남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한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에 대한 지정조사를 실시하였고(12.9.13), 이어‘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및 시왕도’에 대한 지정조사를 실시하였음(12.11.22).
- 관련문화재와 비교검토를 위한 자문회의에서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에 대해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검토하기로 함(13.1.4).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지정예고(13.2.28~3.30)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陝川 海印寺 地藏十王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84.5×187.0cm, 화면 150.5×179.8cm
- 재 질 : 견본채색
- 제작연대 : 1739년
- 제 작 자 : 慧湜, 允坦, ○○, ○覺, ○○, 震哲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그림은 화기에 의하면 1739년 慧湜을 수화승으로 하여 允坦, 震哲 등 총 6명의 화승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수화승을 맡은 慧湜은 화기에 ‘山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그린 1742년 덕유산 영취사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椰山龍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산 출신 화승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장시왕도는 보존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이 안정되어 있고, 형상에 이지러짐도 거의 없으며 채색 또한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불화이다. 또한 이 지장시왕도는 18세기 명부전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장시왕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명부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는 화기가 분명하게 남아 있어 1739년 혜식이 주도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불화로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장시왕도와 다른 구성법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입의 크기를 유난히 작게 그리고 섬세한 필치로 표정 묘사를 하는 등 화승 혜식만의 화풍을 잘 보여주어 예술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특히 수화승 혜식은 경상도 지역의 고승 영정을 그리는데도 남다른 능력과 솜씨를 보여준 화승으로서, 이 지장시왕도 역시 혜식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해인사 명부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지장시왕도는 1739년에 대시주 處玉의 발원에 의해 수화원 慧湜을 비롯한 6명의 화승이 관음전 불화로 조성되었다. 구도에서는 지장보살과 시왕, 판관, 지옥사자, 선악동녀, 옥졸 등 31명에 달하는 인물들을 표현하면서도 중앙의 본존에 비하여 권속들을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하므로써 많은 권속들을 효과적으

로 배열하였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형태에 안정감이 있고 신체비례가 적절하며, 채색은 녹색과 적색을 중심으로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색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인물묘사에서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낸 것에서 화승들의 필력이 숙달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불화는 현존하는 명부전 지장보살도 가운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불화로서, 18세기 전반 경상남북도 지역 불화 화풍을 잘 보여준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화기를 통해 정확한 관음전이라는 봉안전각과 1739년이라는 제작시기, 그리고 제작주체, 제작자 등이 모두 밝혀져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연구의 기준작이다. 특이하게도 관음전에 봉안하기 위해 그려졌는데, 아마도 1742년에 명부전의 시왕도가 제작되면서 주존 불화로 옮겨 모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를 그린 수화승 혜식(慧湜)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하는 작품이 많지 않아 그의 작품 세계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엄숙한 지장회상(地藏會上)에 해학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가미한 것으로 볼 때 작가적인 감각은 탁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물의 표현이나 색채, 구도, 필선 등에서도 18세기 전반기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특히 두 손을 배 아래에 모으고 그 위에 보주를 올려놓은 지장보살상의 도상은 주목된다. 이 불화는 18세기 전반기 지장시왕도의 도상연구 및 화사, 화풍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1) 화기 및 특기사항

<화기>

書記 : 乾隆四年己未五月日奉「安于觀音殿」采色垂婆幘大施主處玉」供養施主李

哲雲兩主」

春嶽斗慧」 禪師盈宙」 本庵祖室照愿」 學堅」 普眼」 守瓊」 浩澄」 位祥」 誠信」 信行」 道摠」 震哲」 申以廉」 性雨」 崔世冠」 崔世寶」 崔分奉」 崔浚惺」 崔昌信」 李世○」 曹汝太」 曹延弘」 池慈仁」 朴海貞」 崔戒梅」 金加八伊」 金斗女」 居士致一」 訂明山人 法元」 誦呪山人 三峻」 清善」 眞淨」 知殿山人 從卞」 畫員山人 慧湜」 允坦」 ○○」 ○覺」 ○○」 震哲」 供養主山人天雲」 海心」 得閏」 浩摠」 本庵先師 就諶」 雷哲」 芝信」 得慧」 再寬」 ○一」 最敏」 ○翊」 ○延」 ○林」 攝能」 清允」 都監山人 信行」 別座山人 誠○」 化士通政 守瓊」 願以此功德普及於一」 切我等與衆生皆共」 成佛道」

2) 조사내용

해인사 지장시왕도는 화면 중앙에 본존인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들을, 위부분에는 동자와 판관, 귀왕 등의 명부 권속을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좌우 권속들의 시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좌우 균형을 맞추려 하였음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명부 권속들은 좌우협시와 시왕보다 작게 묘사하였고 양자를 구름으로 구분하여, 존격에 따른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화면의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본존은 권속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고, 손은 오른팔을 어깨높이 만큼 들어 보주를 잡고 있는 통례의 도상과는 달리 선정인의 모습이다. 각 권속의 형상에는 이지러짐이 없고 다양한 손 모습으로 인하여 율동감이 느껴진다.

채색은 18세기 불화의 통례인 朱, 군청, 녹청을 주조색으로 하였으며, 본존을 비롯하여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의 범의의 깃에만 무늬를 표현 했을 뿐 최대한 억제하였다. 다만 신광의 바탕은 섬세한 격자문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각의 구획 안에 원형의 꽃무늬를 그려 넣었다. 더욱이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의 두광을 특이하게 투명한 듯이 표현하고 있어 화면 전체에서 율동감과 더불어 부드러움과 화사함이 느껴진다.

이 그림은 화기에 의하면 1739년 慧湜을 수화승으로 하여 允坦, 震哲 등 총 6명의 화승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수화승을 맡은 慧湜은 화기에 ‘山人’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가 그린 1742년 덕유산 영취사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倮山龍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야산 출신 화승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장시왕도는 보존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이 안정되어 있고, 형상에 이지러짐도 거의 없으며 채색 또한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불화이다. 또한 이 지장시왕도는 18세기 명부전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장시왕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둥근 머리 광배(頭光)와 몸 광배(身光)를 구비한 지장보살과 道明尊者 및 無毒鬼王이 한 조를 이루는 지장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십대왕과 여러 권속들이 그려진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이다.

방형 대좌 위에 앉아 있는 건장한 모습의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형태가 다 드러나는 투명 두건을 썼으며, 귀 뒤로는 두건의 묶음 띠가 단정히 드리워져 있다. 하복부 쪽에서 교차하여 모은 두 손으로는 흰색 구슬을 받쳐 들고 있으며, 적색 대의 끝단의 문양장식이 화려하다.

무릎 아래 앞쪽에 자리한 도명존자는 청년 비구 모습으로 지물로는 지장보살 대신 錫杖을 잡고 있으며, 관을 쓴 왕 모습의 무독귀왕은 본존을 향해 합장하고 있다.

지장보살 몸 광배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십대왕은 긴 수염을 하고 관을 쓴 왕의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듯 서로 마주보는 등 자유스러운 자세에 손에는 홀을 들고 있다. 각 대왕들의 얼굴 표현을 보면 세밀하고 정교한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나타내고 표정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자한 군자의 모습과도 같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특히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天童·天女에 이르기까지 각 존상들의 입크기를 유난히도 작게 표현하여 원만상으로서의 부드러움이 한층 강하게 느껴진다.

지장삼존상을 포함한 십대왕까지를 한 그룹으로 하여 색구름대로 화면을 상하로 경계 지은 다음 상단에는 判官과 使者(감재·직부사자) 및 上·下元將軍, 牛·馬頭神, 金剛神, 天童·天女 등의 권속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판관과 사자 및 상·하원장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십대왕 하단부에 그려지는 예와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적인 경향과 화승에 따른 한 흐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홍빛 적색과 비교적 밝은 녹색 위주의 색채를 구사함으로써 화사해진 화면에 토황색과 녹색 구름대를 두어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음이 짐작된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마련되어있는 □□乾隆四年己未五月日 奉安于觀殿… 畫員山人 慧湜 允坦 □□ □□ □□ 震哲… □□이라는 내용의 화기로 보아 1739년에 그려진 이 지장시왕도의 경우 지금은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으나 본래는 관음전에 봉안되었었던 것임이 파악된다.

그리고 화승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혜식’이 수화승을 맡고 윤탄, 진철 등 6명의 화승들이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畫記

乾隆四年己未五月日 奉安于觀音殿 彩色兼婆幘大施主處玉
供養施主李哲雲兩主 春□斗慧 禪師盈宙
本庵祖室照惠 學堅 普眼, 守瓊 浩澄 位祥 誠信 信行 道摠 震哲
申以廉 性雨 崔世冠 崔世寶 崔分奉 崔浚□ 崔昌信 李世□ 曹汝太
曹廷弘 池慈仁 朴海貞 崔戒梅 金加八伊 金斗女 居士致一
證明山人滋元
誦呪山人三峻 清善 眞淨
持殿山人從卞
畫員山人慧湜 允坦 □□ □□ □□ 震哲
供養主山人天雲 海心 得閏 浩摠
本庵老師就謹 雷哲 定信 得慧 再冠 □一 最敏 □翊 □廷延
律林 攝能 清允
都監山人 信行
別座山人誠□
化士通政守瓊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해인사 지장시왕도는 건륭4년(1739) 조성되어 해인사 관음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19세기 초 화재로 관음전이 소실된 후 그 자리에 세워진 명부전에 옮겨 봉안되었다. 현재는 1741년에 조성된 시왕도와 함께 명부전 후불탱화로 봉안되어 있는데, 삼베바탕에 채색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150cm, 가로 180cm에 달한다. 찢어지거나 박락된 부분이 없이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處玉이 대시주가 되어 慧湜을 수화원으로 하여 允坦, ○○, ○覺, ○○, 震哲 등이 조성하였다. 화기는 아래와 같다.

[화기]

乾隆四年己未五月日奉「安于觀音殿」采色垂婆幘大施主處玉「供養施主李哲雲兩主」春嶼斗慧「禪師盈宙」本庵祖室照惠「學堅」普眼「守瓊」浩澄「位祥」誠信「

信行」道摠」震哲」申以廉」性雨」崔世冠」崔世寶」崔分奉」崔浚惺」崔昌信」李世○」曹汝太」曹延弘」池慈仁」朴海貞」崔戒梅」金加八伊」金斗女」居士致一」訂明山人 法元」誦呪山人 三峻」淸善」眞淨」知殿山人 從卞」畫員山人 慧湜」允坦」○○」○覺」○○」震哲」供養主山人天雲」海心」得閏」浩摠」本庵先師 就謙」雷哲」芝信」得慧」再寬」○一」最敏」○翊」○延」○林」攝能」淸允」都監山人 信行」別座山人 誠○」化土通政 守瓊」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 내용 및 특징

1739년에 대시주 處玉의 발원에 의해 수화원 慧湜을 비롯한 允坦, ○○, ○覺, ○○, 震哲 등 6명의 화승이 제작한 지장시왕도로서, 관음전 불화로 조성되었다. 가로 179.8cm, 세로 151.1cm의 화폭에 본존 地藏菩薩을 비롯하여 十王, 判官, 地獄使者, 善惡童子, 獄卒 등 총31명에 이르는 명부의 권속이 그려졌다. 화면 중앙에는 지장보살이 二重輪光을 뒤로 하고 수미단 위 연화좌에 결가부좌하였으며, 수미단 옆에는 道明尊者和 無毒鬼王이 시립하였는데 이들 지장보살삼존이 이루는 정삼각형의 빗변을 따라 권속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표현되어 보는 이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화면 위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본존 지장보살은 僧形으로, 머리에 흑갑사로 된 투명한 두건을 쓰고 있다. 두건은 어깨 아래까지 넓게 덮고 있으며 양쪽 귀 뒤로 흰색의 띠매듭이 어깨까지 늘어졌다.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이 오른손에 寶珠, 왼손에는 긴 六環杖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것과 달리, 두 손을 결가부좌한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 투명보주를 들었다. 얼굴은 둥근 圓滿相으로 다소 살이 찐 편인데, 가늘고 긴 눈썹과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눈, 아담한 코, 유난히 작은 입술 등 이목구비가 가는 필선으로 묘사되었다. 넓은 이마 가운데에는 八字形 머리카락이 그려져 있고, 입술의 아래 위, 턱에도 형식화된 수염이 표현되었다. 얼굴에 비하여 신체가 다소 큰 듯 하지만 적당히 넓은 어깨와 넓은 무릎 폭의 안정된 結跏趺坐로 인해 신체는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정삼각형에 가까운 견장한 체구를 보여준다. 목에는 가늘게 三道가 표현되었으나 아래쪽으로 쳐져 있으며, 넓게 트인 가슴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瓔珞에 묶여있는 녹색과 청색의 띠는 오른손을 거쳐 길게 늘어졌다. 着衣法은 안에 裙衣를 입고 양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식으로, 三葉華文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붉은 條衣袈裟는 금색의 띠로 인해 매우 화려해 보인다. 가사의 단에 그려진 활짝 핀 꽃문양(三葉華文)은 고려불화에서 부터 유행하던 것으로 조선후기까지 전통적 요소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지장보살의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합장 또는 석장을

들고 투명한 두광을 지닌 채 본존을 향해 시립하였다. 도명존자는 지장보살과 동일한 條衣袈裟를 걸치고 보살의 지물인 석장[六環杖]을 대신 들었으며, 무독귀 왕은 文冠 차림에 遠遊冠을 쓰고 합장하였다. 이들 옆으로는 시왕이 각각 5명씩 笏을 들고 시립하였는데, 대부분 文冠 차림에 遠遊冠 또는 冊冠, 日月冠 등을 쓰고 있으나 지장보살 오른쪽에 있는 오도전륜대왕 만이 투구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시왕 위로는 지옥사자와 판관, 옥졸, 동자 등이 좌우로 배치되었다. 지장보살 바로 옆에 서있는 사자는 兩角이 높게 솟은 관을 쓰고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다. 이것은 <預修十王生七經>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자가 黑衣를 입고 黑馬를 타고 黑幡을 들고 死者의 집에 찾아가 데리고 온다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사자들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망자의 죄상을 적은 명부이다. 사자의 위로는 명부를 펼쳐 든 판관과 지옥장군 및 선악동녀, 牛頭 馬頭獄卒 등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시립하였다.

이 불화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채와 함께 세밀하고 숙달된 필선을 구사하였다. 특히 인물들의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낸 것에서 화승들의 필력이 숙달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채색은 밝은 적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며, 청색, 황색, 흰색 등을 사용하였는데, 지장보살의 신광을 분홍색의 화문으로 가득 채워 그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의 수화원인 혜식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승으로 그의 생몰년이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현존하는 작품을 통해 추정해보면 대략 1739년에서 1742년 사이에 경남 합천 해인사와 대구 파계사, 의성 고운사, 경남 함양 영취사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화기에 山人이라고 적은 것을 보아 해인사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739년 해인사 명부전 지장시왕도를 시작으로 1740년에는 대구 파계사 건칠보살좌상의 개금을 비롯하여 나한전과 명부전의 불상 중수, 여러 암자의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1942년에는 영취사 영산회상도(국립중앙박물관소장)와 제석천룡도, 감로도를 조성하였다.

□ 문화재전문위원

이 불화는 1739년(영조 4) 관음전(觀音殿)에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된 지장시왕도이다. 처옥이 불화 조성에 기반이 되는 채색과 바탕에 필요한 재원을 시주하고, 법원(法元)의 증명 아래 수화승 혜식(慧湜) 등 모두 6명의 승려 화원들이 참여하였다. 화기 부분의 마멸로 인하여 6명 중 혜식(慧湜), 윤탄(允坦), 진철(震哲)만 확인된다. 혜식은 18세기 중반에 가야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화승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 덕유산 영축사(靈鷲寺) 영산회상도를 제작하였다.

이 불화는 한 화면에 본존인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십대왕, 판관, 사자, 동자, 옥졸, 장군 등이 좌우대칭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린 군도형식의 지장시왕도이다. 배치는 통천관 위에 경책(經冊)을 올려놓은 제5 염라대왕과 투구를 쓴 제10 오도전륜대왕의 위치를 통해 일반적인 명부전의 존상배치와 같이 화면의 좌측에 도명존자(道明尊者)를 비롯한 제1·3·5·7·9의 홀수대왕을, 화면의 우측에 무독귀왕(無毒鬼王)을 비롯한 제2·4·6·8·10의 짝수대왕을 배치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크게 묘사된 지장보살상은 8빛의 색 띠를 둘러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었다. 두광(頭光)은 짙은 녹색으로, 신광(身光)은 밝은 분홍색의 빗살꽃무늬로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본존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본존은 머리에 흑갑사의 두건을 쓰고 두 손을 배 아래에서 선정인(禪定印)처럼 모으고 보주(寶珠)를 받쳐 들었다. 둥글 납적한 얼굴에 풀잎 모양의 눈썹과 짧게 반개한 눈, 둥근 콧날과 쭉긋 내민 듯한 작은 입, 애교스럽게 처리한 수염 등 세부표현에서 18세기 전반기의 인물 표현과 통한다. 삼도가 표현된 목은 유난히 굵어 듬직한 인상을 준다. 옷깃에 꽃무늬를 그려 넣은 붉은색 가사를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한 빗장은 생략되었다. 귀와 팔, 가슴 등에는 화려한 장신구로 장엄하였다.

화면의 구도는 상하 2단 구도이며, 채색 구름으로 상하를 구분지었다. 하단 2/3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 등 주요권속을, 상단 1/3에는 천녀, 동자, 장군, 마두(馬頭)·우두(牛頭) 옥졸 등을 그려 넣었다. 지장시왕도에 대체로 등장하는 육광보살(六光菩薩)은 등장시키지 않았다. 좌우협시의 머리끝이 지장보살의 팔꿈치까지 올라와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하지 못해 다소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구도와 배치는 주로 가로 폭이 긴 그림에서 활용된 듯한데, 1724년에 제작된 산청 울곡사 지장시왕도나 1742년에 제작된 범어사 지장보살도, 그리고 1744년에 제작된 옥천사 지장보살도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가로 폭이 넓은 지장보살도에서 확인된다.

좌협시 도명존자는 삼청색 장삼 위에 붉은색 가사를 걸치고 두 손으로 석장을 잡았다. 무독귀왕은 통천관을 쓰고 대수곡령포를 입고 합장하였다. 지장보살의 좌우에 표현된 시왕들도 곡령대수포(曲領大袖袍)를 입고 몇몇 대왕들은 상호 마주보며 대화하듯 정겹게 표현되었다. 상단에도 세 개의 눈을 가진 양발옥졸(仰髮獄卒)은 엄숙한 회상(會上)에서 결눈질을 하는가 하면, 우두·마두옥졸은 판청을 피우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표현하여 해학적인 요소도 가미하였다.

언뜻 도상의 배치에서 엄격한 좌우대칭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듯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왕상의 자세와 손짓, 그리고 통천관의 표현 등에서 미묘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가장자리를 백색으로 덧칠하여 변화를 준 녹색과 황갈색에 적갈색을 더한 구름은 인물의 경계와 도량의 영이(靈異)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인물의 피부는 맑고 화사한 육색을 두텁게 설채하고, 옷이나 배경이 되는 바닥이나 하늘, 구름 등은 짙은 적색과 녹색, 황갈색 등으로 설채하여 존상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게끔 효과를 주었다. 한편 높은 채도의 적·녹색의 대비 속에 온화한 황갈색 바닥과 황·청의 채운(彩雲)으로 인하여 그윽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얼굴 표현과 의습선 표현에는 일관되게 섬세하고 가는 필선을 위주로 하였고, 일부 강조와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백묘(白描)를 사용하였다. 권속들의 얼굴은 바림과 초상화를 그리듯 보다 세밀한 붓질을 통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참고문헌>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一志社, 1996.

안귀숙·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敎繪畫』, 양사재, 2008

『한국의 불화 화기집』,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2.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寶城 大原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一括)

가. 심의사항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4.2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9.13)를 실시하였음.
- 이어 관련문화재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및 시왕도 일괄’에 대한 지정조사를 실시하였고(’12.11.22), 관련문화재 비교검토를 위한 자문회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검토하기로 함.(’13.1.4)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지정예고(’13.2.28~3.30)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6호
- 명 칭 :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寶城 大原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 一括)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길 506-8
- 수 량 : 9폭
- 규 격 : 하단참조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사자도

- 조성연대 : 1766년(영조 44)
- 작자 : 지장보살도 色旻, 有心, 戒眼, 行宗, 坦仁, 道善, 瑞封 등 18명
시왕도 및 사자도 色旻, 有心, 戒眼

연번	명칭		크기(cm)		
			전체	그림	화기
1	地藏菩薩圖		226.0×177.0	212.3×153.3	향좌 29.2×8.2 향우 29.1×8.2
2	十王圖	第一 秦廣大王	194.5×176.9	150.8×88.8	16.5×7.4
3		第三 宋帝大王			
4		第二 初江大王	194.5×177.0	151.0×88.0	17.0×7.5
5		第四 五官大王			
6		第五 閻羅大王	194.2×176.5	151.5×88.0	22.4×7.2
7		第七 泰山大王			
8		第六 變成大王	194.5×177.0	151.7×87.9	26.8×7.5
9		第八 平等大王			
10		第九 都市大王	176.5×100.5	152.5×91.0	25.5×8.0
11		第十 五道轉輪大王	176.5×100.5	151.0×90.5	29.8×11.0
12	使者圖	監齋使者圖	176.5×91.5	152.5×80.2	-
13		直符使者圖	176.5×91.5	151.5×81.5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대원사의 지장보살설법도와 시왕도는 형상의 이지러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색조가 밝고 조화로워 부드러운 화취를 느끼게 하는 우수한 불화이다. 또한 시왕도는 독특한 도상의 선구적 위치에 있으며, 탁월한 현현성으로 인하여 실재감마저 들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그림이다. 또한 대원사의 불화는 지장보살설법도와 直符使者, 監齋使者를 구비한 시왕도가 한 셋트를 이룬 아주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18세기 명부전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장보살설법도와 시왕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및 사자도 9점은 일괄하여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6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원사의 경우 지장보살도를 비롯하여 사자도를 포함한 십대왕 그림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화기 또한 명확하게 남아 있어 내력이 분명하고, 보존상태 역시 큰 훼손 없이 양호함은 물론 18세기를 대표하는 의경계열의 구성법과 형태 및 색채, 표현법을 잘 보여주는 예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대원사 명부전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및 사자도는 1766년 명부전 봉안용으로 조성된 불화로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色旻을 수화원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후기 명부전 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사자도가 함께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는데, 대원사 명부전 불화는 조선시대 명부전에 모셔지는 불화가 조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원사에서 덕림사로, 덕림사에서 다시 대원사로 소장처를 옮기면서도 전체 세트가 잘 남아있으며, 우수한 화승이 제작에 참여하여 화면 구성이나 채색 등에서 18세기 불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장보살도는 조선후기 명부전에 봉안되던 지장보살도의 형식을 잘 지키고 있으며, 시왕도는 커다란 전각과 성곽에 둘러 쌓인 정원을 배경으로 각 대왕들의 왕칭을 배치한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각 그림마다 제작시기와 봉안처, 연화질, 시주질 등을 기록한 화기도 남아있어 당시 불화의 제작상황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재명칭은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시왕도·사자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는 1766년(영조 42) 지장보살상을 개금할 때 후불화로 조성된 것이다. 비구니 묘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대시주가 되었고, 이외에도 승속(僧俗)이 하나가 되어 시주에 동참하였다. 불화의 제작에는 색민, 유심 등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화승들이 주축이 되었다. 지장보살도는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된 구도이며, 시왕도는 화면을 2분하고 상단 2/3가량을 시왕의 재판장면에 할애하였고, 하단 1/3가량을 지옥장면으로 채웠다. 색채에서는 채도가 높은 적·녹의 강한 대비를 바탕으로 진한 황색과 군청, 양록 등을 중간색으로 사용한 색채를 보인다. 필선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없는 철선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윤곽은 먹선을 사용하였고 백·황·적

색 등 다양한 선으로 강조와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구도와 색채, 필선에서 18세기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화면이 부분적으로 결손된 부위가 있지만, 최근의 보존처리로 화면상태는 안정되어 있으며 화격도 우수한 편이다.

이 불화의 특징 중 하나는 시왕도에서 보기 힘든 단독의 시왕전을 등장시키고 전각의 주변에 파초, 매화, 대나무, 소나무, 괴석 등 정겨운 풍경을 삽입한 점이다. 이는 다른 시왕도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양이 보살상의 가사나 천의, 시왕의 면복(冕服), 건물에 드리워진 커튼, 탁의(卓衣), 복장낭(腹藏囊) 등의 표면에까지 소홀함 없이 시문되었고, 건물의 막새라든가 연목마구리와 기둥의 귀갑문 단청, 잡상이나 기왓골의 표현까지 자칫 놓치기 쉬운 건축부재의 세부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수화승(首畵僧) 색민은 전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18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화사 중 한명이다. 그는 18세기 전반기에 크게 활약한 의겸의 화풍을 계승한 화승이며, 이 작품을 통해서 의겸의 화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승, 발전되어 가는지를 엿 볼 수 있다.

현재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는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그리고 사자도까지 결손 없이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장시왕도 형식 및 양식 연구에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불화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정우택

지장보살설법도와 시왕도는 1766년(乾隆 31)에 色敏을 수화사로 하여 道善, 有心, 戒眼, 戒憲 등 18명의 화사에 의해 그려진 불화로, 본존을 비롯하여 시왕, 使者 등 모두 13점. 9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은 원래 대원사 지장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는데, 건물이 쇠락해져 1946년 광주 덕림사 명부전으로 이안하였다가 2003년 다시 원 봉안처인 대원사로 이안, 봉안되었다.

지장보살설법도는 화면 중앙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무독

귀왕과 도명존자, 六光菩薩 그리고 사천왕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지장보살은 권속에 비하여 그다지 크게 묘사되지 않아 현현성은 부족하지만 대신에 위화감이 없으며, 권속들은 중앙의 지장보살을 향하여 약간 돌아선 자세이고, 시선 역시 그에 상응하여 화면의 구도가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다.

채색은 조선시대 18세기 불화의 통례인 朱, 靑, 綠을 주조색으로 하였으나, 하늘을 의미한 그림 상부의 靑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밝고, 나아가 범의에도 바림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화사하고 경쾌한 인상을 준다. 특히 靑의 바림기법은 본존의 가사 뒷면을 비롯하여 도명존자 등 일부의 권속의 범의 묘사에 사용되었는데 매우 실재감이 느껴진다. 무늬는 본존은 물론 권속, 대좌에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매우 섬세하다.

시왕도는 1대왕부터 8대왕 까지는 한 폭에 두 장면을, 9와 10대왕과 直符使者, 監齋使者를 각각 한 폭에 그렸다. 화면 구성은 조선시대 시왕도 도상의 통례와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는 대왕과 권속들을, 하단에는 지옥장면을 배치하였다. 상하의 장면을 구름으로 구분하는 방법 역시 통례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채색을 비롯한 표현 기법은 본존인 지장보살설법도와 차이가 없으나 재판과 지옥 장면을 구분하는 구름의 白綠이 매우 두드러지며, 수목, 화초 등 자연물의 표현이 비교적 사실적이다.

재판과 지옥 장면을 양분하는 형식은 가장 이른 1742년 범어사본(소재 불명)을 비롯하여 해인사본(1742년 추정), 옥천사본(1744년) 등 조선 후기 거의 모든 시왕도의 화면 구성 방식이다.

한편, 조선시대 18,9세기의 시왕도는 옥천사본과 같이 시왕의 등받이만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유형과 해인사본과 같이 시왕의 뒤에 병풍이 둘러지는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대원사 시왕도는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사례인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각이 표현되어 있어 마치 시왕이 건물안에 머물러 있는 듯이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대원사의 시왕도는 전각이 표현된 가장 빠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난간 나아가 주위에 수목 등 자연물마저 묘사하고 있어서 마치 시왕이 현실에 존재하며 재판을 하는 실재감을 느끼게 한다.

수화사인 色暹은 18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불화사인 의겸의 제자로,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는데, 곡성 도림사 신덕암의 <지장시왕도:1741년>, 부여 무량사 극락전의 <아미타설법도:1747년>, 부안 개암사의 <괘불도:1749년>, 구례 천은사 칠성각의 <칠성도>,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비로자나삼신불도:1757년> 등 다양한 도상의 불화제작에 참여하였다. 또한 有心은 구례 천은사의 <지장보살설법도:1762년>, 戒眼은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석가여래설법도:1757년>, 行宗은 순

천 송광사 영산전의 <석가팔상도:1725년>와 불조전의 <33조사도>, 고성 운흥사의 <괘불도:1730년> 등의 제작에 참여한 당시의 주요 화사들이다.

대원사의 지장보살설법도와 시왕도는 형상의 이지러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색조가 밝고 조화로워 부드러운 화취를 느끼게 하는 우수한 불화이다. 또한 시왕도는 독특한 도상의 선구적 위치에 있으며, 탁월한 현현성으로 인하여 실재감마저 들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그림이다. 또한 대원사의 불화는 지장보살설법도와 直符使者, 監齋使者를 구비한 시왕도가 한 셋트를 이룬 아주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18세기 명부전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장보살설법도와 시왕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도는 道明尊者和 無毒鬼王을 협시로 한 지장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文殊·普賢·觀音·大勢至·金剛藏·除障礙菩薩 추정의 6보살상과 사천왕상이 시립하고 있는 18세기 지장보살도 구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방형의 높은 단 위에 앉아 암록색 둥근 머리 광배(頭光)와 옥색 몸광배(身光)를 구비하고 있는 중앙의 지장보살상은 투명 두건을 써 형태가 드러난 민머리에 귀 뒤로 두건 묶음장식이 드리워져 있으며, 두 손 가운데 무릎 위로 내린 왼손으로는 6환장의 錫杖을 잡고 어깨까지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는 손바닥을 위로 하여 투명한 구슬을 들고 있다.

무릎 아래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본존을 향해 몸을 돌린 채 합장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자리한 문수·보현보살 추정의 두 보살상은 여의와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있다. 지장보살 몸 광배 좌우의 보살상은 가슴 앞에서 淨瓶(감로병)을 받쳐 든 백의관음보살상을 비롯한 4보살로 관음보살상 이외 나머지 세 보살상은 중앙을 향해 몸을 돌린 채 합장하고 서 있다.

화면 하단의 사천왕상은 좌우에 각각 상하로 두 구씩 배치되어 있는데 왼쪽(向右)에 위치한 천왕상은 지물 없이 합장하고 있는 상과 검을 파지한 두 상이며, 우측(向左)의 천왕상은 당과 보탑을 든 상과 화염보주와 용을 잡고 있는 두 상이다.

색조는 선홍빛의 적색과 짙은 녹색 위주인데 청색의 하늘 공간을 배경으로 한 토황색, 옥색, 붉은색 계열의 색 구름대를 두어 조화를 이루며, 화면 상단 좌우로 펼쳐 瑞氣를 표현하는 등 화면 구성과 색채면에 있어 18세기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만형의 존상 형태와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필치, 적·

녹색 위주에 조화로운 중간색 계열의 색구름대 표현은 18세기 중반까지 조계산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화승 의견계열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양식특징으로서, 의견의 제자 ‘色敏’이 수화승을 맡아 그린 결과라고 하겠다.

화면 하단 좌우로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日 地藏菩薩改金時後幀 各帖 同成奉安于大原寺冥府殿 奉爲主上三殿下壽萬歲… …金魚色敏 有心 戒眼… …行宗… …坦仁 道善… …瑞封… …’이라는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어 1766년 지장보살상을 개금할 때 대원사 명부전에 봉안하기 위해 함께 그렸으며, 화승은 색민을 수화승으로 18명의 화승들이 동참하여 조성하였음이 파악된다.

1·3대왕도, 5·7대왕도, 2·4대왕도, 6·8대왕도, 9대왕도, 10대왕도 6폭으로 이루어진 시왕도는 각 대왕도마다 상단에는 전각 속에 앉아 죄업에 따라 심판하는 모습의 대왕을 묘사하고 있는데, 전각은 화려하게 단청이 되어 있는 팔작지붕의 건물로 난간이 둘러지고 휘장이 드리워져 궁궐을 나타낸 듯하다. 전각 주변으로는 문인화풍의 파초와 매화, 모란, 대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을 그려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대왕 주위로는 判官, 錄士, 虎頭·馬頭·牛頭神, 使者, 獄卒, 天女 등이 시립해 있다.

한편 구름으로 경계 지어진 화면 하단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벌 받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왕의 판결을 제시하는 관모 쓴 관리 복장의 판관과 중생 구제를 위해 지옥세계에 머물며 항상 함께하여 기도하는 지장보살상을 묘사함으로써 조선시대 후기 시왕도의 전형적인 구성과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대왕도가 한 폭에 그려진 1·3, 5·7, 2·4, 6·8대왕도 4폭과 한 폭씩 그려진 9대왕도와 10대왕도 2폭의 예를 보면 각 대왕도마다 하단에는 시주자를 기록한 화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림의 내력을 알려주는 畫記는 대왕도 사이의 중앙 여백(1·3, 5·7, 2·4, 6·8대왕도)과 우측 여백(9, 10대왕도)에 묵서되어 있다. 화기는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日… …金魚色敏 有心… …’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로부터 시왕도 역시 지장보살도와 함께 1766년 금어 색민과 유심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왕도의 색채 역시 적·녹색 위주로 토황색과 옥색 색구름대가 조화를 이루어 지장보살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대왕을 포함한 인물의 형태 또한 원만형으로 의견계열 화풍을 잘 보여준다.

사자도는 監齋使者圖와 直符使者圖 2폭으로 이루어진 불화로서 이 중 감재사자도는 靑馬와 함께 손에 名簿를 들고 있는 감재사자와 검을 쥐 上元將軍이 표현되었으며, 직부사자도는 白馬와 손에 명부를 든 직부사자,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모습의 下元將軍이 묘사되어 있다.

감재사자도의 경우 우측 여백에 화기가 묵서되어 있으며 직부사자도는 좌측 여

백에 묵서의 화기가 남아 있는데, 감재사자도는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金魚 色敏 有心’으로 기록되어 있고, 직부사자도에는 □□‘隆三十一丙戌五月日… …金魚 色敏 有心 戒眼’으로 쓰여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사자도 역시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함께 1766년에 조성하였는데, 감재사자도를 그린 화승은 ‘色敏 有心’ 두 분인데 비하여 직부사자도는 ‘色敏 有心 戒眼’ 세 분이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폭의 사자도 또한 색채와 인물의 형태는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동일한 의경 계열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대원사소장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및 사자도는 1766년 지장보살상을 개금할 때 함께 조성되어 대원사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써, 色旻을 수화원으로 하여 道善, 有心 등 총18명의 화원들이 그린 것이다. 지장보살도 1점과 4폭으로 구성된 시왕도 10점, 사자도 2점 등 모두 1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766년 조성 이후 보성대원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오다 1946년 광주 덕림사로 옮겨졌으며, 2003년에 다시 대원사로 이안되었다. 2004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대원사 지장보살도는 1766년 시왕도, 사자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色旻을 수화원으로 하여 戒眼, 戒憲, 有明, 瑞封, 戒海, 幸宗, 坦仁, □贊, 精□, □峰, □心, □軒, 偉□, □惠 등 18명의 화승들이 함께 조성하였다. 화기에 의하면 主上三殿下의 壽萬歲를 기원하고, 비구니 妙性이 돌아가신 어머니 鄭氏의 영가를 위해서 대시주가 되어 불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림의 구성은 지장보살과 권속을 간단하게 배치한 형식을 취하였다. 화면 중앙에는 지장보살이 왼손에 석장을 들고 오른손은 어깨 앞으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수미단 위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으며, 좌우로는 협시인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六光菩薩과 사천왕이 본존을 향해 시립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두 귀를 드러낸 채 투명한 흑색 갑사의 두건으로 머리를 감쌌는데, 화려한 두건 장식은 귀 뒤로 어깨 뒤쪽으로 흘러내렸다. 등글면서도 가름한 계란형의 얼굴에는 가는 선으로 이목구비를 묘사하였으며, 이마 가장자리는 녹색으로 채색을 하여 파르스름하게 깎은 승려의 머리처럼 묘사하였다.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 투명한 보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긴 석장을 비스듬히 들고 왼쪽 무릎 위에 대었다. 지장보살의 이와 같은 모습은 “ … 지장보살과 그 권속들이 모두 聲聞의 모습을 하고…”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序品 第1), “…안에는菩薩의

行을 숨기고 밖으로는 比丘의 형상을 나타낸다. 왼손은 寶珠를 지니고 오른손은 錫杖을 잡고 千葉의 靑蓮華에 安住한다”(〈地藏儀軌〉), “... 다음에는 畫像法을 설명한다. 聲聞形像이 되고 袈裟를 걸치고 端은 左肩을 덮는다.”(〈地藏菩薩儀軌〉)라고 하였듯이 성문, 즉 비구의 모습으로 석장과 보주를 들고 있다는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왼손에 보주, 오른손에 석장’을 든다는 경설과 달리 여기에서는 ‘왼손에 석장,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이후 우리나라 지장보살도에서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른 것이다.

얼굴에 비하여 신체는 건장하면서도 장대한 편으로, 붉은 바탕에 화려한 국화문이 시문된 條衣를 佛衣처럼 걸쳤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三葉華文이 둘러져 있고 바지의 무릎부분은 화려한 화문으로 장식되었으며, 발목 부근에는 풀잎처럼 날카롭게 치견이 장식되는 등 전반적으로 장식적이면서도 화려하게 치장되었다. 지장보살의 머리와 몸체에는 여러 겹의 色帶로 이루어진 원형의 두광과 신광이 둘러져 있고, 그 좌우로 각각 3구씩 6구의 보살이 본존을 향해 둘러서 있다. 보살들은 如意와 연꽃, 정병 등 지물을 들거나 합장하고 서있는데, 아미타화불을 모신 보관을 쓰고 흰 베일을 걸친 채 두 손으로 정병을 든 관음보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하게 묘사되어 각 보살의 존명을 알기는 어렵지만, 조선전기 이래 지장보살도에 등장하는 육광보살, 즉 六道衆生의 고뇌를 구원하는 龍樹菩薩·常悲菩薩·陀羅尼菩薩·觀音菩薩·金剛藏菩薩·持地菩薩로 추정된다. 여섯 보살 옆으로는 합장하거나 칼을 들고 있는 천왕(향우측)과 용과 여의주 및 보탑을 들고 서있는 천왕(향좌측)이 호위하듯 둘러서 있다.

전체적으로 채색은 붉은 색과 암녹색을 대비시켜 쓰고 진한 황색과 코발트색, 파랑색을 중간색으로 사용하여 화면을 처리하였다. 하늘에는 오색구름을 배치하였는데, 이 작품에 보이는 화면구성과 색채 등은 18세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면 향좌측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채색이 박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화기는 2군데로 나뉘어 향우측은 시주질, 향좌측은 연화질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연화질은 證明, 持殿, 誦呪, 金魚, 供養主, 茶角, 來往, 別座, 化主, 都監, 時住持, 三綱, 書記의 순으로 적었다. 화면 향우측 가장자리에는 위에서 아래로 “都監本名竺愼”이라 적었다. 현재 연화질 부분은 상당부분 박락되고 퇴색되었다.

이 불화를 제작한 화승들은 총 18명인데, 수화원인 色旻은 의겸의 제자로 18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색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741년 곡성 도림사 신태암 지장시왕도를 비롯하여 1747년 부여 무량사 극락전 삼장보살도, 아미타여래도, 1749년 부안 개암사 괘불도, 구례 천은사 칠성각 칠성도, 1757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도, 1762년 구례 천은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1766년 보성 대원사 아미타후불도, 명부전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사자도, 나주 불회사 칠성암 제석도 등이 있다. 또 有心은 대원사 불화 외에도 1762년 구례 천은사 명부전 지장보살도를 조성하였으며, 戒眼은 1757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후불도, 行宗은 1725년 순천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와 불조전 칠불도, 오여래도, 33조사도, 1730년 고성 운흥사 괘불도, 수월관음도, 감로왕도 등을 조성하였다.

시왕도 및 사자도는 시왕도 10점과 감재사자도와 직부사자도 등 총 12점으로 구성되었다. 시왕도는 제1진광대왕과 제3송제대왕이 1폭, 제2초강대왕과 제4오관대왕이 1폭, 제5염라대왕과 제7태산대왕이 1폭, 제6변상대왕과 제8평등대왕이 1폭, 제9도시대왕이 1폭, 제10 오도전륜대왕이 1폭 등 6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자도는 감재사자도 1폭, 직부사자도 1폭 등 2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왕도 상단 우측 또는 좌측에 적지란을 두어 시왕 각각의 명칭을 적고, 화면 사이의 백색바탕에 조성연대와 봉안처 및 緣化秩, 老德秩, 前啣秩 등 불화조성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을 적었으며, 화면 하단에는 적색 화기란에 시주질을 적었다. 그런데 시주질을 제외하고는 10점 모두 慈雲堂大禪師 處寬이 證明, 色旻과 有心 두 사람이 그렸다고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다.

각 대왕들이 그려진 시왕도는 상단에는 시왕의 심판장면을 묘사하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을 배치하는, 조선후기 시왕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랐다. 다른 시왕도들과 달리 시왕은 호화로운 단청이 되어있는 팔작지붕에 난간이 둘러져 있는 건물 안에서 등 높은 의자에 앉아 망자를 심판하고 있는데, 의자 뒤에는 병풍이 둘러져 있으며, 건물 옆으로는 활짝 핀 매화와 파초, 소나무, 대나무, 모란, 괴석, 버드나무 등이 보인다. 큼직하게 표현된 시왕과 달리 그 좌우로는 작은 규모로 묘사된 판관, 사자, 옥졸, 천녀 등이 시왕 옆에 서서 재판을 보좌하고 있다. 하단은 상단과 양록색의 채운으로 나누어졌는데, 지옥에서 벌을 받는 인물들의 형벌 장면이 그려졌다. 형벌은 각 대왕의 지옥마다 다르며, 망자가 제1 秦廣大王에서부터 初江大王, 宋帝大王, 五官大王, 閻羅大王, 變成大王, 泰山大王, 平等大王, 都市大王, 五道轉輪大王의 심판을 받고 다시 재생하기까지의 극적인 과정이 10단계의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다. 각 지옥에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어 망자를 지옥에서 구제하여 극락 왕생케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듯하다. 각 왕도에 묘사된 장면은 아래와 같다.

명칭	지옥장면
제1진광대왕도	사후 7일째 되는 날 秦廣大王과 판관, 귀왕, 동자, 사자 등 권속들이 망자를 심판하는 모습과 鐵床地獄에서 망자들이 벌 받는 장면이 묘

	<p>사되었다. 대왕은 관복에 원유관을 썼으며 홀을 들고 병풍이 둘러진 등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 좌우에는 부채와 幢幡을 든 鬼王 등 권속들이 서 있고, 앞 마당에 芭蕉가 큼직하게 피어있다. 하단에는 왼편부터 커다란 칼을 쓰고 판관의 질책을 받으며 죄 다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생들, 죄지은 중생을 줄로 엮어 가는 옥졸, 죄인을 첩판 위에 눕혀 놓고 쇠못을 박는 옥졸 등이 묘사되어 있다.</p>
제2초강대왕도	<p>2.7일에 죄인을 심판하는 초강대왕청의 모습을 그렸다. 대왕은 판관과 동자, 옥졸 들과 함께 망자를 심판하는데, 책상 앞에는 붓과 베틀, 연적, 선악명부 등 심판도구들이 준비하다. 지옥에는 지장보살이 지켜보는 가운데 칼을 쓴 죄인을 앉혀두고 판관이 죄상을 적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있다. 오른쪽에서는 죄인을 판자에 묶어 세우고 배꼽에서 창자를 길게 뽑아 내는 抽腸地獄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p>
제3송제대왕도	<p>죽은 지 3.7일째 되는 날 망자들의 죄과를 심판하는 송제대왕청의 모습을 그렸다. 마당에는 매화가 만발해있고 죄를 지은 망자들은 손발이 얽히고 묶인 채로 땅에 나뒹굴고 있다. 죄인은 拔舌地獄에서 형틀에 묶여 피를 흘리며 혀가 길게 뽑히고 그 위에서는 귀졸이 소를 몰며 쟁기질을 하고 있다.</p>
제4오관대왕도	<p>4.7일에 대왕청에서 권속들과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모습을 그렸다. 죄를 다스리는 대왕, 죄의 경중을 논하는 판관이 보인다. 생물을 죽여 고기를 먹인 죄인들을 쇠창살에 꽂아 끓는 가마솥에 통째로 넣는 鑊湯地獄과 무거운 칼을 쓰고 차례를 기다리는 죄인들도 보인다. 지장보살이 산개를 받쳐 든 동자와 함께 이 화급한 상황을 합장하며 지켜보고 있다.</p>
제5염라대왕도	<p>5.7일되는 날 염라대왕청에서 망자들을 심판하는 대왕의 모습과 지옥장면이 묘사되었다. 염라대왕은 면류관을 쓰고 붓을 들고 권속들과 망자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 전각 뒤로는 오래된 소나무 등치와 대나무가 보인다. 아래에는 죄인을 교화하는 지장보살과 判官, 錄事, 옥졸이 보인다. 죄인들은 머리채를 잡힌 채 생전의 일이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業鏡臺 앞에 서서 자신의 생전의 죄상을 바라보고 있다. 옆으로는 죄인들을 한꺼번에 몇 명씩 쇠질구에 넣어 날카로운 날이 달린 쇠방아로 찢는 確磔地獄이 그려져 있다.</p>
제6변성대왕도	<p>6번째 대왕인 변성대왕이 6.7일에 죽은 자의 죄를 판단하는 모습이 다. 변성대왕은 관복을 입고 원유관을 썼으며 오른손에는 홀을 들고 왼손으로는 판결내용을 적기 위해 붓을 들고 있다. 아래쪽에는 칼이</p>

	<p>나 몽둥이로 남을 괴롭혔던 망자를 옥졸이 창으로 몸을 찢어 날카로운 칼로 된 刀山地獄으로 던져 쫓는 모습이 펼쳐져 있다. 옆에는 옥졸의 밑에 깔려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꺾인 죄인들이 손발이 묶인 채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p>
제7태산대왕도	<p>사후 7.7일째되는 49일 째 죄인을 심판하는 태산대왕청의 모습과 지옥장면을 그렸다. 태산대왕은 붉은 관복을 입고 두 손으로 홀을 들고 등 높은 의자에 앉아서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망자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 지옥에서는 칼을 쓴 죄인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고 그 옆에서는 옥졸이 죄인의 몸을 톱으로 썬 鋸解地獄의 장면이 보인다.</p>
제8평등대왕도	<p>사후 백일째 되는 날 심판하는 평등대왕의 왕청 모습과 지옥을 묘사하였다. 평등대왕은 日月冠을 쓰고 관복에 홀을 들고 측면을 향해 앉았는데, 마당에는 괴석 위에 모란이 활짝 피었다. 권속들은 대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듯 평등대왕을 올려다보고 있다. 채운으로 구분된 지옥장면에는 널찍한 바윗돌 사이에 죄인을 무더기로 끼워 놓고 옥졸이 올라타서 도르래를 내리듯 무거운 돌판을 내리 누르며 죄인을 짓이기는 夾山地獄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두 절벽과 같은 산 덩어리가 통째로 합쳐지면서 죄인을 압사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라다 보는 죄인은 넋이 나가 입을 다물 줄 모른다.</p>
제9도시대왕도	<p>사후 1년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도시대왕의 왕청 모습을 묘사하였다. 辦決樓라는 현판이 붙은 대왕청에서 도시대왕이 합장을 하고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 오는 지장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다. 마당에는 버들가지가 늘어져 있다. 業秤地獄에서는 큰 저울에 죄과를 쓴 문서를 달아 죄의 경중을 가리고 있고, 한편에는 거의 발가벗긴 죄인들이 氷山에 갇혀 추위에 떠는 寒氷地獄이 묘사되었다.</p>
제10오도전륜대왕도	<p>죽은 지 3년 째 되는 때 망자는 오도전륜대왕의 처소에서 투구를 쓰고 장군의 갑옷을 입은 대왕의 판결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로 떠난다. 黑暗地獄에서는 동물가죽을 뒤집어쓴 이들이 귀를 세운 채 줄지어 가고, 그 옆에는 옥졸이 法輪臺에 올라 심판이 끝난 중생들을 윤회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六道로 환생하는 중생들은 천, 인, 아수라, 축생, 지옥 등 전생의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p>

한편, 사자도는 모두 2폭으로, 사자와 지옥장군, 말을 함께 그렸다. 사자도는 시왕이 망자의 집에 파견하는 지옥사자를 그린 것으로, 監齋使者圖와 直符使者圖 및 四直死者圖가 있다. 시왕도와 함께 제작될 때는 보통 감재사자도와 직부사자도 만

구성된다. 감재사자도는 보통 명부전 시왕도 옆에 직부사자도와 상대하여 단독탱화로 봉안된다. ‘살피고 다스린다’는 의미의 監齋는 『예수시왕생칠경』에서 염라왕이 망자의 집에 사자를 파견하여 망자를 살피는 것이나, 『地藏十齋日』, 『四天王經』에서 사천왕이 매달 일정한 날에 사자를 보내 인간을 감시한다는 사자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의 감재사자도는 보통 後頭에 兩角이 높게 꽃힌 翼善冠 같은 모자를 쓰고 창이나 칼을 들고 말 옆에 서 있거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직부사자는 보통 전령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직부라는 뜻은 ‘곧 가서 전한다’는 것이다. 黑衣에 黑幡을 들고 黑馬를 타고 가서 왕에게 망자의 선악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전하는 사자의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는 감재사자와 같이 후두에 양각이 높게 꽃힌 익선관 같은 것을 쓰고 두루마리를 들거나 창 또는 칼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대원사 감재사자는 오른손으로 청마의 고삐를 잡고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뒤로는 칼을 든 장군과 함께 묘사되었다. 반면 직부사자는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왼손에는 가늘고 긴 창을 곧추 세워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자의 뒤로는 목을 길게 늘어뜨린 백마와 칼을 든 장군이 큼직하게 묘사되었다.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은 1766년(영조 44)에 그려져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1946년 명부전의 붕괴 위험으로 인하여 광주 덕림사로 지장시왕상과 함께 이안하여 모셨다가 58년 뒤인 2003년에 다시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이안, 전시 중이다. 원래 이들을 봉안했던 명부전은 194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대원사 명부계 불화의 구성은 지장보살도 1폭과 시왕도 6폭, 사자도 2폭 등 모두 9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왕도는 <1·3>, <2·4>, <5·7>, <6·8>의 두 대왕을 한 폭에 그려 장황하였고, <9대왕>, <10대왕>, <감재사자도>, <직부사자도>는 한 폭의 화면에 그렸다. 장황 형태는 액자형이다.

대원사의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그리고 <사자도>의 각각의 화폭에는 화기를 남기고 있다. 화기에는 제작의 연기와 조성 시기, 봉안 장소, 봉안 목적, 시주·연화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두 폭이 하나의 액자로 장황된 시왕도의 가운데 여백 부분에는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묵서로 적었다. 불화의 화기 이외에도 묵암최눌(默庵最訥)이 지은 「대원사대법당시왕전중료중창급단청지장개금화시왕첩기(大原寺大法堂十王殿衆寮重勑及丹青地藏改金畫十王帖記)」가 현판으로 남아 있어 당시의 불사(佛事)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이 불화의 화기에는 건륭(乾隆) 31년 병술(丙戌) 5월에 지장보살상을 개금할 때

새롭게 제작하여 대원사 명부전에 봉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성목적은 조선 왕실의 삼전하(三殿下)의 만수무강과 시주자들의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이나 살아 계신 부모의 공덕을 빌고 있다. 지장보살도의 제작에는 화승(畫僧) 색민(色旻)을 비롯한 18명의 화사들이 참여하였고, 시왕도 및 감재사자도는 색민(色旻)과 유심(有心)이, 직부사자도는 색민(色旻) 유심(有心) 계안(戒眼)등의 화사들이 분담하여 그렸다. 이 불화를 주도한 수화승 색민은 18세기의 대화사 의겸의 화풍을 이어 받은 인물로 18세기 중엽 경에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차화원 유심 역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에서 그의 화적을 남기고 있다.

지장보살도의 화면 구성은 높은 방형연화대좌에 앉은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그리고 육광보살(六光菩薩)과 사천왕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을 보인다. 본존 지장보살은 원형의 두(頭)·신(身) 광배를 배경으로 단정하게 결가부좌하였다. S자형으로 굴곡진 발제선을 가진 머리는 검푸른 바탕에 녹색의 띠를 돌린 형태이다. 머리에는 흑갑의 두건을 썼고, 화문이 촘촘하게 시문된 붉은색 가사를 걸쳐 입었다. 왼쪽 어깨에는 가사 빚장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무릎 위에 둔 왼손으로는 어깨에 걸치듯 표현한 석장을 잡았고,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는 투명보주를 쥐었다. 가슴에는 큼직한 화문형태의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보주와 석장을 잡은 지장보살상의 도상에 대해서는 「지장의궤(地藏儀軌)」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돈황 17굴에서 출토된 지장보살도(963년, 대영박물관소장)나 고려불화에서 도상화되고 있다.

이 지장보살의 앉은 모습이나 손가짐 등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일본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지장보살도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색으로 처리된 머리모양과 꽃무늬 형태의 큼직한 목걸이, 금강저 모양의 가사빚장, 손가짐, 그리고 5색으로 처리된 원형의 광배 등 세부표현은 북지장사 지장시왕도(172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나 실상사 지장시왕도(1726년,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화사 지장시왕도(1728년, 보물 제1773호) 등 조선후기 도상과 시대적 특징을 공감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무릎 아래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자리하였고, 그 좌우로 육광보살(六光菩薩)과 사천왕상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육광보살은 육도능화(六道能化)의 보살이라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통 육도중생의 고뇌를 구원하는 용수보살(龍樹菩薩)·상비보살(常悲菩薩)·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관음보살(觀音菩薩)·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불화에서는 조선시대 지장보살도에서 잘 표현되지 않는 사천왕상이 외호신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권속들의 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장보살삼존과 육광보살, 그리고 사천왕상이 배치된 점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일본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지장보살도나 1742년의 범어사 지장보살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속에, 짙은 옥색이 두드러지며, 가사의 끝단이나 옷깃 등에 짙은 남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하늘은 짙은 남색과 오색구름으로 처리하여 장엄하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돋우고 있으며, 땅은 황토색으로 처리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인물의 존상들은 모두 짙은 녹색 두광을 갖추었고, 당당한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인물의 상호는 부드럽고 온화하여 원만구족한 모습이다.

시왕도는 화면을 양록색 구름으로 양분하고 위쪽 2/3 가량은 시왕의 재판장면을, 아래쪽 1/3가량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시왕들은 녹색 기와를 엮은 전각 아래 마련된 재판대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다. 시왕의 주위에는 재판을 돕고 있는 판관, 녹사, 천녀, 천동, 옥졸 등의 권속들이 그려졌다. 시왕은 산수가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며, 그림의 주인공답게 권속에 비해 월등히 크게 자리 잡았다. 시왕 중 제10 오도전륜대왕만 투구를 쓰고 갑주를 입었으며, 다른 대왕들은 통천관을 쓰고 붉은색의 곡령대수포를 입었다. 이 중 제5 염라대왕과 제8 변성대왕은 관(冠) 위에 경책과 일월이 그려진 작편을 올려놓았다. 난간을 가진 시왕청은 사방이 열려 있으며, 기둥과 포에는 적·녹색으로 화려하게 단청이 되어있다. 각각의 전각에는 참라전(參羅殿, 제1대왕), 염라전(閻羅殿, 제2대왕), 명라전(冥羅殿, 제3·4·6대왕), 명부전(冥府殿, 제7대왕), 염왕전(閻王殿, 제8대왕), 판결루(辦決樓, 제9대왕)라는 편액이 걸려있으며, 때로는 부속전각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건물 밖 정원에는 파초, 매화, 대나무, 소나무, 괴석 등으로 꾸며져 엄숙한 재판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각 시왕도의 하단에는 제1 대왕부터 10대왕까지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고 다시 육도윤회 하기까지의 과정을 극적으로 그렸다. 제1 진광대왕은 망자가 죽은지 7일 만에 이곳에 이르러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 곳인데, 이곳에 표현된 지옥은 죄인을 철상에 눕혀놓고 쇠못을 박는 이른바 철상지옥(鐵床地獄)을 표현하였다. 제2 초강대왕은 망자가 이칠일(14일)째 되는 날 심판을 담당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죄인을 판자에 묶어 놓고 배꼽에서 창자를 빼내는 추장발폐지옥(抽腸拔肺地獄)이 묘사되었다. 제3 송제대왕은 망자의 삼칠일(21일)째 심판을 담당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죄인을 형틀에 묶고 혀를 길게 빼내어 그 혀를 옥줄이 쟁기질 하는 설경지옥(舌耕地獄)이 묘사되었다. 제4 오관대왕은 망자의 사칠일(28일)째 심판을 담당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죄인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는 확탕지옥(鑊湯地獄)이 그려졌다. 제5 염라대왕은 망자의 오칠일(35일)째 재판을 담당하

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전생의 죄업을 들춰 보는 업경지옥(業鏡地獄)과 쇠방아에 찧기는 고통을 받는 대애지옥(碓磑地獄)이 그려졌다. 제6 변성대왕은 망자의 육칠일(42일)째 재판관을 담당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몸이 박히는 고통을 받는 도산지옥(刀山地獄)이 그려졌다. 제7 태산대왕은 망자의 칠칠일(49일)째 재판관을 담당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톱질로 몸이 두 쪽으로 잘리는 거해지옥(鋸解地獄)이 묘사되었다. 제8 평등대왕은 망자의 백일째를 관장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죄인들이 무거운 바위에 짓눌리는 형벌을 받는 중합지옥(衆合地獄)이 그려졌다. 제9 도시대왕은 망자의 일주기를 관장하는 왕으로, 이곳에는 죄인들이 얼음산에서 추위의 고통을 받는 한빙지옥(寒氷地獄)이 그려졌다. 제10 오도전륜대왕은 망자의 3주기를 관장하는 대왕으로, 이곳에는 심판이 끝난 죄인들을 업보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로 보내는 장면이 그려졌다. 전반적으로 대원사 시왕도에 표현된 지옥 장면은 다소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감은 없지 않으나, 지옥의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매끄럽게 전개시키고 있으며,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의 고통스러움이나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의 초조함이 화면을 통해 잘 전달되고 있다.

중생을 명부세계로 데려가는 임무를 맡은 감재사자와 직부사자는 각각 백마와 하원장군, 청마와 상원장군이 표현되었다. 이들은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듯 기민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보인다.

색채는 지장보살도와 마찬가지로 온화한 황토바탕을 토대로 적색과 녹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황색이나 양록, 군청, 백색, 검은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필선은 비수(肥瘦)의 변화가 없는 철선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윤곽은 먹선을 사용하였고 백·황·적색 등 다양한 선으로 강조와 변화를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大原寺 冥府殿 地藏·十王·使者圖 畫記

* 화기는 송광사 성보박물관 관장 고경스님이 조사 관독한 것을 수록한 것임.

- 便宜上 縱書를 橫書로 整理.
- 聖寶文化財研究院, 『韓國의 佛畫』 松廣寺本末寺篇上·下, 1998.
에서 「寫眞」과 「石鼎스님 解說」등을 轉載.
- 正字로 고쳐 쓰되 混同될 수 있는 字는 그대로 씀.
- 予性은 削除한 部分.
- 判讀 不可能한 字는 □, 推測되는 字는 위에 傍點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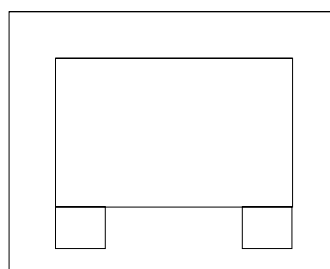
○ 끝에 書記를 綜合圖表化하고 註를 添附함.

○ 大原寺 冥府殿 地藏幀[圖]

* 1766年, 絹本彩色,

전체크기 226.0×177.0 그림크기 212.3×153.3

화기 향좌 ③ 29.2×8.2 향우② 29.1×8.2cm



① (向右)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日

地藏菩薩改金時後幀

各帖同成奉安于大原寺

冥府殿

奉爲

主上三殿下壽萬歲

大施主

基布施主悟心比丘

體金大施主尼妙性爲

母鄭氏兩主靈駕

面金施主大禪師幸仁

比丘

體金施主 智日

烏金施主 玉潤 比丘

徐太仲 靈駕

敬閑比丘爲

亡父孫起安兩主 靈駕

處士李正慎保體

腹藏施主德岑比丘爲

母崔氏正月

□岳堂明瑩比丘

通政道元比丘 印幸比丘

通政海善比丘 宇侃比丘

嘉善万善比丘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

等與衆生皆共成佛道

通政淑察比丘

嘉善惠

眼比丘

② (向左)

緣化秩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德旻

持殿 性陟 智一

誦呪 海寬 暎修

幸守 比丘

金魚 色旻 道善

有心 □贊

戒眼 戒憲

有明 瑞封

精□ □峰

戒海 □心

幸宗 □□

□軒 偉□

坦仁 □惠

供養主 孟俊 再坦

此仁 建活

警寬

茶角 淨察 朗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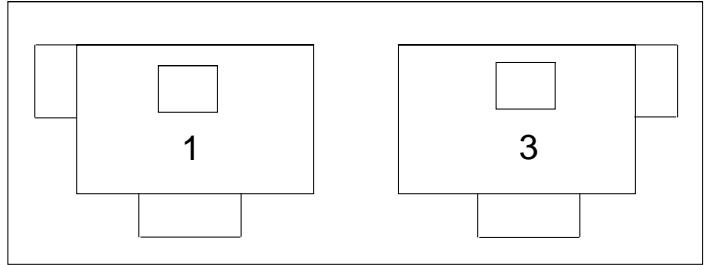
來往直岑
別座偉清
化主智卞
都監警愼
知賓都監太演
時住持允還
思倜
三綱
戒學
書記 益性

③ 都監本名竺愼

1. 大原寺 冥府殿 十王圖(第一 秦廣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5×176.9 그림 150.8×88.8cm.

* 第一秦廣大王과
第三宋帝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一秦廣大王

② 證明慈雲堂大禪 處寬 直岑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緣化秩 德旻 色旻 茶角 朗性
 持殿 性陟 金魚 有心 供養主 孟俊
 誦呪 海寬 此仁

別座前住持偉清	一亨	予性	思侗
化主 智卞	老德秩	慧圭	極軒
大都監前住持警愼		衆玄	三綱 戒學
		幻信	書記 益性

* 第三宋帝大王과 共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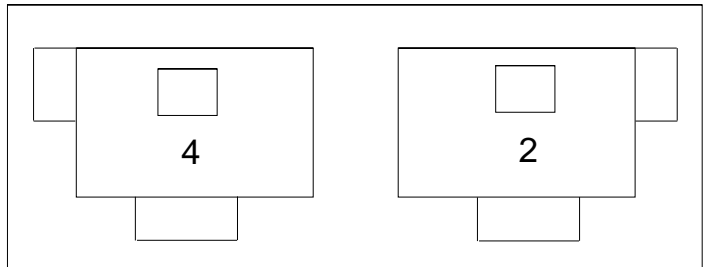
③ 施主秩

嘉善尙玄比丘
 覺還比丘
 照榮 比丘
 獲心
 守閑 比丘
 愼行
 姜善白
 雪仁爲母金氏
 信眞爲母金氏
 林氏攝心爲母尹氏
 一訓爲母朴氏

④ 參羅殿

2.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二 初江大王)

-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5×177.0 그림 151.0×88.0cm
- * 第二初江大王과
第四五官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二初江大王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日	證明	慈雲堂大禪師處寬	色旻
	緣化秩	德旻	金魚有心
	持殿	性陟	供養主 孟俊
	誦呪	海寬	此仁
		幸守	茶角 朗性

別座 偉清	前任住持 善己	一亨	慧圭	思倜
化主 智卞	前任住持 泰演	老德秩	衆賢	戒學
大都監 警愼本名竺信	前任住持 淨察		幻信	三綱 極軒
	前任住持 寬性	時住持 允還		書記 益性

* 第四五官大王과 共通

- ③ 施主秩 尹氏爲母
 六豁 林氏
 比丘尼 廣活卞
 祿尊 文信 爲母
 淨律 比丘尼 文益
 崔善義妻馬氏萬金
 德察比丘 通政快閑
 金再英 兩主 通政世訓
 安世訓 通政思瑩
 鵬海爲母朴氏
 世坦比丘
 松波堂曰明
 宝察比丘
 基布施主本邑尹氏
 崔氏

嘉善再坦
得林爲母鄭氏
泰瑞爲母金氏

金務先

通政六性
通政震云
通政震澤
嘉善進玉
嘉善處學
若澗爲
母李氏
連丹
蔡氏順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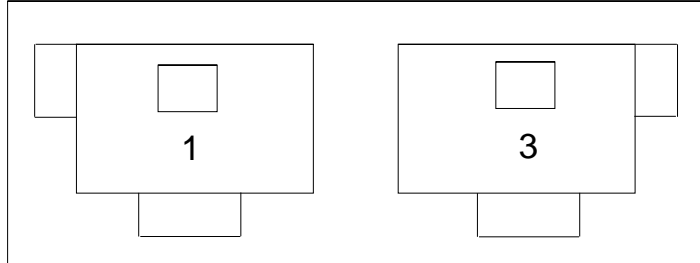
④ 閣羅殿

⑤ 都監 竺愼

3.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三 宋帝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5×176.9 그림 150.8×88.8cm

* 第一秦廣大王과
第三宋帝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三宋帝大王

②

證明慈雲堂大禪	處寬	直岑
德旻	色旻	茶角
性陟	有心	供養主
誦呪	海寬	此仁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緣化秩

別座前住持偉清	一亨	予性	思侗
化主	智卞	老德秩	慧圭
大都監前住持警愼		衆玄	三綱
		幻信	書記
			極軒
			戒學
			益性

* 第一秦廣大王과 共通

③ 施主秩
 等任比丘
 權益爲母高氏
 果明比丘
 與安比丘
 妙性比丘尼同生法行靈駕
 卽念比丘
 通政就心比丘
 泰性爲母金氏
 卽英比丘 通政戒益
 嘉善是清比丘
 嘉善金貴禮 智性

 通政玉卞
 通政大有 嘉善就訓
 通政若律 通政淑察
 如仁爲母徐氏 通政海善

④ 冥羅殿

4.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四 五官大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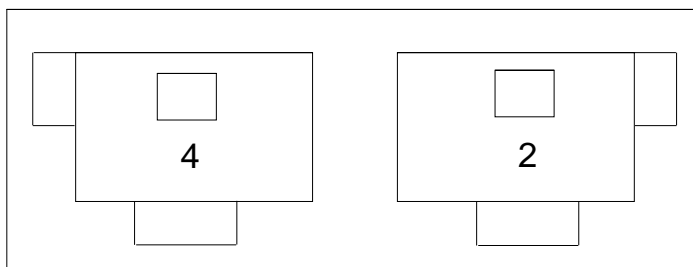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5×177.0 그림 152.0×89.0cm

* 第二初江大王과

第四五官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四五官大王

乾隆三十一年丙戌五月日	證明	慈雲堂大禪師處寬	色旻
	緣化秩	德旻	金魚有心
	持殿	性陟	供養主 孟俊
	誦呪	海寬	此仁
		幸守	茶角 朗性

別座 偉清	前任住持 善己	一亨	慧圭	思倜
化主 智卞	前任住持 泰演	老德秩	衆賢	戒學
大都監 警愼本名竺信	前任住持 淨察		幻信	三綱 極軒
	前任住持 寬性	時住持 允還		書記 益性

* 第二初江大王과 共通

③ 施主秩

嘉善權大才

心悅比丘

熙鑑爲母金氏保體

祥雲爲母朴氏

姜謂得

嘉善金逸千

通政見賢爲

亡師俊察

通政思淑

通政眞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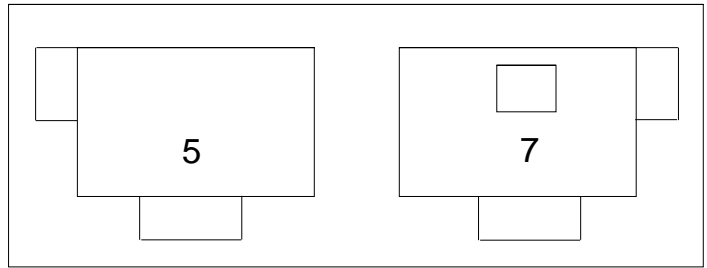
抱行

李項元

④ 冥羅殿

5.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五 閻羅大王)

-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2x176.5, 그림 151.5x88.0cm.
- * 第五閻羅大王과
第七泰山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五閻羅大王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緣化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誦呪	海寬
	德旻		幸守
	持殿 性陟	金魚	色旻
			有心

供養主	孟俊 別座前任住持偉清	前住持 善己	時住持允還
	此仁 化主 智卞		
茶角	直岑 大都監前任住持警愼	前住持 寬性	
	朗性	前住持 淨察	

一亨	予性	思侗
老德秩	慧圭	極軒
	衆玄	三綱
	戒學	
	幻信	書記 益性

* 第七泰山大王과 共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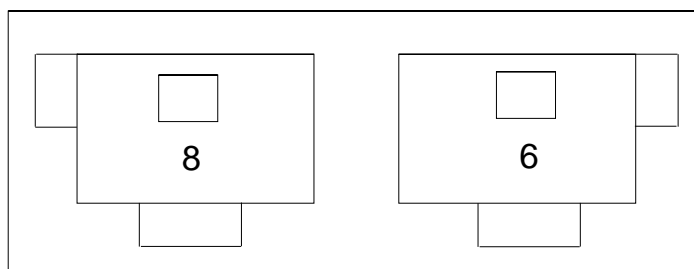
③ 施主秩
寬陟比丘 爲 靈
亡父老職嘉善朱繼聖 駕
寶益比丘
崔昇男伊
乃義比丘
念益比丘
德寬 比丘
抱日
嘉善潤律比丘
道旻比丘尼
太悟比丘
致賢比丘
通政思淑
通政眞寶

抱行
李項元

6.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六 變成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5x177.0, 그림 151.7x87.9cm.

* 第六變成大王과
第八平等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六變成大王

②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金魚	色旻
緣化秩 持殿	海寬	有心
誦呪	幸守	供養主 孟俊
		此仁
		致寬

別座 偉清	前住持 善己	予性	思倜
化主 智卞	前住持 太演 一亨	慧圭	戒學
大都監 警愼 前脚秩	前住持 淨察 老德秩	衆玄 三綱	極軒
	前住持 寬性	幻信	
茶角 朗性	時住持 允還	書記 益性	

* 第八平等大王斗 共通

③ 施主秩

謂心爲母 朴氏
 崔德龍爲母 林氏
 守安爲父母 申義發
 永摠爲母 崔順今兩主
 智海爲母 金氏順今
 通政金再元
 嘉善徐重弼
 宇侃爲
 生母丁氏
 嘉善慧眼比丘
 通政最暎比丘
 勝學比丘 爲
 亡母宋氏己春靈駕
 幸守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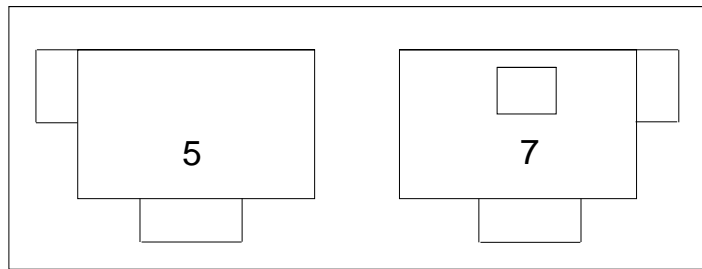
中己明察兄弟爲
 父鄭世雲爲
 母表蓮湯

④ 冥羅殿

7.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七 泰山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94.2x176.5, 그림 152.0x87.9cm.

* 第五閻羅大王과
 第七泰山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七泰山大王

②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德旻 持殿 性陟	誦呪	海寬
		金魚	幸守 色旻 有心

供養主	孟俊	別座前任住持偉清	前任住持 善己
	此仁	化主 智卞	前任住持 太演
茶角	直岑	大都監前任住持警愼	前任住持 寬性
	朗性		前任住持 淨察

前脚秩 時住持允還

一亨	予性	思侗
老德秩	慧圭	極軒
	衆玄	三綱 戒學
	幻信	書記 益性

* 第五閻羅大王과 共通

③ 施主秩
 壯海比丘 聖祐比丘
 義華比丘 玉閑比丘
 侶淑比丘
 大日比丘爲母金氏
 平贊比丘爲母金氏
 住日比丘爲父鄭再宇
 爲母池氏
 通政秋登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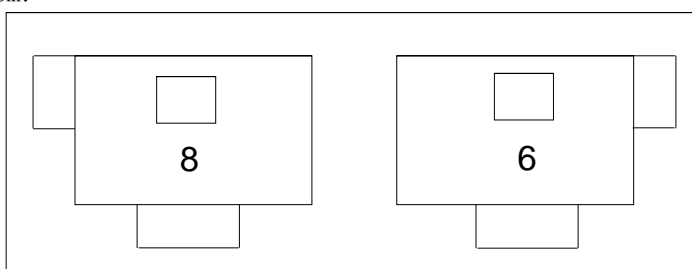
念行爲母李氏
 德軒比丘尼
 玄益比丘
 嘉善金寶乙音
 平元爲
 亡母金江河致
 通政最湜比丘

④ 冥府殿

8.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八 平等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진채 194.5x177.0, 그림 151.7x87.0cm.

* 第六變成大王과
 第八平等大王을
 같은 폭에 그림.



① 第八平等大王

②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金魚	色旻
緣化秩 持殿	海寬	有心
誦呪	幸守	供養主 孟俊
		此仁
		致寬

別座 偉清	前住持 善己	予性	思倜
化主 智卞	前住持 太演	一亨 慧圭	戒學
大都監 警愼	前住持 淨察	老德秩 衆玄	三綱 極軒
	前住持 寬性	幻信	
茶角 朗性	時住持 允還		書記 益性

* 第六變成大王과 共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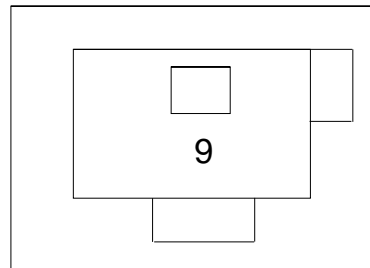
③ 施主秩
 李泰謂
 智海比丘
 刹俊爲母魯氏
 自友
 比丘
 呂學
 察焄
 趙元信

清特比丘
 通政 金五藏
 通政 演洽比丘
 嘉善 日暎比丘
 通政 智花比丘
 福連比丘

④ 闔王殿

9.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九 都市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76.5x100.5, 그림 152.5x91.0cm.



① 第九都市大王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緣化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誦呪	海寬	供養主	孟俊
	德旻	幸守	色旻	茶角	此仁
	持殿 性陟	金魚	有心		直岑
					朗性

別座前任住持偉清	前任住持善己	一亨	予性	思倜
化主 智卞	前任住持太演	老德	慧圭	極軒
大都監前任住持警愼	前脚 前任住持淨察	時住持允還	衆玄	三 戒學
	前任住持觀性		幻信	書記 益性

③ 施主秩
 淑演比丘
 直閑比丘
 禹陟比丘
 彦聖比丘
 淨訓比丘
 淑穎比丘
 梁呂泰
 道仁比丘
 巨封比丘爲亡母
 李氏起春靈駕
 通政最活比丘
 通政如察靈駕

宇侃比丘

來往直岑比丘

都監警慎比丘

別座偉清比丘

大化主智辯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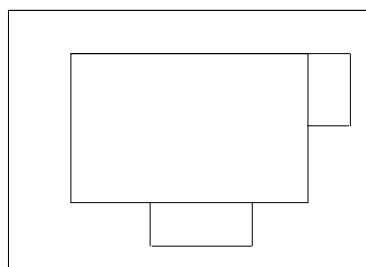
緣化秩

④ 辦決樓

10. 大原寺 冥府殿 十王幀[圖](第十 五道轉輪大王)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76.5x100.5, 그림 151.0x90.5cm.



① 第十五道轉輪大王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誦呪	海寬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德旻	幸守
緣化秩	性陟	供養主 孟俊
持殿		此仁

別座 偉清	金魚	色旻	一亨	前任持善己
化主 智卞		有心	予性	前任持太演
		戒眼	老德 慧圭	三 前任持寬性
大都監前任持警慎本名竺信			衆玄	前任持淨察
			幻信	

思侗
戒學
時住持允還
三綱 極軒
書記 益性

③ 施主秩
寬陟比丘爲亡

母淑夫人崔氏善良

亡師成洽靈駕

出身姜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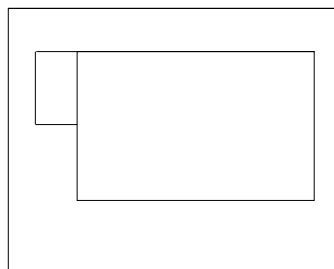
元澄爲母丁氏

淨蓮爲母梁順德
 玉還比丘
 太性爲母田氏
 金得慶
 朴雲尙
 金氏後碍
 應休比丘
 朴氏月梅
 金致元
 通政處明比丘
 嘉善芳現比丘
 宇侃爲
 亡父黃時伯靈駕

11. 大原寺 冥府殿 使者幀[圖](監齋使者)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76.5x91.5, 그림 152.5x80.2cm.



① 監齋使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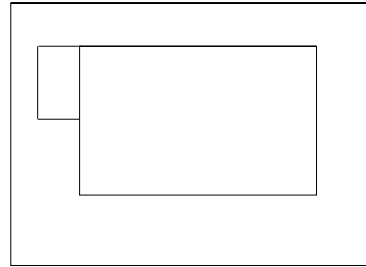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緣	證明慈雲大禪師處寬	金魚	色旻
	德旻		有心
	持殿 性陟	供養主	孟俊
	誦呪 海寬		此仁
			致寬

別座前任住持偉清	前任住持善己	予性	思侗
化主 智卞	前任住持太演	一亨 慧圭	極軒
大都監前任住持警愼	前脚 前任住持淨察	老德 衆玄	三綱 戒學
本名竺信	前任住持觀性	幻信 書記	益性
	時住持允還		

12. 大原寺 冥府殿 使者幀[圖](直符使者)

* 1766年, 絹本彩色,

전체 176.5x91.5, 그림 151.5x81.5cm.



① 直符使者

② 證明慈雲堂大禪師處寬 誦呪 海寬
 乾隆三十一丙戌五月日 緣化秩 德旻 幸守
 持殿 性陟

色旻 孟俊 直岑 大都監前任持警愼本名竺信 前任持淨察
 金魚 有心 供養主 此仁 茶角 朗性 別座 前任持偉清 前脚秩前任持善己
 戒眼 致觀 化主 智卞 前任持太演

一亨 思侗
 予性 三綱秩 極軒 書記 益性
 老德秩 慧圭 戒學
 衆玄

3.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8.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1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3년 제1차 회의(2.1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지정예고(’13.2.28~3.30)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보성선원((재)선학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8안길 35
- 수 량 : 불상 3점, 복장유물 10건 129점
- 규 격 : 석가불좌상 148.0cm, 문수보살상 139.0cm, 보현보살상 139.0cm
복장유물 하단참조
- 재 질 : 나무, 비단 등
- 형 식 : 불, 보살 삼존
- 제작연대 : 불상 1647년(인조 25)

○ 작 자 : 현욱(玄旭), 나흠(懶欽), 현감(玄鑑)

<복장유물>

연번	명칭	재질	수량(점)	연대	크기 (cm)	비 고
1	석가여래복장후령통	동, 비단	13	1647년	-	
2	석가여래발원문	종이	1	1647년	57.5×45.4	
3	석가여래다라니 (대불정수능엄신주)	종이	51	조선 후기	48.0×30.0	범문목판본 (朱印)
4	좌협시복장후령통	동,비단	13	1647년	-	
5	좌협시발원문	종이	1	1647년	45.7×84.0	
6	좌협시다라니 (대불정수능엄신주)	종이	16	조선 후기	44.0×30.5	범문목판본 (朱印)
7	우협시복장후령통	동,비단	14	1647년	-	
8	우협시발원문	종이	1	1647년	46.0×88.2	
9	우협시다라니 (대불정수능엄신주)	종이	18	조선 후기	47.5×24.2	범문목판본 (朱印)
10	불정심관세음보살모 다라니	종이	1	1647년	28.0×48.5	한문목판본 (朱印) 간기:丁亥四 月見岩寺
총				10건 129점		

라. 조사자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조성기(조성원문)를 통해서 최초의 봉안사찰을 비롯해서 조성시기와 발원자, 조각승 등을 알 수 있는 불상이며 복장물도 풍부하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보성선원 소장 목조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불상을 대표하는 수준작일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현욱

(玄旭), 나흠(懶欽), 현감(玄鑑) 등이 조선시대 1645년에 거창 고견사[견암사]에서 조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현욱이 수화승으로서 조성한 첫 번째 예이며, 현욱과 관련되는 화승 계보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되고 있다. 불상과 협시보살상에서 각각 발견된 완전한 형태의 후령통과 다량의 복장 유물은 17세기 중반의 불상 복장 연구 뿐만아니라 불교 신앙 연구에 많은 도움 준다. 보성선원 소장 목조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기년작으로서 조각 수준도 우수하고 복장물도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석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후령통을 비롯하여 조성발원문, 복장전적 등 조성 당시의 원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성발원문을 통해 1647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봉안사찰, 조성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이 된다. 조각적인 경향에서 작자 특유의 천진무구한 얼굴에 당당하고 장대한 신체비례와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선묘에서 조각승 현욱의 조각세계를 엿 볼 수 있다. 현욱은 17세기의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한사람인 청허(靑虛)의 조각전통을 이어 받았지만, 턱이 짧고 살이 많은 양악의 특징적인 표현은 현진이나 수연의 조각 경향도 일부 수용한 듯하여 당시 활약했던 조각승들 간의 교류관계도 엿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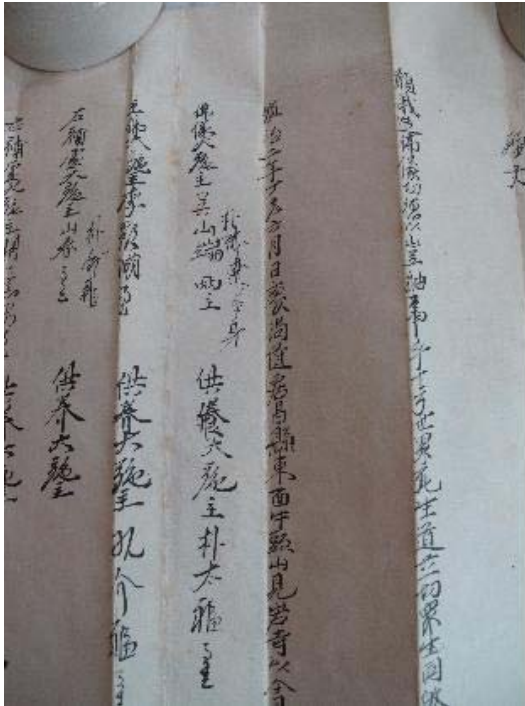
이 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청허의 계보를 잇는 현욱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이며, 이 작품을 통해 청헌(또는 청허) 유파의 조각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승·발전되어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욱 역시 나름 17세기의 시대적인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미와 종교성 속에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작품은 그러한 경향이 잘 담겨 있는 불상으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1. 가 ()



2. 가

○ 현 상

현재 보성선원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삼존불상은 중앙의 석가불을 본존으로 하여 문수와 보현보살이 좌우에서 협시



3.



4.

하는 석가·문수·보현의 삼존상으로서 이 삼존불상의 개금불사가 이루어진 2010년 6월에 삼존불상의 복장이 조사되어 경남 거창 소재의 견암사(見岩寺)에서 현욱(玄旭)과 나흠(懶欽), 현감(玄鑑)의 세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작 시기는 본존석가상의 조성기에는 ‘順治二年六月日’이라고 적혀 있고, 좌우 협시보살상의 조성기에는 ‘順治二年丁亥六月日’로 적혀있는데, 순치 2년은 을유년(乙酉年)으로 1645년이고, 정해년은 1647년이므로 삼존불상의 제작시기는 1645년 혹은 1647년이 될 것이다(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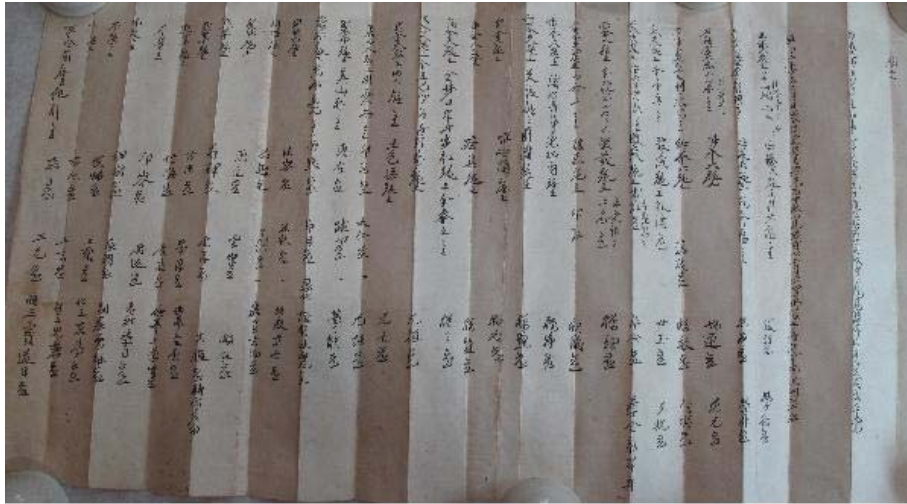
본존 석가불상(도 2)은 전체높이 148cm로 불신(佛身)에 비해 불두(佛頭)가 큰 편이다. 육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둥근 머리의 중앙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가, 정상에는 동그란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방형의 얼굴은 가늘고 길게 반개한 두 눈과 우뚝한 콧날, 일자로 다문 커다란 입의 표현에서 위엄있고 자비로운 상호가 나타난다. 목은 굽은 편이며 아래쪽에는 삼도(三道)가 음각되어 있고 두부에 비해 좁은 어깨위에 편단우견식으로 착의한 대의(大衣) 어깨주름은 층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다. 편평한 가슴위로 내의(內衣)가 꽃잎처럼 접혀져 있으며 길상좌(吉祥坐)로 앉은 다리 위를 덮은 옷주름은 양쪽 무릎에서 층단을 이루고 발목위로 물결주름을 이룬다. 수인(手印)은 오른 손을 살짝 아래로 내려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대어 설법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향우)의 문수보살좌상(도 3)은 높이 139cm로 본존상보다 약간 작은 크기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역시 방형이고 넓은 이마에 콧날이 오뚝하고 인중은 넓으며 턱이 짧은 편이다. 양 어깨 위에는 보발(寶髮)이 늘어져 있으며 쇼올같은 형태의 천의(天衣)를 걸치고 양 팔에는 팔찌를 끼고 있다. 천의자락은 양 손목을 돌아서 내려오며 가슴에는 내의가 꽃잎형태로 접혀져 있고 그 아래로 넓은 띠주름과 치마[裙]가 표현되어 있다. 손목에 끼워져 있는 양 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다.

오른쪽(향좌)의 보현보살좌상(도 4)은 문수보살좌상과 같은 크기로 착의형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점에서 앞의 문수보살상과 동일하다. 이 상은 대의(大衣) 형태의 보살옷을 입고 있는데, 본존상 같이 편단우견의 착의형식이 아니라 대의 한 벌을 입고 그 위에 다시 가사를 걸쳐 두 벌을 착의한 모습이다. 가슴에는 내의가 사선으로 접혀져 있으며 그 위로 치마[裙] 윗단이 밖으로 접어 내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삼존상의 복장에는 각각 접혀 있는 조성기(도 5)와 함께 유기로 만든 합(盒) 형태의 용기에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복장물에서 보이는 후령통이 아닌 유기합을 명주 보자기로 싸고 다시 오색실로 묶었다(도 6). 합의 둘레로 원

(西, 萬曆通寶로 대체), 반월(北), 세모(南), 네모(東) 형태의 금속판을 붙여서 실로 감았고 함 밑에는 동전(中方鏡, 본존상은 熙元通寶로 대체)을 놓았다. 함 안에는 오방의 다섯가지 보병(五寶瓶) 대신에 오색(청, 홍, 백, 흑, 황색) 비단을 말아서, 대맥·생금·향(청색보병)을 비롯해서, 진주·감초·향(황색보병),



5.



6.



7.

벼·향·소황(황색보병), 녹두·유리·침향·웅황(흑색보병) 등, 여러 물품을 싸서 넣었다. 또한 양면 원경은 상마다 크기가 달라서 본존상에는 지름 5cm, 좌협시상에는 지름 4cm이다. 황초폭자는 본존상의 경우는 ‘文百年’이라는 시주자 이름이 묵서되어 있고, 좌협시보살상에는 정면에 ‘南’이라고 朱書되어 있다. 복장에는 이 밖에도 다량의 전적(典籍)과 다라니가 납입되어 있었는데, 본존상에는 51장, 좌협시보살상에는 16장, 우협시보살상에서는 18장의 다라니가 들어 있었다(도 7).



8. , 1648

○ 내용 및 특징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은 원래 봉안되어 있던 경남 거창 우두산의 견암사(見岩寺)는 조선초 1395년에 태조 이성계가 전 왕조인 고려의 왕씨들을 위해 시전 150결로 매년 2월과 10월에 수륙재를 거행했던 견암사(見巖寺)와 같은 사찰로 추정된다. 삼존상을 제작한 세 명의 조각승들 가운데 수조각승인 현욱에 대한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차조각승인 나흠은 청헌(淸憲)이 1639년에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불좌상의 9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43년에 조성된 진주 응석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의 5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48년에는 통도사 약사전의 석조약사여래좌상(도 8. 통도사 원효암 소재)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흠에 관한 현존 기록에서 2번이나 청헌의 보조 조각승으로 작업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현욱 역시 청헌계열과 연관이 있는 조각승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 권 7, 태조 4년 2월 戊子條.

『신증동국여지승람』 「거창 불우조」.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견암사(見巖寺) 현욱파(玄旭派) 석가삼존불상(釋迦三尊佛像)의 도상특징과 복장(腹藏) 연구」, 『講座美術史』 35, 2010.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현재 대구 보성선원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삼존불좌상은 확인된 복장기에 의하면, 원래 견암사(見巖寺)에 모셔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견암사는 해인사의 말사로, 현재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절이다. 고려시대 절인 고견사(古見寺)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조선시대 1592년에 견암사로 개명하였고, 다시 1630년에 중건하면서 고견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불상이 조성되던 1645년경에는 고견사라는 절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불상의 발원문에는 이전의 이름인 견암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1592년에 견암사 불상이 임진왜란 때 훼손되어 다시 불상을 조성하면서 고견사가 아닌 견암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란과 호란이 지난 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불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시 고견사에서조차 불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이들 불상을 조성한 듯하다.

2010년, 목조삼존불좌상에서 조성 연대와 배경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후령통, 다량의 불교 전적 등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삼존에서 각각 발견된 발원문은 내용이 같으며, 후령통 역시 모두 형태가 같으며, 납입 방법도 동일하다.

보성선원 소장 목조삼존불좌상은 약간 금박이 벗겨지긴 하였으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수종 분석에 의하면, 이들 삼존상의 따로 끼운 손은 모두 피나무로 제작되었으며, 불상의 몸체는 소나무로, 양협시 보살상의 몸체는 은행나무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 내용 및 특징

보성선원 소장 목조삼존불좌상은 모두 통견식으로 범의를 착용하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며, 균형이 잡혀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들 삼존은 전체적으로 허리가 긴 늘씬한 조형이지만, 무릎의 폭 또한 넓어서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다. 또한 오뚝하게 선 코, 넓은 이마, 옆으로 펼쳐진 듯한 눈과 입, 아래 입술보다 두터운 윗입술, 양쪽 무릎 전면을 가로 지르는 세 줄의 의습선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부채꼴 형태로 접혀진 복부 위 군의 자락의 표현은 주존과 좌협시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결가부좌한 오른쪽 발바닥이 완전히 노출된 좌협시보살상과 달리 주존과 우협시보살상은 발끝을 범의자락이 덮고 흘러내려 그 끝단이 각각 왼쪽 무릎 앞으로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원문에서 확인되듯이 여러 명의 화승이 불상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 작가성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존인 목조불좌상은 축지인의 오른손과 아미타불의 설법인과 같은 원손을 갖추고 있으며, 나발 형태의 머리와 그 정상과 중앙에 각각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양협시보살상들은 좌우 대칭되게 표현한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새 등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였고, 보발은 흘러 내려 양쪽 어깨 위에서 몇 가닥으로 표현되었다. 이들 삼존상은 범의를 상당히 두텁게 조각하였지만, 각각의 주름은 신체의 굴곡을 따라 부드럽고 유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양협시보살상의 가장 큰 차이는 우협시보살상이 주존의 범의 착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반면, 좌협시보살상은 범의가 좌우대칭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의 위에 다시 천의를 걸쳤다는 것이다. 즉 좌협시보살상에서 주목될 만한 것은 범의식과 천의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발원문에 보이는 화승 현욱과 나흠은 같은 해인 조선시대 1645년에 조성된 상주 남장사 아미타삼존불상의 화승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상주 남장사 아미타삼존불상은 청허(淸虛)를 수화승으로 하여 영색(英蹟), 현욱(玄旭), 천휘(天輝), 나흠(懶欽), 법찬(法燦)이 조성한 것이다. 보성선원 목조삼존불좌상의 양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장사 아미타삼존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이 간취되는 것도 다 이러한 배경과 관련된다.

○ 문헌자료

보성선원 소장 목조삼존불좌상에서 각각의 발원문[願文]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불상과 보살상은 경상도 거창현 동면 우두산(牛頭山) 견암사(見岩寺)에서 오산단(吳山端) 부부 등의 시주를 받아 조성되었다. 당시 고견사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하여 이들 삼존상을 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시주하였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불상과 양협시보살상의 순치 2년(1645)명 년기와 협시보살상들의 발원문에 보이는 간지[丁亥: 정해년은 1647년]가 일치하지 않지만, 정황상 조선시대 1645년 6월 24일에 이들 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을 조성한 사람은 현욱(玄旭), 나흠(懶欽), 현감(玄鑑) 등이다.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조불좌상의 발원문 내용:

願文

願我造佛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覺

順治二年六月日慶道居昌縣東面牛頭尙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

列于后」

佛像大施主吳山端兩主朴戒達單身」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朴命福兩主」右補處大施主權應男兩主」

面金大施主金希眞兩主」面金大施主梁无(無)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單身」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單」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烏金大施主金夢日單身」烏金大施主全竟單身」

烏金大施主內隱鶴兩主」褁袍施主朴愛男兩主」

褁袍施主吳山福兩主」褁袍施主高承竟兩主」

開眼大施主」開眼大施主」開眼大施主」

點筆施主」點筆施主」點筆施主」

布施主施主」布施主施主」布施主施主」

共養大施主朴太福兩主」供養大施主孔介福兩主」

供養大施主」供養大施主應談比丘」

供養大施主」腹選{大施主釋湛比丘」腹選{大施主三允比丘」朴順男兩主」

腹選{大施主印珠比丘」腹選{大施主雷雄比丘」姜愛福兩主」

朱紅施主金奉立兩主」泥師團施主」圃團施主」座具施主」

喉吟筒施主仇福兩主」五色絲施主」綿子施主」

印珠比丘」惠准比丘」雲默比丘」法岑比丘」灵(靈)鑑比丘」

惠元比丘」普輝比丘」宗海比丘」信英比丘」印岑比丘」

坦湖比丘」德融比丘」古仁比丘」惠日比丘」太仁比丘」

印球比丘」雷嘗比丘」淨日比丘」法林比丘」日訓比丘」

處淳比丘」處能比丘」處還比丘」學淳比丘」敬湖比丘」

三機比丘」三玄比丘」三允比丘」道行比丘」思淨比丘」

妙連比丘」禪敏比丘」雷玉比丘」卓令比丘」禪坦比丘」

禪機比丘」禪淨比丘」禪照比丘」禪洽比丘」禪日比丘」

禪贊比丘」元植比丘」元六比丘」元坦比丘」學能比丘」

學哲比丘」惠元比丘」信英比丘」文悅比丘」居士金影單身」

緣化」

證師性寬比丘」持殿慈雲比丘」

畫員玄旭比丘」懶欽比丘」玄鑑比丘」侍者亥伊單身」

供養主雷雲比丘」供養主學清比丘」來往僧學日比丘」

別座雷雄比丘」大化士惠學比丘」化士思慧比丘」

時三寶道日比丘」

2. 좌협시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

願文

願我造佛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道六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覺」

順治二年丁亥六月日慶尙道居昌縣東面牛頭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列于后」

佛像大施主吳山端兩主」朴戒達單身」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朴命福」右補處大施主權應男兩主」

面金大施主金希眞兩主」面金大施主梁无(無)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單身」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單」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黃金大施主」黃金大施主」烏金大施主金夢日單身」

烏金大施主全竟伊單身」烏金大施主內隱鶴兩主」

褰布大施主朴愛男兩主」褰布施主吳山福兩主」褰布施主高承竟兩主」

開眼大施主」開眼施主」開眼施主」點筆施主」點筆施主」點筆施主」

布施主」布施主」布施主」布施主」喉吟筒施主仇福兩主」

供養大施主朴太福兩主」供養大施主孔介福兩主」

供養大施主」供養大施主應談比丘」

腹選{施主釋湛比丘」腹選{施主雷雄比丘朴順男兩主」

腹選{施主三允比丘姜愛福兩主」腹選{施主印珠」

泥師團施主」圍團施主」喉吟筒施主」座具施主」

朱紅施主金奉立兩主」荷葉施主」五色絲施主」

印珠比丘」惠准比丘」雲默比丘」法岑比丘」灵(靈)鑑比丘」

惠元比丘」普輝比丘」宗海比丘」信英比丘」印岑比丘」

坦湖比丘」德融比丘」古仁比丘」惠日比丘」太仁比丘」

球印比丘」淨日比丘」法林比丘」日訓比丘」雷嘗比丘」

處淳比丘」學淳比丘」處能比丘」處還比丘」敬湖比丘」

三機比丘」三玄比丘」三允比丘」道行比丘」思淨比丘」

妙連比丘」禪敏比丘」雷玉比丘」卓令比丘」禪坦比丘」

禪機比丘」禪淨比丘」禪照比丘」禪洽比丘」禪贊比丘」

禪日比丘」元植比丘」元六比丘」元坦比丘」學能比丘」

學哲比丘」學林比丘」惠元比丘」信英比丘」文悅比丘」居士金影單身」

緣化」

證明性寬比丘」持殿慈雲比丘」
畫員玄旭比丘」懶欽比丘」玄鑑比丘」侍者亥伊」
供養主雷雲比丘」供養主學清比丘」來往學日比丘」
別座雷雄比丘」化士惠學比丘」化士思慧比丘」
時三寶道日比丘」

3. 우협시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

願文

願我造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覺」

順治二年丁亥六月日慶尙道居昌縣東面牛頭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列于后」

佛像大施主吳端兩主」朴戒達單身」
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朴命福兩主」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右補處大施主權應男」
面金大施主金希眞兩主」面金大施主梁无(無)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兩主」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兩主」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烏金大施主金夢日兩主」烏金大施主全竟兩主」
烏金施主內隱鶴兩主」褰布施主吳山福兩主」
褰布施主朴愛男兩主」褰布施主高承竟兩主」
開眼施主」開眼施主」開眼施主」
點筆施主」點筆施主」布施主兩主」布施主」
供養大施主太福施主兩主」供養大施主孔介福兩主」
供養大施主」供養施主」
腹還{施主釋湛比丘」腹還{施主三允比丘」
腹還{雷雄比丘」腹還{朴順男兩主」座具施主」
喉吟筒施主仇福兩主」五色絲施主」綿子施主應談比丘」
寺內印珠比丘」惠准比丘」法岑比丘」雲默比丘」
靈鑑比丘」惠元比丘」普輝比丘」宗海比丘」
信英比丘」印岑比丘」坦湖比丘」德融比丘」
古仁比丘」惠日比丘」太仁比丘」印珠比丘」
雷豈比丘」淨日比丘」法林比丘」日訓比丘」

處淳比丘」學淳比丘」處還比丘」處能比丘」
 敬湖比丘」三機比丘」三玄比丘」三允比丘」
 道行比丘」思淨比丘」妙連比丘」禪敏比丘」
 雷玉比丘」卓令比丘」禪坦比丘」禪機比丘」
 禪淨比丘」禪照比丘」禪洽比丘」禪日比丘」
 禪贊比丘」學哲比丘」學能比丘」元植比丘」
 元六比丘」元坦比丘」惠元比丘」信英比丘」文悅比丘」居士金影單身」
 緣化」
 證明性寬比丘」持殿慈雲比丘」
 畫員玄旭比丘」懶欽比丘」玄鑑比丘」侍者亥伊單身」

○ 소장 경위

전언에 의하면, 경상남도 거창의 고견사는 6.25 전쟁 때 소실되었는데, 이 때 이들 불상들은 화를 면하여 지금의 보성선원과 인연이 있는 원각사에 봉안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보성선원으로 이관되어 모셔졌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곳에 봉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40여 년 전이라고 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이 석가여래삼존좌상은 원래 거창 견암사(見岩寺)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다. 사찰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견암사는 한국전쟁으로 불타 폐사되었으나, 다행히 화를 면한 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보성선원 창건주인 보혜스님의 부친인 성공스님이 원각사(대구시 남산 3동 주민센터 부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성공스님의 입적(1973년경 추정) 이후 원각사에서 다시 보성선원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나 정확한 이안, 봉안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삼존상을 원래 모셨던 견암사는 667년(문무왕 7년)에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하며, 창건 당시의 寺名은 고견사였다가 1271년(고려 원종 2년)에 고견사가 거제에 이속되면서 견암사로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조선 태조 4년에는 관음굴(觀音窟), 삼화사(三和寺)와 함께 국행 수륙재(水陸齋)를 거행하는 수륙사로 지정될 만큼 높은 사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운현(雲賢), 금복(金福), 종해(宗海) 세 분의 스님이 중창하면서 고견사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6.25 전란으로 사찰이 소실되었지만 1980년대 다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로는 1630년에 제작된 동종(보물 제1700호)과 석불(경남 유형문화재 제263호)이 전한다.

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따르면, 이 상들은 순치(順治) 2년 정해년(丁亥

年)에 조성된 것이다. 불상 제작에는 불상대시주(佛像大施主) 오산단(吳山端)를 비롯한 재가신도와 복장대시주(腹藏大施主) 인주비구(印珠比丘) 등 승려들이 함께 동참하였고, 조각은 성관비구의 증명(證明) 아래 현욱(玄旭), 나흠(懶欽), 현감(玄鑑)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불상의 제작연대로 기록된 순치 2년은 원래 을유(乙酉)년이고, 정해년은 순치 4년이다. 불상의 제작시기가 연호(年號)를 기준으로 하면 1645년이 되고 간지(干支)를 기준으로 하면 1647년이 된다. 이러한 예는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발원문 등 조선후기 불교미술품에서 간혹 보이는데, 아마도 자주 변하는 연호에 기록자의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제작시기를 결정할 때는 착오의 소지가 적은 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성선원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화려한 보관을 쓴 협시한 전형적인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 석가여래의 협시보살은 문수, 보현보살로 알려져 있으나, 여수 흥국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이나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좌상의 예처럼 석가·미륵·제화갈라의 수기삼세불(授記三世佛) 형식이 대웅전의 삼존형식으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발원문 상에서 정확한 존명이 나오지 않는 한 선불리 존명을 부여할 수 없다.

본존 석가여래는 향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좌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우견편단식이다. 둥글게 처리한 머리에는 따로 만든 나발을 촘촘히 부착하였고, 육계는 불명확하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이목구비도 뚜렷하다. 고요히 뜬 시선은 사바세계를 굽어 살피듯 자비롭고, 얇은 입술에는 양 입가를 살짝 눌러 열은 미소를 짓고 있다. 특히 높은 콧날 짧은 턱과 살이 많은 양악에서 오는 얼굴 표정에서 작자 특유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직선의 선묘로 위주로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곡선의 선묘로 변화를 주었다. 당당한 가슴에는 균의의 끝단을 다섯 개의 꽃잎모양으로 맵시 있게 접어 멋을 내었고, 그 아래로 균의를 조여 맨 띠 자락의 여운이 남아 있다. 결과부좌한 무릎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처리하였고, 오른발 아래로 부메랑처럼 드리운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수평 2단 주름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는 크고 어깨는 넓어 안정되고 당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가 다소 크고, 당당함이 넘쳐나는 신체 비례와 형태, 강약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일정한 깊이의 힘찬 선묘 등에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이나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좌

상,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청헌(또는 靑虛)의 작품과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수조각승 현욱이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을 보조하였고, 차조각승 나흠 역시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보조하였기 때문에 청허의 작품 경향이 이들 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헌의 정돈된 상호(相好)에 비해 눈썹 끝이 깊어 입체적이고 뚜렷하며, 편평했던 콧등도 날렵하게 날이 서 있다. 또한 큰 입의 입술은 더욱 얇아졌으며 턱은 짧고 양악의 양감이 부각되어 현욱 특유의 조각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상의 개성 있는 얼굴도 본존과 마찬가지로 천진한 인상을 주며, 착의법은 본존불과 달리 좌우협시 보살상은 천의식과 이중착의(二重着衣)로 변화를 주었다. 두 상의 수인은 양손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처럼 엄지와 중지를 등글게 맞대게 하되, 좌우 손이 상호 대칭이 되게끔 하여 조형적 안정을 기하였다. 보관은 화염, 구름, 봉황, 꽃무늬, 여의주, 연화범문(蓮花梵文) 등을 따로 제작하여 꽃잎모양으로 능을 준 모판(母板)에 부착하여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특히 연꽃의 연육(蓮肉) 부분을 범어(梵語) ‘음’자로 새긴 것이 특징인데, 이 보다 앞서 제작된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44년)의 좌협시 보살상의 보관에서도 확인된다. 경흥사 석가여래삼존좌상 역시 이 상을 만든 현욱과 나흠이 부화원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조각적으로 연관성을 갖는다.

머리는 2갈래의 상투로 단정하게 땡아 올렸으며, 양 어깨에는 귀의 뒤쪽과 귓불을 가로질러 내린 2가닥의 머리카락을 엮어 어깨 위에서 3개의 타원형 고리 모양을 이룬 뒤 다시 세 갈래로 흘러내렸다. 귀에는 동판으로 따로 만든 화형의 귀고리와 손목에는 등글게 머리를 맞댄 여의두형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노출된 오른발은 크고 둔중하게 표현되었다. 좌협시 보살상의 천의식 착의법과 머리를 등글게 말아 맞댄 여의두형의 팔찌는 남장사 관음보살상이나 경흥사 관음보살상의 표현과 흡사하다.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나 비례, 주름의 표현, 양감 등은 본존불과 거의 같지만, 우협시 보살상이 다른 상에 비해 콧날이 다소 낮고 균의의 끝단을 수평 사선접이 식으로 처리한 것이 차이점이다.

삼존상의 복장에서는 다량의 경전과 함께 후령통(喉鈴筒)도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형태는 합(盒)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7세기 불상에서는 드문 고식(古式)의 형태이다. 후령통 내에는 청·적·백·흑·황의 오색비단으로 오보병을 만들어 안립(安立)하였다. 후령통의 바깥 면에는 오방색으로 사방주(四方呪)를 적고, 후혈에서 뽑아낸 오색실로 오방경을 고정하였다. 현재 사방주는 탈락이 심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오방경도 해체된 상태이다. 오방경(五方鏡) 중 서방(西方)과 중방(中方)을 조선통보(朝鮮通寶, 1423년 발행), 원우통보(元祐通寶, 宋 철종 원우년간 1086~1093), 만력통보(萬曆通寶), 희원통보(熙元通寶) 등의 동전으로 대체한 것이 이채롭다.

○ 복장유물 목록

① 석가여래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복장 후령통	후령통	동	1	1647년경	높이 8.7 지름 8.2	*합(盒)의 형태 *오색실이 후혈로 빠져나와 있음.
	오보병	비단	5	1647년경		*청·적·백·흑·황색 등 5색 비단을 병처럼 말아 만들었음. *별도의 오곡, 오약을 넣은 뭉치가 2개 발견됨.
	양면원경	동	1	1647년경	지름 5.0	*가장자리를 八葉으로 말았음.
	오방경	동	5	1647년경	①방경(東) : 2.5×2.6 ②삼각경(南): 3.6×4.0 ③원경(西): 2.5 ④반월경(北) 2.5×4.0 ⑤원경(中): 2.5	* 후령통 바깥쪽 사방에 두고 후혈에서 나온 오색실로 감아 고정시킨 오방경임. * 서(원경) : 萬曆通寶로 대체하였고, 중(원경)은 熙元通寶로 대체하였음. 희원통보는 후령통 바닥에 둔 것임.
	황초폭자	비단	1	1647년경	34×39	* 한쪽 모퉁이에 ‘文百年’이라는 시주자명을 묵서함.
계	13점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북 장 후 령 통	후령통	동	1	1647년경	높이 8.0 지름 7.4	*합의 형태 *오색실이 후혈로 빠져나와 있음.
	오보병	비단	5	1647년경		*청-적-백-흑-황색 등 5색 비단을 병처럼 말아 만들었 음. *별도의 오곡(팥) 문치 1개 와 오약(인삼) 문치 1개가 발견됨.
	양면원경	동	1	1647년경	지름 4.0	*동판에 동전을 넣고 이를 팔엽형태로 해서 말았음.
	오방경	동	5	1647년경	①방경(東) : 3×2.5 ②삼각경(南): 3.0×3.5 ③원경(西): 2.5 ④반월경(北) 2.5×3.7 ⑤원경(中): 2.5	*후령통 바깥 네 면에 후혈 로 빼낸 오색실로 감아 고 정하였던 오방경임. *서(원경) : 朝鮮通寶로 대 체하였고, 중방경(원경)도 朝鮮通寶로 대체하였음. 中 方鏡은 후령통 바닥에 둔 것임.
	황초폭자	비단	1	1647년경	31.5×20.7	*정면에 '南'이라고 朱書함.
계	13점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부 장 후 령 통	후령통	동	1	1647년경	높이 8.0 지름 7.4	*합의 형태 *오색실이 분리되어 있음 (209cm)
	오보병	비단	5	1647년경	-	*청-적-백-흑-황색 등 5색 비단을 병처럼 말아 만든 오보병임. *별도의 오곡 문치 1개와 오약(인삼) 문치 1개 발견 됨.
	양면원경	동	1	1647년경	-	*동판에 짧은 자루가 달린 거울을 넣고 이를 팔엽형태 로 말았음.
	오방경	동	5	1647년경	①방경(東) : 3.1×2.5 ②삼각경(南): 3.4×3.0 ③원경(西): 2.5 ④반월경(北) 2.5×3.7 ⑤원경(中): 2.5	* 후령통 바깥 네 면에 후 혈로 빼낸 오색실로 감아 고정하였던 오방경임. * 서(원경) : 朝鮮通寶로 대 체하였고, 중(원경)은 元祐 通寶로 대체하였음. 중방 원경(元祐通寶)은 후령통 밑바닥에 둔 것임.
	황초폭자	비단	1	1647년경	-	
	직물편	비단	1	조선시대	13×10	*금색실로 문양을 넣었음.
계	14점					

① 본존 석가여래좌상 원문

願文

願我造佛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
覺順治二年六月日慶尙道居昌縣東面牛頭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列于后」

[1단]

朴戒達單身」

佛像大施主吳山端兩主」

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

朴命福兩主」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

右補處大施主柳應男兩主」

面金大施主金印眞兩主」

面金大施主梁无(無)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單身」

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單」

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烏金大施主金夢日單身」

烏金大施主全竟單身」

烏金大施主ㄱ內鶴兩主」

褰袍施主朴愛男兩主」

褰袍施主吳山朴兩主」

褰袍施主高承竟兩主」

開眼大施主」

開眼大施主」

開眼大施主」

點筆施主」

點筆施主」

點筆施主」

布施主施主」

布施主施主」

布施主施主」

[2단]

共養大施主朴太補兩主」
供養大施主孔介補兩主」
供養大施主」
供養大施主 應談比丘」
供養大施主」
腹藏大施主 釋湛比丘」
腹藏大施主 三允比丘」
 朴順男兩主」
腹藏大施主印珠比丘」
腹藏大施主 雪雄比丘」
 姜愛補兩主」
朱紅施主 金奉立兩主」
泥師專施主」
圍團施主」
座具施主」
喉吟筒施主 仇補兩主」
五色絲施主」
綿子施主」
印珠比丘 印岑比丘」
惠准比丘 坦湖比丘」
雲默比丘 德融比丘」
法岑比丘 古仁比丘」
靈鑑比丘 惠日比丘」
惠元比丘 太仁比丘」
普輝比丘 印球比丘」
宗海比丘 雪豈比丘」
信英比丘 淨日比丘」

[3단]

法林比丘」
日訓比丘」
處淳比丘」
處能比丘」
處還比丘」
學淳比丘」

敬湖比丘」
三機比丘」
三玄比丘」
三允比丘」
道行比丘」
思淨比丘」
妙連比丘」
禪敏比丘」
雪玉比丘」
卓令比丘」
禪坦比丘」
禪機比丘」
禪淨比丘」
禪照比丘」
禪洽比丘」
禪日比丘」
禪贊比丘」
元植比丘」 元六比丘」

[4단]

元坦比丘」
學能比丘」
學哲比丘」
惠元比丘」
信英比丘」
文悅比丘」
居士金影單身」
緣化」
證師 性寬比丘」
持殿 慈雲比丘」
畫員 玄旭比丘」
 懶欽比丘」
 玄鑑比丘」 侍者彦伊單身」
供養主雪雲比丘」
供養主學清比丘」

來往僧學日比丘」
別座雪雄比丘」
大化士惠學比丘」
化士思慧比丘」
時三寶道日比丘」

② 좌협시 발원문

願文

願我造佛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道六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覺」
順治二年丁亥六月日慶尙道居昌縣東面牛頭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列于后」

[1단]

朴戒達單身」
佛像大施主吳山端兩主」
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
朴命福」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
右補處大施主柳應男兩主」
面金大施主金印眞兩主」
面金大施主梁无(無)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單身」
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單」
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黃金大施主」
黃金大施主」
烏金大施主金夢日單身」
烏金大施主全竟伊單身」
烏金大施主內ㄱ鶴兩主」
褁布大施主朴愛男兩主」
褁布施主吳山補兩主」
褁布施主高承竟兩主」
開眼大施主」
開眼施主」

開眼施主」
點筆施主」
點筆施主」
點筆施主」
布施主」
布施主」
布施主」
布施主」
喉吟筒施主仇補兩主」

[2단]

供養大施主朴太福兩主」
供養大施主孔介福兩主」
供養大施主」
供養大施主應談比丘」
腹藏施主釋湛比丘」
 朴順男兩主」
腹藏施主雪雄比丘」
 姜愛福兩主」
腹藏施主三允比丘」
腹藏施主印珠」
泥師團施主」
圃團施主」
喉吟筒施主」
座具施主」
朱紅施主金奉立兩主」
荷葉施主」
五色絲施主」
印珠比丘
惠准比丘」
雲默比丘」
法岑比丘」
靈鑑比丘」
惠元比丘」
普輝比丘」

宗海比丘」

信英比丘」

印岑比丘」

坦湖比丘」

德融比丘」

古仁比丘」

惠日比丘」

[3단]

太仁比丘」

球印比丘」

淨日比丘」

法林比丘」

日訓比丘」

雪嘗比丘」

處淳比丘」

學淳比丘」

處能比丘」

處還比丘」

敬湖比丘」

三機比丘」

三玄比丘」

三允比丘」

[4단]

道行比丘」

思淨比丘」

妙連比丘」

禪敏比丘」

雪玉比丘」

卓令比丘」

禪坦比丘」

禪機比丘」

禪淨比丘」

禪照比丘」

禪洽比丘」

禪贊比丘」

禪日比丘」

元植比丘」

元卞比丘」

元坦比丘」

學能比丘」

[5단]

學哲比丘」

學林比丘」

惠元比丘」

信英比丘」 文悅比丘」

居士金影單身」

緣化」

證明性寬比丘」

持殿慈雲比丘」

畫員 玄旭比丘」

 懶欽比丘」

 玄鑑比丘」 侍者 彦伊」

供養主雪雲比丘」

供養主學清比丘」

來往學日比丘」

別座雪雄比丘」

化主惠學比丘」

化主思慧比丘」

時三寶道日比丘」

③ 우협시 발원문

願文」

願我造像功德以豈細事乎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同歸淨土親見諸佛同聞正法同成正覺」

順治二年丁亥六月日慶尙道居昌縣東面牛頭山見岩寺以今月二十四日佛像三尊造畢而後開列于后」

[1단]

朴戒達單身」
佛像大施主吳端兩主」
 朴命福兩主」
主佛大施主李影湖兩主」
左補處大施主山春兩主」
右補處大施主權應男」
面金大施主金印眞兩主」
面金大施主梁无音聲兩主」
面金大施主朴顧公兩主」
黃金大施主嚴命千兩主」
黃金大施主諸談音沙里兩主」
黃金大施主文從鶴兩主」
烏金大施主金日兩主」
烏金大施主全竟兩主」
烏金施主內隱鶴兩主」
褰布施主吳山福兩主」
褰布施主朴愛男兩主」
褰布施主高承竟兩主」
開眼施主」
開眼施主」
開眼施主」
點筆施主」
點筆施主」
布施主兩主」
布施主」
供養大施主太福施主兩主」
供養大施主孔介福兩主」
供養大施主」
供養施主」
腹藏施主釋湛比丘」
腹藏施主三允比丘」
腹藏雪雄比丘」
腹藏朴順男兩主」

座具施主」

喉吟筒施主仇福兩主」

五色絲施主」

綿子施主 應談比丘」

寺內 印珠比丘」

惠准比丘」

法岑比丘」

雲默比丘」

靈鑑比丘」

惠元比丘」

普輝比丘」

宗海比丘」

信英比丘」

印岑比丘」

坦湖比丘」

德融比丘」

古仁比丘」

惠日比丘」

太仁比丘」

印珠比丘」

雪豈比丘」

淨日比丘」

法林比丘」

日訓比丘」

處淳比丘」

學淳比丘」

處還比丘」

處能比丘」

敬湖比丘」

三機比丘」

三玄比丘」

[3단]

三允比丘」

道行比丘」

思淨比丘」
妙連比丘」
禪敏比丘」
雪玉比丘」
卓令比丘」
禪坦比丘」
禪機比丘」
禪淨比丘」
禪照比丘」
禪洽比丘」
禪日比丘」
禪贊比丘」
學哲比丘」
學能比丘」
元植比丘」
元卞比丘」
元坦比丘」
惠元比丘」
信英比丘」
文悅比丘」
居士金影單身」

緣化」

證明 性寬比丘」

持殿 慈雲比丘」

畫員 玄旭比丘」

懶欽比丘」

玄鑑比丘」

侍者彥伊單身」

供養主雪雲比丘」

供養主學清比丘」

來往僧學日比丘」

別座雪雄比丘」

大化士惠學比丘」

大化士思慧比丘」

時三寶道日比丘」

4.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8.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2.11.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지정예고(’13.2.28~3.30)하고,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보성선원((재)선학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8안길 35
- 수 량 : 4건 4점
- 규 격 : 하단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선장본
- 제작연대 : 하단참조

				(cm)	[]	.
1	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諺解乙亥字本
2	55	金剛般若波羅蜜經(六經合部)	1冊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3	60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4	6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木板本

라. 조사자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보성선원의 59종의 복장전적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다음의 6종이다.

< 가 >						
(6)						
				(cm)	[]	.
01	08	大佛頂首楞嚴神呪	1張 (445枚)	29.3×49.7	[發行事項不明] [丁亥(1647)四月 日見岩寺]	梵文本板本 (朱印)
02	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諺解乙亥字本 (1,)
03	5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張(26枚)	28.0×48.5	[刊行事項不明] [丁亥(1647)四月 日見岩寺]	漢文本板本 (朱印)
04	55	金剛般若波羅蜜經(六經合部)	1冊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
05	60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
06	6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木板本 -

이상의 6종 중 (0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04) <金剛般若波羅蜜經(六經合部)>, (05) <人天眼目> 등은 이미 불교학·서지학 등의 분야에서 학술적으로나 관본학적으로 그 귀중성이 인정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유지·관리·보존되고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유지·관리·보존되기 전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01) <大佛頂首楞嚴神呪>, (03)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06)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등은 새로이 국가지정을 요하는 전적문화재들이다.

(01) <大佛頂首楞嚴神呪>와 (03)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등은 정해(1647,

인조 25)년에 경상남도 거창의 見岩寺에서 현재 보성선원에 안치되어 있는 본존불·좌보살·우보살 등 삼존불을 조성하던 당시에 刻手 湛應에 의하여 범문본과 한문본의 2종으로 각관되어 다량으로 인출된 목판본 다라니이다. 이들 다라니는 삼존불에 봉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板刻한 뒤 인출해낸 다라니라는 점에서 불교학·서지학·판각술 분야의 연구에는 물론 삼존불의 조성과도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06) <天台四教儀集解, 卷下>는 宋朝의 從義(?-?)의 集解本을 저본으로 趙瑾(1417-1475)이 板下本을 다시 서사하고 世祖 10(1464)년에 刊經都監에서 판각하여 인출한 刊經都監版本이다. 우리나라에 從義(?-?)의 集解本이 드물게 전래될 뿐 아니라 刊經都監版本이라는 점에서 불교학·서지학 분야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상 6종의 전적문화재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유지·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01) <大佛頂首楞嚴神呪>(445枚)와 (03)<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26枚) 등은 성격상으로 볼 때 1매씩만 별도로 장치하고 나머지 매수는 재복장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또한 이상의 6종을 제외한 나머지 53종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적 6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대불정수능엄신주』,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천태사교의집해』 권하 등은 처음 소개되거나 매우 희귀한 전적류이다.

① 『대불정수능엄신주』

삼존불을 제작한 1647년(인조 25)경에 새겨 인쇄한 범문 다라니이다. 이 다라니에는 간기는 없으나 함께 국가문화재로 추천되는 ④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에는 “丁亥四月日見岩寺”라는 간행사항이 있다. 여기에서 정해년은 1647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대불정수능엄신주』도 이와 동일한 시기에 간행하여 복장된 것으로 보인다.

②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5

당나라의 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戒環이 풀이한 것의 한글 번역본이다. 1461년(세조 7)년에 信眉, 金守濶 등 고승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10권으로 번역하고, 바로 을해자로 인출하였다. 이 을해자본은 간경도감본과는 차이가 있어 한글 고어연구에 도움을 준다. 동일한 인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보물 제

760호(권1), 보물 제761호(권2, 5), 보물 제762호(권7·8), 보물 제763(권7·8, 9·10), 보물 제948호(권3), 보물 제948-2호(권3), 보물 제973호(권4, 7, 8), 보물 제1049호(권6), 보물 제1520호(권1) 등이 있다. 희귀성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로 추천할만하다. 아쉬운 점은 권5는 58장, 권7은 25~36장만이 전한다는 점이다. 인출당시 종이가 부족한 탓인지 종이를 이어 붙인 곳이 더러 보이고, 종이의 질도 다양하다.

③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이 다라니는 湛應이 새겨 간행한 한문본 다라니이다. “丁亥四月日見岩寺”과 같이 1647년 4월에 견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희귀한 다라니로 현재 26매가 남아 있다.

④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엄신주」,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등 6가지 경전을 1책으로 합편한 『육경합부』 중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 판본은 1440년(세종 22)년에 加平의 永濟菴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포함한 『육경합부』는 보물 제965호로 지정되어 있다.

⑤ 『인천안목』

『인천안목』이란 인간·천상·일체중생의 안목이 된다는 것으로 선가에서 많이 읽힌 불서이다. 1395년(태조 4)년에 無學大師 自超(1327~1405)가 楊州의 檜嶺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보성선원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복장유물 전적 중에서 간기가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동일한 판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보물 제640호, 보물 제1015호, 보물 제1094호 등이 있다.

⑥ 『천태사교의집해』 권하

고려 초기 諦觀(900~970)이 집약한 『천태사교의』에 從義(11세기)가 집해하였다. 이 책은 권말의 “天順八年甲申歲(1464)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과 같이 1464년(세조 10)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판하본은 趙瑾(1417~1475)이 썼다. 세조연간에 간인된 을해자본은 알려져 있으나 간경도감본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보성선원 삼불상에서 발견된 59종의 복장전적은 고려말에서 1647년 이전에 간행된 판본들이다. 이 중에서 희귀성, 온전성, 완질본 등을 고려하여 『人天眼目』, 『金剛般若波羅蜜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권5,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등 4종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판본들로, 희귀본 또는 기 지정된 것과 동일본들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명칭은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으로 하여 일괄지정하고 견암사에서 판각되어 복장시 납입되었던 다라니 2종은 복장유물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조사문화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8안길 35의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의 보성선원의 本尊佛·左菩薩·右菩薩 등의 복장유물이다. 보성선원의 본존불·좌보살·우보살 등의 복장유물 중에서 조사대상 전적목록은 다음과 같다.

< (59 , 3) >						
			(cm)	[]	.	()
01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3冊(零本)	38.7×24.5	[中宗 25(1530)]	木板本	
02	金剛般若波羅蜜經	1冊(零本)	20.0×16.5	[明宗 20(1565)]	木板本	
03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2卷2冊	38.0×23.8	中宗 32(1537)	木板本	
04	金剛般若波羅蜜經釋普詳節	1冊	25.0×14.5	[16世紀頃]	筆寫本	
05	大方廣佛華嚴經, 卷58	1軸(零本)	27.8×563.2	[麗末鮮初頃]	白紙墨書寫經	
06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2	1冊(零本)	31.8×22.1	[仁祖 13(1635)]	木板本	
0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6卷5冊	38.5×25.1	光海君 3(1611)	木板本	
08	大佛頂首楞嚴神呪	1張 (445枚)	29.3×49.7	[發行事項不明]	梵文木板本 (朱印)	國家指定 對象 ()
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7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諺解乙亥字本	國家指定 對象
10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7.8×15.2	成宗 21(1490)	木板本	

11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8.6×17.3	中宗 4(1509)	木板本	
12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8.5×16.7	[太宗 5(1405)]	木板本	
13	妙法蓮華經, 卷1 -3	1冊(零本)	27.7×15.8	[太宗 5(1405)]	木板本	
14	妙法蓮華經, 卷1 -3	1冊(零本)	28.1×16.0	[太宗 17(1417)]	木板本	
15	妙法蓮華經, 卷1 -2	2冊(零本)	26.2×15.5	[世宗 2(1420)]	木板本	
16	妙法蓮華經, 卷1 -2	1冊(零本)	27.8×17.4	[世宗 6(1424)]	木板本	
17	妙法蓮華經, 卷1 -3	1冊(零本)	27.0×16.0	[世宗 6(1424)]	木板本	
18	妙法蓮華經, 卷6 -7	1冊(零本)	29.7×18.3	[世宗 18(1436)]	木板本	
19	妙法蓮華經, 卷3 -4	1冊(零本)	31.4×18.5	[世宗 18(1436)]	木板本	
20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27.4×16.9	[世宗 18(1436)]	木板本	
21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7×17.0	[世宗 25(1443)]	木板本	
22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3×16.4	[世宗 25(1443)]	木板本	
23	妙法蓮華經, 卷3 -4	1冊(零本)	35.0×22.0	[成宗 1(1470)]	大字木板本	
24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1×16.5	成宗 8(1477)	木板本	
25	妙法蓮華經, 卷1 -3	1冊(零本)	27.5×16.5	[成宗 8(1477)]	木板本	
26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8.5×18.3	[成宗 8(1477)]	木板本	
27	妙法蓮華經, 卷2 -3	1冊(零本)	32.5×21.0	[成宗 24(1493)]	木板本	
28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34.0×20.0	[中宗 22(1527)]	大字木板本	
29	妙法蓮華經, 卷2, 3 -4, 5 -7	3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30	妙法蓮華經, 卷2 -7	6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31	妙法蓮華經, 卷4 -7	4冊(零本)	36.5×24.5	[中宗 29(1534)]	木板本	
32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37.0×25.0	[中宗 29(1534)]	木板本	
33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1.0×17.0	[明宗 9(1554)]	木板本	
34	妙法蓮華經, 卷1 -2	1冊(零本)	27.2×15.3	[明宗 16(1561)]	木板本	
35	妙法蓮華經, 卷2 -3	1冊(零本)	30.5×17.5	宣祖 3(1570)	木板本	
36	妙法蓮華經, 卷3 -4	1冊(零本)	29.3×18.1	[宣祖 7(1574)]	木板本	
37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32.6×17.6	[宣祖 19(1586)]	木板本	
38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29.2×18.3	宣祖 37(1604)	木板本	
39	妙法蓮華經, 卷3, 5 -7	2冊(零本)	29.1×18.0	宣祖 37(1604)	木板本	
40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6.8×21.7	光海君 7(1615)	木板本	
41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3.0×20.0	光海君 7(1615)	木板本	
42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28.2×17.1	[16世紀頃]	木板本	
43	妙法蓮華經	1張	16.0×28.2	[朝鮮前期頃]	筆寫本	
44	發願文(右菩薩)	1張	46.0×88.2	仁祖 23(1645)	筆寫本	佛像一括()
45	發願文(左菩薩)	1張	45.7×84.0	仁祖 23(1645)	筆寫本	佛像一括()
46	發願文(本尊佛)	1張	57.7×45.4	仁祖 23(1645)	筆寫本	佛像一括()
47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9張	48.9×36.2	[壬亂前後頃]	木板本	
48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1冊(10張)	30.5×17.5	[壬亂前後頃]	木板本	

49	父母恩重經(諺解)	1冊	27.0×17.0	[宣祖 13(1580)]	木板本	
50	佛說阿彌陀經	1冊	29.0×15.5	[世宗 22(1440)]	木板本	
5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張(26枚)	28.0×48.5	[刊行事項不明]	漢文木板本 (朱印)	國家指定 對象 ()
52	佛祖三經	1冊	25.0×17.5	成宗 10(1479)	口訣木板本	
53	禪家龜鑑	1冊	27.0×17.0	[宣祖 19(1586)]	木板本	
54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3	1冊(零本)	30.0×22.0	[燕山 9(1503)]	木板本	
55	六經合部 (金剛般若波羅蜜經)	1冊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56	六經合部	1冊	28.0×17.0	世宗 27(1445)	木板本	
57	六經合部	1冊	26.5×16.0	成宗 19(1488)	木板本	
58	六經合部	1冊(零本)	27.0×15.5	成宗 19(1488)	木板本	
59	宜螺手眞言	1張	15.0×77.3	[朝鮮前期頃]	筆寫本	
60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61	頂上佛手眞言陀羅尼	1張	15.3×78.4	[朝鮮前期頃]	筆寫本	
6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木板本	國家指定 對象

○ 내용 및 특징

보성선원의 본존불·좌보살·우보살 등의 복장유물 중에서 조사대상 전적문화재는 62종이며, 전적은 「金剛般若波羅蜜經」 등 59종이고 고문서는 本尊佛·左菩薩·右菩薩 등의 조성과 관련된 연기를 기록한 3종의 發願文이다.

발원문에 나타나는 本尊佛·左菩薩·右菩薩 등의 조성시기가 인조 23(1645)년임을 감안할 때, 59종의 전적류는 한결같이 불상이 조성된 인조 23(1645)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적류의 간행·필사시기는 좁게는 태조 4(1395)년을 상한선으로 인조 13(1635)년을 하한선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넓게는 麗末鮮初를 상한으로 불상이 조성된 인조 23(1645)년을 하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적류의 간행·필사시기는 인조 23(1645)년 이전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보성선원의 59종의 복장전적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6종 정도이며, 그 나머지 53종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원문 3건은 불상과 함께 취급되어야 할 대상이다.

< 가 >							
(7)							
				(cm)	[]	·	
01	08	大佛頂首楞嚴神呪	1張 (445枚)	29.3×49.7	[發行事項不明] [丁亥(1647)四月]	梵文木板本 (朱印)	

					日見岩寺]		
02	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卷5·7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諺解乙亥字本	(1, 760)
03	5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張(26枚)	28.0×48.5	[刊行事項不明] [丁亥(1647)四月 日見岩寺]	漢文本板本 (朱印)	
04	55	金剛般若波羅蜜經 (六經合部)	1冊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 965
05	60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 640
06	6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木板本	-

□ 書誌記述 : 6종의 국가지정 대상 전적의 細部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01)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 [著作者不明]. -- 木板本(朱刷).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1張(445枚) : 四周單邊, 半郭 20×31.2cm, 有界, 半葉 6行6字,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29.3×49.7cm. 楮紙. 無衣.

內容 : 大佛頂首楞嚴神呪, 寶齒眞言.

[刊記 : 丁亥(1647, 인조 25 ?)四月日見岩寺]

[刻手 : 湛應]

言語 : 梵文本

(0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5, 7.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7 / 般刺密帝(唐) 譯 ; 戒環(宋) 解. -- 金屬活字本(乙亥字). -- [漢城] : [校書館], [世祖 7(1461)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0×20.0cm, 有界, 半葉 9行大16·中21字, 內向黑魚尾 ; 37.4×24.6cm. 楮紙. 紙釘. 無衣.

版心題 : 楞嚴經

狀態 : 表紙脫落

言語 : 諺解本

狀態 : 卷5(58張), 卷7(25-36張) 있음

註記 : 조각 종이를 연접해 인출하였으며 지질이 다양하다

內容 : 「首楞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득하여 힘을 갖는 것을 중요 사상으로 하고 있다. 본서는 唐朝의 般刺密帝가 번역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세종 31(1449)년에 세종의 명에 따라 首陽大君이 번역에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다가, 세조 7(1461)년에 慧覺尊者 信眉, 金守濫(1409-1481) 등 당대의 고승과 학자들이 동원되어 10권으로 번역되었다. 본 을해자본은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판본과 비교하면 해석이나 토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既指定 : 보물 제760호(권1, 조병순), 보물 제761호(권2, 5, 서울대), 보물 제762호(권7·8, 동국대), 보물 제763호(권7-8·9-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948호(권3, 동국대), 보물 제948-1호(권3, 김창현), 보물 제973호(권4, 7, 8,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049호(권6, 구인사), 보물 제1520호(권1, 김민영) 등

(03)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 [著作者不明]. -- 木板本(朱刷).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1張(26枚) : 四周單邊, 半郭 20.2×31.3cm, 有界, 半葉 8行10字, 內向2葉花紋魚尾 ; 28×48.5cm. 楮紙. 無衣.

刊記 : 丁亥(1647, 인조 25 ?)四月日見岩寺

刻手 : 湛應

言語 : 漢文本

(04)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 木板本. -- 加平 : 永濟菴, 世宗 22(1440).

1冊 : 四周單邊, 半郭 19.8×13cm, 無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29.0×17.5cm. 楮紙. 紙釘. 無衣.

刊記 : 華岳山永濟菴開板 正統五年庚申(1440).

版心題 : 金

卷末施主秩: 定菴 等 多數

卷末刻手秩: 了明, 尙峯, 海尙, 海寶

狀態 : 表紙脫落

註記 : 「六經合部」중의 「金剛般若波羅蜜經」임

內容: 원래 조선시대 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佛說阿彌陀經」, 「觀世音菩薩禮文」,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6가지 경전을 1책으로 합편하여 간행한 「六經合部」이나, 현재는 세종 22(1440)년에 加平의 永濟菴에서 판각된 「金剛般若波羅蜜經」만이 殘存되고 있다.

既指定: 보물 제965호(관문사)

(05) 인천안목

人天眼目, 卷上·中·下 / 智昭(南宋) 述. -- 木板本. -- 楊州 : 檜巖寺, 太祖 4(1395).

3卷1冊 : 左右雙邊, 半郭 19.5×13.5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黑魚尾 ; 27.3×16.8 cm. 楮紙. 紙釘. 無衣.

版心題 : 目

底本跋 : 至正十七年丁酉(1357)三日松月閑人玉田(卷上末·卷下末)

卷末跋文 : 洪武乙亥(1395)十月日 前壁上三韓三重大匡 韓山府院君 領藝文春秋館事 李穡(1328-1396)謹誌

卷末刊記 : 檜巖寺留板

狀態 : 表紙脫落.

內容: 송조의 승려 晦巖 智昭가 당시 불교의 5개 종파의 기본사상과 창시자의 행적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禪家에서 많이 읽힌 佛書이다. 人天眼目이란 인간·천상·일체중생의 안목이 된다는 것으로 法眼 文益(885-958)의 「宗門十規論」과 함께 禪家에서 많이 읽힌 불서이다. 조선 태조 4(1395)년에 無學大師 自超(1327-1405)에 의해 楊州의 檜巖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既指定: 보물 제640호(강태영), 보물 제1015호(구인사), 보물제 1094호(김종규)

(06) 천태사교의집해, 권하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 諦觀(高麗, ?-970) 錄 ; 從義(宋) 集解. -- 木板本(刊經都監本). -- [發行地不明] : 刊經都監, 世祖 10(1464).

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0.5×14.0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29.5×17.5cm. 楮紙. 紙釘. 無衣.

版心題 : 四教儀集解.

卷末刊記 : 天順八年甲申(1464)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卷末板下本書者: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瑾(1417-1475)書.

狀態 : 表紙脫落. 上部損傷.

內容 : 고려시대 초기의 승려인 諦觀(900-970)이 隋朝의 智顓大師(538-597)의 학설인 天台學의 골자를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집약한 것이 「天台四教儀」이다.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諸法實相과 一念三千의 심오하고 광대한 철학 사상의 요지를 표현할 목적으로 천태학의 골자와 요지를 敎와 觀의 2門으로 나누어 2문의 대강을 서술하였다. 본서는 宋朝의 從義의 集解로 세조 10(1464)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刊經都監版이다.

○ 기 타

조사문화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8안길 35의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의 보성선원에 소장되고 있으며,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의 補修를 필요로 하는 文化財도 적지 않다. 또한 현재 특별한 방법·항온·항습 등에 대비한 전문적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일반 금고에 收藏·管理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 권고사항

보성선원의 59종의 복장전적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6종을 제외한 나머지 53종의 전적들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다음의 53종의 전적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능동적인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의 처리가 요망된다.

< (53) >							
				(cm)	[]	·	()
1	01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卷上·下	3冊(零本)	38.7×24.5	[中宗 25(1530)]	木板本	
2	02	金剛般若波羅蜜經	1冊(零本)	20.0×16.5	[明宗 20(1565)]	木板本	
3	03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2卷2冊	38.0×23.8	中宗 32(1537)	木板本	
4	04	金剛般若波羅蜜經釋普詳節	1冊	25.0×14.5	[16世紀頃]	筆寫本	
5	05	大方廣佛華嚴經, 卷58	1軸(零本)	27.8×563.2	[麗末鮮初頃]	白紙墨書寫經	
6	06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2	1冊(零本)	31.8×22.1	[仁祖 13(1635)]	木板本	
7	0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6卷5冊	38.5×25.1	光海君 3(1611)	木板本	
8	10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7.8×15.2	成宗 21(1490)	木板本	
9	11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8.6×17.3	中宗 4(1509)	木板本	
10	12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8.5×16.7	[太宗 5(1405)]	木板本	
11	13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7.7×15.8	[太宗 5(1405)]	木板本	
12	14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8.1×16.0	[太宗 17(1417)]	木板本	
13	15	妙法蓮華經, 卷1-2	2冊(零本)	26.2×15.5	[世宗 2(1420)]	木板本	
14	16	妙法蓮華經, 卷1-2	1冊(零本)	27.8×17.4	[世宗 6(1424)]	木板本	
15	17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7.0×16.0	[世宗 6(1424)]	木板本	
16	18	妙法蓮華經, 卷6-7	1冊(零本)	29.7×18.3	[世宗 18(1436)]	木板本	
17	19	妙法蓮華經, 卷3-4	1冊(零本)	31.4×18.5	[世宗 18(1436)]	木板本	
18	20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27.4×16.9	[世宗 18(1436)]	木板本	

19	21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7×17.0	[世宗 25(1443)]	木板本	
20	22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3×16.4	[世宗 25(1443)]	木板本	
21	23	妙法蓮華經, 卷3 -4	1冊(零本)	35.0×22.0	[成宗 1(1470)]	大字木板本	
22	24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7.1×16.5	成宗 8(1477)	木板本	
23	25	妙法蓮華經, 卷1 -3	1冊(零本)	27.5×16.5	[成宗 8(1477)]	木板本	
24	26	妙法蓮華經, 卷4 -7	1冊(零本)	28.5×18.3	[成宗 8(1477)]	木板本	
25	27	妙法蓮華經, 卷2 -3	1冊(零本)	32.5×21.0	[成宗 24(1493)]	木板本	
26	28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34.0×20.0	[中宗 22(1527)]	大字木板本	
27	29	妙法蓮華經, 卷2, 3 -4, 5 -7	3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28	30	妙法蓮華經, 卷2 -7	6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29	31	妙法蓮華經, 卷4 -7	4冊(零本)	36.5×24.5	[中宗 29(1534)]	木板本	
30	32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37.0×25.0	[中宗 29(1534)]	木板本	
31	33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1.0×17.0	[明宗 9(1554)]	木板本	
32	34	妙法蓮華經, 卷1 -2	1冊(零本)	27.2×15.3	[明宗 16(1561)]	木板本	
33	35	妙法蓮華經, 卷2 -3	1冊(零本)	30.5×17.5	宣祖 3(1570)	木板本	
34	36	妙法蓮華經, 卷3 -4	1冊(零本)	29.3×18.1	[宣祖 7(1574)]	木板本	
35	37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32.6×17.6	[宣祖 19(1586)]	木板本	
36	38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29.2×18.3	宣祖 37(1604)	木板本	
37	39	妙法蓮華經, 卷3, 5 -7	2冊(零本)	29.1×18.0	宣祖 37(1604)	木板本	
38	40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6.8×21.7	光海君 7(1615)	木板本	
39	41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3.0×20.0	光海君 7(1615)	木板本	
40	42	妙法蓮華經, 卷5 -7	1冊(零本)	28.2×17.1	[16世紀頃]	木板本	
41	43	妙法蓮華經	1張	16.0×28.2	[朝鮮前期頃]	筆寫本	
42	47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9張	48.9×36.2	[壬亂前後頃]	木板本	
43	48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1冊(10張)	30.5×17.5	[壬亂前後頃]	木板本	
44	49	父母恩重經(諺解)	1冊	27.0×17.0	[宣祖 13(1580)]	木板本	
45	50	佛說阿彌陀經	1冊	29.0×15.5	[世宗 22(1440)]	木板本	
46	52	佛祖三經	1冊	25.0×17.5	成宗 10(1479)	木板口訣本	
47	53	禪家龜鑑	1冊	27.0×17.0	[宣祖 19(1586)]	木板本	
48	54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 -3	1冊(零本)	30.0×22.0	[燕山 9(1503)]	木板本	
49	56	六經合部	1冊	28.0×17.0	世宗 27(1445)	木板本	
50	57	六經合部	1冊	26.5×16.0	成宗 19(1488)	木板本	
51	58	六經合部	1冊(零本)	27.0×15.5	成宗 19(1488)	木板本	
52	59	宜螺手眞言	1張	15.0×77.3	[朝鮮前期頃]	筆寫本	
53	61	頂上佛手眞言陀羅尼	1張	15.3×78.4	[朝鮮前期頃]	筆寫本	

<참고문헌>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자료 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배현숙, 『대구 보성선원 삼존불 복장 전적』,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 문화재전문위원

○ 내용 및 특징

보성선원의 본존불·좌보살·우보살 등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복장유물 중에서 발견된 전적류는 아래의 <표1>과 같이 모두 62종이다. 그 중에서 전적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59종이고, 3종은 삼존불의 발원문이다.

불상이 제작된 시기는 세 종류의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대개 1645년(인조 23) 또는 1647년(인조 25)으로 판단되는데 여러 정황을 보아 1647년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 전적 역시 모두 1647년 이전에 刊寫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원문을 제외한 59종의 전적 중에서 전존가치, 완본여부, 희귀성, 간년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대상을 조사한 결과, 『대불정수능엄신주』 등 6종이 선별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제출한 전적의 구분과 배열 순서를 따랐다. 다행히 국가문화재로 추천하는 6종은 각기 별개의 판본 또는 사본이어서 판본감식의 문제점은 없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천되지 못한 42종의 『묘법연화경』 중에는 동일본이 권수에 따라 분리되어 이판본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였다. 향후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표1>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전적

			(cm)			
1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卷上·下	3 ()	38.7×24.5	[25(1530)]		
2	金剛般若波羅蜜經	1 ()	20.0×16.5	[20(1565)]		
3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2	38.0×23.8	32(1537)		
4	金剛般若波羅蜜經釋普詳節	1	25.0×14.5	[16]		
5	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58	1 ()	27.8×563.2	[]		
6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2	1 ()	31.8×22.1	[13(1635)]		
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5	38.5×25.1	3(1611)		

	卷1-6					
8	大佛頂首楞嚴神呪	1 (445)	29.3×49.7	[]	(朱印)	가 ()
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 解 卷5-7	1 ()	37.4×24.6	[7(1461)]		가
10	蒙山和尚六道普說	1	27.8×15.2	21(1490)		
11	蒙山和尚六道普說	1	28.6×17.3	4(1509)		
12	妙法蓮華經, 卷4-7	1 ()	28.5×16.7	[5(1405)]		
13	妙法蓮華經, 卷1-3	1 ()	27.7×15.8	[5(1405)]		
14	妙法蓮華經, 卷1-3	1 ()	28.1×16.0	[17(1417)]		
15	妙法蓮華經, 卷1-2	2 ()	26.2×15.5	[2(1420)]		
16	妙法蓮華經, 卷1-2	1 ()	27.8×17.4	[6(1424)]		
17	妙法蓮華經, 卷1-3	1 ()	27.0×16.0	[6(1424)]		
18	妙法蓮華經, 卷6-7	1 ()	29.7×18.3	[18(1436)]		
19	妙法蓮華經, 卷3-4	1 ()	31.4×18.5	[18(1436)]		
20	妙法蓮華經, 卷4	1 ()	27.4×16.9	[18(1436)]		
21	妙法蓮華經, 卷4-7	1 ()	27.7×17.0	[25(1443)]		
22	妙法蓮華經, 卷4-7	1 ()	27.3×16.4	[25(1443)]		
23	妙法蓮華經, 卷3-4	1 ()	35.0×22.0	[1(1470)]		
24	妙法蓮華經, 卷4-7	1 ()	27.1×16.5	8(1477)		
25	妙法蓮華經, 卷1-3	1 ()	27.5×16.5	[8(1477)]		
26	妙法蓮華經, 卷4-7	1 ()	28.5×18.3	[8(1477)]		
27	妙法蓮華經, 卷2-3	1 ()	32.5×21.0	[24(1493)]		
28	妙法蓮華經, 卷5-7	1 ()	34.0×20.0	[22(1527)]		
29	妙法蓮華經, 卷2, 3-4, 5-7	3 ()	35.8×24.0	[29(1534)]		
30	妙法蓮華經, 卷2-7	6 ()	35.8×24.0	[29(1534)]		
31	妙法蓮華經, 卷4-7	4 ()	36.5×24.5	[29(1534)]		
32	妙法蓮華經, 卷4	1 ()	37.0×25.0	[29(1534)]		
33	妙法蓮華經, 卷1	1 ()	31.0×17.0	[9(1554)]		
34	妙法蓮華經, 卷1-2	1 ()	27.2×15.3	[16(1561)]		
35	妙法蓮華經, 卷2-3	1 ()	30.5×17.5	3(1570)		
36	妙法蓮華經, 卷3-4	1 ()	29.3×18.1	[7(1574)]		
37	妙法蓮華經, 卷5-7	1 ()	32.6×17.6	[19(1586)]		
38	妙法蓮華經, 卷5-7	1 ()	29.2×18.3	37(1604)		
39	妙法蓮華經, 卷3, 5-7	2 ()	29.1×18.0	37(1604)		
40	妙法蓮華經, 卷1	1 ()	36.8×21.7	7(1615)		
41	妙法蓮華經, 卷1	1 ()	33.0×20.0	7(1615)		

42	妙法蓮華經, 卷5-7	1 ()	28.2×17.1	[16]		
43	妙法蓮華經	1	16.0×28.2	[]		
44	發願文(右菩薩)	1	46.0×88.2	23(1645)		
45	發願文(左菩薩)	1	45.7×84.0	23(1645)		
46	發願文(本尊佛)	1	57.7×45.4	23(1645)		
47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9	48.9×36.2	[]		
48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1 (10)	30.5×17.5	[]		
49	父母恩重經(諺解)	1 (11)	27.0×17.0	[13(1580)]		
50	佛說阿彌陀經	1	29.0×15.5	[22(1440)]		
5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 (26)	28.0×48.5	[]	(朱印)	가 ()
52	佛祖三經	1	25.0×17.5	10(1479)		
53	禪家龜鑑	1	27.0×17.0	[19(1586)]		
54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3	1 ()	30.0×22.0	[9(1503)]		
55	金剛般若波羅蜜經 (六經合部)	1	29.0×17.5	22(1440)		가
56	六經合部	1	28.0×17.0	27(1445)		
57	六經合部	1	26.5×16.0	19(1488)		
58	六經合部	1 ()	27.0×15.5	19(1488)		
59	宜螺手眞言	1	15.0×77.3	[]		
60	人天眼目	3 1	27.3×16.8	4(1395)		가
61	頂上佛手眞言陀羅尼	1	15.3×78.4	[]		
62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 ()	29.5×17.5	10(1464)		가

<참고문헌>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자료 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배현숙, 『대구 보성선원 삼존불 복장 전적』,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 문화재전문위원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보성선원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좌상(석가여래, 문수보살, 보현보살)에서 발견된 佛書 및 다라니 그리고 발원문

등이다.

석가여래삼존좌상의 복장 발원문은 각각의 불상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상의 완성 시기가 석가불에는 “順治二年六月日”, 문수·보현보살은 “順治二年丁亥六月日”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順治二年 年號는 1645(인조 23)년이고, “丁亥” 干支는 1647년(인조 25)이다. 간지 기준으로 1647년(인조 25)에 조성한 것으로 보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인지 간인되거나 필사된 전적류들은 모두 1647년 이전의 판본들이다. 대부분 표지가 없으며, 한질의 책을 분리하여 본존불, 좌협시, 우협시에 납입된 것도 있어서 한질로 모아 정리하였다. 발원문은 불상과 함께 취급되어야 하므로 발원문을 제외한 복장전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목록

번호	명 칭	수 량	규 격(cm)	조성연대[추정]	판 본	납입 불상
01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3冊 (卷上:1冊, 卷下:2冊)	38.7×24.5	[中宗 25(1530)]	木板本	권상:우협시 권하:좌협시
02	金剛般若波羅蜜經	1冊(零本)	20.0×16.5	[明宗 20(1565)]	木板本	본존불
03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卷上·下	2卷2冊	38.0×23.8	中宗 32(1537)	木板本	본존불
04	金剛般若波羅蜜經釋普詳 節	1冊	25.0×14.5	[16世紀頃]	筆寫本	본존불
05	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8	1軸(零本)	27.8×563.2	[麗末鮮初頃]	白紙墨書寫經	좌협시
06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2	1冊(零本)	31.8×22.1	[仁祖 13(1635)]	木板本	좌협시
0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6	6卷5冊	38.5×25.1	光海君 3(1611)	木板本	권1,2,4-6:본 존불 권3:좌협시
08	大佛頂首楞嚴神呪	1張 (445枚)	29.3×49.7	[仁祖 27(1647)]	梵文 木板本 (朱印)	본존불,좌협 시, 우협시
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乙亥字本	본존불
10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7.8×15.2	成宗 21(1490)	木板本	본존불
11	蒙山和尚六道普說	1冊	28.6×17.3	中宗 4(1509)	木板本	본존불
12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8.5×16.7	[太宗 5(1405)]	木板本	좌협시
13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7.7×15.8	[太宗 5(1405)]	木板本	우협시
14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8.1×16.0	[太宗 17(1417)]	木板本	우협시
15	妙法蓮華經, 卷1-2	2冊(零本)	26.2×15.5	[世宗 2(1420)]	木板本	좌협시
16	妙法蓮華經, 卷1-2	1冊(零本)	27.8×17.4	[世宗 6(1424)]	木板本	좌협시

17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7.0×16.0	[世宗 6(1424)]	木板本	우협시
18	妙法蓮華經, 卷6-7	1冊(零本)	29.7×18.3	[世宗 18(1436)]	木板本	우협시
19	妙法蓮華經, 卷3-4	1冊(零本)	31.4×18.5	[世宗 18(1436)]	木板本	좌협시
20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27.4×16.9	[世宗 18(1436)]	木板本	좌협시
21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7.7×17.0	[世宗 25(1443)]	木板本	우협시
22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7.3×16.4	[世宗 25(1443)]	木板本	우협시
23	妙法蓮華經, 卷3-4	1冊(零本)	35.0×22.0	[成宗 1(1470)]	大字木板本	본존불
24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7.1×16.5	成宗 8(1477)	木板本	우협시
25	妙法蓮華經, 卷1-3	1冊(零本)	27.5×16.5	[成宗 8(1477)]	木板本	우협시
26	妙法蓮華經, 卷4-7	1冊(零本)	28.5×18.3	[成宗 8(1477)]	木板本	우협시
27	妙法蓮華經, 卷2-3	1冊(零本)	32.5×21.0	[成宗 24(1493)]	木板本	본존불
28	妙法蓮華經, 卷5-7	1冊(零本)	34.0×20.0	[中宗 22(1527)]	大字木板本	본존불
29	妙法蓮華經, 卷2, 3-4, 5-7	3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본존불
30	妙法蓮華經, 卷2-7	6冊(零本)	35.8×24.0	[中宗 29(1534)]	木板本	권2:우협시 권3:좌협시 권4-7:본존불
31	妙法蓮華經, 卷4-7	4冊(零本)	36.5×24.5	[中宗 29(1534)]	木板本	본존불
32	妙法蓮華經, 卷4	1冊(零本)	37.0×25.0	[中宗 29(1534)]	木板本	본존불
33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1.0×17.0	[明宗 9(1554)]	木板本	우협시
34	妙法蓮華經, 卷1-2	1冊(零本)	27.2×15.3	[明宗 16(1561)]	木板本	좌협시
35	妙法蓮華經, 卷2-3	1冊(零本)	30.5×17.5	宣祖 3(1570)	木板本	본존불
36	妙法蓮華經, 卷3-4	1冊(零本)	29.3×18.1	[宣祖 7(1574)]	木板本	우협시
37	妙法蓮華經, 卷5-7	1冊(零本)	32.6×17.6	[宣祖 19(1586)]	木板本	좌협시
38	妙法蓮華經, 卷5-7	1冊(零本)	29.2×18.3	宣祖 37(1604)	木板本	좌협시
39	妙法蓮華經, 卷3, 5-7	2冊(零本)	29.1×18.0	宣祖 37(1604)	木板本	좌협시
40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6.8×21.7	光海君 7(1615)	木板本	본존불
41	妙法蓮華經, 卷1	1冊(零本)	33.0×20.0	光海君 7(1615)	木板本	본존불
42	妙法蓮華經, 卷5-7	1冊(零本)	28.2×17.1	[16世紀頃]	木板本	우협시
43	妙法蓮華經序	1張	16.0×28.2	[朝鮮前期頃]	筆寫本	우협시
44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9張	48.9×36.2	[壬亂前後頃]	木板本	우협시
45	白衣大悲五印心陀羅尼經	1冊(10張)	30.5×17.5	[壬亂前後頃]	木板本	본존불
46	父母恩重經(諺解)	1冊	27.0×17.0	[宣祖 13(1580)]	木板本	우협시
47	佛說阿彌陀經	1冊	29.0×15.5	[世宗 22(1440)]	木板本	본존불
48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張(26枚)	28.0×48.5	仁祖 27(1647)	漢文木板本 (朱印)	본존불, 좌협시, 우협시

49	佛祖三經	1冊	25.0×17.5	成宗 10(1479)	口訣木板本	본존불
50	禪家龜鑑	1冊	27.0×17.0	[宣祖 19(1586)]	木板本	본존불
51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3	1冊(零本)	30.0×22.0	[燕山 9(1503)]	木板本	본존불
52	六經合部 (金剛般若波羅蜜經)	1冊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본존불
53	六經合部	1冊	28.0×17.0	世宗 27(1445)	木板本	본존불
54	六經合部	1冊	26.5×16.0	成宗 19(1488)	木板本	본존불
55	六經合部	1冊(零本)	27.0×15.5	成宗 19(1488)	木板本	우협시
56	宜螺手眞言	1張	15.0×77.3	[朝鮮前期頃]	筆寫本	좌협시
57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좌협시
58	頂上佛手眞言陀羅尼	1張	15.3×78.4	[朝鮮前期頃]	筆寫本	좌협시
59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刊經都監本	본존불

위의 <표 1>를 보면 59종 가운데 이들을 판종별로 구분해보면 필사본 5종, 활자본(을해자) 1종, 목판본 53종이다. 필사본은 『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8의 寫經 1종과 『金剛般若波羅蜜經釋普詳節』 과 다라니류 등 4종이며, 활자본은 금속활자 을해자본 『楞嚴經』 1종, 목판본은 대부분 사찰본계통으로 번각본과 후쇄본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妙法蓮華經』은 32종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서 희귀성, 온전성, 완질본 등을 고려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대상은 6종으로서 희귀본 또는 기지정 된 것과 동일본 들이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가운데 국가지정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국가지정 대상 목록

연번	명 칭	수량	규격 (cm)	조성연대[추정]	판 본	비 고
01	人天眼目	3卷1冊	27.3×16.8	太祖 4(1395)	木板本	보물 제640호 등 동일본
02	金剛般若波羅蜜經 (六經合部)	1冊(零本)	29.0×17.5	世宗 22(1440)	木板本	보물 제965-1호, 965-2호와 동일본
0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 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1冊(零本)	37.4×24.6	[世祖 7(1461)]	乙亥字本	보물 제760호 등 동일본
04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1冊(零本)	29.5×17.5	世祖 10(1464)	木板本	刊經都監本
05	大佛頂首楞嚴神呪	1張 (445枚)	29.3×49.7	[인조 25(1647)]	木板本	梵文朱印 (복장유물일괄)
06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1張(26枚)	28.0×48.5	仁祖 25(1647)	木板本	丁亥(1647)四月日 見岩寺 梵文朱印

<표 2>의 국가지정 대상 6종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안목 人天眼目

- 수 량 : 3卷 1冊(卷上·中·下)
- 크 기 : 27.3×16.8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板本
- 형 식 : 線裝本
- 조성연대 : 1395年(太祖 5)
- 현 상 : 앞·뒤표지가 결락되었으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서지사항

人天眼目, 卷上·中·下 / 智昭(南宋) 述.

木板本. 楊州, 檜巖寺, 太祖 4(1395).

3卷1冊 : 左右雙邊, 半郭 19.5×13.5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黑魚尾 ; 27.3×16.8cm. 楮紙. 紙釘. 無衣.

版心題 : 目

底本跋 : 至正十七年丁酉(1357)三日松月閑人玉田(卷上末·卷下末)

卷末跋文 : 洪武乙亥(1395)十月日 前壁上三韓三重大匡 韓山府院君 領藝文春秋館事 李穡(1328-1396)謹誌

卷末刊記 : 檜巖寺留板

『人天眼目』은 송나라 승려 晦巖 智昭가 당시 불교의 5개 종파 임제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등의 기본사상과 창시자의 행적과 법어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禪家에서 많이 읽힌 佛書이다. 이 책은 조선 태조 4(1395)년에 無學大師 自超(1327-1405)에 의해 楊州의 檜巖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상·중·하의 3권 1책이며, 앞 뒤 표지가 결락되었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동일본이 보물 제640호(강태영), 보물 제1015호(구인사), 보물제 1094호(김종규)로 지정되어 있다.

2.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

- 수 량 : 1책
- 크 기 : 29.0 × 17.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板本
- 형 식 : 線裝本
- 조성연대 : 1440년(세종 22)
- 현 상 : 앞·뒤표지는 결락되었고 보존상태는 양호함.

서지사항

金剛般若波羅蜜經 / 鳩摩羅什(姚秦, 344-413) 譯.

木板本. 加平, 永濟菴, 世宗 22(1440).

1冊 : 四周單邊, 半郭 19.8×13cm, 無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無魚尾 ; 29.0×17.5cm. 楮紙.

刊記 : 願我以諸經刻板.....華岳山永濟菴開板 正統五年庚申(1440).

版心題 : 金

卷末施主秩: 定菴 等 多數

卷末刻手秩: 了明, 尙峯, 海尙, 海寶

이 『金剛般若波羅蜜經』은 1440년(세종 22)에 가평 華岳山 永濟菴에서 판각된 목판본이다. 권두제 ‘金剛般若波羅蜜經’ 다음 행에는 ‘鳩摩羅什奉 詔譯’이란 譯者가 있고 이어 경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金剛經은 양나라 소명태자에 의해서 32장으로 분장된 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말미에는 진언이 보이고, 그 끝에 ‘正統五年庚申’ ‘華岳山永濟菴開板’이란 간기가 있고 ‘施主 定菴’에 이어 뒷면에 시주질 명단이 있고 刻手로는 ‘了明, 尙峯, 海尙, 海寶’ 등이 참여 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 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佛說阿彌陀經」, 「觀世音菩薩禮文」,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을 합편하여 간행한 「六經合部」중의 『金剛般若波羅蜜經』이다. 앞·뒤표지가 결락되었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동일본이 보물 제965-1호(관문사), 보물 제965-2호(김민영)로 지정되어 있다.

3.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 언해 권5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五

- 수 량 : 1권 1책(권5)
- 크 기 : 37.4 × 24.6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金屬活字本(乙亥字)
- 형 식 : 線裝本
- 조성연대 : [15세기]
- 현 상 : 앞·뒤표지가 결락되었고 종이는 이어서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서지사항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5, 般刺密帝(唐) 譯 ; 戒環(宋) 解.

金屬活字本(乙亥字). -- [漢城] : [校書館], [世祖 7(1461)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0×20.0cm, 有界, 半葉 9行大16·中21字, 內向黑魚尾 ; 37.4×24.6cm. 楮紙.

版心題 : 楞嚴經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당나라의 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戒環이 해설한 것이며, 경 이름을 줄여서 『楞嚴經』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楞嚴經』 언해본은 세종 31년(1449)에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뒤로 미루어졌다가 慧覺尊者 信眉·韓繼禧·金守溫 당대 고승 및 학자가 참여하여 10권으로 번역되었다. 본문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었으며, 을해자를 사용하여 15세기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종이의 질이 다양하며, 연접해 이은 종이를 사용하여 인출하였다. 권5말미에 권7의 25~36張이 합철되어 있다. 앞 뒤표지가 결락되어 첫 짜 장은 마모되어 글자가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을해자본 『楞嚴經』은 간경도감판의 번역과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서지학 및 15세기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와 동일본으로 보물 제760호(권1, 조병순), 보물 제761호(권2, 5, 서울대), 보물 제762호(권7·8, 동국대), 보물 제763호(권7-8·9-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보물 제948호(권3, 동국대), 보물 제948-1호(권3, 김창현), 보물 제973호(권4, 7, 8,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049호(권6, 구인사), 보물 제1520호(권1, 김민영), 보물 제1794호(권9, 원각사) 등이 지정되어 있다.

4. 천태사교의집해 권하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 수 량 : 1권 1책
- 크 기 : 29.5 × 17.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板本
- 형 식 : 線裝本
- 조성연대 : 1464년(세조 10)
- 현 상 : 앞·뒤표지가 없으며, 권수부분이 약간 훼손됨.

서지사항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 諦觀(高麗, 900-970), 從義(宋) 集解.

木板本. 刊經都監, 世祖 10(1464).

1卷1冊(卷下) : 四周雙邊, 半郭 20.5×14.0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 29.5×17.5cm. 楮紙.

版心題 : 四教儀集解.

卷末刊記 : 天順八年甲申(1464)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卷末板下本書者: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瑾(1417-1475)書.

『天台四教儀集解』은 高麗 초기 승려인 諦觀(900~970)이 집약한 『天台四教儀』에 송나라의 고승 從義(1042-1091)가 集解하였다. 천태교학의 요지를 教와 觀의 二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教는 다시 五時八教로 분류하여 각기 차례로 나열하여 서술한 주해서이다. 五時는 석가의 설법을 시간의 차례에 따라 구별하여 나눈 華嚴時, 鹿苑時, 方等時, 般若時, 法華涅槃時이며, 八教는 교화하는 형식에서 분류한 化儀四教(頓教, 漸教, 秘密教, 不定教)와 교리의 내용에서 분류한 化法四教(藏教, 通教, 別教, 圓教)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수십여종의 주해서가 나올 만큼 천태교학의 입문서로서 널리 유포되었다.

이 책은 세조 10(1464)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판하본은 趙瑾(1417~1475)이 썼다. 卷下의 1권만이 있는 零本으로 권수제 다음에 집해자 에 이어 내용은 八教의 化法四教 중에 通教을 시작으로 別教, 圓教에 대한 각각의 교리와 수행 순서를 서술하였고 이어 觀法으로 智顓(538~597)가 찬술한 『摩訶止觀』의 25方便과 10乘觀法에서 체험과 실천으로 일관된 요점만을 가려 뽑아 정리하였다. 천태교학의 教·觀 곧 이론과 실천의 두 門이 갖추어져 있어서 불교의 일반 상식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천태종만이 아니라 불교계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권말에는 간기와 필서자가 있고, 앞·뒤 표지가 결락되었지만, 권수에 훼손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零本이나 희소성이 있는 간경도감본으로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대불정수능엄신주 大佛頂首楞嚴神呪

- 수 량 : 1張(445枚)

- 크 기 : 29.3 × 49.7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板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647년(인조 25)]
- 현 상 : 장황은 없으며, 앞부분이 결락됨.

서지사항

大佛頂首楞嚴神呪 / [著作者不明]. -- 木板本(朱刷).

1張(445枚) : 四周單邊, 半郭 20×31.2cm, 有界, 半葉 6行6字, 黑口, 內向2葉花紋魚尾 ; 29.3×49.7cm. 楮紙. 無衣.

內容 : 大佛頂首楞嚴神呪, 寶齒眞言.

[刊記 : 丁亥(1647, 인조 25 ?)四月日見岩寺]

[刻手 : 湛應]

이 다라니는 복장시 梵文으로 새겨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大佛頂首楞嚴神呪, 寶齒眞言이며 주색으로 되어 있다. 여러 장 겹쳐 후령통을 싸고 있었으므로 삼존불상에서 대량으로 나왔다.

6.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 수 량 : 1장(26)
- 크 기 : 28 × 48.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板本
- 형 식 : 낱장
- 조성연대 : 1647년(인조 25)
- 현 상 : 낱장 형태의 목판본 주색으로 인출함. 상태는 양호함.

서지사항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木板本(朱刷). [居昌] : [見岩寺], 1647년(인조 25).

1張(26枚) : 四周單邊, 半郭 20.2×31.3cm, 有界, 半葉 8行10字, 內向2葉花紋魚尾 ; 28×48.5cm. 楮紙. 無衣.

刊記 : 丁亥(1647, 인조 25)四月日見岩寺

刻手 : 湛應

言語 : 漢文本

이 다라니는 한문으로 새겨 주색으로 인출한 다라니이다. ‘丁亥四月日見巖寺’, ‘湛應’의 기록으로 보아 1647년에 견암사에서 각수 담응이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발원문의 기록과 일치하므로 복장시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見巖寺 玄旭派 釋迦三尊佛像의 도상특징과 腹藏研究」, 『講座美術史』 35, 2010‘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배현숙, 『대구 보성선원 삼존불 복장 전적』,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2011.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3-04-005

5. 보물 제1443호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王世子誕降陳賀圖 屏風)’ 1건 1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국립고궁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의 요청에 의해 양 기관이 공동개최하는 <향연과 의례> 특별전시에 출품하기 위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09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관장 자이 쉬(Jay Xu)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향연과 의례’ 관람 후 조선왕실과 사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전시계획 등 관련서류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1건 1점
- 보물 제1443호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王世子誕降陳賀圖 屏風)’ 1건 1점
- 반출국가 : 미국
- 반출기간 : 2013. 09. 25. ~ 2014. 01. 26.
- 전시기간 : 2013. 10. 25. ~ 2014. 01. 12.
- 전 시 명 : 특별전 ‘향연과 의례’
- 전시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아시아미술관

.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외반출 허가

< >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연 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
1	보물 제1443호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1건 1점
	총	1건 1점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세부사항 및 사진

허가신청 목록(보물)		
① 지 정 번 호	보물 제1443호	
② 명 칭	왕세자탄강진하도 병풍 (王世子誕降陳賀圖 屏風)	
③ 수 량	1건 1점(10폭)	
④ 규 격	269×430cm (개폭 269×43cm)	
⑤ 보 관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6.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무신진찬의궤 (朝鮮王朝 儀軌-戊申進饌儀軌)’ 등 3건 4점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국립중앙박물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과 공동개최하는 <향연과 의궤> 특별전시에 출품하기 위하여, 세계기록유산의 국외반출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관장 자이 쉰(Jay Xu)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향연과 의궤’ 관람 후 조선왕실과 사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전시계획 등 관련서류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 ‘조선왕조 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의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무신진찬의궤(朝鮮王朝 儀軌-戊申進饌儀軌)’ 등 3건 4점
- 반출국가 : 미국
- 반출기간 : 2013. 09. 25. ~ 2014. 01. 26.
- 전시기간 : 2013. 10. 25. ~ 2014. 01. 12.
- 전 시 명 : 특별전 ‘향연과 의궤’
- 전시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아시아미술관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외반출 허가


<붙임>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연번	지정현황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장처	비고
1	조선왕조 의궤	무신진찬의궤	1건 2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세계기록유산
2	조선왕조 의궤	헌종효정후가례도감 의궤	1건 1점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세계기록유산
3	조선왕조 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1건 1점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세계기록유산
	총	3건 4점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세부사항 및 사진

허가신청 목록(세계기록유산)	
① 지정번호	세계기록유산
② 명칭	조선왕조 의궤 -무신진찬의궤 (규-14372)
③ 수량	1건 2점
④ 규격	37.2×24.0cm(활자본)



⑤ 보 관 장 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① 지 정 번 호	세계기록유산	
② 명 칭	조선왕조 의궤 -헌중호정후가례도감의궤	
③ 수 량	1건 1점	
④ 규 격	32.5×25.5cm(필사본)	
⑤ 보 관 장 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① 지 정 번 호	세계기록유산	
② 명 칭	조선왕조 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③ 수 량	1건 1점	
④ 규 격	24.0×16.8cm(활자본)	
⑤ 보 관 장 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7.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慶州 九黃洞 金製如來坐像)’ 등 21건 26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국 뉴욕 소재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국보 12점, 보물 14점에 대해 국외반출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본 건은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13.2.14)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당초 22건 32점(국보 11건 12점, 보물 12건 20점) 신청대상 중 보물 제623호 ‘황남대총 북분 금반지’ 1건 6점을 제외하고 21건 26점을 재신청한 사항임.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통일신라를 포함한 신라문화를, 고고·미술·종교 관련 문화재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시목적의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제안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21건 26점
 -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등 11건 12점
 - 보물 제328호 ‘금동약사여래입상’ 등 10건 14점
- 반출국가 : 미국
- 반출기간 : 2013. 10. 1. ~ 2014. 3. 16.
- 전시기간 : 2013. 10. 29. ~ 2014. 2. 23.

- 전 시 명 : 특별전-‘황금의 나라, 신라’
- 전시장소 : 미국 뉴욕소재 메트로폴리탄박물관

.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결정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서류보완, 제출(유물운송, 포장, 해포담당)
 - 장기기간 국외반출, 대량유물 국외반출 자제 권고





< >





국외반출신청 문화재목록





연 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건/점)		비고
1	국보 제79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1	1	
2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1	1	
3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관 및 금제관식	1	1	금제관식
4	국보 제90호	경주 부부총 금귀걸이	1	2	
5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1	1	
6	국보 제183호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	1	1	
7	국보 제191호	황남대총 북분 금관	1	1	
8	국보 제192호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1	1	
9	국보 제193호	황남대총 남분 유리잔	1	1	
10	국보 제194호	황남대총 남분 금목걸이	1	1	
11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 장경호	1	1	
	국보 소계		11	12	
12	보물 제328호	금동약사여래입상	1	1	
13	보물 제366-1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금동사리기	1	2	
	-2호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금동사리외함			
14	보물 제454호	경주 노서동 금팔찌	1	2	
15	보물 제456호	경주 노서동 금목걸이	1	1	
16	보물 제624호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	1	1	
17	보물 제627호	황남대총 북분 은잔	1	1	
18	보물 제632호	황남대총 남분 은제 팔뚝가리개	1	2	
19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1	1	
20	보물 제636호	도기 서수형 명기	1	1	
21	보물 제1475호	안압지 출토 금동판 불상 일괄	1	2	
	보물 소계		10	14	
	총	21건 26점			



가 (-)		
	79	
	(14752)	
	1 1	
	12.2cm	
	83	
	가 (3312)	
	1	
	93.5cm	
	87	
	(9435)	
	1 1	
	40.8cm	

가 (-)		
	90	
	(6255)	
	1 2	
	8.6cm(), 8.75cm()	
	91	
	(9705)	
	1 1	
	23.4cm, 29.4cm	
	183	
	(3298)	
	1 1	
	32cm	
	191	
	(1)	
	1 1	
	27.3cm, 17cm	

가 (-)		
	192	
	(45)	
	1 1	
	120cm	
	193	
	(3323)	
	1 1	
	10.2cm	
	194	
	(2970)	
	1 1	
	66.4cm	
	195	
	(140)	
	1 1	
	34cm	

가 (-)		
	328	
	(325)	
	1 1	
	29.2cm	
	366 -1,2	
	(606, 607)	
	1 2	
	16.5cm(), 28cm()	
	454	
	(1291)	
	1 2	
	8cm	
	456	
	(13613, 1287)	
	1 1	
	30cm	

가 (-)		
	624	
	(517)	
	1 1	
	7cm, 10.3cm	
	627	
	(326)	
	1 1	
	3.8cm, 8.8cm	
	632	
	가 (3052)	
	1 2	
	34.9cm	
	635	
	(1)	
	1 1	
	36cm	

가 (-)		
	636	
	(114)	
	1 1	
	14cm	
	1475	
	(1453, 1454)	
	1 2	
	17cm(), 20cm()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3-04-008

8.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李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의 보존처리 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충사관리소장으로부터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의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보 제76호
- 명 칭 :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李舜臣 亂中日記 및 書簡帖 壬辰狀草)
- 소유자(관리자) : 최순선(현충사관리소)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8-1번지 충무공이순신기념관
- 수 량 : 9책
- 규 격 : 36.0×26.6cm 등
- 재 질 : 종이
- 제작연대 : 조선시대

라. 현 상태

- 유물 표지부의 마모와 꺾임이 발생하였으며 책 모서리 부분의 마모도 진행되고 있음.
- 서간첩을 제외하고는 내지의 하단 부에 과거 보존처리한 흔적이 발견됨. 현충사측에서 1967~8년경 도난당시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함. 이와 관련된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음. 과거 보존처리로 발생된 2차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결실부와 유물 본지의 이질감으로 인하여 제거 후 재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유물의 재질상 전반적인 갈변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심각한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음.
- 서간첩의 경우는 과거 보수흔적이 보이지 않고 표지의 비단 결실부가 넓음.
- 전체적으로 유물의 결실 부는 많지는 않으나 얼룩이나 변색이 심하고 충해로 추정되는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9책 모두 보존처리 후 훈증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 영인본 제작을 계획한다면 보존처리와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소요기간 및 처리기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마. 현상변경 내용

- 보존처리 및 훈증

바. 보존처리 계획

- 처리 세부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해체 및 지질 조사
 - 세척 전 조사, 번짐테스트
 - 건식세척, 습식세척
 - 보강지 준비 및 결실부·표지 보강
 - 건조
 - 정리 및 재단, 장정
 - 훈증 및 보관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처리함.
- 보존처리 기간 : 약 1년 8개월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상변경 허가
 - 복제본 제작권고

9.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2건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및 세계기록유산 ‘[숙종인원왕후십]존숭도감의궤’의 복원, 표지 및 내부 크리닝 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으로부터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 등 2건에 대해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숙종인원왕후십]존숭도감의궤’은 세계기록유산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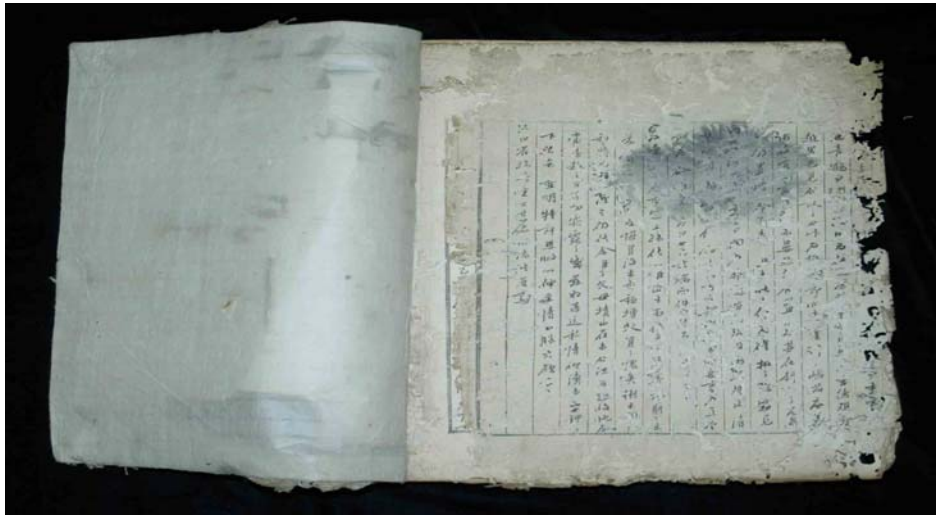
- 대상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1건, 세계기록유산 1건
 -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세계기록문화유산 ‘[숙종인원왕후십]존숭도감의궤([肅宗仁元王后十]尊崇都監儀軌)’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수량 : 2건 18점(승정원일기 17책(3,243책 중)/[숙종인원왕후십]존숭도감의궤 1책)
- 재질 : 저지
- 제작연대 : 조선시대

라. 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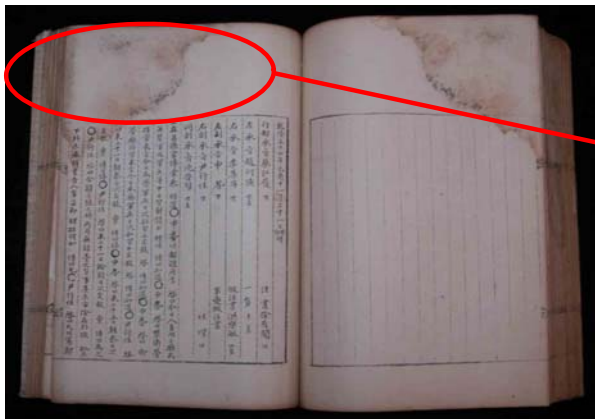
- 자연열화로 인한 원형손상
- 곤충 피해 및 습해로 인한 얼룩 등



삼베표지 곤충 피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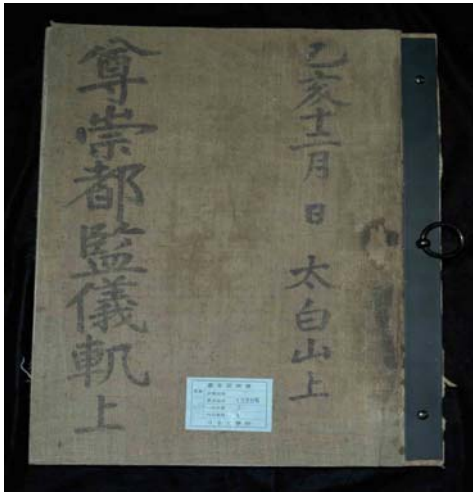


내지 곤충 피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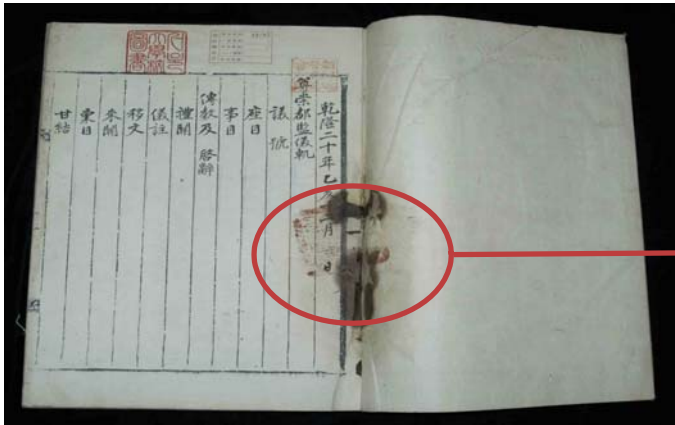


습해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피해 모습

[]



[]



[]



[]

마. 수리복원 대상 목록

도서명	도서번호	수량	매수	비고
승정원일기 (奎 12788)	v. 747	1책	238	국보 제303호
	v. 802	1책	117	
	v. 806	1책	129	
	v. 810	1책	91	
	v. 812	1책	131	
	v. 813	1책	123	
	v. 814	1책	290	
	v. 815	1책	163	
	v. 816	1책	100	
	v. 862	1책	111	
	v. 866	1책	93	
	v. 880	1책	89	
	v. 881	1책	152	
	v. 882	1책	136	
	v. 883	1책	102	
	v. 887	1책	166	
v. 888	1책	104		
[숙종인원왕후십] 존숭도감의궤	규 13295 v.1	1책	116	세계기록문화유산
합 계		18책	2,451	

바. 현상변경 내용

- 원형손상의 복원
- 표지 및 내부 크리닝

사. 보존처리 계획

○ 기본원칙

-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손상에 대해 수리복원과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원형을 복원하거나, 더 이상의 훼손 진행을 방지함으로써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자 한다.
- 수리복원 대상 자료는 상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존처리등급에 따라 선정한다.
- 수리복원 작업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갖추고 지류 보존전문으로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해서 시행한다.
- 사업자는 제안서 기술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한다.

- 구체적인 수리복원 방법의 결정,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전문가자문위원회로부터 대상자료의 선정, 수리복원 방법의 결정, 돌발 사태로 인한 기술자문, 사후관리 등 수리복원 전 과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 받는다.
- 수리복원, 보존처리 등의 작업의 최종결과는 보존과학계에 학술 논저로 보고하도록 하여 검증받도록 한다.
- 종이의 특성 상 수리복원 대한 하자유지보수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한다.
- 수리복원 작업 장소는 보존환경 및 보안시설을 갖추어서 규장각 내에 설치한다.

○ 수리복원 범위

- 보존처리는 손상된 부분의 결실부 보강과 보강된 부분에 대한 보채 외에 유물의 원본에 채색을 더하지 않는 것, 클리닝 및 부분훼손에 대한 원형복원,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그 범위로 정한다.
- 본 유물의 보존처리는 바탕재질은 본 유물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보존처리 담당자는 소장처의 보존담당자와 논의하여 보존처리 세부처리 방침을 정한다.
- 보존처리 시 결실부는 바탕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준비하여 자연염색한 뒤 짜깁기한다.
- 유물의 이동 및 수장에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포장을 실시한다.

○ 고전적 수리복원 과정

- 조사 및 사진촬영
- 각종 재료 결정
- 자료 해체
- 건식 클리닝 및 습식 클리닝
- 종이조사 및 종이제작
- 결실부 떼우기
- 제책 및 사진촬영
- 보관상자 제작
- 유물 포장 및 보고서 작성

○ 기타사항

- 유물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원래의 재질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현상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수리 전 사진촬영 및 지질조사를 위한 분석 등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수리 시에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수리 후에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보존처리 담당자 : 미정
- 보존처리 기간 : 약 9개월

아. 의결사항

- 보류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자문단 세부계획 수립
 - 보존처리 계획 재조정

10. 국보 제119호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金銅延嘉七年銘如來立像)’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국보 제119호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의 접합, 보강, 안정화처리 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보 제119호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의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보 제119호
- 명 칭 :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높이 16.2cm, 상높이 9.1cm, 광배높이 12.1cm, 대좌높이 4.1cm
- 재 질 : 금동
- 제작연대 : 삼국시대(고구려)

라. 현 상태

- 광배의 좌측 금속 보강재 하단에 균열 존재
- 고정 클립과 접합 부위는 양 끝단에 불과하여 보강이 필요



정면



뒷면



광배의 균열 부위(정면)



광배의 균열부위(뒷면)

마. 현상변경 내용

- 접합, 보강, 안정화 처리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X선 촬영 및 현미경 관찰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 방청 처리 및 보호 코팅
 - 방청처리와 함께, 코팅 효과가 우수하고 추후 제거가 가능한 가역적인 재료로 표면을 코팅

- 접합 및 복원
 - 균열 부위는 보강하고, 상하로 분리된 광배는 접합한다. 고정 클립의 교체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시행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처리(기술자 제630호)
- 보존처리 기간 : 2013. 5 ~ 10월(6개월) 예정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상변경 허가
 - 자문위원(문화재위원) 구성

11. 보물 제1327호 ‘석조지장보살좌상(石造地藏菩薩坐像)’ 현상변경 허가

가. 심의사항

보물 제1327호 ‘석조지장보살좌상’의 안정화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보물 제1327호 ‘석조지장보살좌상’의 현상변경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327호
- 명 칭 : 석조지장보살좌상(石造地藏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33.4cm, 대좌너비 23.5cm
- 재 질 : 석조
- 제작연대 : 조선시대 1515년(중종 10)

라. 현 상태

- 표면 안료층의 박리



세부(표면 안료층 박리)

마. 현상변경 내용

- 박리된 표면의 안정화 처리

바. 보존처리 방침 및 계획

- 보존처리 방침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재질과 손상 상태를 기록한다.
 - 재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광학적 조사 및 비파괴 성분분석)
 - 균열 및 파손된 부위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처리
 - 가능한 가역적인 재료와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사진촬영, 실측, 균열, 박락 여부 조사 등을 조사 기록
 - 재질에 대한 광학적 조사 및 성분에 대한 분석
- 이물질 및 오염물 제거 : 유물 표면의 훼손없이 이물질을 제거
- 건조 : 자연건조하여 유물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
- 접합
 - 박리와 박락된 편은 가역성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 일부 취약한 부분은 강화하고 복원
- 보존처리 후 상태 : 사진촬영 및 기록카드 작성
- 보관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상변경 허가
- 자문위원회(문화재위원) 구성
- 서류보완(보존처리 기관 명시)

12.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사항

가. 보고사항

2013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중 원형보존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대상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대상문화재 : 국보 제 300호 ‘장곡사미륵불괘불탱’ 등 27건
- 현상변경내용 : 보존처리(사업내용 붙임 참조)
-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진행
 - 해당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3회 이상 개최)
 -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대하여 사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 사업추진 중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현상변경 허가

<붙임>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강북구	보물 제11-5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서울화계사동종	동종보존처리 및 흰개미 모니터링	50,400	21,600	72,000	당해
2	서울 동대문구	보물 제769호	몽산화상범어약록 (연해)	몽산화상범어약록 보존처리	15,400	6,600	22,000	당해
3	대구 달서구	보물 제1705호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보존처리 및 영인본제작	26,600	11,400	38,000	당해
4	경기 군포시	보물 제569-11호	안중근의사유묵-사군 천리이표촌성망안육 천행물부정	안중근의사유묵 보존처리	25,900	11,100	37,000	당해
5	경기 남양주시	보물 제397호	남양주 봉선사 동종	동종 보존처리 및 범종루 정비	210,000	90,000	300,000	당해주 변
6	강원도 속초시	보물 제1749호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보존처리	84,000	36,000	120,000	당해
7	강원 인제군	보물 제1182호	백담사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목조아미타여래좌상개 금단청 무문관(제2동,제3동)및 무금선원(관음전)산자 이상해체보수	245,000	105,000	350,000	당해주 변
8	충북 진천군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105,000	45,000	150,000	당해
9	충남 청양군	국보 제300호	장곡사미륵불괘불탱	미륵불괘불탱 모사 제작	249,900	107,100	357,000	당해
10	충남 청양군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금동약사여래좌상 보존처리	175,000	75,000	250,000	당해
11	전남 구례군	보물 제1363호	화엄사대웅전삼신불 탱	삼신불탱 보존처리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탱 장황 및 초본도제작	315,000	135,000	450,000	당해
12	전남 나주시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극락전단청 건칠비로자나불좌상 개금보수	280,000	120,000	400,000	당해
13	전남	보물	불조삼경	불조삼경 보존처리	42,000	18,000	60,000	당해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국비	지방비	계	
	나주시	제694-2호						
14	전남 나주시	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보호각단청공사 괘불탱보존처리	189,000	81,000	270,000	당해주 변
15	전남 순천시	보물 제1554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33조사도 보존처리	203,000	87,000	290,000	당해
16	전남 순천시	보물 제1506호	순천 선암사 선각국사 도선 진영	선각국사도선진영 보존처리	39,900	17,100	57,000	당해
17	전남 순천시	보물 제1368호	송광사영산전후불탱. 팔상탱	영산전후불탱, 팔상탱 보존처리	245,000	105,000	350,000	당해
18	전남 순천시	보물 제1467호	순천송광사소조사천 왕상	북방 동방천왕 개채	140,000	60,000	200,000	당해
19	전남 순천시	보물 제1043호	순천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보존처리, 모사복원	210,000	90,000	300,000	당해
20	전남 영광군	보물 제1377호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 상	삼불좌상, 명부전,팔상전불상 보존상태 진단	105,000	45,000	150,000	당해
21	전남 장흥군	보물 제1254호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사천왕상 보수 및 주변정비	200,000	85,714	285,714	당해주 변
22	전남 해남군	보물 제1547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및 복제품 제작	175,000	75,000	250,000	당해
23	전남 해남군	보물 제1715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목조석가여래삼불좌 상	70,000	30,000	100,000	당해
24	경북 김천시	보물 제1141호	예천 한천사 금동 자물쇠 및 쇠북	세척 및 보존처리	7,000	3,000	10,000	당해
25	경북 영주시	보물 제1005호	장말손 종가 고문서	종가 고문서 등 보존처리 및 복제품 제작	54,600	23,400	78,000	당해
26	경남 양산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벽화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당해
27	경남 창녕군	보물 제1730호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 상 및 대좌	목조석가여래삼불좌 상 및 대좌 보존상태 진단	56,000	24,000	80,000	당해
			합계		3,728,700	1,588,014	5,326,714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3-04-013

1. 동래부순절도(東來府殉節圖)

가. 검토사항

‘동래부순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동래부순절도(東來府殉節圖)’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2.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1.1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3호 천곡 송상현 유물
- 명 칭 : 동래부순절도(東來府殉節圖)
- 소유자 : 여산송씨 충렬공파 종중(청주고인쇄박물관)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 113
- 수 량 : 1폭
- 규 격 : 세로 147.5cm, 가로 112.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액자
- 제작연대 : 19세기 후반(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없음)

여산 송씨 종중이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기탁한 <동래부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송상현 이하 조선군관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전쟁기록화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교훈이 고스란히 담긴 의미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산악의 皴이나 수목, 米點 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작품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국가지정대상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없음)

<동래부순절도>는 1592년 동래부사로 재임 중에 왜구에 맞서 대항하다 목숨을 바친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순절과 당시 동래부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東萊城의 전투 상황을 묘사한 전쟁기록화이다. 조사된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는 화면 구성과 이야기 묘사는 전체적으로 울산박물관 소장본과 가까우며, 19세기 후반의 화풍을 보여준다. 19세기의 화풍은 일점투시도법으로 그려진 건물 묘법, 호분으로 표시된 칼날의 명암, 높은 곳날이 뚜렷한 측면 얼굴 표현, 홍살문의 지주(支柱) 표현, 동래부성 기단 부분의 박석(薄石) 표현 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수목으로 그려진 거친 필치의 披麻皴과 米點, 비수가 심한 산 윤곽, 농묵의 두터운 측필을 사용한 바위 질감, 각종 點葉法으로 묘사된 수풀과 땅의 표현 등은 19세기 후반의 산수화풍과 상통한다. 다만 이는 전형적인 도화서의 畫員 화풍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방의 外方畫師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식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앙 화단의 畫員 화풍으로 제작 시기를 비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기 비정은 좀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동래부순절도>는 화풍 상으로는 19세기의 회화적 특징을 간직한 후대의 개모작이다. 그림에 제작 시기나 제작자를 시사하는 기록이 없어서 후모된 이력을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림의 내용으로 볼 때 최초의 원작이 의도하였던 제작 목적과 취지에서 다소 멀어졌다. 무엇보다 동시기에 제작된 기록화들과 묘법과 필치, 설채 방식 등 회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없음)

1592년(선조 25) 4월 25일 임진왜란 초기 동래부사로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宋象賢(1551~1592)을 비롯한 府民들의 抗戰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지정신청본은 앞 시기에 그려진 범본을 보고서 베껴 그린 모사본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주

제를 그린 것으로 육군박물관의 <동래부순절도>(1760년 작)와 울산박물관의 <동래부순절도>(1834년 작) 두 점이 전한다. 지정신청본을 이 두 점과 비교하면 도상과 화법에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 모사의 범본이 된 것은 이 두 점이 아닌 앞 시기에 그려진 다른 범본으로 추측된다.

지정신청본의 제작시기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단서는 화면 상단부의 성 안쪽과 성곽 너머에 있는 산(구월산)을 묘사한 부분이다. 수묵을 사용한 이 화법은 19세기 후반기에 나타나는 산수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방식이다. 선묘로 산의 굴곡과 질감을 나타내고, 먹점을 찍어서 그리는 이 화법은 이러한 화법이 유행하던 시기인 19세기 후반기에 지정신청본이 그려졌음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기에 그린 모사본인 지정신청본은 국가문화재 지정대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어 지정가치 부족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본 <동래부순절도>는 1592년(선조25) 4월 15일 동래성에서 왜군의 침략을 받고 싸우다 순절한 부사 宋象賢(1551-1592) 이하 군민들의 항전내용을 그린 일종의 전쟁기록화이다.

<동래부순절도>가 문헌기록에 처음 언급된 것은 『泉谷先生集』(1835)에서이다. 1658년(효종9) 동래부사로 부임한 閔鼎重(1628-1692)은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였던 송상현 이하 軍官民이 왜적과 싸우며 보여주었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동래부순절도를 제작하고자 했다. 민정중은 당시의 전투상황을 아는 노인의 말을 토대로 하여 ‘집을 官道 옆에 짓고 화공을 시켜 사적을 그리려 했지만(「壬辰遺聞」)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 후 1709년(숙종35)에는 부사 權以鎭이 사당을 짓고 뜰 가운데 비각을 세우고 좌우의 중앙벽면에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권이진이 그리게 한

<동래부 순절도>는 아마도 벽화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1760년(영조36)에 이르러 부사 洪名漢은 훼손된 순절도를 邑人 卞璞에게 그리도록 하였으며, 이 그림을 忠烈祠에 보관토록 하였다는 기록(『忠烈祠志』 권 8, 本府殉節圖序)이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紙本으로 된 <동래부순절도>는 1760년(영조36)에야 비로소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2년 4월 13, 14일 鄭撥장군이 지키던 釜山鎭城을 함락시킨 후, 다음날인 15일 왜군들은 지체없이 동래성을 침략했다. 왜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긴급히 전해지자 동래부사 송상현을 중심으로, 양산군수 조영규, 울산군수 이언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고, 울산병영에서 부대를 이끌고 온 경상좌병사 이각이 전투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각은 앞서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격을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조영규가 ‘적의 군세가 수만이나 된다’고 하자, 송상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각 자신은 밖에서 지원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다. 당시 성안에는 아직 2500명 이상의 병력이 남아 있었다.

<동래부순절도>는 당시 조선군관민과 왜군들의 전투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체구도는 당시 치열했던 교전장면을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부감법을 사용하였다.

화면의 상단부에는 봉우리가 솟아 있는 산들이 그려져 있고, 능선의 윤곽을 따라 米點이 찍혀진 경직된 모습의 산악이 보인다. 그림의 중앙에는 동래부의 성곽이 둥글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아래 쪽에는 남쪽 성루를 중심으로 수비하고 있는 동래부 병사들과 이를 공략하기 위해 반달형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왜병들을 그려 넣었다.

화면 전체에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상은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지만, 동일 화면에 병치되어 있다.

먼저 화면의 근경이 되는 아래쪽 부분에는 왜군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있고 동래성 아래로 깃발 하나가 떨어져 있다. 왜구가 들고 있는 흰 목패에는 ‘假我道(길을 비켜달라)’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즉 ‘戰則戰矣 不戰則假我道(싸울 테면 싸우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동래성 아래로 떨어져 있는 목패에는 ‘假道難(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쓰여 있는데, 원래는 ‘戰死易 假道難(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

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이다. 왜군들은 뒤쪽에 조총수를 배치하고, 앞 쪽에는 동래성으로 돌진할 보병을 배치하였다. 조선군은 성 위에서 지체 없이 활시위를 당겨 왜군들을 막고 있다. 조총을 막으려는 방패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문의 공격은 실상 조선군의 주의를 돌리려는 술책으로서, 주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전첩보를 통해 동래성의 동쪽이 약하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왜군들은 동쪽 성벽을 일시에 공략하였다. 화면 상부 우측에는 이 장면들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쌍도를 든 왜군과 더불어 긴 왜창(길이 4m 50cm)을 든 왜군들이 성벽을 넘어 성안으로 난입, 돌진해 들어온다. 화면의 중앙 쪽에 왜군들을 향해 활을 겨누는 조선군이 몇 명보이지만, 숫적으로 열세였다. 동래성 안으로 난입한 왜군들은 다치는 대로 약탈을 자행했으며, 조선군은 성안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동래부순절도>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 화면의 왼쪽에 보인다. 부녀자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왜군들을 향해 기와장을 던지고 있다. 동래성 안 여기저기서 조선군 관민은 끈질기게 저항하였지만, 왜군은 계속 몰려들었다. 격전은 저녁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양산군수 조영규가 북쪽을 향해 임금에게 절을 올린 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며, 동래부사 송상현은 조복을 갈아입은 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화면 한 가운데에 묘사된 이 장면은 이 순절도에서 가장 초점을 이루는 장면이다. 또한 이 장면은 화면 왼쪽 상단에 그려진 성 밖으로 혼쫓나게 도주하고 있는 비겁한 이각의 모습과 대조되어 당시 송상현이하 조선군관민이 보여준 충절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동래부순절도>는 현재 세 점이 전해온다. 하나는 보물 392호로서 육군박물관 소장본이며, 하나는 1834년의 畵記가 있는 울산박물관 소장본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지정대상인 청주 고인쇄박물관본이다. 이 세 점의 순절도는 대동소이하나 약간의 세부차이를 보인다.

청주본은 보물 392호에는 보이던 남문 누각에서 지휘하는 송상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순절하는 송상현의 복장도 보물 392호와 울산본에선 붉은색 조복인데 반하여 여기선 소복이고, 또 절을 올리는 방향이 임금이 계신 북쪽이어야 하는데 남쪽을 향하고 있어 착오를 보인다. 또한 화면의 가장 밑쪽에 보이는 횡렬한 왜군들의 무기가 보물 392호에서는 모두 긴 창이었던 데 반하여 여기서는 칼과 창 등 다양한 무기이고, 동래성 남문밖에 진을 치고 도열한 왜군들의 모습도 반달형으로 겹겹이 조밀하게 에워싸고 있는데 반하여, 청주본은 숫적으로도 적고 느슨하게 풀어진 모습이다. 이 점에선 청주본과 울산본이 상통한다.

그러나 세 순절도 모두 조선군과 왜군 간의 모습을 복장만이 아니라 얼굴에서

독특하게 표현하였으니, 조선군은 둥근 형태로서, 왜군은 앞머리가 벗겨지고 각진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지어 묘사하였다.

□ 문화재전문위원

조사된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는 원래 화축으로 제작된 것이나 현재는 유리액자로 꾸며져 있다. 울이 굵고 거친 비단바탕에 먹과 채색을 사용하였는데 設彩는 그리 두터운 편이 아니다. 주황색, 적갈색, 청색, 암록색 위주의 채색이 인물의 의복과 건물 기둥, 의장기 등에 사용되었을 뿐 배경산수도 먹 위주의 수묵담채풍으로 그려져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조로운 색조를 이루고 있다. 화면에는 세로방향의 접힌 자국이나 갈라진 흔적이 많은 편이나 애초에 얇게 설채된 채색의 탈락과 벗겨짐은 미약하다. 주요 인물 옆에는 성명이 묵서되어 있는데 일부는 후기(後記)된 것이다. 같은 내용의 그림으로 보물 제392호로 지정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1834년 卞崑이 그렸다는 畫記가 적힌 울산박물관 소장본이 전한다.

○ 내 용

<동래부순절도>는 1592년 동래부사로 재임 중에 왜구에 맞서 대항하다 목숨을 바친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순절과 당시 동래부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東萊城의 전투 상황을 묘사한 전쟁기록화이다. 조사된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는 화면 구성과 이야기 묘사는 전체적으로 울산박물관 소장본과 가까우며, 19세기 후반의 화풍을 보여준다. 19세기의 화풍은 일점투시도법으로 그려진 건물 묘법, 호분으로 표시된 칼날의 명암, 높은 곳날이 뚜렷한 측면 얼굴 표현, 홍살문의 지주(支柱) 표현, 동래부성 기단 부분의 박석(薄石) 표현 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수묵으로 그려진 거친 필치의 披麻皴과 米點, 비수가 심한 산 윤곽, 농묵의 두터운 측필을 사용한 바위 질감, 각종 點葉法으로 묘사된 수풀과 땅의 표현 등은 19세기 후반의 산수화풍과 상통한다. 다만 이는 전형적인 도화서의 畫員 화풍과는 거리가 있으며 지방의 外方畫師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식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앙 화단의 畫員 화풍으로 제작 시기를 비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기 비정은 좀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 특 징

문헌기록에 의하면 <동래부순절도>는 원래 1658년(효종 9)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처음 구상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1709년(숙종 35) 동래부사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이 처음 제작하였다. 그후 1760년 홍명환(洪名

漢, 1724-1774)이 읍인(邑人) 변박(卞璞)을 시켜 개모케 하였다고 한다.

조사된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를 1760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 볼 때 동래 객사 영역이 사각형의 담장 안에 뚜렷하게 구획되어 있으며, 지붕에 올라 석전(石戰)으로 저항하는 부녀자들의 표현이 매우 약화되었다. 또한 그림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객사 앞의 송상현과 양산군수 조영규(趙英珪), 겸인 신여로(伸汝櫓) 등의 위치 및 자세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객사 뒤편 정원루의 공자(孔子) 위패에 배례하는 인물들의 위치도 달라졌다. 송상현은 동래성 남문루 우측에 갑옷 차림으로 다시 한번 등장한다. 이같이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는 송상현의 공적과 순절을 강조하기 위해 시선을 송상현에게 집중시키려는 장치가 적극 가미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 지정 가치가 부족한 이유

- 1) 여산송씨 종중 소장 <동래부순절도>는 화풍 상으로는 19세기의 회화적 특징을 간직한 후대의 개모작이다.
- 2) 그림에 제작 시기나 제작자를 시사하는 기록이 없어서 후모된 이력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 3) 그림의 내용으로 볼 때 최초의 원작이 의도하였던 제작 목적과 취지에서 다소 멀어졌다.
- 4) 무엇보다 동시기에 제작된 기록화들과 묘법과 필치, 설채 방식 등 회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 현 상

유리가 끼워진 표구 액자 상태이다. 그림 바탕은 비단이며, 표제나 제작 과 관련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송상현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그림 옆에 먹글씨로 이름을 적어놓았다. 비단 표면은 꺾인 부분과 균열이 난 부분이 있어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화면에는 뒷시기에 가채를 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1592년(선조 25) 4월 25일 임진왜란 초기 동래부사로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宋象賢(1551~1592)을 비롯한 府民들의 抗戰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동일한 주제를 그린 <동래부순절도>가 육군박물관과 울산박물관에 한 점씩 소장되어 있다. 이 두 점은 제작연대가 밝혀져 있다.

본 지정신청 자료인 <동래부순절도>는 동래부 성곽 안팎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부감법을 적용하여 군사와 부민들의 항전 장면을 묘사하였다. 성곽의 아래쪽은 왜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결전을 치르는 전투 장면이고, 성 안쪽은 침입한 왜적과 흩어져 전투하는 장면, 동래부사 송상현이 순절을 앞두고 객사(客舍) 앞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장면, 화면 왼편 상단에는 달아나는 경상좌변사 이각(李珣)을 그렸다. 임진왜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구전에 근거하여 구성한 그림이다.

지정신청본은 앞 시기에 그려진 범본을 보고서 베껴 그린 모사본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주제를 그린 것으로 육군박물관의 <동래부순절도>(1760년 작)와 울산박물관의 <동래부순절도>(1834년 작) 두 점이 전한다. 지정신청본을 이 두 점과 비교하면 도상과 화법에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 모사의 범본이 된 것은 이 두 점이 아닌 앞 시기에 그려진 다른 범본으로 추측된다.

지정신청본에 나타난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지정신청본을 육군박물관본과 비교해 보면, 육군박물관본 보다 뒷 시기의 그림에서 가능한 화풍이 많이 나타나 있다.

지정신청본의 일부에는 건물을 생략하거나 변형시켜 그린 부분이 있다. 이런 요소는 육군박물관본 보다 뒷 시기에 그려진 모사본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인물묘사에도 육군박물관본은 왜군의 얼굴 표현이 좌, 우등 여러 방향이 섞여 있는데, 지정신청본에는 낯날이 강조된 측면의 모습이 획일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육군박물관본 보다 뒷 시기에 그려진 형식화된 요소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다.

또한 송상현이 입고 있는 갑옷은 팔 가리개가 있는 중국식 전투복이며, 화면의 가장 아래에 그려진 장창, 언월도, 장식도끼, 철퇴 등은 육군박물관본에서 볼 수 없는 생경한 요소들이다. 또한 지정신청본은 육군박물관본에 비하면, 전체 전투장면에 긴장감이 떨어지며, 성 외곽에서 공격하는 왜적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두 겹으로 된 전투대열도 한 줄로 만 그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 또한 지정신청본이 육군박물관본 보다 뒷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이다.

지정신청본의 제작시기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단서는 화면 상단부의 성 안쪽과 성곽 너머에 있는 산(구월산)을 묘사한 부분이다. 수묵을 사용한 이 화법은 19세기 후반기에 나타나는 산수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방식이다. 선묘로 산의 굴곡과 질감을 나타내고, 먹점을 찍어서 그리는 이 화법은 이러한 화법이 유행하던 시기인 19세기 후반기에 지정신청본이 그려졌음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기에 그린 모사본인 지정신청본은 국가문화

재 지정대상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문헌자료>

閔鼎重, 『泉谷集』, 「壬辰遺聞」 『忠烈祠志』

2.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가. 검토사항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의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1.8.2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2.19)를 실시하였음.
- 동 문화재 지정조사시 태종 현릉 구신도비 및 세종 영릉 신도비에 대한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비교조사를 실시하였음.(’13.2.25)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 명 칭 :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 수 량 : 1기
- 규 격 : 전체 높이 448cm. 비신 높이 227cm. 너비 120cm.
두께 21cm. 이수 높이 116cm. 귀부 높이 105c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1409년(태종 9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있음)

①태조건원릉신도비는 조선 왕릉 내 총 3기의 왕의 신도비 중 첫 번째 비로, 지금으로부터 604년 전 세운 것이다. ②태조건원릉신도비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건국 과정을 비롯한 그의 생애와 업적 등을 영원히 기리고자 글로 일대기를 짓고 돌에 새겨 세운 비이다. ③태조건원릉신도비는 이수와 비신과 귀부가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조 초 왕의 신도비는 물론 여타 신도비의 전형으로 남아있다. ④태조건원릉신도비는 당대의 신망 있는 문신이자 큰 학자였던 권근이 비문을 짓고, 문신으로 명문장가였던 변계량이 비음기를 지었으며, 명신 서예가인 정구가 전액을 쓰고, 조선조 초 명신이자 명필로 이름을 드날렸던 성석린(成石麟)이 비문글씨를 썼다. 조선조의 서예사를 비롯한 역사·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다. ⑤태조건원릉신도비는 독립적인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있음)

이 신도비는 고려의 선사 신도비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양식적으로 특징적인 점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신도비의 조각은 조선 초 창업의 기운이 담겨있으며, 질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서법이 살아 있으며, 태조의 행적을 기록하여 이후 많지는 않지만 왕릉 신도비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건원릉 신도비는 조선 초 왕릉에 세워진 최초의 신도비라는 점, 고려 선사신도비의 양식을 계승한 점, 신도비의 조각이 웅장하고 기상이 있다는 점, 서체가 살아 있는 점, 태조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서 왕릉 신도비의 남상에 해당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이 신도비는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임금의 왕릉 신도비로 태종 9년(1409)에 조성되었으며 현재의 비좌는 후대에 신조된 것이다. 비문은 권근이 짓고 글씨는 성석린의 필적으로 새겨진 조선 초기 석비의 귀중한 문화재이다. 특히 건원릉 신도비는 단 3기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초기 왕릉 신도비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그간 이 석비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가 중요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비좌는 후대에 신조되어 완형이 결여되었지만 비신이 상실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석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 따라서 이 석비가 완형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조형이 예고되는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최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석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지정 예고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1409년(태종9)에 세운 태조건원릉신도비는 귀부(龜趺)와 비신(碑身)과 이수(螭首)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조선조 왕릉에 세운 왕의 신도비의 전형이 되고 있다. 2단 대좌를 포함한 신도비의 총 높이는 448cm, 비신 높이 227cm, 너비 120cm, 두께 21cm, 이수 높이 116cm, 귀부 높이 105cm이다. 화강암 석재로 이루어진 비신은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비면이 약간 마모되고 금이 갔지만, 그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 비는 현재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91년 (숙종16)에 건립하고 1869년(고종9)에 다시 수리된 건원릉 비각 안에 건원릉 묘표와 함께 잘 보존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2단 대좌를 포함한 신도비의 총 높이는 448cm이며, 이 중 비신의 높이는 227cm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도비의 머리에 해당하는 이수(螭首)의 높이는 116cm, 너비 120cm이며, 그 정 중앙에는 당시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정구(鄭矩1305~1418)의 전서체 글씨 ‘태조건원릉비(太祖健元陵碑)’의 전액이 새겨져 있다. 이수에는 네 마리의 용의 몸이 뒤엉킨 채 두 발을 내린 자세로 조각되어 있다. 용의 몸통은 거의 좌우 대칭을 이루고, 이수의 양 측면에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 두 마리 용의 머리가 나란히 조각되어 있다. 아래를 향하고 있는 두 마리의 용머리 중 한 마리는 길게, 다른 한 마리는 짧게 약간의 층위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수염이 머리와 뺨을 휘감아 돌며 훑날리는 모습은 마치 일렁이는 파도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수의 앞뒤 문양은 거의 유사하게 조각되어 있지만, 앞면이 뒷면에 비해 구름 모양이 첨가되어 좀 더 많은 장식성을 띠고 있다. 용의 골격과 비늘이 매우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어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비면에 새겨진 신도비문은 문신으로 큰 유학자였던 권근(權近, 1352~1409)이 지었다. 권근은 호가 양촌(陽村)으로 이색(李穡, 1328~1396)과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인이며, 정도전(鄭道傳, ?~1398)과 함께 조선조 유교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도비문은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 현몽했던 신화내용과 태조의 혁혁한 가계, 고려말의 혼란상과 공양왕으로부터의 선위(禪位)에 의한 등극과정, 개국 후 국정 쇄신의 공적, 태종의 책봉과 태조 가솔들의 애경사 등을 밝히고, 조선조의 영원한 영광과 번영을 비는 마음과 함께 태조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의 명문(銘文)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음기(陰記)는 당대의 문신이자 명 문장가였던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지었다. 변계량은 호가 춘정(春亭)으로 이색과 정도전의 문인이다. 20년간 대제학을 역임하면서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다. 비음기는 태조의 창업을 기리고 태조에 대한 태종의 효심을 밝히면서, 51명의 개국공신(開國功臣), 23명의 정사공신(定社功臣), 43명의 좌명공신(佐命功臣) 이름을 적고 있다.

신도비문과 음기의 글씨는 좌명공신으로 조선 초의 명신이자 명필이었던 성석린(成石璘, 1338~1423)이 썼다. 성석린은 호가 독곡(獨谷)으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신도비 글씨는 강건하면서도 힘준한 구양순서체(歐陽詢書體)에 근엄하면서도 장중한 안진경서체(安眞卿書體)를 약간 가미하여 쓴 것이다. 근엄하면서도 전아한 해서체 글씨는 15세기 조선조 초의 대표적인 금석문이다.

신도비의 비신을 받치고 있는 귀부는 바닥에 납작 깔려있는 낮은 자세이며, 거북의 머리는 둥근 형체에 불룩한 코, 작게 튀어나온 눈, 꼭 다문 입술로 인해 귀여운 인상을 띠고 있다. 목은 약간 들고 갑옷은 마치 두꺼운 목 칼라처럼 귀갑(龜甲)이 한번 접혀서 바닥으로 흐르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목선과 피부는 선각(線刻)하여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등에 대칭적으로 얇게 새겨진 귀갑문과 두툼하고 둥근 몸통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우아한 품위를 견지하고 있다. 귀부 아래에 연화문을 조각한 2단의 기단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능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선의 개국 시조인 태조에 대한 특별 예우에서 설치된 것이라 생각된다. 2중 기단은 복련(覆蓮)의 연꽃 문양이 조각되고, 귀부 하단은 이와 반대로 양련(仰蓮)이 고부조(高浮彫)로 조각되어 있어 상하 기단이 시각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문헌자료>

『태종실록』 (권6, 권7, 권16, 권22, 권47)

『장서각 소장 탁본 자료집』 (2) 「조선왕실(태조~현종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조선왕릉 금석문대전』, 구리청소년 수련관, 2008.

○ 태조건원릉신도비문과 비음기1)

건원릉 신도비문

유명 시 강헌 조선국 태조 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 건원릉의 신도비명과 그 서문

추충익대좌명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 승정대부(崇政大夫) 길창군(吉昌君)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겸(兼) 관내섬시사(判內贍寺事)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
館事) 세자이사(世子貳師) 신(臣) 권근(權近)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수충동
덕익대좌명공신(輸忠同德翊戴佐命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
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 판이조사(判吏曹事)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영경연
사(領經筵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傅)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신
(臣) 성석린(成石璘)은 왕명을 받들어 글씨를 쓰며,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의정부
사(知議政府事)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 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신(臣)
정구(鄭矩)는 왕명을 받들어 전액을 쓰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돌봐 다스리는 운수를 열어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특이한 징조를 나타내어 임금이 될 상서로운 조짐[符命]을 드러낸다. 하(夏)에는
현규(玄圭: 검은빛의 옥으로 된 홀)를 내려준 일이 있었고, 주(周)에는 협복의 꿈
[協卜之夢]이 있었으며, 한(漢) 이후로도 각 왕조마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것
들은 모두 하늘이 내린 것이지 사람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는 아직 용연(龍淵:임금이 되지 아니한 상태. 潛邸
와 같은 뜻)에 계실 때 이미 공훈과 덕이 높았으며 임금이 될 상서로운 조짐 또
한 현저하셨다. 꿈에 신인(神人)이 금척(金尺:금으로 만든 자)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며 말하길 “공(公)은 마땅히 이것을 지니고 나라를 바로잡으리라.”고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라의 현규나 주나라 협복의 꿈과 동일한 조짐이라 하겠다. 또
한 이인(異人)이 문 앞에 와서 글을 올리며 이르길 “지리산의 바위 속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였는데, 거기에는 ‘나무 아들이 삼한을 고쳐 바로잡는다[木子更正三
韓]’는 말이 쓰여 있었다. 사람을 시켜 마중하게 하니 그는 이미 가버린 뒤였다.
서운관(書雲觀: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존속하였던 관청으로, 천문을 관찰, 기록하
고 역서를 편찬하며 날씨와 시간을 관장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에 예전부터
간직해온 비기(秘記)의 구변진단지도(九變震檀之圖)에 ‘나무를 세워 아들을 얻는다
[建木得子]’는 말이 있는데, 조선이 곧 진단(震檀)이라는 설이 수 천년전부터 흘러
내려오다가 이제야 증험 되었으니,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돌보아 돕는다는 것이 참

1) 『고려사』, pp.460-479 . 『고려사』 (, 2012)

으로 징험이 있다 하겠다.

신(臣)이 삼가 상고하건대, 선원(璿源)의 이씨는 전주(全州)의 명망있는 가문이었다. 사공(司空)은 휘(諱)가 한(翰)으로 신라에 벼슬하셨고 종실의 딸에게 장가드셨다. 6대손 공휴(兢休)에 이르러 처음으로 고려에 벼슬하셨고, 13대손황 고조(皇高祖) 목왕(穆王)께서는 원(元)의 조정에 들어가 벼슬하여 천부장(千夫長)이 되셨으며, 그 뒤 4대에 걸쳐 습작(襲爵)하여 모두아름다운 덕을 이루셨다. 원의 정치가 쇠미하게 되자 황고(皇考)이 신환왕(桓王)께서는 돌아와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을 섬기었다.

지정(至正) 신축(辛丑:1361)년 홍건적(紅巾賊)이 쳐들어와 왕경(王京: 즉수도인開京)을 함락하자 공민왕은 남쪽으로 피난하여 군사를 보내 수복하게 하였는데, 우리 태조께서 가장 먼저 승첩의 보고를 올리셨다. 이듬해인 임인(壬寅:1362)년에는 오랑캐 나하추(納哈出)를 격퇴하여 달아나게 하셨으며, 또 그 이듬해인 계묘(癸卯:1363)년에는 위왕(僞王) 터치물[塔帖木]을 물리쳐 쫓아내니, 공민왕이 믿고 의지함이 더욱 두터워졌고 여러 차례 벼슬이 올라 장상(將相)에 이르게 되셨다. 안팎을 드나들면서도 즐겨 경전과 사서를 보고 힘써 노력함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니, 세상을 구제할 도량과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은 지성(至性)에서 나오신 것이었다. 공민왕이 흥서(薨逝)하고 성씨가 다른 이가 왕위를 절취(取)하니,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주물러 조정의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왜구들이 나라 안으로 깊이 침입하여 군(郡)과 현(縣)을 불사르며 약탈하곤 하였다. 이에 홍무(洪武) 경신(庚申:1380)년 우리 태조께서 운봉(雲峯)에서 싸워 이기니 동남쪽이 편안하게 되었다. 무진(戊辰:1388)년 시중(侍中) 최영(崔瑩)이 권간(權奸)들을 베고 무찌를 때에 지나치게 참혹하게 하였는데, 우리 태조에게 의지하여 삶을 보전한 자가 자못 많았다. 이에 최영은 태조를 우시중(右侍中)으로 삼고 우군도통(右軍都統)의 절월(節鉞)을 수여하면서 억지로 요동(遼東)을 공략토록 하였다. 군사가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를 때에 (태조께서는) 앞장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의로움에 의거하여 군사를 되돌리셨는데, 군사들이 강 언덕에 오른 뒤에 큰물이 섬을 삼켜 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었다. (태조께서) 집정하자 최영을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이름난 유학자 이색(李穡)을 좌시중(左侍中)으로 삼으셨다. 바야흐로 이 무렵에는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어지럽히고 미친 듯 패려한 자들이 서로 모함하여서 위망(危亡)이 급급하고 화란(禍亂)을 예측할 수 없었으니, 우리 태조의 되돌리는 힘[轉移之力]이 아니었다면 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색이 “이제 공께서 의로운 일을 거사하여 중국을 높였으나, 집정대신이 친히 입조(入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고 말하며 날을 정해 명나라의 서울로 가도록 하였다. 태조께서는 여러 아들 가운데 지금의 우리 주상전하를 택하여 이

색과 함께 입조토록 하니 고황제(高皇帝)께서 칭찬하며 상을 내리고 돌려보냈다.

기사(己巳:1389)년 가을 황제께서 성씨가 다른 이가 왕이 된 것을 힐책하자 태조께서는 장상(將相)들과 더불어 왕씨(王氏)의 종친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국왕으로 세우고 마음을 다해 정사를 보필하였다. 사전(私田)을 혁파하고 쓸데없는 관원들을 도태시키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즐거워하였으나, 공이 높아지니 시기를 당해 참소와 모함이 번갈아 일어나자 정창이 자못 이에 미혹하게 되었다. 태조께서는 벼슬이 성대하므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사퇴함을 얻지 못하셨다. 그때 마침 서행(西行)하는 일로 병을 얻어 돌아오시니 모함하는 자들의 음모가 더욱 급박해졌으나, 우리 전하(태종)께서 상황에 대응하여 변고를 제압하니 온갖 음모들이 와해되었다.

홍무 임신(壬申:1392)년 가을 7월16일에 전하와 대신 배극렴(裴克廉), 조준(趙浚) 등 52인이 창의(倡義)하여 태조를 추대하니, 미리 모의하지 않은 신료(臣僚)와 부로(父老)들도 모두 뜻을 함께하였다. 태조께서는 변고를 들으시고 놀라 일어나 두 번 세 번 굳이 사양하시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오르시어 마루와 섬들을 내려오지 않은 채 한 국가를 이루셨으니, 하늘이 덕 있는 이를 계도하여 돕지 않고서야 누가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태조께서는 즉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신(臣) 조반(趙胖)을 보내어 명나라에 알리니, 황제는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길 “삼한(三韓)의 인민들이 이미 이씨를 받들었으며 백성들에게는 병화가 미치지 않고 사람들은 제각기 하늘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으니, 이는 곧 상제(上帝)의명[帝命]이라 하겠소.” 하였다. 이어서 또 칙명을 내려서 “나라가 바뀌었으니 무슨 이름을 쓰려하오?” 하자, 즉시 예문관학사(藝文館學士) 신 한상질(韓尙質)을 보내 주청(奏請)하니, 다시 조서를 내려 이르길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에 근본하여 본받도록 함이 좋겠소.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길러서 후세 자손들이 영원토록 창성케 하오.” 하였다. 우리 태조의 위성(威聲)과 의열(義烈)이 위에까지 전해져 황제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었으므로 청명(請命)하면 곧바로 유음(俞音)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3년이 지난 갑술(甲戌:1394)년 여름에 우리나라를(명나라에) 무함한 자가 있어서 황제께서 친아들을 입조시키라 명하자 태조께서는 우리 전하가 경서에 능통하고 사리에 밝아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여기어 즉시 파견하여 명령에 응하셨다. 이윽고 도착하여 아뢰는 말씀들이 황제의 뜻에 부합하니 예를 갖추어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그해 겨울11월 한양에 도읍을 정하시고, 궁실을 짓고 종묘를 세우셨다. 일찍이 4대를 추존(追尊)하여 황고조를 목왕(穆王), 배위(配位) 이씨를 효비(孝妃)라 하시고, 황증조(皇曾祖)를 익왕(翼王), 배위 최씨를 정비(貞妃)라 하셨으며, 황조(皇祖)를 도왕(度王), 배위박씨를 경비(敬妃)라 하시고, 황고(皇考)를 환왕(桓王), 비(妃)

최씨를 의비(懿妃)라 하셨다. 예악을 닦고 제사를 삼가며, 관복의 제도를 정하여 위의(威儀)의 등차를 구분하고, 학문을 부흥시켜 인재를 육성하며, 봉록(俸祿)을 높여선 비들을 권장하고, 소송을 밝게 분별하여 바르게 판결하며, 수령(守令)들을 신중히 선택해 뽑아서 갖은 폐정(弊政)들을 모두 개혁하니, 여러 가지 공적이 밝게 빛나고 바다의 왜구들은 찾아와 복종하며 사방의 국경이 편안하게 되었다. 우리 태조의 우뚝하고 드넓은 성덕(盛德)은 참으로 이른바 하늘이 주신 용기와 지혜이니, 총명하고 신무(神武)하며 웅위(雄偉)한 임금이라 하겠다.

간신 정도전(鄭道傳)이 표전(表箋)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조정에 견책을 받게 되자,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음모하여 무인(戊寅:1398)년 가을 8월에 우리 태조께서 병중인 틈을 타서 어린 일자(嫡子)를 끼고 제 뜻을 멋대로 펴 보려고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그 기미를 밝게 살피어 남김없이 제거하고, 적자(嫡子)이며 장자(長子)라 하여 상왕(上王: 곧 정종)을 세자로 세울 것을 청하셨다. 9월 정축(丁丑)일에 태조께서는 병이 낫지 않자 상왕께 선위(禪位)하시고, 상왕은 후사가 없고 또 나라를 열고 사직을 안정시킨 것이 모두 우리 전하의 공적이라 하여 우리 전하를 세자로 책봉하셨다. 경진(庚辰:1400)년 가을 7월 기사(己巳)일에 태조께 ‘계운신무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는 호(號)를 올리셨고, 겨울 11월 계유(癸酉)일에는 상왕 또한 병 때문에 우리 전하에게 선위하셨다. 이에 사신을 보내 황제의 명을 청하자 영락(永樂) 원년(1403) 여름 4월에 황제는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파견하여 조서와 인장을 받들고 와 우리 전하를 국왕으로 봉하였다. 이어서 한림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 등을 보내와 전하께 곤룡포(袞龍袍)·면복(冕服)·구장복(九章服)을 하사하니, 품질(品秩)이 친왕(親王)과 다름없었다.

우리 전하께서는 양궁(兩宮: 태상왕과 상왕, 곧 태조와 정종)을 봉양함에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갖추셨다. 그러나 영락 무자(戊子:1408)년 5월24일에 태조께서 안가(晏駕:임금의죽음. 昇遐와 같다)하시었다. 춘추는 74세요 왕위에 계신지 7년이고 늙어서 정사를 살피지 않으신 것이 11년이더니 갑자기 활과 칼을 버리시니[弓劍忽遺:갑자기 승하함] 아, 슬프도다. 우리 전하께서는 그지없이 애통해하시며 양암(諒闇:임금이 거상할 때 있는 방)에서 거상의 예를 다하셨으며,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태조께 ‘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는 존호(尊號)를 올리셨다. 이 해 9월 초아흐레 갑인(甲寅)일에 도성의 동쪽 양주(楊州) 읍치의 검암산(儉巖山)에 장례를 모시니, 능호(陵號)는 ‘건원(健元)’이라 하시었다.

부고(訃告)를 알리자 황제께서는 매우 슬퍼하여 조회(朝會)를 열지 아니하고 즉시 예부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 등을 보내와 태뢰(太牢: 소를 통째로 바치는 나라의 제사, 또는 그 제물)로써 제사를 모시도록 하시었다. 그 제문에 대략 이르길 “왕은 밝고 통달하며 선을 좋아함이 천성에서 나왔고, 공경히 천도(天道)에 순종

하며 의로움을 본받고 충성을 다해 삼가 사대(事大)의 예를 공손히 하고 한 나라의 백성들을 보홀(保恤)하시었다. 우리 황고(명 태조)께서 그 충성을 매우 가상히 여겨 국호를 조선이라 회복하여 내리셨으니, 왕의 공덕이 현저함은 비록 옛 조선의 어진 임금일지라도 더 나올 수 없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또 고명(誥命)을 내려 시호를 ‘강헌(康獻)’이라 하시고, 전하에게 조칙을 내려 부의(賻儀)를 특별히 후하게 하사하시니, 남달리 총애하는 은전(恩典)이 지극히 갖추어져 아무런 유감됨이 없었다. 무릇 우리 태조께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전하께서 그 뜻을 이어받는 효성이 앞뒤에 서로 이어져서 능히 천심(天心)을 이 같이 누리셨다. 한나라가 끝나고 새나라가 시작되는 즈음에 크게 하늘과 사람, 위와 아래의 도움을 얻음이 이처럼 지극하였으니 아, 성대하도다.

태조의 수비(首妃) 한씨께서는 안변(安邊) 세가(世家)의 영문하부사 안천부원군(領門下府事安川府院君)에 증직된 휘 경(卿)의 따님이신데, 먼저 돌아가셨다. 처음의 시호는 절비(節妃)이시고, 뒤에 승인순성신의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로 시호가 더해지셨다. 6남2녀를 낳으셨으니, 상왕은 둘째이시고 우리전하는 다섯째이시다. 맏이는 방우(芳雨)이니 진안군(鎭安君)에 봉해졌으나 일찍 졸(卒)하였다. 셋째는 방의(芳毅)이니 익안대군(益安大君)에 봉해졌으며, 역시 일찍 졸하였다. 넷째는 방간(芳幹)으로 회안대군(懷安大君)에 봉해졌다. 여섯째는 방연(芳衍)으로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하지 아니했고 원윤(元尹)에 증직되었다. 맏따님은 경신궁주(慶愼宮主)이시니,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에게 하가(下嫁) 하셨는데, 그는 관향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둘째따님은 경선궁주(慶善宮主)로,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에게 하가하셨다.

차비(次妃) 강씨께서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윤성(允成)의 따님으로, 처음 현비(顯妃)에 봉해졌으나 먼저 돌아가셔서 신덕왕후(神德王后)라 시호하였다. 2남1녀를 낳으셨다. 맏아드님은 방번(芳蕃)으로 공순군(恭順君)에 증직되었고, 둘째는 방석(芳碩)으로 소도군(昭悼君)에 증직되었다. 따님 경순궁주(慶順宮主)는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에게 하가하셨는데, 그 역시 관향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모두 일찍 졸하였다.

상왕의 배필이신 김씨는 지금王大妃에 봉해지셨는데,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증직된 천서(天瑞)의 따님이시되 후사가 없으시다.

우리 중궁(中宮)이신 정비(靜妃) 민씨께서는 시호가 문도(文度), 휘가 제(霽)인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의 따님이시다. 4남4녀를 낳으셨다. 맏아드님은 세자이시고, 둘째아드님은 호(祐)이시니 효녕군(孝寧君)에 봉해지셨다. 셋째아드님은 도(禔)로서 충녕군(忠寧君)이시고, 막내 아드님은 아직 어리시다. 맏따님 정순궁주(貞順宮主)는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하가하셨으니, 그 역시 본관이 다른

이씨이다. 둘째따님 경정궁주(慶貞宮主)는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셨다. 셋째따님 경안궁주(慶安宮主)는 길천군(吉川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셨다. 막내따님은 아직 어리시다.

진안군은 찬성사(贊成事) 지운(池邇)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이며, 둘째는 원운 덕근(德根)이다. 익안대군은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증직된 최인두(崔仁斗)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익평군(益平君) 석근(石根)이 그이다. 회안대군은 문하찬성사 민선(閔璿)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하나를 낳았는데, 의녕군(義寧君) 맹중(孟衆)이 그이다.

신이 살펴보건대, 역대로 천명(天命)을 받아 창업한 임금은 덕업(德業)의 성대함과 부명(符命)의 신이함이 사서(史書)에 휘황히 빛나고 광채가 흘러내려 다함이 없다. 이제 우리조선이 탄생하여 일어남에 성대한 덕과 올곧은 부명이 예전보다 빛이 난다. 이는 이미 왕위를 얻음에 합당한 일이며 또 장수를 누림에 마땅할 것이니, 너른 터전 솟아오르고 큰 복은 흘러내려 천지와 더불어 장구하리라.

신 권근은 외람되이 비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자왔으니, 감히 정성을 다하여 성대한 덕을 펴서 밝은 빛을 후세에 드리우게 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나 신은 필력(筆力)이 비루하고 졸렬하여 성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전하의 밝은 뜻[明旨]에 부합되기에 부족하므로, 삼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공훈과 덕업을 찬술하여 감히 손 모두고 머리 조아리며 명(銘)을 드리는 바이다. 그 글은 이러하다.

하늘 이이 백성들 낳으시고
사목(司牧:임금)을 세우셔서
기르고 다스리게 하실 제
덕 있는 이를 사랑하여 돌보시네
하늘이 일일이 말하지는 않지만
천명은 혁혁하게 분명하여
우임금에게는 현규(玄圭)를 내리시고
주나라에는 협복(協卜)의 꿈이 있었네
우리 조선은
처음 터전 닦아 왕업을 이룩할 때
신인이 꿈속에서
금척을 주셨으니
부록(符籙)이 미리 정해져

하늘의 뜻 분명했네
 고려의 운수 이미 다하여서
 임금은 어리석고 정승은 잔혹하여
 농사철에 출병하여
 큰 나라에 싸움을 걸었다네
 우리 태조 의롭게 깃발을 되돌리니
 죄인들은 벌을 받고
 충성이 위에 들려
 황제께서 기뻐했네
 천운은 돌아오고
 민정은 절박하여
 새로운 왕업이 이루어졌으나
 저자의 가계조차 바뀌지 않았다네
 명나라 고향제께서 찬탄하여 이르시길
 그대가 나라를 이룩하였으되
 백성들은 병화없고
 하늘이 내린 즐거움을 누리누나 하시었네
 이어서 국호를 내리시니
 조선이란 옛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네
 길지 살피 도읍을 정하니
 한수의 북쪽일레
 범이 웅크린 듯 용이 도사린듯
 왕기가 쌓였어라
 궁궐은 높고 높으며
 종묘는 어엿하고 의젓하네
 어진마음 매우깊어 살리기를 좋아하며
 정치는 아름답고 생각은 온화하여
 백가지 제도들이 빠짐없이 이룩되고
 만가지 덕화가 흡족하게 갖추졌네
 근정(勤政)에 지치셔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전하시니
 마침내 공적있는 이에게 사양하여
 대를 이어 계승했네
 밝고 밝은 우리임금

자그마한 기미도 만드시 밝게 살펴
 두 번이나 화란을 평정하니
 그 경사 지극히 돈독했네
 나라 열고 사직을 안정시킨 것
 모두 우리전하 공적이니
 하늘의 뜻이야 사양하기 어려운 일
 신성한 왕권이 제대로 의탁되었네
 공경히 두 임금 받들어 봉양함에
 삼가고 공손하며 더욱 조심스러워
 효성과 우애가 신명에게 통하여서
 하늘의 돌보심이 더욱 도타웠네
 태상왕 상을 만나 근심에 잠긴 마음
 슬퍼하고 사모하여 몸부림쳐 통곡하셨네
 황제께서 부음듣고 매우 슬퍼하시며
 사신보내 조곡(弔哭)하고
 태뢰(太牢) 써서 제사하며
 부의(賻儀)를 후하게 하라 칙명을 내리시고
 아름다운 시호로 가상함을 상주시니
 조상하는 예법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네
 하늘의 보우하심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
 큰 복조 면면히 이어지고
 자손은 천억으로 번창하며
 종묘사직 유구하여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으리라

영락(永樂) 7년(1409) 4월 일 비석 세움

[비읍기]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태조 임금께서는 지극한 덕과 위대한 공으로 큰 왕업을 이룩하시고 날마다 정무에 부지런하시었다. 이윽고 옥체가 갈수록 미녕(未寧)하시어 아드님에게 선위(禪位)하시고 오랫동안 영양(營養)을 누리시더니, 영락(永樂) 무자(戊子)년(1408) 봄 정월에 다시 환후가 편치 않으셨다. 우리 전하(태종)께서

지극하신 정성으로 공경히 하늘에 명을 빌자 조금 차도를 보이시더니, 다섯 달이 지나 또 다시 발병하시어 정침(正寢)에서 승하하시었다. 예로써 양주(楊州)의 검암산(儉巖山)에 장례를 모시니, 서울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이다.

산은 장백산(長白山)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구불구불 2천여 리를 뺏어내려 철령(鐵嶺)에 이른 뒤 서쪽으로 꺾여 수백리를 달려 우뚝 멈추어선 것이 백운산(白雲山)이다.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백 여리를 흘러내리다 북쪽이 감싸이고 남쪽을 향한 산이 곧 검암산이다. 능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다. 능에서 곧게 남쪽으로 421척(尺) 되는 곳에 비석을 세워 우리 태조의 한결같이 성대한 공덕을 상세히 적어놓았다.

우리 전하께서는 또한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의 성명도 비의 뒷면에 나열함이 마땅하다 여기시고,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 또한 모두 기미를 살펴 계획을 정해 우리 태조의 창업을 도운 이들이니 아울러 그 이름을 새겨 길이 전하도록 신 계량(季良)에게 글을 지으라 명하셨다.

그윽히 생각건대, 하늘이 큰 덕 있는 분을 내시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굉지신(股肱之臣)·보필지신(輔弼之臣)을 주어 앞뒤로 분주히 움직이며 앞에서 열어주고 뒤에서 지키도록 한 뒤에야 위대한 공훈이 이룩되고 훌륭한 업적이 장구하게 된다. 우리태조께서 왕업을 일으키실 때에도 문무의 대신들이 천명(天命)을 올바로 알아 좌우에서 보필하였다. 나아가 무인(戊寅)년(1398)의 사직을 안정시킨 일[定社]이나 경진(庚辰)년(1400)에 천명을 보좌한 일[佐命] 또한 훈친(勳親)과 양필(良弼)이 서로 도와 그 공적을 이루어서 국운을 영원토록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비석에 이름을 새겨 장래에도 빛나게 해야 마땅하다. 우리 전하께서 조상의 공덕을 현양(顯揚)하심과 훈신(勳臣)들의 아름다움을 포장(褒獎)하심도 또한 영원히 스러지지 않도록 아울러 전해야 마땅하리라.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좌참의(禮曹左參議) 수문전직제학(修文殿直提學) 지제교(知製敎) 지문서응봉사사(知文書應奉司事)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 신(臣) 변계량(卞季良)은 삼가 절을 올려 머리를 조아리고 기록하다.

개국공신

의안대군 화 문하좌시중 배극렴 영의정부 사조준 상락부원군 김사형 안평부원군 이서 한산부원군 조영무 봉화백 정도전 판삼사사 윤호 흥안군 이제 청해군 이지란 성산군 이직 한천군 조운 의정부찬성사 남재 영성군 오사충 판한성부사 정희계 호조판서 조박 흥녕군 안경공 참찬의정부사 장사길 의성군 남은 예문관대학사 정충 지의정부사 김락 이성군 손홍중 옥천군 유창 평성군 조건 청성군 정탁 서천

군 한상경 예문관대학사 심효생 계림군 김군 관중추원사 이근 복흥군 조반 한산
군 조인옥 평해군 황희석 지중추원사 조기 지중추원사 김인찬 장성군 정룡수 지
중추원사 장담 보성군 오몽을 남양군 홍길민 동원군 함부림 참지의정부사 황거정
홍성군 장지화 흥원군 이부 참지의정부사 민여익 화성군 장사정 서성군 유원정
완성군 이백유 고성군 고려 상산군이민도 호조전서 조영규 판선공감사 임언충 상
장군 한충

정사공신

의안대군화 익안대군 방의 영안군 양우 청원군 심종 봉녕군 복근 영의정부사 조
준 상락부원군 김사형 영의정부사 하륜 의정부우정승 이무 한산부원군 조영무 병
조판서 천우 청해군 이지란 한천군 조운 호조판서 조박 안성군 이숙번 참찬의정
부사 장사길 취산군 신극례 지의정부사 김락 청성군 정탁 지중추원사 장담 화성
군 장사정 중추원부사 장철

좌명공신

의안대군화 완천군 숙 영의정부사 하륜 의정부좌정승 성석린 의정부우정승 이무
한산부원군 조영무 병조판서 천우 청해군 이지란 성산군 이직 한천군 조운 길창
군 권근 칠원군 윤저 호조판서 조박 안성군 이숙번 이조판서 유량 취산군 신극례
면성군 한규 연성군 김정경 계성군 이래 한평군 조연 의성군 김영렬 지의정부사
박석명 여산군 김승주 철성군 이원 곡성군 연사종 반성군 박은 장천군 이종무 과
평군 윤곤 남성군 홍서 풍천군 심구령 참지의정부사 황거정 마성군 서익 회녕군
마천목 칠원군 윤자당 이성군 서유 서녕군 유기 평강군 조희민 계림군 이승상 희
천군 김우 영양군 이응 원평군 윤목 월천군 문빈 여량군 송거신

의정부좌정승(議政府左政丞)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신(臣) 성석린(成石璘)이
72세에 쓰다.

<標點校勘 太祖健元陵神道碑文>

太祖健元陵碑(篆額)

有明諡康獻朝鮮國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健元陵神道碑銘并序

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集賢殿大提學兼判內膳寺事知經筵春秋館事世子貳
師臣權近奉教撰

輸忠同德翊戴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政丞判吏曹事²⁾修文殿大提學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昌寧府院君臣成石璘奉教書
資憲大夫知議政府事集賢殿提學知經筵春秋館事臣鄭矩奉教篆³⁾

天眷有德，以開治運，必先現異，彰其符命。夏有玄圭之錫，周有協卜之夢，⁴⁾ 由漢以降，代各有之，皆由天授，非出人謀。

惟我太祖大王之在龍淵也，勳德既隆，符命亦著。夢有神人，執金尺自天降而授之曰，公宜持此正國，夏圭周夢，可同符矣。又有異人來門獻書云，得之智異山巖石之中，有木子更正三韓之語。使人出迎則已去矣。書雲觀舊藏秘記，⁵⁾ 有九變震檀之圖，建木得子，朝鮮即震檀之說，出自數千載之前，由今乃驗，天之眷佑有德，信有徵哉。

臣謹按，璿源李氏，全州望姓。⁶⁾ 司空諱翰，仕新羅，娶宗姓之女。六世而至兢休，⁷⁾ 始仕高麗，十三世而至皇高祖穆王，入仕元朝而長千夫，四世襲爵，咸能濟美。元政衰，⁸⁾ 皇考桓王，還事高麗恭愍王。至正辛丑，紅寇陷王京，恭愍南遷，遣師克復，我太祖先登獻捷。明年壬寅，擊走胡人納哈出，又明年癸卯，却逐僞王塔帖木，恭愍恃倚益重，累官至將相。出入中外，樂觀經史，亶亶無倦，濟時之量，好生之德，出於至性。恭愍薨，異姓竊位，權姦擅國，濁亂朝政，海寇深入，焚掠郡縣。洪武庚申，我太祖戰捷雲峯，東南以安。藏戊辰，侍中崔瑩，誅戮權姦，過於慘酷，賴我太祖，全活頗多。乃以太祖為右侍中，⁹⁾ 仍授右軍都統節鉞，逼遣攻遼。師次威化島，倡率諸將，仗義旋旆，¹⁰⁾ 師既登岸，大水沒島，人皆神之。執退瑩，代以名儒李穡為左侍中。方是時也，權姦濁亂，¹¹⁾ 狂悖構隙，¹²⁾ 危亡岌岌，禍亂莫測，非我太祖轉移之力，一國殆矣。穡曰，今公舉義，以尊中國，然非執政親朝則不可，剋日如京。太祖為擇諸子，以今我主上殿下，與穡偕朝，高皇帝嘉賞而遣。己巳秋，帝責異姓為王，太祖與將相，選立王氏宗親定昌君瑤，盡心輔政，革私田，汰冗官，羣情胥悅，¹³⁾ 功高見忌，讒慝交構，¹⁴⁾ 定昌頗惑焉。太祖以盛滿請老而不得謝。會因西行，遘疾而還，謀者益急，我殿下應機制變，群謀瓦解。

2) 曹가 < > < > 曹 曹 曹,

3) 撰者, 書者, 篆者 < >

4) 協 < > < > 協

5) 藏 < > < > < > 藏

6) 姓 < > < > 族

7) 兢 < > < > 競

8) 元政衰가 < > 元政既衰

9) 乃以太祖為右侍中 < > 瑩以太祖為侍中

10) 仗 < > 杖

旆가 < > < > 旆 旆 旆

11) 姦 < > < > < > 奸

12) 構가 < > 構

13) 羣 < > 群 羣 群 本字

14) 構가 < > 構

洪武壬申秋七月十六日，殿下與大臣裴克廉趙浚等五十二人，倡義推戴，臣僚父老，不謀僉同。太祖聞變驚起，牢讓再三，勉登王位，不下堂陛而化邦國，¹⁵⁾ 非天啓佑有德，疇克如茲。即遣知中樞院事臣趙胖奏聞，帝詔曰，三韓之民，既尊李氏，民無兵禍，人各樂天之樂，乃帝命也。繼又有勅，國更何號，即遣藝文館學士臣韓尙質奏請，又詔曰，維朝鮮之稱美，可以本其名而祖之，體天牧民，永昌後嗣。繇我太祖威聲義烈，升聞于上，簡在帝心，故當請命，輒蒙俞音，¹⁶⁾ 豈偶然哉。越三年甲戌夏，有構國家者，¹⁷⁾ 帝命遣親男入朝，太祖以我殿下通經達理，賢於諸子，即遣應命。既至，敷奏稱旨，優禮賜還。

其冬十一月，定都于漢陽，營宮室建宗廟。嘗已追尊四代，皇高祖爲穆王，配李氏爲孝妃，皇曾祖爲翼王，配崔氏爲貞妃，皇祖爲度王，配朴氏爲敬妃，皇考爲桓王，妃崔氏爲懿妃。修禮樂而愆祀事，定章服而辨等威，興學以育才，重祿以勸士，辨析詞訟，¹⁸⁾ 慎簡守令，弊政悉革，¹⁹⁾ 庶績惟熙，²⁰⁾ 海寇來服，四境按堵。我太祖巍蕩盛德，²¹⁾ 眞所謂天錫勇智，聰明神武雄偉之主也。

姦臣鄭道傳，²²⁾ 以表辭獲譴帝庭，陰謀拒命，戊寅秋八月，乘我太祖不豫之際，欲挾幼孽，以肆己志。²³⁾ 我殿下炳幾殲除，以嫡以長，請建上王爲世子。九月丁丑，太祖以疾未瘳，禪于上王，上王未有繼嗣，且謂開國定社，咸我殿下之績，乃冊爲世子。庚辰秋七月己巳，²⁴⁾ 獻太祖以啓運神武太上王之號，冬十有一月癸酉，上王亦以疾禪位于我殿下。遣使請命，永樂元年夏四月，帝遣都指揮使高得等，奉詔印來，封我殿下爲國王。繼遣翰林待詔王延齡等，來賜殿下袞冕九章，秩視親王。

我殿下奉養兩宮，誠敬備至。永樂戊子五月二十四日壬申，太祖晏駕。春秋七十四歲，在王位七年，老不聽政十有一年，弓劍忽遺，嗚呼痛哉。我殿下哀慕罔極，諒闇盡禮，奉冊寶上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之號。以是年九月初九日甲寅，葬于城東楊州治之儉巖山，²⁵⁾ 陵曰健元。

及訃聞，皇帝震悼罷朝，即遣禮部郎中林觀等，賜祭以大牢。其文略曰，惟王明達好善，出於天性，敬順天道，效義摠忠，恭謹事大，保恤一方之民。我皇考深嘉忠誠，賜復國號曰朝鮮，王功德之著，²⁶⁾ 雖古朝鮮之賢王，無以過也。又賜誥命，²⁷⁾ 諡曰康獻，²⁸⁾ 又勅殿

15) 陛가 < > < > 階
 16) 輒 < > 輒 . 輒 輒 俗字 .
 17) 構가 < > 構 .
 18) 析 < > < > 析
 19) 弊가 < > 弊
 20) 惟가 < > < > 維
 21) 太가 가
 22) 姦 < > 奸
 23) 已()가 가 已()' . < > < > < > . ' ()'
 24) 辰 < > < > 申
 < > < > 七
 25) 儉巖山 < > 儉巖之山
 26) < > < > 德'

下，賜賻特厚，寵異之典，備極無憾。蓋我太祖畏天之誠，殿下繼志之孝，前後相承，克享天心。故於始終之際，大獲天人上下之助，如此其至，嗚呼盛哉。

首妃韓氏，安邊世家，贈領門下府事 安川府院君 諱 卿之女，先薨。初諡節妃，後加諡承仁順聖神懿王后。²⁹⁾ 誕六男二女，上王居二，我殿下居五。長曰芳雨，鎮安君，先卒。次三芳毅，益安大君，亦先卒。次四芳幹，懷安大君。次六芳衍，登科不祿，贈元尹。女長慶慎宮主，下嫁上黨君李佇，非一李也。次慶善宮主，下嫁青原君沈淙。

次妃康氏，判三司事允成之女，初封顯妃，先薨，諡神德王后。誕二男一女。男長芳蕃，贈恭順君，次芳碩，贈昭悼君。女慶順宮主，下嫁興安君李濟，亦非一李。皆先卒。

上王配金氏，今封王大妃，贈門下侍中天瑞之女，無嗣。

我中宮靜妃閔氏，³⁰⁾ 驪興府院君 諡文度公 諱 霽之女。誕四男四女。男長世子，次祐，孝寧君。次禔，忠寧，次幼。女長貞順宮主，下嫁清平君李伯剛，亦非一李。次慶貞宮主，下嫁平壤君趙大臨。次慶安宮主，下嫁吉川君權跬。次幼。

鎮安娶贊成事池齋之女，生二男。長曰福根，奉寧君。次曰德根，元尹。益安娶贈門下贊成事崔仁斗之女，生男曰石根，益平君。懷安娶贈門下贊成事閔璿之女，生男曰孟衆，義寧君。³¹⁾

臣觀，歷代受命之君，德業之盛，符命之神，輝映簡冊，³²⁾ 流光罔極。今我朝鮮之誕興也，盛德貞符，于古有光。是宜既得其位，又得其壽，峙洪基而流景祚，與天地而久長矣。臣近濫承勒碑之命，敢不竭精鋪張盛德，以垂耿光。然臣筆力鄙拙，不足以發揚盛美，稱塞明旨，謹撰勳德之在人耳目者，敢拜手稽首而獻銘。其辭曰³³⁾

天生斯民 立以司牧³⁴⁾ 迺長迺治 迺眷有德³⁵⁾

非天諄諄 有命赫赫 禹錫玄圭 周夢協卜³⁶⁾

惟我朝鮮 肇基王迹 夢有神人 授以金尺

符籙前定 天心昭晰

麗運既終 君昏相酷 農月興師 大邦構隙³⁷⁾

我旆義旋³⁸⁾ 罪人斯得 忠誠上聞 帝心載懌

27) 誥가

28) < > < > 獻' 가

29) 後加 가 < > < > 加後' 가

30) 宮 < > < > 官

31) 首妃韓氏~義寧君 < > 云云'

32) 映 < > 映

33) 辭가 < > 詞

34) 立 가

35) 眷 < > < > 長

36) 協 < > < > 協

37) 構가 < > 構

38) 旆가 < > < > 旆 . 旆 旆 俗字

歷數有歸 輿情斯迫 大業既成 市肆不易
 高皇曰咨 惟爾有國 民無兵禍 樂天之樂
 繼賜國號 朝鮮是復
 相地定都 于漢之北 虎踞龍蟠 王氣攸積
 宮室崇崇 宗廟翼翼
 仁深好生 治蔚思輯 百度具修 萬化斯洽
 乃倦于勤 傳付聖嫡 乃讓于功 惟世惟及
 明明我后 有幾必燭 禍亂再平 其慶克篤
 開國定社 咸我之績 大命難辭 神器有托
 祇奉兩宮³⁹⁾ 虔恭愈恪 孝弟通神 帝眷尤渥
 遭喪惻惻 哀慕踊躡
 帝聞震悼 遣使弔哭 大牢有祀 厚賻有勅
 美謚褒嘉 恤典備飭⁴⁰⁾
 自天佑之 終始不忒 景祚縣縣⁴¹⁾ 子孫千億
 宗祀悠長 與天罔極

永樂七年四月 日立石

<標點校勘 太祖健元陵神道碑陰記>

碑陰記

恭惟，我太祖，以至德豐功，草創鴻業，日勤于治。迺以失豫彌留，禪位貽謀，久享榮養，於永樂戊子春正月，又不豫。我殿下，至誠克敬，祈天請命，乃得小瘳，五閱月而又作，⁴²⁾薨于正寢。⁴³⁾以禮葬于楊之儉巖山，距京城二十許里。

山之來根於長白，蜿蜒二千餘里，至鐵嶺，折而西數百里，停而峙焉，曰白雲。又南迤百餘里，北構而面南，卽儉巖也。陵則癸坐而丁向。直陵之丙方四百二十一尺，立石以紀我太祖功德，始終之盛，既詳矣。

殿下又以爲開國功臣名氏，當列于碑之陰，其定社佐命功臣，亦皆應機定策，以弘大我太祖創垂之業者，其并刻之，用示不泯，命臣季良識之。⁴⁴⁾

39) 祇가 < > < > 祇
 40) 飭 < > < > 飭
 41) 縣縣 < > 縣縣
 42) 而가 < > < > 面
 43) 于가 < > < > 子
 44) 季가 < > 季

臣竊惟，天之生大德，以主斯民也，必有股肱輔弼之臣，奔走先後，開之於前，守之於後，然後，大勳以集，大業以久。我太祖之興也，則有文武大臣，灼知天命，實能左右啓迪之。至若定社於戊寅，佐命於庚辰，亦莫非勳親良弼，相與輔相，⁴⁵⁾ 克咸厥功，以永洪祚。是宜刻名于石，垂耀將來。而我殿下，⁴⁶⁾ 顯揚祖烈，褒獎勳臣之美，亦當並傳而不朽矣。⁴⁷⁾ 通政大夫禮曹左叅議修文殿直提學知製教知文書應奉司事世子左輔德臣卞季良，謹拜手稽首而爲之記。⁴⁸⁾

開國功臣

義安大君 和 門下左侍中 裴克廉 領議政府事 趙浚 上洛府院君 金士衡 安平府院君 李舒 漢山府院君 趙英茂 奉化伯 鄭道傳 判三司事 尹虎 興安君 李濟 青海君 李之蘭 星山君⁴⁹⁾ 李稷 漢川君 趙溫 議政府贊成事 南在 寧城君 吳思忠 判漢城府事 鄭熙啓⁵⁰⁾ 戶曹判書 趙璞 興寧君 安景恭 叅贊議政府事 張思吉 宜城君 南閭 藝文館大學士 鄭揆⁵¹⁾ 知議政府事⁵²⁾ 金輅 伊城君 孫興宗 玉川君 劉敞 平城君 趙狷 清城君 鄭擢 西川君 韓尙敬 藝文館大學士 沈孝生 雞林君 金穰⁵³⁾ 判中樞院事 李勲 復興君 趙胖 漢山君 趙仁湊 平海君 黃希碩 知中樞院事 趙琦 知中樞院事 金仁贊 長城君 鄭龍壽 知中樞院事 張湛 寶城君⁵⁴⁾ 吳蒙乙 南陽君 洪吉叟 東原君 咸傳霖 叅知議政府事 黃居正 興城君 張至和 興原君 李敷⁵⁵⁾ 叅知議政府事 閔汝翼 花城君 張思靖 瑞城君 柳爰廷 完城君 李伯由高城君 高呂 商山君 李敏道 戶曹典書 趙英珪 判繕工監事 任彥忠 上將軍 韓忠

定社功臣

義安大君 和 益安大君 芳毅 寧安君⁵⁶⁾ 良祐 青原君 沈淙 奉寧君 福根 領議政府事 趙浚 上洛府院君 金士衡 領議政府事 河崙 議政府右政丞⁵⁷⁾ 李茂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青海君 李之蘭 漢川君 趙溫 戶曹判書 趙璞 安城君 李叔蕃 叅贊議政府事 張思吉 鷲山君 辛克禮 知議政府事 金輅 清城君 鄭擢

45) < > < > 輔相' 가 . . .
 46) 而가 < > < > 以 . . .
 47) 並 < > < > 并 . . .
 48) 曹가 < > < > 曹 . . .
 季가 < > 李 . . .
 49) 君 가 . . .
 50) 啓가 < > < > 啓 . 啓 啓 古字 . . .
 51) 揆 < > < > 摠 . . .
 52) < > < > 政 . . .
 53) 穰 < > < > 穰 . . .
 54) 寶가 < > < > 寶 . . .
 55) < > 李가 . . .
 56) 君 < > < > 丞 . . .
 57) 政 < > < > 丞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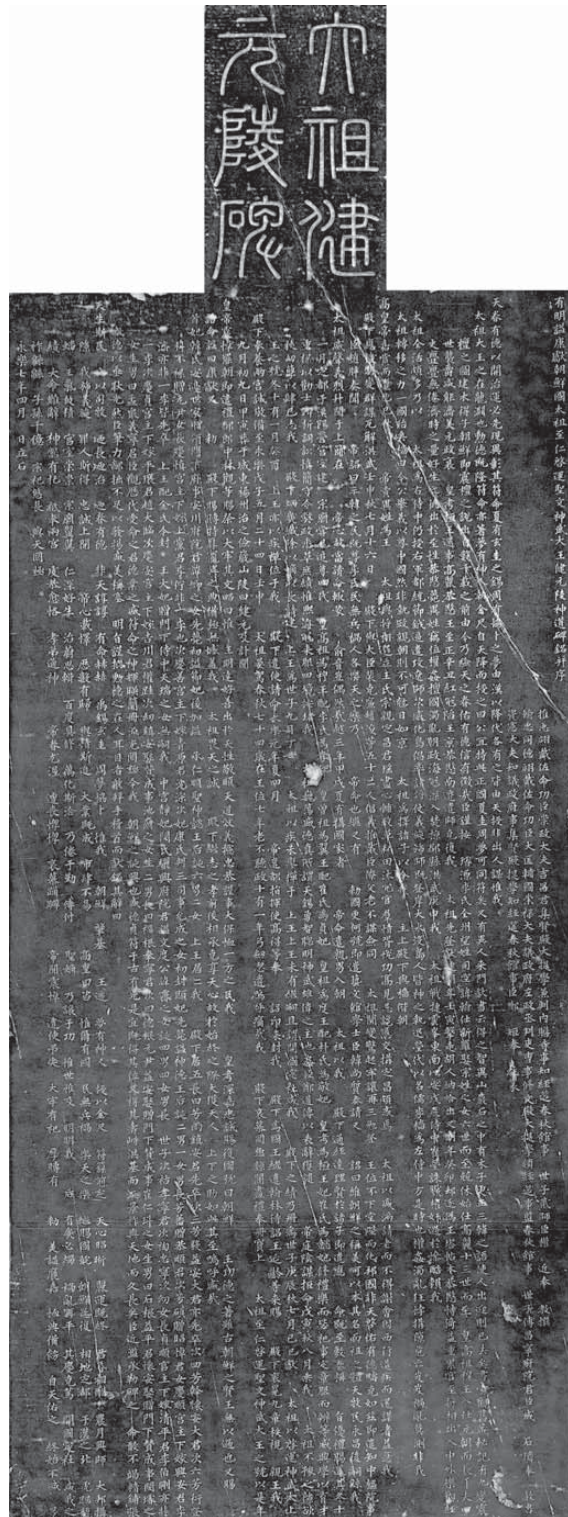
知中樞院事 張湛 花城君 張思靖 中樞院副使 張哲

佐命功臣

義安大君 和 完川君⁵⁸⁾ 淑 領議政府事 河崙 議政府左政丞 成石璘 議政府右政丞 李茂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青海君 李之蘭 星山君 李稷 漢川君 趙溫 吉昌君 權近 漆原君 尹柢 戶曹判書 趙璞 安城君 李叔蕃 吏曹判書 柳亮 鷲山君 辛克禮 沔城君⁵⁹⁾ 韓珪 蓮城君 金定卿 雞城君 李來 漢平君 趙涓 義城君 金英烈 知議政府事⁶⁰⁾ 朴錫命 麗山君 金承霏 鐵城君 李原 谷城君 延嗣宗 潘城君 朴晷 長川君 李從茂 坡平君 尹坤 南城君 洪恕 豐川君 沈龜齡 叅知議政府事 黃居正 麻城君 徐益 會寧君 馬天牧 漆原君 尹子當 利城君 徐愈 瑞寧君 柳沂 平江君 趙希閔 雞林君⁶¹⁾ 李升商 熙川君⁶²⁾ 金宇 永陽君 李膺 原平君 尹穆 越川君 文彬 礪良君 宋居信

議政府左政丞昌寧府院君臣成石璘年七十二歲書

58) 君 < > < > 鄭
59) 沔 < > < > 沔
60) < > 議가
61) 雞가 < > < > 鷄
62) 熙가 < > < > 熙



< 1 >

碑陰記

恭惟我

太祖以至德實功卓創鴻業日勤于治地以矢探瑣留神位貽謀久享崇養於永樂戊子春二月又不豫我

天請命乃得小殯在園月而又作堯于西寢以禮葬于揚之餘巖山距京城二十許里山之末根拔長白纒紉二十餘里至俄嶺折而西數百里得而峙焉曰白雲又南逾百餘里北據而

西南即修廡也既則次坐而丁向直隸之西百四十里至石以紀我

太祖初創基之者其并刻之用示 天命實能左右於進之至若 聖社成命於斯辰也必有股肱輔弼之臣奔走先後開之於前守之於後然後大勳以集大業以久我

殿下頭揚 祖烈靡衰於臣之 美亦當立傳而不朽矣通致大夫禮曹左丞漢傑文殿直學士知製 鼓和文書應奉司事 世子左輔德臣李季良謹拜手稽首而為之記

園內功臣

義安大君 和	門下左侍中裴克廉	領議政府事趙汝	上洛府院君全士衡	安平府院君李舒	漢山府院君趙景茂	奉化伯麻道傳
判三司李尹况	興安君李祥	領議政府事趙汝	星山君李從	漢川府院君李舒	領議政府事南在	寧城君吳思忠
判漢城府事鄭無愼	戶曹判書趙環	興安君李祥	余謙謀政府事張忠吉	宜城君南閣	長文館大學生鄭德	知議政府事全裕
伊城君孫興宇	正川君劉敏	平康君趙謙	清城君郭擢	西川君韓尚賢	長文館大學生鄭德	長城君李龍吉
判中樞院事李勉	復興君趙昨	漢山君趙謙	東原君成德	知中樞院事趙時	知中樞院事全仁	長城君李龍吉
知中樞院事張洪	贊城君吳安乙	南陽府院君李政	東原君成德	衆知議政府事黃履正	高平君李敬	高平君李敬
衆知議政府事閔鎰	贊城君張思琦	瑞城君柳文廷	完城君李松	高平君李敬	高平君李敬	高平君李敬
判議工監事任齊忠	上將軍韓忠	完城君李松	完城君李松	高平君李敬	高平君李敬	高平君李敬

廷臣功臣

領議政府事 和	議政府院君 芳發	寧安君 李祐	清原君 沈源	奉寧君 福根	領議政府事趙汝	上洛府院君 全士衡
安城君 李祥善	議政府院君 張思吉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清城君 郭擢	漢川府院君 趙英茂	戶曹判書 趙環
中樞院副使 張洪	領議政府事 張思吉	贊山君 李克禮	知議政府事 全裕	清城君 郭擢	漢川府院君 趙英茂	知中樞院事 張洪

佐命功臣

義昌大君 和	完川君 李從	領議政府事 李從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青海君 李之蘭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史中川 李祥善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知議政府事 朴錫命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南城君 洪忠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瑞寧君 李仲濟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瑞慶君 李居信	完川君 李從	漢川君 趙英茂	議政府院君 成石璣	漢山府院君 趙英茂	兵曹判書 天祐

議政府院君成石璣年七十二歲書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비문은 권근(權近), 비음(碑陰 : 비신의 뒷면)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성석린(成石璘)이 썼으며 전액은 정구(鄭矩)가 썼다. 비문에는 이성계가 개국을 하게 된 동기, 창업의 성취 및 공로, 그리고 그를 기리는 송(頌)과 개국공신·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의 명단 등을 적었다. 성석린이 72세 때 구양순(歐陽詢) 법으로 쓴 것인데, 품격이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니며 소동파(蘇東坡)의 필법이 보여 이채를 띠고 있다.

왕릉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마모가 있기는 하지만 조성연대를 고려해 볼 때 양호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신도비는 고려의 선사 신도비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양식적으로 특징적인 점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신도비의 조각은 조선 초 창업의 기운이 담겨있으며, 질박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서법이 살아 있으며, 태조의 행적을 기록하여 이후 많지는 않지만 왕릉 신도비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건원릉 신도비는 조선 초 왕릉에 세워진 최초의 신도비라는 점, 고려 선사신도비의 양식을 계승한 점, 신도비의 조각이 웅장하고 기상이 있다는 점, 서체가 살아 있는 점, 태조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서 왕릉 신도비의 남상에 해당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 현 상

- 비신 및 이수(螭首)는 원석이나, 비좌의 원석은 상실되고 후대에 신조됨.
- 비문은 권근이 짓고 글씨는 성석린의 필적으로 새겨짐.
- 각자가 마모된 부분이 많으나 석비의 조형예술적 품격을 잘 갖추었음.

○ 내용 및 특징

- 현재 3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 조선왕릉 신도비 중 조성시기가 가장 앞선 신도비로 과거와 다른 신왕조의 새로운 석비 조형양식을 구현하고 있음.
- 비록 비좌는 신조되었지만 비신과 이수는 종래의 고려 석비 조형의 전통을 탈피하고 중국 당(唐) 나라 석비조형의 맥을 이어온 명(明) 나라 석비의 조형을 본뜨고 있으며 이후 조선시대 석비 조형의 기준작품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석비 조형 예술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좌표를 점하는 문화재로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함.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석비는 1)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해주는 기록물이며, 2) 조성년대가 확실한 조형물로 예술사적 편년을 제공하는 기준작품이며, 3) 비문의 내용은 당시의 한문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4) 글씨는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자료가 되는 등 석조문화재 중에서도 으뜸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함.

2. 이 신도비는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임금의 왕릉 신도비로 태종 9년(1409)에 조성되었으며 현재의 비좌는 후대에 신조되었음. 비문은 권근이 짓고 글씨는 성석린의 필적으로 새겨진 조선 초기 석비의 귀중한 문화재임. 특히 건원릉 신도비는 단 3기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초기 왕릉 신도비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의 작품으로 그간 이 석비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가 중요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3. 이 석비는 삼국 통일기에 중국 당(唐)대의 석비 양식을 들여와 통일신라시대에 전형을 이룬 후 고려시대까지 계승된 한국 전통 석비양식이 고려의 멸망과 함께 멈추고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이 수용되는 중국 명(明)대의 석비 조형양식을 수용하여 비신과 이수가 한 돌로 이루어지고 비신 상부의 이수 부분도 중국 전통을 따라 반원형의 오각형의 제약을 내고 그 주위를 여러 마리의 용이 휘감는 형상을 하고 있음.

4. 이와 같은 비신(碑身) 상부 이수부분의 조형이 중국식으로 바뀌는 것은 이미 고려 우왕 3년(1377)에 조성된 회암사 선각왕사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조선 태조 3년(1394)에 조성된 개성 연복사탑 중창비로 이어졌고 이 석비 또한 권근의 비문과 성석린의 글씨로 새겨진 것인데 이후 이러한 추이는 건원릉 신도비에서 훨씬 규모가 장대하고 품격이 당당한 조형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건원릉 신도비에서도 역시 당시의 대 학자 권근과 성석린의 문장 및 서체를 보여주고 있어 조선시대 한국 석비 조형예술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임이 분명함.

5. 비록 비좌는 후대에 신조되어 완형이 결여되었지만 비신이 상실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석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음. 따라서 이 석비가 완형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조형이 예고되는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최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석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3. 서울 태종 헌릉 구신도비(서울 太宗 獻陵 舊神道碑)

가. 검토사항

‘서울 태종 헌릉 구신도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선왕릉내 지정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지정 추진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2.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사적 제194호 서울 헌릉과 인릉
- 명 칭 : 서울 태종 헌릉 구신도비(서울 太宗 獻陵 舊神道碑)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길 34 내곡동 산13-1
- 수 량 : 1기
- 규 격 : 전체 높이 520cm 귀부 높이 100cm 비신 높이 292cm
이수 높이 128cm
- 재 질 : 화강석(비좌), 대리석(비신 및 이수)
- 조성연대 : 1422년(세종 4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태종헌릉신도비는 조선왕릉 내 총 3기의 왕의 신도비 중 2번째 비로, 지금으로부터 591년 전에 세운 것이다. ②태종헌릉신도비는 태조의 5째 아들로 조선조 국

기를 튼튼히 다져낸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의 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비에 담은 일대기적 전기로, 태종 때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변계량이 그 원문을 지었다. 전액은 당대의 서예가 권홍의 글씨이며, 정작 본래의 비문 글씨를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의 서예문화와 그 경향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금석문 자료이다. ③태종헌릉신도비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크게 손상된 귀부와는 달리 이수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선조 초기 이수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료이다. ④태종헌릉신도비는 태조건원릉신도비 및 세종영릉신도비와 마찬가지로 각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이 신도비의 형태와 문양은 1409년(태종7)에 제작된 건원릉 신도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초 왕릉 신도비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이후 구영릉 신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영릉 신도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헌릉 신도비는 건원릉 신도비와 함께 유이하게 조선 초 왕릉에 세워져 현재까지 전하는 신도비라는 점, 고려 선사신도비의 양식을 계승한 점, 신도비의 조각에서 이수 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태종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서 왕릉 신도비의 기준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사대부의 신도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이 신도비는 조선왕조 제 3대 임금인 태종의 왕릉 신도비로 조선 세종 6년(1424)에 조성되었으며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글씨는 이덕성(李德成)의 필적으로 새겨진 조선 초기 석비의 귀중한 문화재이다. 현재 비좌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원석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비신과 이수의 글자는 마모되었어도 석비의 조형은 제작당시의 품격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헌릉 신도비는 단 3기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초기 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그간 이 석비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가 중요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비좌는 박락이 심하지만 비신이 상실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석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 따라서 이 석비가 완형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조형이 발전해가는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최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석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지정 예고
 - 명칭 :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1422년(세종4)에 세운 태종헌릉신도비(구비)는 임진왜란 때 크게 훼손되었으며, 1694년(숙종 20)에 다시 세운 태종헌릉신도비(신비)와 함께 비각 안에 잘 보존되고 있다. 비각은 1691년 건립되었으며, 1902년(고종39)과 1990년에 보수되었다. 태종헌릉신도비(구비)의 귀부 모습은 파손된 후 어느 시기엔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로 판단되며, 여전히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기단 일부도 뭉개진 상태이지만, 귀부 등 뒤 상단에 왕(王)자가 새겨진 육각형의 귀갑문 일부가 남아 있어 훼손되기 전 본래의 문양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귀부와 달리 이수에는 그 원형이 잘 간직되어 있다. 대리석의 비신에 새겨진 글씨는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굵히고 금가고 자획이 뭉개져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

○ 내용 및 특징

『세종실록』(권18.19)에 의하면 1422년(세종4) 태종헌릉신도비를 처음 세울 당시 세종은 왕릉내 선왕의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예외적인 관례라는 사실을 들어 꺼려하였으나, 건원릉의 사례에 따라 헌릉신도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신도비 조성 당시에는 건원릉의 규정에 따라 크기와 재질을 유사하게 하였지만 실제 제작시에는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다. 신도비의 총 높이는 520cm, 귀부의 높이는 100cm, 비문이 새겨지는 비신의 높이는 292cm, 이수의 높이는 128cm센티이다.

비신과 한 몸으로 되어있는 이수는 우유빛 대리석재로 만들어져 매우 우아한 빛깔을 머금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당시 문신으로 글씨에 능했던 권홍(權弘, 1360~1446)의 전액(篆額) 글씨인 “太宗獻陵之碑(태종헌릉지비)”가 새겨져 있다. 또한 두 마리의 용이 뒤엉켜 두 발로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매우 사실적인 용 비늘이 용의 몸통 사이를 비집고 자리 잡은 구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자태가 매우 화려하다. 그 반대 면에도 동일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는 두 마리 용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이수의 상단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용의 형상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두 마리의 용은 수염이 휘감긴 뿔을 위로하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을 짓고 있다.

신도비문은 당대의 문신으로 시문에 능한 학자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지어 태종의 출생과 공덕 등에 관해 밝히고, 음기는 명신 윤회(尹淮, 1380~1436)가 지어 40명의 개국공신과, 1·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17명의 정사공신, 37명의 좌명공신을 열거하여 밝히고 있다. 그 문장은 현재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에 수록되어 있다. 비문의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재 남아있는 글씨로 보아 서예에 매우 능했던 학자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글씨는 조맹부(趙孟頫)의 해서체에 안진경(安眞卿)의 해서풍을 가미하여 쓴 것으로 매우 정중하면서도 단아하다.

<문헌자료>

『세종실록』 (권18, 19)

○ 태종 헌릉신도비문과 비음기⁶³⁾

63) 『세종실록』 (권18, 19), pp.486-497. (서울, 2012)

현릉 신도비문

유명 증시공정 조선국 태종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 현릉 신도비명과 그 서문

정헌대부(正憲大夫)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경연(知經筵)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겸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신 변계량(下季良)은 왕명을 받들어 지음

하늘이 장차 덕 있는 아에게 대임(大任)을 내려주려 할 때는 반드시 성자(聖子)와 신손(神孫)을 낳게 하여 큰 운수를 열고 넉넉한 복록을 길이 이어지게 하는 법이다. 우리 조선의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대업을 일으키심에 우리 태종으로써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 전하(殿下)로써 손자가 되게 하시었으니, 아, 장하도다! 어찌 인위로 능히 미칠 바이겠는가. 하늘이 상(商)의 왕실에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잇달아 일어나게 하고, 주(周)의 왕가에서 태왕(大王)·왕계(王季)·문왕(文王)·무왕(武王)이 서로 계승토록 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선(宣)이 삼가 상고해 보건대, 선원(善源) 이씨는 전주(全州)의 명망있는 가문이었다. 사공(司空) 벼슬을 지낸 휘(諱) 현(諱)께서 신라에 벼슬하여 신라 종성(宗姓)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6세손인 휘 공휴(恭休)에 이르러 비로소 고려에 벼슬하셨다. 다시 13세가 지나 황현조(皇玄祖)이신 목왕(穆王)에 이르러서는 원(元)의 조정에 입사(入仕)하여 천부장(千夫長)이 되었으며, 4대를 내리 습작(襲爵)하여 모두 훌륭하게 덕을 이루셨다. 이윽고 원의 정치가 쇠미하게 되자 황조(皇朝)이신 환왕(桓王)께서는 돌아와서 고려의 공민왕을 섬겼으니, 공(功)을 쌓고 인(仁)을 이룸이 그 유래가 장구하다 하겠다.

우리 신의왕태후(神懿王太后)께서 지정(至正) 정미(丁未)년 5월 신묘(辛卯)일에 함흥부(咸興府) 후주(厚州)의 사제(私第)에서 태종을 낳으시니, 우리 태조의 다섯째 아드님이다. 나면서부터 신이(神異)하셨으며, 차츰 자라면서 영특하고 슬기로우니 남다르셨다. 글읽기를 좋아하니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나이 스물이 채 되지 않아서 고려의 과거에 급제하시었다. 그 무렵 정사는 문란하고 민심은 흩어져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지자 개탄스러워하며 세상을 건질 뜻을 품게 되니 태조께서 여러 아드님 가운데 유난히 사랑하시었다. 일찍이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시중(侍中) 이색(李穡)과 함께 명(明)의 서월에 입조(入朝)하셨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에 이르셨다.

흥무(興武) 신미(辛未)년 9월 신의왕태후께서 흥서(興逝)하시니 제릉(齊陵) 곁에 여막을 짓고 삼년상을 마치고자 하셨는데, 임신(壬申)년 봄 태조께서 서행(西行)하셨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시자 탕약을 돌보며 모시었다. 공양왕의 신하들이 그를 타서 태조를 도모하고자 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되자, 태종께서 상황에 대응하여 변고를 계입하고 그 우두머리를 제거하니 온갖 음모가 와해되었다. 이 해 가을 7월 여러 장상(將相)들과 더불어 대의(大義)를 주창하며 태조를 추대하여 집을 바꾸어 나라로 만드시고 정안군(靖安君)에 봉군(封君)되시었다.

갑술(甲戌)년 여름, 명의 고황제(高皇帝)가 친아들을 입조케 하라 명하니, 태조께서는 우리 태종이 경서(經書)에 능통하고 예법에 밝으며 여러 아드님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 하여 바로 파견하여 황제의 명에 응하셨다. 명에 이르자 부연해 아되는 것이 황제의 뜻에 맞아 남다른 예우를 받고 돌아오셨다. 무인(戊寅)년 가을 8월 태조께서 편찮으신 틈에 권신(權臣) 가운데 봉당을 모아 어린 왕자를 끼고 정권을 잡아 제 뜻대로 하려는 자가 있어서 재난이 곧 닥칠 듯했으므로 태종께서 김세를 받게 살피 섬멸해 없애셨다. 그때 종친과 장상들이 모두들 우리 태종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청하려고 하였다. 태종께서는 굳게 사양하시며 공정(恭靖:定宗)을 추존(推尊)하여 위로 태조께 세자로 책봉하기를 청하시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안정시키셨다. 이 해 9월 정축(丁丑)일에 태조께서는 병이 낫지 않자 공정께 선위(禪位)하시었다.

건문(建文) 경진(庚辰)년 정월에는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동기(同氣)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방간(芳幹) 부자(父子)를 꺾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도모하자, 태종께서 군사를 통솔하여 평정하셨다. 박포만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였으며, 방간은 안치(安置)의 벌에 처하였을 뿐 치친(至親)의 정을 끊지 않으셨다. 공정께서는 후사(後嗣)가 없고 또 개국(開國)과 사직을 안정시킨 일이 모두 우리 태종의 공적이라 하여 세자로 책봉하시었다. 겨울 11월에는 병으로

우리 태종께 전위(傳位)하시고,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의 책명(策命)을 청하였다. 이듬해 신사(辛巳)년 6월, 건문제(建文帝)는 통정시 승(通政寺丞) 장근(章謹) 등을 보내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받들고 와 우리 태종을 왕으로 봉하였다. 이 해 겨울에는 홍려사 행인(鴻臚寺行人) 반문규(潘文奎)를 보내와 면복(冕服)을 하사하니, 품질(品秩)이 친왕(親王)과 다름없었다.

임오(壬午)년에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자 좌정승(左政丞) 신 하륜(河崙)을 보내어 등극을 축하하니, 황제는 충성을 가상히 여기어 이듬해 계미(癸未)년 4월 고명과 인장을 하사하고 도지휘사(衛尉監) 고득(高得) 등을 보내와 종전대로 왕으로 봉하였다. 가을에는 한림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을 보내와 곤룡포(袞龍袍)·면복(冕服)·구장(九章)·금단(錦段)과 사라(紗羅)·서적(書籍)을 하사하고, 태조께는 금단과 사라를, 원경왕태후께는 관포(冠袍)와 금단과 사라를 각각 차등있게 전하였다. 이때 이후로는 황제의 선물이 거듭되어 거르는 해가 없었다.

을유(乙酉)년에는 태조께서 도읍으로 정한 곳이라 하여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양(漢陽)으로 환도하시었다. 정해(丁亥)년에는 황제가 하정사(賀正使)로 입조한 사신에게 말하길 “조선의 국왕은 지성으로 사대(事大)한다.” 하였으며, 그 뒤로는 사신들이 이를 때마다 번번히 ‘지성스럽다’고 칭송하였다.

무자(戊子)년 5월, 태조께서 안가(晏駕·임금의 죽음. 昇遐와 같음)하시자 그지없이 애통해하시며 양암(諒闇·임금이 거상할 때 있는 방에 거처하면서 예법대로 상례와 장례를 거행하시었다. 사신을 보내 명에 부고(訃告)하니 황제가 매우 애도하여 조회(朝會)를 그쳤으며, 예부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 등을 보내와 태뢰(太輓)로써 제사를 모시도록 하고 시호를 강헌(康獻)이라 추증하였으며, 또한 태종께는 칙서(勅書)를 내려 후한 부의(賻儀)를 전하였다.

임진(壬辰)년 겨울, 어떤 이가 왕(王)씨의 후예로서 민간에 숨은 자가 있다고 상언(上言)하자 담당 관서에서 죽이기를 청하였다. 태종께서 말씀하시길 “제왕이 일어남은 본디 천명(天命)이 있는 것이다. 왕씨의 후예를 벤 것은 우리 태조의 본의(本意)가 아니었다.” 하시고, 이에 하교(下敎)하시길 “왕씨의 후예로서 생존한 자들은 각자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시었다. 갑오(甲午)년 6월에는 함흥부(咸興府) 월광(月光) 구미리(仇未里)와 정평(定平)의 백운산(白雲山)에 감로(甘露)가 내렸으며, 이듬해 을미(乙未)년 4월에는 함흥부 덕산동(德山洞)에 또다시 감로가 내리니, 우리 동방에는 전고(前古)에 없던 일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였으나 받지 않았었다.

무술(戊戌)년 6월, 세자 시(提)가 패덕(敗德)하므로 폐위하여 양녕대군(襄寧大君)으로 봉하고, 우리 전하께서 총명하고 효성스러우며 우애가 있고 배움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국민(國人)들의 촉망을 받는다 하여 세자로 책봉하고 명의 조정에 알리니 황제가 윤허(允許)하였다. 이 해 8월에 우리 전하에게 선위하시고 명에 사신을 보내 책명을 청하시었다. 11월에는 우리 전하께서 책보(冊寶)를 받들어 태종께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라는 존호(尊號)를 올리셨다. 이듬해 기해(己亥)년 정월, 황제는 홍려시 승(鴻臚寺丞) 유천(劉泉) 등을 보내와 고명을 받들어 우리 전하를 왕으로 봉하였다. 5월에는 대마도(對馬島)의 왜구들이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의 군사를 살해하고 약탈을 일삼자, 영의정 신유정현(柳廷顯)과 장천군(長川君) 신 이종무(李從茂) 등에게 명하여 수군(水軍)을 동원하여 토벌토록 하니, 대마도의 왜인들은 예전처럼 성심으로 섬겼다.

8월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 상왕께 잔치를 하사하였는데, 칙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왕은 돈독하고 두터운 지성으로 공경히 황제의 조정을 섬기어서 한결같은 덕과 한결같은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으며, 능히 어진 이를 발탁하고 덕 있는 이에게 임무를 주어 중묘와 사직이 의탁할 바가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였다.” 또한 우리 전하에게도 잔치를 하사하였으니, 칙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그대의 부왕은 돈독하고 노성하여 삼가 천도(天道)를 공경하였으며, 충순(忠順)한 정성은 오랄수록 변함이 없었다.”

9월에 공정왕께서 즉세(卽世)하자 참최(斬衰)의 복(服)을 입으시고, 역월(易月)의 제도로써 상을 마치신 뒤 사신을 보내 명에 부고하니, 이듬해 4월 황제는 사신을 보내와 치제(致祭)하고 ‘공정(恭靖)’이라 시호를 내리었다. 이 해 봄 우리 전하께서 군신(群臣)들을 거느리고 ‘태상왕(太上王)’의 호를 올리려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었다. 가을 7월에 원경왕태후께서 홍서하시자 우리 전하께서 슬퍼하여 몸을 훼손함이 예법에 지나치다 하여 역월의 제도를 따르도록 명하셨다. 그러나 전하께서 슬피 울며 굳게 사양하시니, 장례 뒤 상복을 벗고 백의(白衣)로써 복제(服制)를 마치도록 명하셨다. 9월 임오(壬午)일에 태후를 광주(廣州) 고을의 대모산(大母山)에 장사지내고, 능호(陵號)를 헌릉(獻陵)이라 하시었다.

다. 신축(辛丑)년 가을 9월 우리 전하께서 책보를 받들어 태상왕의 호를 올리셨다. 10월에는 태종께 품의(稟議)하니 원자(元子) 향(响)을 세자로 책봉토록 명하셨다.

태종께서는 불세출의 자질로서 성학(聖學)에 밝으셨으며, 효성과 우애는 신명(神明)에 통하고 정성과 공경함은 종묘와 사직에 지극하였다. 사대에 있어서는 천자(天子)가 그 지성스러움을 칭송하였고, 교린(交隣)에 있어서는 왜방(倭邦)이 그 도의(道義)에 감복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씩씩이를 절제하셨다. 덕과 예를 앞세우고 형벌을 신중히 하였으며, 충직한 이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내치셨다.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음사(陰邪)를 금지하였으며,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제도를 바로잡아 문교(文教)를 밝히고 무비(武備)를 엄중히 하시었다. 누적된 폐단을 모두 고쳐서 온갖 업적이 다 빛이 나고, 온 나라 안이 안도하여 백성들은 편안하고 물산은 풍요로우니 제왕의 도가아, 성대하다. 상제(上帝)의 용승한 보살핌이 알뜰함과 두 차례나 감로가 내리는 지극한 상서(祥瑞)를 얻음이 마땅하다 하리라.

임인(壬寅)년 4월 처음으로 병이 드시어 5월 병인(丙寅)일에 이궁(離宮)에서 홍서하시니, 우리 전하께서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흘 동안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 여러 신하들이 울며 수라 드시기를 청했으나 끝내 허락지 않으셨다. 3년 거상(居喪)할 것을 정하시고 역월의 복제를 쓰지 않으셨다.

태종께서는 춘추가 56세였으며 19년 동안 왕위에 계시었다. 한가롭게 이양(頤養)하신 지 5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시니, 대소의 신료(臣僚)들과 아래로는 노복(奴僕)들에 이르기까지 목 놓아 호곡(號哭)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갈수록 슬퍼함이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 같았으니, 아, 슬프도다. 이 해 9월 초이틀 병진(丙辰)일에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존호를 올리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으로 정하였으며, 초엿새 경신(庚申)일에 원경왕태후의 능에 합장(合葬)하였으니, 유명(遺命)을 따른 것이었다.

명에 부고를 전하니 황제는 애통해 하며 조회를 그치었고, 특별히 예부낭중(禮部郎中) 양선(楊善) 등을 보내어 사제(賜祭)하였으니, 그 글에 대략 "왕은 돈후하고 지성스러우며 총명하고 현달(賢達)하여 공경히 황제의 조정을 섬기어 충순한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부음(訃音)을 들으니 참으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라고 하였다. 또 고명을 전하여 '공정(恭定)'이라 시호하였으며, 전하에게도 두터운 부의를 내리었다. 무릇 우리 태종의 크신 공덕과 우리 전하의 지극한 효성이 앞뒤에 서로 이어져 천자의 마음을 움직인 까닭에 시작과 끝의 즈음에 남달리 총애하는 은전(恩典) 이처럼 갖추어지고 지극하게 된 것이었다.

중궁(中宮)이신 원경왕태후께서는 성(姓)이 민씨이시니, 여흥(驪興)의 세가(世家)이시다. 고려의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문경공(文景公) 휘 영모(令謨)로부터 6세(世)만에 황고조(皇高祖) 휘 증유(宗儒)에 이르렀으니, 의릉(毅陵: 고려 충숙왕)을 도와서 도침의시랑 찬성사(都僉議寺贊成事)가 되었으며, 시호는 충순(忠順)이다. 충순은 황증조(皇曾祖)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시호 문순(文順) 휘 적(頤)을 낳고, 문순은 황조(皇祖) 대광(大匡) 여흥군(驪興君) 휘 변(弁)을 낳았으며, 대광은 황고(皇考)이신 순충동덕친화공신(純忠同德贊化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 영 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시호 문도(文度) 휘 제(濟)를 낳으셨다. 어머니 송씨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해지셨는데, 고려 중대광(重大匡) 여량군(驪良君) 휘 선(善)의 따님이시다.

선행을 쌓은 집에 경사가 흘러들어 이처럼 맑은 덕을 지닌 분이 태어나셨으니, 총명과 슬기가 남다르셨다. 시집갈 나이가 되자 배필을 가려 우리 태종께 출가하셨다. 태종께서는 젊은 시절 세상을 건지려는 뜻이 있어서 경사(經史)에 마음을 기울이고 가산(家産)을 돌보지 않으시니, 태후께서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리시고 주궐(主饋)에 근심함으로써 공업(功業)에 힘쓰도록 하시었다. 여러 아들들을 가르쳐서 의로움과 방정함을 따르게 하였고, 첩과 시녀들을 예로써 대우하여 부도(婦道)를 극진히 하셨다.

홍무(洪武) 임신(壬申)년에 정녕옹주(靖寧翁主)에 봉해지셨다. 무인(戊寅)년, 태종께서 정사(定社)하실 때 형세가 매우 의롭고 위태로웠는데, 태후께서 마음을 다해 도와서 큰 일을 성취하게 하셨다. 경진(庚辰)년 봄 정빈(貞嬪)에 봉해지셨고, 그 해 겨울 태종께서 즉위하시자 정비(靜妃)에 봉해지셨다. 영락(永樂) 계미(癸未)년 황제가 관포(冠袍)를 하사하였으며, 이 해부터 정유(丁酉)년에 이르는 동안 누차 황제의 하사를 받으셨으니, 그것이 모두 여섯 차례였다. 무술(戊

戊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라 존호를 올리셨으며, 경자(庚子)년 9월에는 '원경왕태후(元敬王太后)'라 시호를 올리셨다. 춘추는 56세이셨다.

태후께서는 그윽하고 한아하며 정숙하고 조용한 덕을 타고나셨다. 능히 태종의 배필에 알맞아 오로지 내치(內治)에 전심하여 20년간 궁중의 법도가 엄숙하고 화목하게 하시었으며, 또 성자(聖子)를 낳아 종묘와 사직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영화로운 봉양을 누리셨다. 흥서하시자 빈첩(嬪妾)과 시녀들이 진심으로 비통해 하였으니, 부녀의 도리와 어머니의 위위가 지극하셨던 탓이다.

4남 4녀를 낳으셨으니, 우리 전하는 셋째이시다. 맏이는 바로 시(提)이고, 다음이 보(補)로서 효녕대군(孝寧大君)에 봉해졌으며, 그 다음은 종(種)으로 성녕대군(誠寧大君)에 봉해졌으나 일찍 졸(卒)하였다. 맏따님은 정순공주(貞順公主)이시니,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하가(下嫁)하였다. 그는 관향(貫鄕)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다음은 경정공주(慶貞公主)이시니,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다. 그 다음은 경안공주(慶安公主)이시니,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踰)에게 하가하였으나 역시 일찍 졸하였다. 그 다음은 정선공주(貞善公主)이시니,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하가하였다.

의빈(懿嬪) 권씨는 따님 한 분을 낳았는데, 곧 정혜옹주(貞惠翁主)로서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에게 시집갔다. 소혜공주(昭惠宮主) 노씨는 따님 한 분을 낳았으나 아직 어리다. 신녕공주(信寧宮主) 신씨는 3남 7녀를 낳았다. 장남 인(裨)이 공녕군(恭寧君)에 봉해졌으며 나머지 아드님은 아직 어리다. 장녀 정신옹주(貞信翁主)는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에게 시집갔으며, 둘째 정정옹주(貞靜翁主)는 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璠)에게 시집갔다. 셋째 숙정옹주(淑貞翁主)는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 따님들은 모두 어리다. 궁인(宮人) 안씨는 1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김씨는 아드님 한 분을 낳았는데, 곧 비(排)로서 경녕군(敬寧君)에 봉해졌다. 고씨는 1남을 낳았고, 최씨는 1남 1녀를 낳았으며, 이씨가 1남을 낳았고, 김씨가 1녀를 낳았으나 모두 어리다.

우리 중궁(中宮)이신 공비(恭妃) 심씨께서는 문하시중(門下侍中) 휘 덕부(德符)의 넷째 아들 온(溫)의 따님이시다. 4남 2녀를 낳으셨는데, 맏아드님이 바로 세자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시다. 양녕대군은 김한로(金漢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효녕대군은 전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事) 정의(鄭易)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성녕대군은 전 전라도도관찰사(都觀察使) 성억(成抑)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다.

정순공주는 딸 하나를 낳았는데, 용양시위사 호군(龍驤侍衛司護軍) 이계린(李季麟)에게 시집갔으니, 그 역시 관향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경정공주는 4녀를 낳았으니, 맏이는 돈녕부승(敦寧府丞) 안진(安進)에게 시집갔으며, 둘째는 유학(幼學) 김중엄(金仲淹)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경안공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담(昉)은 한성소윤(漢城少尹) 정연(鄭淵)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둘째는 아직 어리다. 정선공주는 2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경녕군은 호조참의(戶曹參議) 김관(金灌)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어리다. 공녕군은 병조참판(兵曹參判) 최사강(崔士康)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으나 모두 어리다.

신이 그윽히 살피건대, 우리 태종의 크신 덕과 높은 공은 참으로 백왕(百王)의 위에 높이 뛰어나셨으며, 배필의 현숙함과 내조(內助)의 공로는 가히 촉(蜀)·도(塗)·신(莘)·지(紜)의 후비(后妃)들에 부합하며 그들과 나란한 아름다움이 있으셨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능(陵)의 신도비(神道碑)에 명(銘)을 새겨 영원토록 밝게 전하길 원하니, 전하께서 신계량(季良)에게 그 일을 하명(下命)하시었다. 그리하여 신계량은 왕명을 받자와 조심스럽고 두려우나 감히 사양치 못하고 삼가 머리 조아려 절하옵고 명을 지어 올립니다.

하늘이 우리나라 들보시어
우리 태종 내리시니
부지런히 힘쓰신 태종이시어
성대한 덕 몸에 지니셨네.

성스런 아버님 추대하여
위대한 공 이루시고
황제의 조정에 조근(朝覲)하여
조용히 일을 아뢰었네.

황제의 은혜 넉넉히 입어
우리 백성들 보전하셨고
가미를 밝게 알아 변란을 평정하여
적장자를 높여 세자 되게 하시었네.

비록 형제간의 싸움을 만났으나
우에 도리어 두터웠으니
지극한 효성과 도타운 우에
예로부터 드물었네.

그 덕은 두텁고
그 공은 성대하니
하늘의 살피심 크게 밝아
거듭 보우(保佑)하시었네.

휘황한 금보(金寶)여
앞뒤로 밝게 빛나고
황제의 고명이 거듭 다달아
우리 임금 마침내 왕위에 오르셨네.

조상의 가르침 받들어서
한양으로 환도하여
예악(禮樂)을 제정하니
그 문채 찬란하게 왕성하여라.

상을 당해 여막에 머물며
애모함이 망극하여
장례 모시고 제사 지냄에
옛 법도를 따르셨네.

공경히 큰 나라 섬겨
황제도 지성스럽다 하였으며
경건하게 제사를 받드니
신명(神明)이 감응했네.

이웃 나라 사림에 도의가 있어

왜국이 복종하고
왕씨 후예 돌보아서
편안히 살게 하셨네.

안팎이 태평하여
스무 해나 이어지니
상서로운 감로가
해마다 함흥부에 내리었네.

어두운 아들 폐하시고 덕 있는 이에게 명하여서
백성의 주인 되게 하셨으니
같이 천수를 누리시며
어버이로 이 땅에 임하시기 바랐건만
어찌 빈천(賓天)하심 그리도 빨라
한번 든 병환 낫지 아니 하셨는가.

슬프도다, 성스런 아들
비통한 슬픔 견줄 데 없어
사흘 동안 수라 끊고
사모함을 못 이기어 몸조차 상했어라
저상중의 모든 일을
예법대로 행하셨네.

황제 듣고 애도하며
사신 보내 제사하고
시호로써 추송하며
응승한 부의 보내와서
조문의 은전 갖추어지니
그 기쁨 신하들에게도 넘치었네.
공경히 태후마마 생각건대
진실로 정숙하고 온화하며
가만히 사직의 안정을 도와
큰 성군(聖君)의 배필이 되시었고
성스럽고 명철한 아드님 낳아
종묘 제사의 주인 되게 하시었네.

하늘처럼 굳건하여 환하게 밝으심은
공정대왕 덕이시고
땅처럼 도타워 부드럽고 바르심은
원경왕태후 법도셨으니
살아서는 금슬처럼 벗하셨고

죽어서도 같은 곳에 묻히셨네.

자손이 진진하게 번성하니
아, 모두들 기린 같아라
면면히 종사(宗祀)는 이어져
억만년토록 드리우리.

신은 절하고 헌사를 올려
옥돌에 새기오니
만대에 마멸치 않아
우리 동방을 비추소서.

영락(永樂) 22년(1424) 5월 일에 비를 세우고, 272년 뒤인 을해(乙亥)년(1695) 5월 일에 중건(重建)하다.

[비움기]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태종대왕께서는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전례 없이 뛰어나셨으나, 춘추가 높지 않음에도 성자(聖子)에게 전위(傳位)하시고 바야흐로 한가로이 영양(榮養)을 누리시더니 홀연히 승하시었다. 우리 전하께서는 슬픔에 몸을 상하시며 예법을 다하시고, 5월에 원경왕태후(元敬王太后)의 헌릉(獻陵)에 합장(合葬)하였으니, 유명(遺命)을 따르신 것이었다. 능은 광주(廣州) 읍치(邑治)의 서쪽 대모봉(大母峰) 아래 북서쪽 산자락에 있으며, 건좌손향(乾坐巽向: 북서쪽에 자리잡고 남동을 향함)이다. 북쪽으로 경성(京城)과는 30리쯤 떨어져 있다.

삼가 살피건대, 이 산은 장백산(長白山)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수천리를 넘게 뻗어내려 상주(尙州)의 속리산(俗離山)에 이르고, 한번 꺾여 서북으로 또 수백리를 달려 과천(果川)의 청계산(靑溪山)에 이르며, 또 다시 한번 꺾여 동북을 향하다가 한강을 등지고 멈추니, 이것이 대모산이다. 이곳은 곤령(坤靈: 땅의 神靈)이 머무르고 맑은 기운이 서리어 있으니,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갈무리해 원릉(園陵)될 길조(吉兆)를 기다린 것이리라. 전하께서 명하여 능의 남동쪽 63보(步) 지점에 풍려(豐麗)한 비석을 세워 아름다운 공덕을 기록하여 그 빛남이 미래까지 드리우도록 하시었다. 또 명하시길, 개국공신(開國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의 성명을 비움(碑陰)에 새기도록 하시었다.

가만하 생각건대,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일어나면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드높이는 신하가 때맞춰 출현하여 대업을 도와 이룩하게 마련이다. 이에 그 공적을 이정(彝鼎: 종묘에 갖추어 놓는 제기의 일종으로 술동이와 술. 여기에 공로가 있는 신하의 업적을 기록하였음.)에 기록하는 의전(義典)이 있게 되었으니, 사라지지 않고 유구히 전해지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우리 왕조의 임신(壬申: 1392)년 개창(開創)과 무인(戊寅)·경진(庚辰)년의 난을 평정함은 실로 하늘이 우리 태종을 인도하여 조선의 만역년 한량없는 복록을 터딤은 일이었다. 그러나 또한 여러 장상(將相)과 대신(大臣)들이 몸을 잊고 자신을 내맡겨 찬양(贊襄)하고 보좌한 힘도 큰 것이었다. 이것은 정석(貞石)에 이름을 새겨 영원토록 보이기에 합당하니, 뒷날 보는 이들은 우리 전하께서 선열(先烈)을 현양(顯揚)하고 큰 공적을 포장(褒獎)하는 지극한 뜻을 능히 알 수 있으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신윤희(尹淮) 머리 조아려 절하고 삼가 적다

개국공신

익안대군 방의 익안대군 이화 문하좌시중 배극렴 영의정부사 조준 상락부원군 김사형 안평부원군 이서 한산부원군 조영무 의녕부원군 남재 서원부원군 한상경 성산부원군 이직 의정부 우의정 정탁 한천부원군 조은 옥천부원군 유창 화산부원군 장사길 흥녕부원군 안경공 여천부원군 민여의 평성부원군 조건 홍안군 이제 영성군 오사충 판삼사 사윤호 계림군 김균 청해군 이지란 편한성부사 정희계 연성군 김탁 의성군 남은 정당문화 정충 복흥군 조반 흥원군 이부 동원군 함부림 한산군 조인옥 남양군 홍길민 서성군 유원정 완성군 이백유 상산군 이민도 지중추원사 황희 석 지중추원사 김인찬 지중추원사 조기 고성군 고려 호조전서 조영규 상장군 한충

정사공신

익안대군 방의 봉녕부원군 복근 익안대군 이화 영의정부사 조준 상락부원군 김사형 진산부원군 하륜 한산부원군 조영무 의정부 우의정 정탁 완원부원군 이양우 완산부원군 이천우 한천부원군 조은 화산부원군 장사길 상당군 이저 청해군 이지란 취산군 신극례 연성군 김탁 중추원부사 장철

좌명공신

익안대군 이화 창녕부원군 성석린 진산부원군 하륜 한산부원군 조영무 성산부원군 이직 문성부원군 유량 금천부원군 박은 의정부 좌의정 이원 완산부원군 이천우 한천부원군 조은 면성부원군 한규 평양부원군 김승주 장천부원군 이종무 한평부원군 조연 칠원부원군 윤자당 곡산부원군 연사중 상당군 이에 완천군 이숙 청해군 이지란 길창군 권근 칠성군 윤재 파평군 윤곤 취산군 신극례 여산군 송거신 장흥군 마천목 남양군 홍서 연성군 김정경 계성군 이래 풍산군 심구형 지(·)부사 박석명 병조판서 이응 형조판서 이승상 참판삼군부사 김영렬 이성군 서유 희천군 김우 마성군 서의 월천군 문빈

아, 이곳은 우리 태종 공정대왕의 현릉이다. 능 아래 예전에 신도비가 있었으나 중간에 병화를 거치면서 석각(石刻)이 박락되어 판별할 수 없는 곳이 많게 되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스무 해 되는 갑술(甲戌: 1694)년 봄 2월에, 삼가 원침(園寢)을 배알하시면서 돌아보시고는 탄식하시며 기덕(紀德)을 재천명하실 일을 생각하시었다. 이에 새 돌을 마련하여 예전의 비문을 고쳐 새기도록 유사(有司)에 하명하시었다. 마침내 중건청(重建廳)을 설치하여 예조(禮曹)와 공조(工曹)에서 그 일을 관장하고 감독하였다. 이듬해 을해(乙亥: 1695)년 5월 공역을 마치고 좋은 날을 택해 옛 비각(碑閣)을 헐고 처마와 기둥을 늘려서 확장한 다음, 구비(舊碑)와 함께 나란히 세웠다.

대저 옛 신도비의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지은 것이고, 권홍(權弘)이 비액(碑額)의 전서(篆書)를 썼으며, 윤회(尹淮)가 음기(陰記)를 기록한 것이다. 오직 비문의 글씨를 쓴 사람만은 성씨는 '성(成)' 이지만 그 아래로는 글자가 마모되어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다. 비문과 음기는 모두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안에 실려 있으므로 이제 <통기>에 실린 비에 의거하여 고쳐 새기되, 간혹 이동(異同)이 없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비에 새겨진 것을 따름으로써 신중을 기하려는 뜻을 밝힌다.

아, 선왕(先王)께서 집을 바꾸어 나라로 만드신 공렬(功烈)과 우리 전하께서 선조를 받들고 효도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덕이 이제부터 만대에 이어지도록 빛나리니,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으리라.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의금부사(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 신 박태상(朴泰尙)은 왕명을 받들어 적고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 신이덕성(李德成)은 왕명을 받들어 쓰고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지(兵曹參知) 지제교(知製教) 신 홍수주(洪受疇)는 왕명을 받들어 전액(篆額)을 쓰다.

<標點校勘 太宗獻陵神道碑文>

太宗獻陵之碑(篆額)

有明贈諡恭定朝鮮國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獻陵神道碑銘并序

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集賢殿大提學知經筵同知春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臣卞季良奉教撰

天之將降大任於有德也，必生聖子神孫，以開景運，以永洪祚。我朝鮮太祖康獻大王之興也，以我太宗爲子，以我殿下爲孫，噫戲盛矣，豈人爲之所能及哉。天也，其與商家賢聖君之繼作，周家大王王季文武之相承，何以異哉。

臣謹按，璿源李氏，全之望姓。司空諱翰，仕新羅，娶宗姓之女。六世而至諱兢休，始仕高麗。十三世而至皇玄祖穆王，入仕元朝而長千夫。四世襲爵，咸能濟美。元政既衰，皇祖桓王，還事高麗恭愍王，積功累仁，其來久矣。

我神懿王太后，以至正丁未五月辛卯，誕太宗于咸興府厚州私第，我太祖之第五子。生而神異，稍長英睿絕倫。好讀書，學日進，年未冠，中高麗科第。時政散民離，國勢抗隍⁶⁴⁾慨然有濟世之志，太祖愛之，異諸子。嘗以書狀官，偕侍中李穡，朝京師。累官，至密直司代言。洪武辛未九月，神懿王太后薨，廬于齊陵之側，欲終三年，壬申春，太祖西行，遘疾而還，來侍湯藥。恭讓之臣，乘隙謀傾，勢甚急，太宗應機制變，討除渠魁，群謀瓦解。秋七月，與諸將相，倡以大義，推戴太祖，化家爲國，封靖安君。

甲戌夏，高皇帝命遣親男入朝，太祖以我太宗通經達禮，最賢諸子，卽遣應命。既至，敷奏稱旨，優禮賜還。戊寅秋八月，太祖不豫，權臣朋家聚黨，有欲挾幼擅政，以肆己志者，褶發斯迫⁶⁵⁾太宗炳幾殲除。時宗親將相，皆欲請冊我太宗爲世子。太宗牢辭，推尊恭靖，上請太祖，冊封世子，以定宗社。九月丁丑，太祖以疾未瘳⁶⁶⁾禪于恭靖。

建文庚辰正月，逆臣朴苞，謀戕同氣，陰誘芳幹父子，稱兵爲亂，太宗勒軍平之。誅苞，餘悉釋，安置芳幹，不廢懿親。恭靖以無嗣，且謂開國定社，皆我太宗之績，冊爲世子。冬十有一月，亦以疾傳位于我太宗，遣使請命。明年辛巳六月，建文帝遣通政寺丞章謹等，奉誥命印章來，封我太宗爲王。冬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錫冕服，秩視親王。

歲壬午，今皇帝卽位，遣左政丞臣河崙，賀登極，帝嘉忠誠，明年癸未四月，賜以誥印，遣都指揮使高得等來，仍封爲王。秋遣翰林待詔王延齡來，錫袞冕九章，錦段紗羅書籍，太祖錦段紗羅，元敬王太后冠袍錦段紗羅，各有差。自時厥後，帝賚荐至，無虛歲矣。

歲乙酉，以漢陽，太祖所都，排群議而還。歲丁亥，帝語朝正使臣曰，朝鮮國王，至誠事大，

64) 抗' < > < > 抗'

65) 褶가 < > < > 褶'

66) < > 以가

自後每當使臣之至，輒稱至誠。

戊子五月，太祖晏駕，哀慕⁶⁷⁾極，居于諒闇，喪葬以禮。遣使告訃，帝震悼罷朝，遣禮部郎中林觀等，賜祭大牢，贈諡康獻，又勅太宗賜厚賻。⁶⁷⁾

壬辰冬，有以王氏之裔，隱於民間者上言，⁶⁸⁾攸司請誅之。太宗曰，帝王之興，自有天命，誅王氏之後，非我太祖本意，乃下教曰，⁶⁹⁾王氏之後存者，俾之各安生業。甲午六月，甘露降于咸興府月光仇未里，及定平白雲山。明年乙未四月，甘露又降咸興府德山洞，吾東方，前古所未有也。政府俱進箋賀，不受。

戊戌六月，以世子禋，敗德廢之，封讓寧大君，以我殿下，聰明孝悌，好學不倦，⁷⁰⁾國人屬望，冊封世子以聞，帝俞允。是年八月，禋于我殿下，遣使請命。十有一月，我殿下奉冊寶，獻號曰，⁷¹⁾聖德神功上王。明年己亥正月，帝遣鴻臚寺丞劉泉等，奉誥命，封我殿下為王。五月，對馬島倭犯邊，殺掠軍士，命領議政臣柳廷顯，及長川君臣李從茂等，⁷²⁾以舟師往討之，島倭納款如舊。

八月，帝遣使賜宴，勅書略曰，⁷³⁾王至誠篤厚，祇事朝廷，一德一心，終始不怠，能簡賢命德，俾宗祀有託，以副國人之望。又賜宴我殿下，勅書略曰，⁷⁴⁾爾父篤厚老成，祇敬天道，忠順之誠，愈久不替。九月，恭靖王即世，服斬衰，終易月之制，遣使告訃，明年四月，帝遣使致祭，賜諡恭靖。是年春，我殿下率群臣，請上太上王之號，不允。秋七月，元敬王太后薨，以我殿下，哀毀過禮，命從易月之制。殿下涕泣固辭，乃命葬後釋服，白衣終制。九月壬午，葬太后于廣州治之大母山，陵曰獻。辛丑秋九月，我殿下奉冊寶，⁷⁵⁾獻太上王之號。十月，稟太宗，命冊封元子珣為世子。

太宗以不世之資，緝熙聖學，孝悌通於神明，誠敬格于宗社。事大則天子稱其至誠，交隣則倭邦服其有道。欽天恤民，崇儉節用。先德禮而慎刑罰，進忠直而黜奸邪。闢異端而禁淫祀，酌古今以定制度，昭文教而嚴武備。積弊悉革而庶績咸熙，四境按堵而民安物阜，帝王之道，嗚呼盛哉。宜其紆帝眷之隆，而再獲甘露之上瑞矣。

壬寅四月，始不豫，越五月丙寅，薨于離宮，我殿下不勝哀痛，三日徹膳。羣臣涕泣，⁷⁶⁾請進膳，竟不許。定為三年之喪，不用易月之制。

太宗春秋五十六歲，在王位十有九年。居閑頤養五年，⁷⁷⁾而弓劍忽遺，大小臣僚，下至僕隸，莫不失聲號哭，愈久愈哀，如喪考妣，嗚呼慟哉。以是年九月初二日丙辰，上尊號曰，聖德

67) 勅' < > 勅'

68) 闇' < > 闇'

69) 乃가 < > 迺'

70) 倦' < > < > 倦'

71) < > 獻'

72) 長川君' < > 贊成' . 李從茂가 가 長川君

73) 勅' < > 勅'

74) 10)

75) 寶가 < > 寶'

76) 羣' < > < > < > 群'

77) 閑' < > < > 閑'

神功文武光孝大王，廟號太宗，⁷⁸⁾ 初六日庚申，合葬于元敬王太后之陵，遺命也。

及訃聞，帝哀慟輟朝，特遣禮部郎中楊善等賜祭，其文略曰，惟王篤厚至誠，聰明賢達，敬事朝廷，忠順之心，⁷⁹⁾ 終始不替。訃音遠聞，良深感悼。又賜誥命，諡曰恭定，又賜殿下賻優厚。蓋我太宗功德之盛，及我殿下孝誠之至，前後相承，克享天心，故於始終之際，⁸⁰⁾ 寵異之典，如此其備至矣。

中宮元敬王太后，姓閔氏，驪興世家。自高麗門下侍郎平章事文景公諱令謨，六世而至皇高祖諱宗儒，相毅陵，位都僉議侍郎贊成事，諡忠順。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順諱頤，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朴，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驪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母宋氏，⁸¹⁾ 封三韓國大夫人，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積善流慶，是生淑德，聰慧異常。將笄擇配，來嬪于我太宗。太宗少有濟世之志，留心經史，不事家產，太后能儉於治家，謹於主饋，以勉其功。教誨多男，俾循義方，禮遇妾侍，克盡婦道。

洪武壬申，封靖寧翁主。戊寅，太宗定社之際，勢甚孤危，太后盡心輔贊，以濟大事。庚辰春，封貞嬪，其年冬，太宗即位，封靜妃。永樂癸未，帝賜冠袍，自是年至丁酉，累受帝賜，凡六。⁸²⁾ 戊戌冬，我殿下獻號曰，厚德王大妃，庚子九月，上諡元敬王太后。⁸³⁾ 春秋五十六歲。

太后稟幽閑貞靜之德。克配太宗，以專內治，二十年間，⁸⁴⁾ 壺儀肅穆，又誕聖子，俾主宗社，以享榮養。及薨，嬪媵妾侍，莫不盡心悲痛，婦則母儀，其至矣乎。

誕四男四女，我殿下居三。長卽禔，次曰補，⁸⁵⁾ 封孝寧大君，次曰種，⁸⁶⁾ 封誠寧大君，先卒。女長貞順公主，下嫁清平府院君李伯剛，非一李也。次慶貞公主，下嫁平壤府院君趙大臨。次慶安公主，下嫁吉昌君權跬，亦先卒。次貞善公主，下嫁宜山君南暉。

懿嬪權氏，生一女，貞惠翁主，適雲城君朴從愚。昭惠宮主盧氏，生一女，幼。信寧宮主辛氏，生三男七女。男長嗣，⁸⁷⁾ 封恭寧君，餘幼。女長貞信翁主，適鈴平君尹季童，次貞靜翁主，適漢原君趙璿。次淑貞翁主，適日城君鄭孝全，餘皆幼。宮人安氏，生一男三女，皆幼。金氏，生一男，裶封敬寧君。高氏，生一男，崔氏，生一男一女，李氏，生一男，金氏，生一女，皆幼。

78) ‘初二日丙辰上尊號曰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廟號太宗’ < >

79) 心’ < > 誠’

80) 始終’ < > 終始’

81) 母가 < > 皇妣’

82) 五가 < > 六’

83) 上’ < > 追’

84) 間’ < > 間’

85) 補’ < > < > 補’

가 가

가 示’

86) 種’ < > 種’

22)

87) 嗣’ < > 禔’

我中宮恭妃沈氏，門下侍中諱德符第四子溫之女。誕四男二女，男長卽世子，⁸⁸⁾ 餘皆幼。讓寧娶金漢老之女，生三男一女，皆幼。孝寧娶前判中軍都摠制府事鄭易之女，生四男，⁸⁹⁾ 皆幼。誠寧娶前全羅道都觀察使成抑之女，無子。

貞順公主，生一女，適龍驤侍衛司護軍李季隣，亦非一季。慶貞公主，生四女，長適敦寧府丞安進，次適幼學金仲淹，餘幼。慶安公主，生二男，長聘娶漢城少尹鄭淵之女，次幼。貞善公主，生二男一女，皆幼。敬寧娶戶曹參議金灌之女，生二男，皆幼。恭寧娶兵曹參判崔士康之女，生二女，皆幼。

臣竊觀，我太宗之盛德隆功，固已高出於百王之上矣，而配匹之賢，內助之功，又有可與蜀塗莘摯，⁹⁰⁾ 同符而儷美者矣。羣臣咸願，⁹¹⁾ 刻銘于陵之神道碑，昭示永世，殿下以命臣季良。臣季良承命，祇慄不敢辭，謹拜手稽首而獻銘。銘曰

天眷海東 降我太宗 豐豐太宗 盛德在躬
推戴聖父 克集大功 乃觀帝庭 敷奏從容
優荷睿恩 保我黎元 炳幾靖亂 嫡長是尊
雖值鬪墻⁹²⁾ 友愛猶惇 孝悌之至 從古罕聞
維德之厚 維功之懋⁹³⁾ 天鑑孔昭 式申保佑
煌煌金寶⁹⁴⁾ 輝映前後 帝誥荐臻 我乃龍受
祖訓惟服 還于漢北 制作禮樂 煥乎郁郁
遭喪居廬 哀慕罔極 以葬以祭 古典是式
祇事朝廷 帝稱至誠 肅肅承祀 感于神明
交隣有道 倭邦來庭 存卹王裔 俾遂其生
中外乂安 垂二十齡 浥浥甘露 歲降咸府
廢昏命德 以作民主 期享永年 父臨下土 何促賓天 一疾莫愈
哀哀聖子 痛悼無比 徹膳三日 不勝摧毀 凡百喪事 維禮之履
帝聞慟悼 遣使以祀 贈諡褒崇 賜賻優隆 恤典之備 喜溢臣工
思齊太后 允也肅雝 密贊定社 克配亶摠 篤生聖哲 俾主宗祏⁹⁵⁾
乾健離明⁹⁶⁾ 恭定之德 坤厚柔貞 元敬之則 琴瑟以友 藏同其域⁹⁷⁾
子孫振振 吁嗟其麟⁹⁸⁾ 綿綿宗祀⁹⁹⁾ 垂萬億春

88) < > 男'

89) < > 四男' 一女가 가

90) 莘' < > < > 辛'

91) 羣' < > < > 群'

92) 鬪' < > 鬪' 鬪' 鬪'

93) 維가 < > < > 惟'

94) 煌煌' < > 煌煌'

95) 祏' < > 祏'

96) 離가 < > 離'

97) 藏' < > < > 藏' 藏' 藏'

臣拜獻詞 刻之貞珉 萬代不磨 照我東垠¹⁰⁰⁾

永樂二十二年五月 日 立石 後二百七十二年乙亥五月 日 重建

<標點校勘 太宗獻陵神道碑陰記>

碑陰記

恭惟，我太宗大王，聖德神功，卓冠前古，春秋未高，傳畀聖子，方遂優閑，備享榮養，而弓劍忽遺。我殿下，哀毀盡禮，越五月，合葬于元敬王太后之獻陵，遵治命也。陵在廣州治之西大母峰下乾亥之山，乾坐巽向。北距京城，三十許里。

謹按，山來自長白山，而南踰數千里，至尙州之俗離山，折而西北又數百里，至果川之清溪山，又折而東北負漢江而止，是爲大母山。坤靈停峙，淑氣蜿蜒，噫，天作地藏，¹⁰¹⁾以待園陵之吉兆歟。殿下命，即陵之巽方六十三步，樹之豐碑，以紀德美，垂耀來今。又命序次開國定社佐命功臣姓名，刻諸碑陰。

臣竊惟，自古王者之作，必有名世之臣，應時而出，弼成大業。於是，有紀功宗銘彝鼎之典，所以示不朽傳悠久也。我朝壬申之開創，與夫戊寅庚辰之戡定，實天所以啓我太宗，以基朝鮮萬億年無疆之祚也。然，亦將相大臣，忘身委質，贊襄輔佐之力，與有多焉。是宜鐫銘貞石，¹⁰²⁾以示永世，後之觀者，尙克知我殿下顯揚先烈褒獎元勳之至意云。

嘉善大夫藝文館提學集賢殿提學同知經筵春秋館事臣尹淮拜手稽首謹記

開國功臣

益安大君 芳毅 義安大君 李和 門下左侍中¹⁰³⁾ 裴克廉 領議政府事 趙浚 上洛府院君 金士衡 安平府院君 李舒 漢山府院君 趙英茂 宜寧府院君 南在 西原府院君 韓尙敬 星山府院君 李稷 議政府 右議政 鄭擢 漢川府院君 趙溫 玉川府院君 劉敞 花山府院君 張思吉 興寧府院君 安景恭 驪川府院君¹⁰⁴⁾ 閔汝翼 平城府院君 趙獫 興安君 李濟 寧城君¹⁰⁵⁾ 吳思忠 判三司事¹⁰⁶⁾ 尹虎 鷄林君 金稷¹⁰⁷⁾ 青海君 李之蘭

98) 吁가 < > 于'

99) 綿綿' < > 緜緜'

100) 照가 < > 昭'

101) 藏' < > < > 藏' 34)

102) 鐫' < > < > 鐫'

103) < > < > 左가

104) 驪가 < > < > 麗'

105) < > < > 君'

106) < > < > 事가

107) 稷' < > < > 稷'

判漢城府事 鄭熙啓 延城君 金輅 宜城君 南閻 政堂文學 鄭摠 復興君 趙胖 興原君 李敷 東原君 咸傳霖¹⁰⁸⁾ 漢山君 趙仁沃 南陽君 洪吉叟¹⁰⁹⁾ 瑞城君 柳爰廷 完城君 李伯由 商山君¹¹⁰⁾ 李敏道 知中樞院事 黃希碩 知中樞院事 金仁贊 知中樞院事 趙琦 高城君 高呂 戶曹典書 趙英珪 上將軍 韓忠

定社功臣

益安大君¹¹¹⁾ 芳毅 奉寧府院君 福根¹¹²⁾ 義安大君 李和 領議政府事¹¹³⁾ 趙浚 上洛府院君 金士衡 晉山府院君 河崙 漢山府院君 趙英茂 議政府 右議政 鄭擢 完原府院君 李良祐 完山府院君 李天祐 漢川府院君 趙溫 花山府院君 張思吉 上黨君 李佇 青海君 李之蘭 鷲山君 辛克禮 延城君 金輅 中樞院副使 張哲

佐命功臣

義安大君 李和 昌寧府院君 成石璘 晉山府院君 河崙 漢山府院君 趙英茂 星山府院君 李稷 文城府院君 柳亮 錦川府院君 朴崙 議政府 左議政 李原 完山府院君 李天祐 漢川府院君 趙溫 沔城府院君 韓珪 平陽府院君¹¹⁴⁾ 金承憲 長川府院君 李從茂 漢平府院君 趙滄 漆原府院君¹¹⁵⁾ 尹子當 谷山府院君 延嗣宗 上黨君 李夔 完川君 李淑 青海君 李之蘭 吉昌君 權近 漆城君¹¹⁶⁾ 尹抵 坡平君 尹坤 鷲山君 辛克禮 礪山君 宋居信 長興君 馬天牧 南陽君 洪恕 蓮城君 金定卿 鷄城君 李來 豐山君 沈龜齡 知 缺¹¹⁷⁾府事 朴錫命 兵曹判書 李膺 刑曹判書 李升商 參判三軍府事 金英烈 利城君 徐愈 熙川君 金宇 麻城君 徐益 越川君 文彬

嗚呼，茲惟我太宗恭定大王獻陵也。陵下舊有神道碑，中經兵燹，石刻剝落，多不可辨認。我殿下卽位之二十年甲戌春二月，祇謁園寢，顧瞻興歎，思所以再闡紀德之事。乃命有司，伐新石，改刊舊文。於是，設重建廳，禮曹工曹官掌其事，而董治之。越明年乙亥五月，工告訖，滄吉，折舊閣，增其簷楹，與舊碑並豎焉。

蓋舊碑卽卞季良所撰¹¹⁸⁾ 權弘篆其額，尹淮記其陰。獨書碑者成姓，而其下字缺，不知名之爲誰。碑文及陰記，具載於列聖誌狀通紀中，故今依通紀所載改刊，而其或不能無異同者，

108) 傳가 < > 傳'

109) 叟' < > 皎'

110) 商' < > < > 常'

111) < > < > 大가

112) < > < > 福根' 李良祐' 李良祐'

113) < > < > 事가

114) 陽' < > < > 壤'

115) 漆' < > < > 漆'

116) 52)

117) 缺' 가 가

118) 碑卽' < > < > 卽碑' 가

則一從碑刻，以存慎重之意。

嗚呼，我先王化家爲國之烈，我殿下奉先思孝之德，其自是光于萬代，與天無極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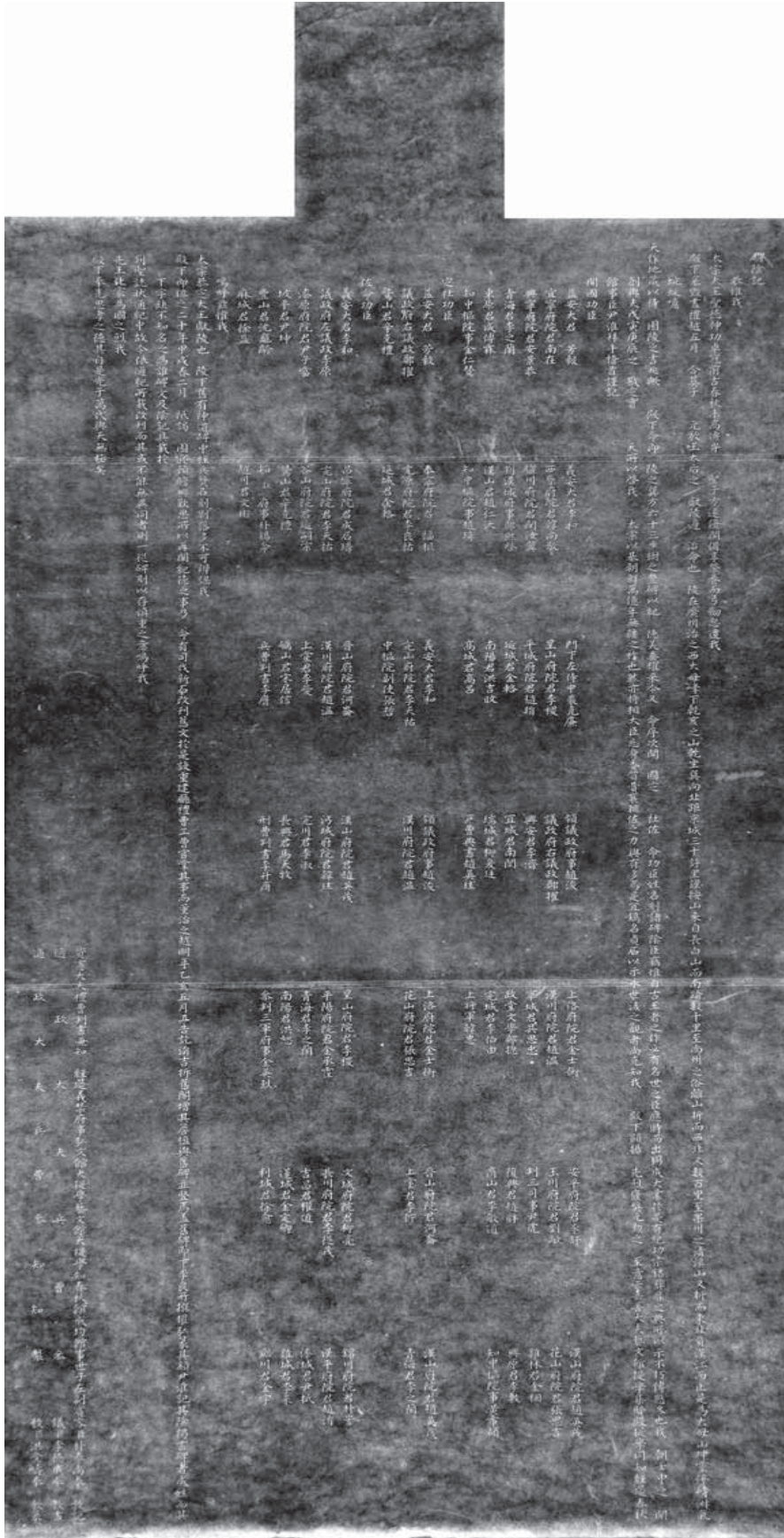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
副賓客臣朴泰尙奉教記

通政大夫兵曹參議臣李德成奉教書

通政大夫兵曹參知知製教臣洪受疇奉教篆

亦命獻陵之院

有謂... 天子... 亦命... 獻陵之院... 天子稱... 亦命... 獻陵之院... 天子稱... 亦命... 獻陵之院...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비문은 1424년 변계량(卞季良)이 태종의 출생과 공덕 등에 관해 지은 글이고 음기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1·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정사, 좌명 공신의 명단이 열거되었다. 현재 귀부의 모습은 파손된 채로 있으며,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다. 기단 일부도 뭉개진 상태이지만 귀부 등 뒤의 상단에 ‘王’자가 새겨진 육각형의 귀갑문 일부가 남아 있다. 귀부와 달리 이수(龍首)는 원형대로 남아 있다. 이수는 대리석재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제액은 권홍(權弘, 1360~1446)의 글씨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신도비의 형태와 문양은 1409년(태종7)에 제작된 건원릉 신도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초 왕릉 신도비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이후 구 영릉 신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구영릉 신도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릉 신도비는 건원릉 신도비와 함께 유이하게 조선 초 왕릉에 세워져 현재까지 전하는 신도비라는 점, 고려 선사신도비의 양식을 계승한 점, 신도비의 조각에서 이수 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태종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서 왕릉 신도비의 기준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사대부의 신도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 현 상

- 비좌, 비신 및 이수(龍首) 모두 원석이나, 비좌 부분은 박락이 심함.
-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글씨는 이덕성(李德成)의 필적으로 새겨짐.
- 각자가 마모된 부분이 많으나 석비의 조형예술적 품격을 잘 갖추었음.

○ 내용 및 특징

- 현재 3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 조선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과거와 다른 신왕조의 새로운 석비 조형양식의 진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비록 비좌는 박락되고 비신과 이수도 마모가 심하지만 3기의 조선왕릉 신도비 중 가장 원형을 많이 보전하고 있음. 예술적 조형성도 매우 뛰어남. 비신과 이수는 종래의 고려 석비 조형의 전통을 탈피하고 중국 당(唐) 나라 석비 조형의 맥을 이어온 명(明) 나라 석비의 조형을 수용한 조선시대 석비 조형의 대표작 중의 하나임.

- 따라서 한국의 석비 조형 예술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좌표를 점하는 문화재로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함.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석비는 1)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해주는 기록물이며, 2) 조성년대가 확실한 조형물로 예술사적 편년을 제공하는 기준작품이며, 3) 비문의 내용은 당시의 한문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4) 글씨는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자료가 되는 등 석조문화재 중에서도 으뜸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함.

2. 이 신도비는 조선왕조 제 3대 임금인 태종의 왕릉 신도비로 조선 세종 6년(1424)에 조성되었으며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글씨는 이덕성(李德成)의 필적으로 새겨진 조선 초기 석비의 귀중한 문화재임. 현재 비좌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원석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비신과 이수(水首)는 글자는 마모되었어도 석비의 조형은 제작당시의 품격을 잘 갖추고 있음. 특히 현릉 신도비는 단 3기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초기 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그간 이 석비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가 중요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3. 이 석비는 삼국 통일기에 중국 당(唐)대의 석비 양식을 들여와 통일신라시대에 전형을 이룬 후 고려시대까지 계승된 한국 전통 석비양식이 고려의 멸망과 함께 멈추고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이 수용되는 중국 명(明)대의 석비 조형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귀부의 표현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고 이수 부분도 중국 전통을 따라 반원형의 비신 상부에 오각형의 제액을 내고 그 주위를 여러 마리의 용이 휘감는 형상을 하고 있음.

4. 이와 같은 비신(碑身) 상부 이수부분의 조형이 중국식으로 바뀌는 것은 이미 고려 우왕 3년(1377)에 조성된 회암사 선각왕사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 3년(1394)에 조성된 개성 연복사탑 중창비로 이어졌고 그 이후 건원릉 신도비(1409)에서 훨씬 규모가 장대하고 품격이 당당한 조형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릉 신도비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석비 조형예술의 기량이 진작되고 있어 조선시대 한국 석비 조형예술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임이 분명함.

5. 비록 비좌는 박락이 심하지만 비신이 상실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석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음. 따라서 이 석비가 완형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조형이 발전해가는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최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석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4.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 英陵 神道碑)

가. 검토사항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의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선왕릉내 지정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지정 추진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2.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2호 구영릉석물
- 명 칭 :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서울 世宗 英陵 神道碑)
- 소유자(관리자) : 국유((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 수 량 : 1기
- 규 격 : 총 높이 507cm, 이수와 비신 447cm, 비좌 60cm, 너비 155cm, 두께 50cm
- 재 질 : 대리석
- 조성연대 : 1452년(문종 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있음)

①세종영릉신도비는 조선왕릉 내 총 3기의 왕의 신도비 중 3번째 비로, 지금으로부터 561년 전에 세운 것이다. ②세종영릉신도비는 조선조 문화를 가장 발전시키고 국기를 가장 튼튼히 다졌던 제4대 임금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비에 담은 일대기적 전기이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하고 학

문이 해박했던 문신 정인지가 글을 짓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당대의 대표적 서예가였던 안평대군 이용이 글씨를 쓴 지극히 소중한 금석문이다. ③세종영릉신도비는 비신의 표면이 매우 심하게 부식·박락되어 금석문의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兼 成均館大司成 臣 鄭麟……”라는 글귀의 글씨와 “……臣 塔 奉教書”라는 글귀의 글씨가 확연히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문화재이다. ④세종영릉신도비는 비신이 매우 심하게 부식되어 그 원형을 상실하고 있지만, 그 상실된 모습 자체가 매우 소중한 국가적 문화재이며, 다행히도 비신과 하나로 되어 있는 이수만은 그 원형을 거의 간직하고 있어 조선조 초기 임금 신도비와 조선조시대에 세워진 많은 신도비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료다. ⑤세종영릉신도비는 태조건원릉신도비 및 태종헌릉신도비와 함께 각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가치 있음)

신도비의 원위치는 세종대왕의 초장지(初葬地)인 서초구 내곡동 산13번지였으나 1974년 4월에 현위치로 옮겨졌다. 이 비의 발견 지점은 구 영릉지에서 약 1km 떨어진 순조의 인릉이 자리한 곳 근처이다. 1469년 여주의 신 영릉으로 천장할 때 이 비를 옮기다가 어떠한 연유에선지 발견 지점에 이르러 매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이 석비의 이수는 비신에 붙어 있으나 귀부는 현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자연석으로 이를 대용하고 있다.

세종대왕 신도비는 세종대왕의 신도비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구 영릉에 세워졌으며, 조선의 왕릉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신도비라는 점, 이수 부분의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점, 비의 명문은 탈락되었지만 당대의 명필인 안평대군이 쓴 점, 비문의 내용은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조선 초 왕실 신도비 3점 가운데 하나로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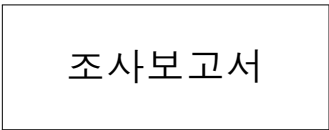
○ 관계전문가 (지정가치 있음)

- 현재 3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 조선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과거와 다른 신왕조의 새로운 석비 조형양식의 진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비록 비좌는 신조되고 비신과 이수도 마모가 심하지만 3기의 조선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규모가 당당하고 예술적 조형성도 매우 뛰어남. 비신과 이수는 종래의 고려 석비 조형의 전통을 탈피하고 중국 당(唐) 나라 석비 조형의 맥을 이어온 명(明) 나라 석비의 조형을 수용한 조선시대 석비 조형의 대표작 중의 하나임.

- 따라서 한국의 석비 조형 예술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좌표를 점하는 문화재로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지정 예고



□ 문화재위원

○ 현 상

1452년(문종2) 2월20일에 세워진 세종영릉신도비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사)세종대왕기념관 맞은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1469년(예종 원년) 여흥(驪興)으로 천장된 후 오랫동안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습기 등으로 인해 비면이 부식·박락되어 비면의 원형 상실과 함께 비문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 현재 이 비는 그 표면의 결이 약 1cm 정도의 두께로 거의 떨어져 나가 대리석 내질(肉質)의 연한 부분만 남아 있다. 물기가 배어들면 곧 안으로 스며들고, 외부의 힘을 조금만 가하여도 돌가루가 떨어질 정도이다. 세심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된다. 이 비는 1973년 옛 영릉터에서 약 1km 떨어진 순조의 인릉(仁陵) 근처에서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 한 덩어리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이수와 비신은 발견되었으나, 귀부는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발굴된 세종 영릉신도비는 발굴 이듬해인 1974년 4월 서울의 청량리 영휘원(永徽園) 북쪽에 건립된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 다시 세웠다. 유실된 귀부 대신 자연석을 구하여 귀부를 만들고 그 위에 비신을 세웠다. 현재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비신 전체는 이수와 함께 한 덩어리의 흰빛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수는 96cm 정도의 너비로, 좌우에서 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서로 버티고 선 형상을 취하고 있다. 조각한 솜씨가 매우 정교하여 현릉신도비보다 더욱 사실적이다. 또한 용틀임한 선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어 유연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대리석 표면의 결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용의 비늘이 그대로 간직되었더라면 더욱 살아있는 용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몇 점 남아있는 비늘은 푸르스름한 광택

의 빛을 받으며 살아 있는 듯 꿈틀댄다.

당시 공조판서이면서 세종의 한글 창제에 크게 공헌했던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지은 비문과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이 쓴 비문글씨가 심하게 부식·박락되어 그 내용과 서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와 “전주이씨선원보첩(全州李氏璿源譜牒) 등에 영릉 신도비명과 천릉지문(遷陵誌文)이 수록되어 있어 그 비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신도비명은 총 4886자로 되어있다. 이 신도비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첫째 부분은 세종이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왕위에 오른 경위와, 세종의 탄생 및 인품, 성격, 일상생활모습 등을 적고 있다. 둘째 부분은 중국과의 외교와 유교정책 관계, 집현전 설치, 훈민정음 창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방면의 업적을 적고 있다. 셋째 부분은 소헌 왕후의 덕성 및 세종과 소헌왕후 파계 자손을 열거하고 있다. 넷째 부분은 찬자인 정인지가 비명을 바치면서 세종을 동방의 요순(堯舜)이라 칭하며 읊은 명문(銘文)을 적고 있다.

세종영릉신도비는 위에서 96cm 되는 곳에 안평대군이 쓴 “世宗英陵之碑”라는 6글자의 전액이 3글자씩 2줄 중서로 새겨져 있다. 우측의 世宗이라는 두 글자와 좌측의 「之」 자는 분명하게 보이나, 나머지 글자는 조금 마멸된 상태다. 전액 부분의 전체 크기는 길이가 70cm, 너비가 30cm이며, 글자 한 자의 크기는 가로 12cm, 세로 15cm 정도로 소전체의 전서를 순박하고 어리숙하게 구사하였다. 현재 비신 표면의 글자가 거의 박락되어 보이지 않으나, 우측 하단에 「兼 成均館大司成 臣 鄭麟」라는 글자와 그 한 행 좌측에 「臣 瑢 奉教書」라는 글자가 남아있어 비문을 지은 찬자와 글씨를 쓴 서자가 정인지와 안평대군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비문의 글씨를 쓴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당대를 대표했던 서예가였다. 자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으나, 비면에 남아있는 몇 자의 글씨를 통해서 보면 조맹부의 해서체에 안진경의 다보탑비 풍격을 약간 가미시켜 자가적 서풍을 구사하였다. 동국진체(東國眞體)는 사실상 안평대군의 글씨에서 출발되고 있다.

<문헌자료>

- 『세종실록』, 『예종실록』, 『세조실록』, 『연려실기술』 등
『서울의 문화재』 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1.
김구진, 「구 영릉 신도비와 석물에 대하여」, 『역사교육』 1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왕릉 급 원단묘 금석록』, 2012.

- 세종영릉신도비문(『朝鮮王陵及園壇廟金石錄』(전주이씨대동종약원, 2012)에서 전재)

英陵 神道碑銘並序¹⁰⁹

영릉 신도비명과 서문

堯舍丹朱¹⁰⁹而禪舜 舜有重華¹¹⁰之德而堯之仁益以遠 文王 舍伯邑考¹¹¹而立武王 武王有丕承¹¹²之烈而周之業益以昌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 一者 謂皆無私心也 我 太宗之禪位也 其堯文之心乎 我 世宗之受禪也 其舜武之德乎 太宗之在位也 早建元子視 爲世子 擇賢師友 以盡教養之方 世子有童心 學不就 德不進 太宗 深以爲憂 永樂 戊戌六月 世子失德滋甚 太宗欲立嫡孫爲嗣 大臣等 進曰 殿下 教養世子 無所不至 尚且如此 今立幼孫 寧能保異日之賢乎 况廢父立子 於義如何 莫若擇賢爲嗣

요(堯)임금이 자기의 아들 단주(丹朱)를 버리고 임금 자리를 순(舜)에게 넘겨주니 순임금에게 거듭 빛나는 덕[重華之德]이 있어서 요임금의 인(仁)이 더욱 영원해졌고, 문왕(文王:이름은 창(昌))이 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武王:이름은 발(發))을 세우니 무왕에게는 크게 이어받을 공이 있어서 주(周) 나라의 왕업(王業)이 8백년이나 길이 창성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당(唐)과 우(虞)는 어진 아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었고, 하후(夏后)와 은(殷)나라 주(周)나라는 임금 자리를 아들에게 이어줬으나 그 본의(本義)는 동일(同一)하다.” 하였는데, 여기 “동일하다”고 한 것은 모두 사심(私心)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우리 태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 선위(禪位)하신 것도 요임금과 문왕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셨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선위를 받으신 것도 순임금과 무왕의 덕과 같은 덕이셨다. 태종께서 왕위에 계실 때 일찍이 만아들[元子] 제(視)를 세자로 삼고 현명한 사우(師友)를 골라서 교양(教養)하는 도리를 다하였건만 세자가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학문이 이뤄지지 않고 덕(德)이 진취(進就)되지 않으니 태종께서 깊이 근심하셨다.

영락(永樂) 16년(태종18, 1418) 무술 6월에는 세자의 실덕이 더욱 심하니, 태종께서 (세자를 폐하고) 적손(嫡孫)을 세워 국사(國嗣)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이 진간(進諫)하기를 “일찍이 전하께서 세자를 교양하실 때 하지 않은 것 없이 하셨으나 오히려 이러한데 지금 어린 손자를 세우신다면 앞날의 현명하리라는 것을 보장(保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를 폐하고 그 아들을 세우는 일이 의리에 합당합니까? 현능(賢能)한 분을 골라 국사(國嗣)로 세우는 것만 못합니다.”하였다.

時世宗以世子母弟 次居第三 曾封忠寧大君 太宗曰 忠寧 最賢諸子中 宜立之 乃立爲世子 宗親文武百官 拜賀 中外 洽然稱頌 遂以奏聞 天子勅曰 立嫡以長 今古不易之常道 然嗣子之賢不肖 國之盛衰存亡係焉 王 爲國家長久之慮 鑑盛衰存亡之機 欲立賢爲嗣 聽王擇焉 是年八月 太宗 禪位于 世宗 遣使請命 十一月 世宗 奉册寶 上太宗尊號 聖德神功上王 明年己亥春正月 天子遣鴻臚寺丞劉泉 封世宗爲王 六月 天子勅 太宗曰 比以第三子 孝弟力學 可以繼承宗祀 且自陳年老 請襲以位 朕 惟王識見明達 特允所請 夫繼世 在於有後 而傳序在於得人 今王 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所望 良用嘉悅 賜王宴享¹¹³ 不惟王 一家之慶 且爲王 一國之慶也

세종대왕은 세자 제(視)의 동모아우 중에 셋째분이며 일찍이 충녕대군(忠寧大君)에 봉해졌는데, 태종대왕이 이르기를, “충녕대군이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니 그를 세우어 마땅하겠다.” 하시고, 곧 충녕대군을 세워 세자로 삼으

+++

109) 丹朱 : 당요(唐堯)의 아들이나 이름은 주(朱)요 단연(丹淵)으로 봉(封)하니 단주(丹朱)이다. 단주가 불초하므로 요(堯)임금이 순(舜)에게 선위(禪位)함.

110) 重華 : 우순(虞舜)의 문덕을 미칭(美稱)함.

111) 伯邑考 : 주 문왕이 상주의 노여움을 받아 糗里馱에 구인됐을 때에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희생된 문왕의 장자임.

112) 丕承 : 위대한 공업을 계승함. 『書經 君牙之篇』 丕顯哉文王謨丕承哉. 武王烈.

113) 宴享 : 국민(國賓)을 대접하는 일. 또는 그 잔치.

니, 종친과 문무백관이 절하며 하례 드렸고, 중앙과 지방(은 나라 백성들)이 흐뭇하여 칭송하였다. 마침내 명나라에 알리니 천자가 칙답하기를, “적장(嫡長)을 세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상도(常道)이다. 그러나 사자(嗣子)의 현명하고 불초함에 따라 국가의 성쇠(盛衰)와 존망(存亡)이 달려 있다. 왕이 국가의 장구(長久)한 책려(策慮)를 위하고 성쇠존망의 기틀을 살펴서 현능한 이를 가려 세워 국사로 삼으려하니 왕의 선택을 따르겠다.”하였다.

이해 8월에 태종대왕께서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보고하였다. 11월에 세종대왕께서 옥책과 옥새(冊寶)를 받들어 태종께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란 존호(尊號)를 올리었다. 다음 기해(己亥)년(1419) 봄 정월에 천자가 홍려시승(鴻臚寺丞) 유천(劉泉)을 보내와 세종대왕을 봉하여 왕을 삼고, 6월에 천자가 태종대왕에게 칙답하기를, “요즘 셋째 아들은 ‘효제(孝悌)롭고 역학(力學)하여 나라의 제사(宗祀)를 계승(繼承)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스스로 나이가 늙었다고 진달하고 ‘왕위를 세자에게 승복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집(朕)은 왕의 식견이 밝고 통달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왕이 청한 것을 윤택하는 바이다. 무릇 세(世)와 대(代)를 이음은 아들을 두는 데 있고, 차례로 전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데 있는 것이다. 지금 왕이 현명한 이를 가리고 덕(德)있는 이에게 명(命)하고 종사로 하여금 의탁할 곳이 있어서 온 나라 사람의 소망에 맞춰 주었으니 진실로 가상하고 기쁘다. 왕에게 연향을 내리니, 왕의 일가의 경사뿐만 아니라 또 왕 일국의 경사가 되는 것이다.”하였다.

又勅世宗勸勉以忠孝之道仍賜宴享八月使到國兩聖受宴于景福宮之勤政殿禮樂之盛聳動一國初元敬王后以洪武丁丑四月十日壬辰生世宗於漢陽潛邸四歲而王后夢太宗抱世宗坐於日輪中未幾太宗登寶位而世宗又承大統天之命有德豈偶然哉世宗自在閣天性好學手不釋卷沉默寡言有穆穆¹¹⁴之容及即大位聰明睿智則首出庶物之聖寬裕溫柔則容民畜衆之德制物獨運而有發強剛毅之執可畏可象而有齊莊中正之敬精義入神而有文理密察之別每日四鼓求衣平明受朝次視事次引輪對次御經筵乃入內猶覽書史無少懈於是政無不舉事無不治矣

또 세종에게 칙조(勅詔)하여 충효의 도로써 권면하고 이어 연향을 내렸다. 8월에 명나라의 사신이 오니, 태종대왕과 세종대왕(兩聖)이 경복궁의 근정전에 나아가 <그 송축하는> 잔치를 받으시니 예악의 성대함에 온 나라가 진동하였다. 처음에 원경왕후(元敬王后)께서 홍무(洪武) 30년(태조6, 1397) 정축 4월 10일 임진(壬辰)에 한양(漢陽) 잠저(潛邸)에서 세종대왕을 탄생하셨는데, 세종대왕이 네 살 되던 해 어느 날 원경왕후가, 태종대왕이 세종대왕을 안고서 해 바퀴[日輪] 속에 앉아 있는 꿈을 꾸었는데, 얼마 안 있다 태종대왕이 보위(寶位)에 오르셨고 세종대왕이 또 대통(大統)을 이어 받으셨으니 하늘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내리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하겠는가?

세종대왕께서 궁내의 작은 집(閣)에 계시실 때부터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침묵(沈默)하고 말이 적어 위기가 바르고 성대한 용태가 있더니, 왕위에 오르신 뒤로는 총명(聰明)하고 지혜로움은 모든 사물에 뛰어난 성인(聖人)이시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움은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는 덕이 있으셨다. 사물을 다스리고 독단으로 운행함에 있어서는 강하게 출발하여 굳센 형세가 있었으며, 두렵게도 하고 본받게도 하여 엄숙하고 씩씩하며 마음을 방정히 하는 공경이 있었으며,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신묘한데 들어가서 문리를 정밀하게 살피는 분별이 있으셨다. 매일 새벽 4경(四更:새벽 2시경)이면 옷을 갖추어 입고 평명(平明:밝아올 무렵)에 조회를 받고는 다음에 정사(政事)를 살피시고, 다음에 윤대(輪對)를 이끌었고, 다음에 경연(經筵)을 열었으나, 내전으로 들어가서도 오히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어람(御覽)하시며 조금도 게으르게 할 때가 없으시니 이에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太宗既傳位自念付托得人樂山水之趣屢出遊郊牧以自怡閑謂近臣曰得明主委國政無憂者天下無如我也豈唯天下無如我者古今亦無如我也蓋其憂之也深故其喜之也如此冬十月盡革中外寺社奴婢皆歸于官尋罷五教止留

+++

114) 穆穆 : 위의(威儀)가 바르고 성대함.

禪教兩宗 於是 異端之教 闕之廓如也 歲庚子春 始置集賢殿 選聚文學之士 備顧問也 是夏 元教王后邁店 避忌于外 掖
 輦徒步 至有露宿 奉藥常不離側 七月 王后薨 水漿不進 太宗 強之 乃小進 辛丑八月 天子北征 進馬萬匹 天子褒美 賜以
 銀幣 九月上 太宗 太上王之號 壬寅五月 太宗 薨 致喪三年 服喪行事 定爲永世之法 甲辰秋 太宗文皇帝崩 仁宗昭皇帝
 登極 奉表進慰 稱賀盡禮 天子嘉獎忠懇 賜以綵幣 歲乙巳 仁宗崩 宣宗章皇帝御極 又遣使慰賀 宣德丙午春 天子稱嘆至
 誠 賜幣 以及 王妃 是年冬 又賜五經四書 性理大全 通鑑綱目等書籍 自是 賞賚 無歲不到 至解所御寶裝條環及刀劍 以
 賜之

태종대왕께서 이미 왕위를 전위하시고는 스스로 <어질고 능한> 사람을 얻어 나라를 부탁하였다고 생각하시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취미[樂山水]를 살려 자주 성 밖 교외[郊牧]에 나아가 한가로움을 즐기시며 근신(近臣)에게
 이르시기를, “밝은 임금[明主]을 얻어 국정(國政)을 맡겼으니 걱정이 없는 사람은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어찌 다만 천하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일 뿐이겠는가? 고금(古今)을 통해서도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대개 걱정함이 깊었기 때문에 기쁘심도 오히려 이와 같이 크셨던 것이다. 겨울 10월에 중외(中外:나
 라의 안팎)의 사찰(寺刹)과 사단(社壇) 따위를 다 혁파하여 <그곳의> 노비(奴婢)를 모두 관에 귀속(歸屬)시켰고, 얼마
 있다 불가(佛家)의 오교(五敎)를 폐지하고 다만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두 종파만 남기니, 이에 이단(異端)의 교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경자년(세종2, 1420) 봄에 비로소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文學)하는 선비들을 선발하여 모아서 고문(顧問)
 에 대비하였다. 이해 여름에 원경왕후께서 학질(瘧疾)의 환후가 계셔 대궐 밖으로 비접하실 때 도보로 연(輦)을 부축하
 며 노숙(露宿)까지 하시며 약을 받들기에 곁을 떠나지 않았다. 7월에 왕후께서 승하시자 장물도 잡수시지 아니하시
 므로 태종대왕이 감요하니 곧 조금씩 잡수시었다.

신축년(세종3, 1421) 8월에 천자(天子:명나라 황제를 높여 부름)가 북정(北征)하자 말 만 필을 보내주니 천자가 포장
 하여 아름답게 여기며 은폐(銀幣)를 보내주었고, 9월에 태종께 태상왕의 호를 올렸다.

임인년(세종4, 1422) 5월에 태종대왕이 승하시니 3년 복을 다하는[致喪] 동안에는 상복을 입고 행사하는 것을 영
 세(永世)의 법으로 정하였다.

갑진년(세종6, 1424) 가을에 명나라의 <영락제>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가 붕(崩)하고 인종소황제(仁宗昭皇帝)가
 등극하자 표(表)를 만들어 올려 조위와 하례의 예를 다하니, 천자가 충심의 간곡함을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여 채폐(綵
 幣)를 보내주었다.

을사년(세종7, 1425)에 명나라 인종(仁宗)이 붕하고 선종장황제(宣宗章皇帝)가 등극하자 또 사신을 보내어 위문과
 하례를 하였는데, 선덕(宣德:명선제의 연호) 병오년(세종8, 1426) 봄에 천자가 우리나라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여 폐
 백을 보내되 왕비에게까지 보내왔다. 이 해 겨울에는 또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성리대전(性理大典)』과 『통감
 강목(通鑑綱目)』 등 서적을 보내왔다. 그 후로부터 모든 상으로 주는 선물이 보내오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 심지어 차
 고 있던 보장조환(寶裝條環) 및 도검(刀劍)까지 풀어서 주기도 하였다.

己酉夏 幸成均館 謁先聖取士 國人 常患金銀 非土產 而朝廷歲貢難繼 乃遣親弟 恭寧君 具由陳請 天子特許免進
 代以土物 効誠 賞賜甚厚 是年冬 天子勅曰 朝廷所遣人等 至王國中 王 但以禮待之 毋贈遺以物 王父子 敬事朝廷 多
 歷年所 愈久愈篤 朕所深知 非左右近習 所能間也 又勅曰 王 可謂卓然賢王者矣 先是 婆猪江等處野人 與他部落連結
 其所擄掠 遼東開原邊境軍民 逃至我國者五百餘名 悉皆解送京師 野人懷憤 犯我北邊 癸丑春 命判中樞院事崔潤德 中
 樞院使李順蒙等 往伐之 其酋李滿住等 鳥窺獸奔 覆其巢穴而還 甲寅春 又謁先聖 取士 三月丙午 謁 獻陵 甘露降于松
 柏 又降于景福宮後園松樹 百官 請陳賀 不受

기유년(세종11, 1429) 여름에 성균관(成均館)에 행행(行幸)하시어 선성(先聖:공자(孔子))을 배알하고 문사를 뽑았
 다. 나라 사람들이 금(金)과 은(銀)은 우리나라의 토산물(土產物)이 아니므로 명나라에 해마다 보내는 조공[歲貢]을 계

속하기 어려운 것을 항상 걱정하였는데 이에 세종대왕이 아우인 공녕군(恭寧君: 함녕군<誠寧君>) 인(禔)을 명나라에 보내어 사유를 갖추어 진술하고 세공의 품목에서 빼주기를 요청하니, 천자가 특별히 허락하며 “힘써 다른 토산물로 대신 올리되 정성을 다 하도록 하라.” 하고, 공녕군에게 상으로 주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그해 겨울에 천자가 또 칙조하기를, “우리 조정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국왕의 나라에 가거든 왕은 예로서 대할 뿐 판 뇌물을 주지 말라. 왕의 부자(父子)가 공경히 우리 조정을 섬겨 온 자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해가 오랠수록 더욱더 독실히 해야 하는 것이 짐이 깊이 아는 바이므로 좌우의 측근들이 이간(離間)질 해서는 아니된다.”하고, 또 칙조하기를, “왕은 뛰어난 어진 군왕[賢王]이라고 할 만하다.”하였다.

이에 앞서 파저강(婆猪江) 등지(等地)의 야인(野人)이 다른 부락과 더불어 연결하여 그들이 노략(擄掠)질한 요동(遼東) 개원(開原) 변경의 군민(軍民)이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자가 5백 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을 모조리 다 풀어 명나라 서울로 보내자, 야인이 그에 분심을 품고 우리나라 북쪽 변방을 침범하였다.

계축년(세종15, 1433) 봄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최윤덕(崔潤德)과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순몽(李順蒙) 등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하니, 그 주장(酋長:우두머리) 이만주(李滿住) 등이 흩어져 새처럼 숨고 짐승처럼 달아나자 그들의 소굴(巢窟)을 두드려 엮고 개선(凱還)하였다.

갑인년(세종16, 1434) 봄에 또 선성(先聖)께 배알(拜謁)하고 선비를 뽑았고, 3월 병오 일에 헌릉(獻陵)에 배알하였는데 능침 돌레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감로(甘露)가 내렸고 또 경복궁 후원 소나무에도 감로가 내렸으므로 백관이 진하(陳賀)를 주청했으나 받지 않았다.

咸吉道北門沿江州郡 本高麗舊疆 我 祖宗 興王之地也 而爲野人所據 始置 會寧鍾城穩城慶源慶興等 諸鎮 盡復其舊 乙卯春 宣宗崩 今 太上皇帝踐阼 奉表陳慰 天子遣使賜錦段 正統戊午八月 又賜遠遊冠服 壬戌五月 達達 使人賫書 至我北門 招諭邊將語之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今 大明 統一天下 汝何發不道之言 遂拒不納 世宗 馳奏京師 天子嘉悅 賞賜 甲子春 勅曰 所諭邊事 悉能遵奉 罔有違忒 王其賢哉 特賜袞龍袍以寵異之 對馬一歧等島賊倭 侵竊上國沿海之地 又犯我濟州之境 邊將 擒捕未盡 有稍稍逃竄本島者 世宗 使人諭島主 捕送 島主俯伏奉命 悉索執送 遂歸之于京師 以即天誅 前後凡六十餘名 天子深嘉之 勅曰 王克體爾先王 敬天事大之心 秉恭摠誠 久而彌篤 肆朝廷 眷待益隆 可謂君臣一心 終始靡間者矣 茲復械送犯邊賊倭 足見王 體國安民之意 亦以見守邊得人而有禦暴之功 又曰 朝廷 嘉善重賢 禮遇優加 所謂德厚者寵榮 王其有焉

함길도(咸吉道) 북문(北門) 연강(沿江) 주군(州郡)은 본래 고려의 옛 강토(疆土)이다. 우리 임금님 선조께서 왕업(王業)을 이룩하신 고장이지만 야인에게 점거(占據)당한 바 되었었다. 처음으로 회령(會寧)·종성(鍾城)·은성(穩城)·경흥(慶興)·경원(慶源) 등 6진을 설치하니 육진은 옛 강토를 회복한 것이다.

을묘년(세종17, 1435) 봄에 명나라 선종(宣宗)이 붕(崩)하고 지금 태종황제(영종(英宗))이 즉위하자 표(表)를 올려 진하하고 위문을 하니 천자가 사신을 보내어 금단(錦段)을 하사하였다. 무오년(세종20, 1438) 8월에 또 원유관복(遠遊冠服)을 보내왔다.

임술년(세종24, 1442) 5월에 달달(達達)이 사람을 시켜 무례한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 북쪽 관문[北門]에 오니, 국경을 지키는 장수를 불러와 유시하기를, “하늘엔 해가 둘이 있을 리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이다. 지금 대명(大明)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부도한 말을 하는가?”하고, 마침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대왕이 급히 명나라에 아뢰니 천자가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상을 내렸다.

갑자년(세종26, 1444) 봄에 칙조(勅詔)하기를, “변경에서 오랑캐를 효유해 보낸 것은 다 조종의 뜻을 준행해 받들고 있어 어기거나 게으리 함이 없으니 왕은 참으로 어질도다.”하고, 특별히 곤룡포(袞龍袍)를 하사하여 남달리 총애하였다.

대마도(對馬島:쓰시마)와 일기(一歧:이끼) 등 섬의 왜적(倭賊)이 명나라[上國]의 연해안(沿海岸) 지역을 침범하고, 또 우리 제주도(濟州道) 지경을 침범하니, 변장(邊將)이 다 사로잡지 못하여 조금씩 본도(本島)로 도망하여 숨는 자가 있었다. 세종대왕이 사람을 시켜 도주(島主)를 달래어 도둑을 포박해 보내라고 하니 도주가 명을 받들어 모두 잡아 보

내왔다. 그러자 즉시 명나라로 돌려보내어 주륙(誅戮)하게 한 것이 모두 60여 명이였다. 천자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겨 직조하기를, “왕이 그대 선왕이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섬기던 마음을 본 받아 변함없는 공손으로 정성을 펴는 것이 오래되어 더욱 독실해졌다. 드디어 조정에서도 이에 사랑으로 돌보고 대우함이 더욱 융숭하니 군신이 한 마음이 되어 끝까지 복종하고 따를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에 다시 변경을 침범한 도적 왜를 잡아 호송하여 보내왔으니 왕이 나라는 백성을 편안히 보호하는 것이란 뜻을 터득하였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변경의 수비에 얻은 인재로 폭력을 막는데 공이 됨을 볼 수가 있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도 착한 이를 가상히 하고 어진 이를 존중하여 예우(禮遇)를 더하고 있는데, 이른바 ‘후덕한 사람이라야 은총을 받고 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도다.” 하였다.

東良北住兀良哈浪甫也隱豆 曾弑父者也 是年 來朝 世宗 以爲 大逆之人 天地所不容 王法所不赦 東良北 密邇我境 久露王化 不可不誅 命有司 輟於境上 下教諭野人 野人等 皆震懼 乙丑 以憂勤得疾 命 今上殿下 叅決庶務 丙寅 創制訓民正音 以盡聲韻之變 蕃漢諸音 譯無不通 其制作精微 可謂超出古今矣 戊辰 封 元孫弘暉(端宗御諱)爲王世孫 己巳秋 今上皇帝臨御天下 奉表陳賀 又進馬以助邊備 帝遣翰林侍講倪謙 刑科給事中司馬恂 賜以幣帛 我國自 太祖高皇帝 賜以九章冕服 秩視親王 惟王世子 未有冕服 國人 咸以爲慊 世宗 奏請七章冕服 竟蒙俞音

동량북(東良北)에 거주하는 오랑캐[兀良哈] 낭보야은두(浪甫也穩豆)는 일찍이 그 아버지를 죽인 자이다. 그가 이해에 우리 조정에 들어와 조회(朝會)하니 세종대왕께서 생각하시기를, “대역(大逆)한 사람은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으며 아무리 관대한 왕법(王法)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놓아줄 수가 없다. 동량북은 우리 국경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제왕의 덕화를 입을 만큼 입었으니 불가불 죽여야 한다.”하고, 유사로 하여금 국경 위에서 환형(輓刑)을 시행하고 아인들에게 효유(曉諭)하라고 하교를 하였다. 아인들이 모두 두려워 굴복하였다.

을축년(세종27, 1445)에 걱정과 근로로 편치 않으시어 금상전하[문종]에게 모든 정사를 결재하라고 명하였다. 병인년(세종28, 1446)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創制)하시어 성(聲)과 운(韻)의 나눔과 변화[分變]가 갖추어 다하고 번국과 중국[蕃漢]의 모든 어음(語音)을 번역하여 통하지 못함이 없으니 그 제작의 정밀하고 자세함은 고금 동서에 뛰어나다고 할 만하다.

무진년(세종30, 1448)에 원손(元孫:단종(端宗)어휘(御諱) 홍위(弘暉))을 봉하여 왕세손(王世孫)으로 삼았다. 기사년(세종31, 1449) 가을에 명나라 금상황제(今上皇帝:명 경제(景帝) 연호는 경태(景泰))가 천하에 임어(臨御)하니 표를 올려 하례하고, 또 말(馬)을 보내어 그 변경수비(邊備)를 도와주니 제(景帝)가 한림시강(翰林侍講) 예겸(倪謙)과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사마순(司馬恂) 등을 보내와 폐백(幣帛)을 내렸다. 우리나라에 명나라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가 구장면복(九章冕服)을 보내주었는데 작과 질[爵秩]이 친왕(親王:황제의 친자(親子))과 비교되었다. 오직 왕세자에게는 면복(冕服)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다 섭섭하게 여겼는데 세종대왕이 질장면복을 요청하여 마침내 명제의 허락을 얻었다.

世宗 至孝 日朝壽康宮 愉色婉容之愛 執玉奉盈之敬 前世帝王之所莫及 其遇喪祭 盡禮極誠 咸中法度 妃嬪以下 恩待各盡其分 無有間言 教諸子以義方 嫡庶尊卑 儀章恩數 粲然有等 皆好學達理 終無驕惰奢華之習 每朝夕定省 珠璧相聯 鴈行而入 國人咸嘆其有彛斯麟趾之慶 初 太宗 放視于外 然 世宗 召見無時 卒使還京 親愛無嫌 群臣堅執不可 不聽事 二兄待諸弟 盡其友于之情 宗室諸親 亦數會見 置酒以成歡洽 有服之親 皆隨材授職 疏遠在野間居者 亦復戶蠲稅 以存恤之 至於外戚待之 亦得其宜 又置宗學 太祖之孫 凡屬宗籍者 皆令受學 教養之道至矣

세종대왕이 지극한 효심으로 날마다 수강궁에 나가 뵈옵고 또 부드럽고 화락한 모습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씨는 옛날 제왕으로서도 따를 수가 없었다. 상사(喪事)를 당하거나 제삿날을 만나면 치상과 행사에 있어 예를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 모두 법도에 맞게 하였고, 비빈(妃嬪) 이하에게도 은혜로써 대우하되 각각 분계를 다하니 아무런 불평의 말이 있지 않았다. 여러 자제를 예[義方]로 교도하셨고 적서(嫡庶)와 존비(尊卑)에 대해서도 의장(儀章)과 은교(恩教)의

등급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자제들이 다 학문을 좋아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끝내 교만하고 해태하고 사치하는 습관이 없었으며, 매양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에는 형제가 서로 구슬과 옥이 이어진 모습으로 기러기 떼처럼 차례로 입궁을 할 적엔 나라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왕손을 많이 둔 경사에 감탄하였다.

처음에 태종대왕께서 세자 제(禮)를 폐하여 도성 밖으로 내보냈으나 세종대왕은 즉위하시어 무시(無時)로 불러 보시다가 마침내 서울로 돌아오게 하시되 아무 혐의 없이 친애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굳이 말렸지만 들어 주질 않으시고 두 형님을 섬기시고 여러 아우들에게 우애의 정을 극진히 하였고 종실의 여러 족친도 자주 모이게 하여 주연을 베풀어 즐기게 하셨으며, 유복지친에는 모두 재목에 맞게 벼슬을 주시고 벼슬을 못하고 전야에 한거하는 먼촌 [疏遠] 일가에게도 호세(戶稅)와 전조(田租) 따위를 면제케 하여 구휼하기를 지극히 하였고, 외척을 대우함에 있어서도 마땅함을 얻게 하였다. 또 종학(宗學) 제도를 만들어 태조의 손자 별로 종적(宗籍)에 실려 있는 자는 모두 들어가 수학하게 하였으니 교양의 방법이 지극하였다.

禮遇群臣 嘉善而矜不能 無受刑戮者 如宦寺之輩 莊以蒞之 不任事權 事大之禮 出於至誠 凡所進獻文書方物 莫不親自監檢 所以 列聖寵眷 錫予之隆 褒美之辭前昔無比 倭邦獻琛 野人執贄 自南自北 絡繹不絕 尊親感戴 出於心服 立銓注黜陟之法 至精至備 僥倖屏迹 賢良進用矣 守令 拜辭 引見 面諭恤民之政 人人 自勵矣 致意農桑 作書勸諭 省耕觀稼 人樂趨本矣 革損實之弊 定爲貢法 分地六等 分牟九等 以上下其稅 復三代貢徹之遺法 命有司 鑄鐘造磬 吹律協音而雅樂一新 會禮 始不用女樂 又述 祖宗功德 作定大業 與民樂等樂 極其聲容之美 作唐俗樂譜 以均慢數之調 則人人按譜不煩師學而諸樂 各得其正 亦前昔之所未有也

여러 신하를 예우(禮遇)하되 착한 자를 가상(嘉尙)히 여기고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형벌로 죽임을 받은 자가 없었고, 환시의 무리에게도 엄정하게 임하시어 일의 권병(權柄: 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으며, 사대(事大)하는 예가 지성에서 나와서 진현하는 문서(文書)와 방물(方物: 지방산물)을 몸소 감검(監檢: 감독하고 검사함)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명나라의 역대 황제가 총애로 돌봐주어 폐백을 내려주는 물품이 풍성했으며, 포상할 때 하시는 말씀이 전에 없이 아름다웠다. 왜국에서는 훌륭한 보배를 헌납하였고 야인이 공손히 폐백을 바치는 등 남과 북에서 서로 와서 왕래하는 일이 연달아 끊이지를 않았으니 이는 존경하고 친근하여 추대함이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함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다.

관리를 임면하는 전형기준을 법(法)으로 세우되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완벽하게 하니 무능한 자가 요령히 진출하는 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현량한 인재가 많이 나와 등용 되었다. 수령(守令)이 부임할 때 숙배(肅拜)드리고 하직을 하면 친히 불러들여 보시고, 빈민과 이재민을 구제하는 행정을 교유(教諭)하시니 사람마다 스스로 분발하여 일에 힘썼다. 농업과 양잠(農桑)에 마음을 다하여 책을 지어 권유하시고 봄철엔 농경을 살피시고 가을철엔 곡식을 거두는 일을 몸소 살피시어 백성들이 즐겨 농업에 힘쓰도록 장려하셨다.

손실법(損實法)의 폐단을 개혁하고 새로운 공법(貢法: 田分과 年分을 기준하여 부세하는 법)을 정하였으며, 지품(地品)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모작(牟作)을 9등급으로 등분하여 그 세금을 상하(上下) 등급으로 매겨 하·은·주(夏殷周) 시대의 철법·공법[徹貢]의 유법(遺法)을 되살렸다. 유사에게 명하사 종(鐘)과 경(磬)을 주조(鑄造)하고 음률(音律)을 조화시켜 아악(雅樂)을 일신하게 해서 회례(會禮) 때에는 비로소 여악(女樂)을 쓰지 않게 하고, 또 조종(祖宗)의 공덕을 제술(製述)하여 정대업악(定大業樂), 여민락등악(與民樂等樂)을 지어서 소리와 형용이 잘 어울리는 곡을 만들도록 하시고 당악(唐樂)과 속악(俗樂)의 음보(音譜)를 만들어 느리고 잦은 가락을 알맞게 균배(均排)하니 사람마다 음보만 상고하면 악사에게 번거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악곡(樂曲)이 그 바름[中正]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전날에 없었던 것이었다.

叅酌古今 定五禮儀 盡其情文之備 始設養老宴禮 男則親臨 女則王妃 親饗 在州郡者 守令親饗 百歲以上者 月致酒肉 八十以上者 賜爵有差 於是 恩無不及矣 遇災畏天 救荒恤民 盡心盡力 則皆以實 而不以文矣 修七政內外篇 作諸儀

등급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자제들이 다 학문을 좋아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끝내 교만하고 해대하고 사치하는 습관이 없었으며, 매양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에는 형제가 서로 구슬과 옥이 이어진 모습으로 기러기 떼처럼 차례로 입궁을 할 적엔 나라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왕손을 많이 둔 경사에 감탄하였다.

처음에 태종대왕께서 세자 제(禮)를 폐하여 도성 밖으로 내보냈으나 세종대왕은 즉위하시어 무시(無時)로 불러 보시다가 마침내 서울로 돌아오게 하시되 아무 혐의 없이 친애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굳이 말렸지만 들어 주질 않으시고 두 형님을 섬기시고 여러 아우들에게 우애의 정을 극진히 하였고 종실의 여러 족친도 자주 모이게 하여 주연을 베풀어 즐기게 하셨으며, 유복지친에는 모두 재목에 맞게 벼슬을 주시고 벼슬을 못하고 전야에 한거하는 먼촌 [疏遠] 일가에게도 호세(戶稅)와 전조(田租) 따위를 면제케 하여 구휼하기를 지극히 하였고, 외척을 대우함에 있어서도 마땅함을 얻게 하였다. 또 종학(宗學) 제도를 만들어 태조의 손자 별로 종적(宗籍)에 실려 있는 자는 모두 들어가 수학하게 하였으니 교양의 방법이 지극하였다.

禮遇群臣 嘉善而矜不能 無受刑戮者 如宦寺之輩 莊以莅之 不任事權 事大之禮 出於至誠 凡所進獻文書方物 莫不親自監檢 所以 列聖寵眷 錫予之隆 褒美之辭前昔無比 倭邦獻琛 野人執贄 自南自北 絡繹不絕 尊親感戴 出於心服 立銓注黜陟之法 至精至備 僥倖屏迹 賢良進用矣 守令 拜辭 引見 面諭恤民之政 人人 自勵矣 致意農桑 作書勸諭 省耕觀稼 人樂趨本矣 革損實之弊 定爲貢法 分地六等 分牟九等 以上下其稅 復三代貢徹之遺法 命有司 鑄鐘造磬 吹律協音而雅樂一新 會禮 始不用女樂 又述 祖宗功德 作定大業 與民樂等樂 極其聲容之美 作唐俗樂譜 以均慢數之調 則人人按譜不煩師學而諸樂 各得其正 亦前昔之所未有也

여러 신하를 예우(禮遇)하되 착한 자를 가상(嘉尙)히 여기고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형벌로 죽임을 받은 자가 없었고, 환시의 무리에게도 엄정하게 임하시어 일의 권병(權柄: 권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으며, 사대(事大)하는 예가 지성에서 나와서 진헌하는 문서(文書)와 방물(方物: 지방산물)을 몸소 감검(監檢: 감독하고 검사함)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명나라의 역대 황제가 총애로 돌봐주어 폐백을 내려주는 물품이 풍성했으며, 포상할 때 하시는 말씀이 전에 없이 아름다웠다. 왜국에서는 훌륭한 보배를 헌납하였고 야인이 공손히 폐백을 바치는 등 남과 북에서 서로 와서 왕래하는 일이 연달아 끊이지를 않았으니 이는 존경하고 친근하여 추대함이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함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었다.

관리를 임명하는 전형기준을 법(法)으로 세우되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완벽하게 하니 무능한 자가 요행히 진출하는 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현량한 인재가 많이 나와 등용 되었다. 수령(守令)이 부임할 때 속배(肅拜)드리고 하직을 하면 친히 불러들어 보시고, 빈민과 이재민을 구제하는 행정을 교유(教諭)하시니 사람마다 스스로 분발하여 일에 힘썼다. 농업과 양잠(農桑)에 마음을 다하여 책을 지어 권유하시고 봄철엔 농경을 살피시고 가을철엔 곡식을 거두는 일을 몸소 살피시어 백성들이 즐겨 농업에 힘쓰도록 장려하였다.

손실법(損實法)의 폐단을 개혁하고 새로운 공법(貢法: 田分과 年分을 기준하여 부세하는 법)을 정하였으며, 지품(地品)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모작(牟作)을 9등급으로 등분하여 그 세금을 상하(上下) 등급으로 매겨 하·은·주(夏殷周) 시대의 철법·공법[徹貢]의 유법(遺法)을 되살렸다. 유사에게 명하사 종(鍾)과 경(磬)을 주조(鑄造)하고 음률(音律)을 조화시켜 아악(雅樂)을 일신하게 해서 회례(會禮) 때에는 비로소 여악(女樂)을 쓰지 않게 하고, 또 조종(祖宗)의 공덕을 제술(製述)하여 정대업악(定大業樂), 여민락등악(與民樂等樂)을 지어서 소리와 형용이 잘 어울리는 곡을 만들도록 하시고 당악(唐樂)과 속악(俗樂)의 음보(音譜)를 만들어 느리고 잦은 가락을 알맞게 균배(均排)하니 사람마다 음보만 상고하면 악사에게 번거롭게 배우지 않아도 모든 악곡(樂曲)이 그 바름[中正]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전날에 없었던 것이었다.

參酌古今 定五禮儀 盡其情文之備 始設養老宴禮 男則親臨 女則王妃 親饗 在州郡者 守令親饗 百歲以上者 月致酒肉 八十以上者 賜爵有差 於是 恩無不及矣 遇災畏天 救荒恤民 盡心盡力 則皆以實 而不以文矣 修七政內外篇 作諸儀

像 圭表¹¹⁵)及欽敬報漏等閣而渾象 星晷¹¹⁶) 定時儀 仰釜儀 漢陽 日出入分 皆自創制 於是 天文曆數 始無差失焉 撰三綱行實 則礪風俗也 作明皇戒鑑 則防逸樂也 修通鑑訓義 治平要覽 則監興亡也 集歷代兵要 則不忘戰也 以至醫藥諸書 亦皆校定 如新鑄字 記里鼓之類 又無所不致其意也 作陳說 閱習陳法 益修戰艦 增制火桶 城郭修 甲兵鍊而武備嚴 法律明 獄平而刑罰清 戒酒恤刑 皆下 教書 戒飭官吏 當是時 雖百工 技藝 咸精其能 上林園官 請備花器 教曰 予性 不喜花卉 有司 當務實 桑楮果木 皆切於日用 汝等 自今以後 以此爲職 可也 嘗謂大臣曰 歷觀往昔太平之世 尙有牽裾切諫者 今雖小康 未及於古 未見有敢言者 何也 常開懷求諫 務使盡言 言雖不中 未嘗罪之 事無大小 必與大臣謀而後行 故無有過舉

고금의 역사를 참작하여 『오례의(五禮儀)』를 정하여 인정(人情)과 예문(禮文)의 갖춤을 다하였고, 비로소 양로연(養老宴)을 창설하여 남자연(男子宴)에는 주상이 친향(親餉)하고 여자연(女子宴)에는 왕비가 친향하며, 각 주·군(州郡)에 있어서는 그 고을 수령이 친향하고 백세 이상의 노인에는 달마다 주육(酒肉)을 내리시고 80세이상 노인에는 관작을 차등있게 내리게 하니, 이에 은택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재해를 만나면 하늘을 두려워하며 구황을 하여 백성을 무휼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실제(實際)로 하고 걸치레로 하지 않았다.

〈정초(鄭招)와 정인지(鄭麟趾)에 명하여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찬수 하고, (이천(李濂)·장영실(蔣英實)에게 명하여) 의상(儀象:천체를 살피는 기구)인 규표(圭表)·흠경(欽敬)·보루(報漏) 등의 각(閣)을 짓고, 혼상(渾象:혼천의(渾天儀))·성구(星晷)·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양부의(仰釜儀:양부일구)·한양일출입분(漢陽日出入分)을 만들게 했는데, 이는 모두 임금의 스스로 창제(創制)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천문(天文)과 역수(曆數)가 비로소 차실(差失)이 없게 되었다.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지으시니, 이는 곧 풍속(風俗)을 장려(獎礪)하려는 것이었고, 『명황계감(明皇戒鑑):당현종의 고사로 경계를 삼은책』을 지으시니, 이는 곧 일유(逸遊)와 낙일(樂迭)을 방지하려는 것이었고, 『통감훈의(通鑑訓義)』와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編纂)하시니, 이는 곧 역사의 흥망(興亡)과 성쇠(盛衰)를 감찰(監察)하려 함이었으며, 『역대병요(歷代兵要)』를 찬집(纂集)하시니, 이는 곧 전란(戰亂)을 잊지 않으려 함이었으며, 심지어 의약(醫藥)서적까지 모두 교정(校正)케 하시고 신주자(新鑄字)와 기리고(記里鼓) 등에도 여의(御意)를 쓰지 않은 곳이 없으며 차설(車說)을 제작하고 습진설(習陣說)을 열람하며 전함(戰艦)을 수축하고 갑병(甲兵)을 훈련시켜 무비(武備)를 엄밀(嚴密)히 하시었고, 법률은 밝게 판결하여 소송을 공평하게 하고, 형벌을 정확하게 다잡아 하시되 계주(戒酒)하는 홀형(恤刑)에도 꼭 교서(敎書)를 내리시어 관리(官吏)들을 계칙(戒飭)하시니, 당시에 조그만 기예공(技藝工)일지라도 모두 그 기능(技能)이 정밀(精密)하였다.

상림원(上林園)을 관장하는 구실아치가 화분(花盆)을 비치할 것을 주청하자 상이 하교하시기를, “내 성품은 원래 꽃을 [花卉]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니 유사(有司)는 마땅히 실용(實用)의 방면에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뽕나무와 닳나무 [桑楮], 과일나무는 모두 일상(日常)의 실용(實用)에 긴절(緊切)한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 이후부터는 이 일로 직분을 삼아야 된다.”하고, 언제든지 대신들께 이르시기를 “두루 지난 옛날 을 살펴보니 태평한 세대에도 오히려 임금의 옷깃을 붙잡고 절박하게 간한 자가 있었는데, 지금 비록 조금 안정되었다[小康]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못 미치는데, 감언(敢言)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 무엇 때문인가?”하고, 항상 가슴을 열어놓고 간언을 구하면서 힘써 말을 다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이 비록 맞는 말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죄를 주지 않았고,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반드시 대신과 더불어 논의하고 계획한 뒤에 시행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없었다.

景泰元年庚午春二月 不豫 醫盡其術 禱偏于神 終未效 十七日壬辰 薨于別宮 春秋五十四 在位三十三年 臣民 沐浴 恩澤 咸謂大德 必得其壽 永享萬年 而奄棄萬姓 嗚呼慟哉 大小臣僚 以至輿臺僕隸 莫不失聲號哭 今 上殿下 奉遺命 卽

+++

115) 圭表 : 日影을 재는데 사용되는 기구.

116) 渾象, 星晷 等等 : 世宗때 만들어진 천문관측 기구들.

位于 梓宮之前 諒闇盡禮 率群臣 奉册寶 上 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號 廟號 世宗 夏六月十二日甲申 合葬于 英陵之西室 亦遺命也 計聞 天子慟悼 遣使賜祭 又賜誥命 諡以莊憲 賜我 殿下賻特厚 仍襲封王爵 錫以袞冕九章 王妃冠服 其賜我 殿下誥命 略曰 故朝鮮國王李(世宗御諱) 慈惠謙恭 聰明特達 樂善循理 纖毫能謹 敬天事上 終始一誠 仁厚孚於國人 功烈著乎邊境 自朝鮮有國以來 罕有如王者也 爾李(文宗御諱) 乃其世子 忠孝有誠 敬慎不懈 以長以賢 宜膺傳襲 惟忠惟孝 以永率乃父之行 蓋我 世宗 盛德 光于四海 升聞于天 故終始哀榮之典 如此之至 嗚呼盛哉

경태(景泰) 원년(세종32, 1450) 경오 2월에 옥체 미령 하오시어 어의가 그 의술을 다하고,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기도(祈禱)도 드렸건만 끝내 효과 없으시어 17일에 별궁에서 승하하시니 춘추가 54세요 왕위에 계신지는 33년이셨다. 신하와 백성이 은혜와 덕택을 받고 살면서 다들 대덕을 지니신 임금이라 반드시 수를 하시며 만년의 복을 영원히 누리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만백성을 버리시니, 아아 슬프다. 크고 작은 신료[大小臣僚]로부터 복예(僕隸) 하천배(下賤輩)까지도 소리를 내어 호곡(號哭)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금상전하[문종]께서 유명(遺命)을 받들어 재궁(梓宮)앞에서 즉위하시고 거상[諒闇]의 예를 극진히 하시고 군신을 거느리고 책보(册寶)를 받들어 '영문예무 인성 명효대왕(英文睿武人聖明孝大王)'의 존호를 올리고, 묘호(廟號)를 '세종(世宗)'이라 하였다. 6월 12일 갑신에 영릉(英陵)의 서실(西室)에 합장으로 모시니, 또한 유명을 따른 것이다. 부음(訃音)이 명나라에 전해지자 천자도 몹시 슬퍼하며 사신을 보내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장헌(莊憲)'이라 시(諡)를 내리고, 우리 전하에게도 특별히 후한 부의(賻儀)를 보내주고 이어 왕작(王爵)을 습봉하여 9장의 곤면(袞冕)과 왕비의 관복을 보내왔다. 우리 전하께 보내온 고명(誥命)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대략 이러하다.

"고(故) 조선왕(朝鮮王) 리모(李某)는 인자하고 겸손하며 총명하고 통달하며 선(善)을 좋아하고 사리에 밝아 섬세하고 정묘(精妙)로와 경천(敬天) 애민(愛民)함에 한결같은 정성이었고 인후(仁厚)한 풍도(風度)에 온 나라 사람이 믿고 따르고 빛나는 공적은 천하에 뚜렷하여 4천년 조선 역사에 왕과 같은 분 드물었다. 왕[문종] 그대는 그의 세자로서 정성껏 충효(忠孝)의 도리를 다하였고 공경하고 삼가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적장(嫡長)이면서 현명(賢明)하므로 마땅히 전습(傳襲)을 받아야 하니, 오직 충효의 도리로서 길이 아버님의 아름다운 행적(行迹)을 따르도록 하기 바란다."

이는 대개 우리 세종대왕의 거룩하신 덕이 온 천하에 빛나 명나라 황제에게까지 들렸으므로 시종(始終)일관 슬퍼해주고 영광되게 여겨준 은전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던 것이다. 아 슬프다.

王后 姓 沈氏 青松世家 皇曾祖諱龍 高麗 贈門下侍中青華府院君 皇祖諱德符 事高麗恭愍王 再爲門下侍中 至我 恭靖王朝 爲門下左政丞 封青城伯 皇考諱溫 領議政府事 封 青川府院君 皇妣安氏 封三韓國大夫人 領敦寧府事天保之女 后生而淑婉 太宗 妙選來嬪 封敬淑翁主 敬事 兩宮 篤承恩眷 世宗 封王世子 后封爲敬嬪 世宗 卽王位 后封爲恭妃 宣德壬子歲 從禮官言 去美稱 改封 王妃 后有幽閑貞靜之德 世宗 在潛邸 后之進退 世宗 必起立 深加敬禮 及爲中宮 累受 天子賜賚 后禮 接嬪膝下至侍妾 皆有恩 視庶出子 皆如己出 撫愛有加 御膳進則必親臨省視 以盡誠敬 有進戒之助 無私謁之行 壺儀克正 化流邦國 遠追太妣之風

왕후의 성은 심씨(沈氏)이시니 청송의 세가(世家)이다. 황증조(皇曾祖) 휘(諱) 용(龍)은 고려조의 증문하시중(贈門下侍中)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이요, 황조(皇祖) 휘 덕부(德符)는 고려조의 공민왕(恭愍王)을 섬겨 두 차례나 문하시중이 되고 우리 공정왕조(恭靖王朝)에 이르러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으로 삼아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고 황고(皇考) 휘 온(溫)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봉해졌다. 황비(皇妣) 안씨(安氏)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인데 영돈녕(領敦寧)부사(府事) 천보의 따님이다. 후께서는 출생하시자 아름답고 암전하시니 태종대 왕께서 대군(大君)의 빈(嬪)으로 골라 뽑아 경숙옹주(敬淑翁主)로 봉하였다. 효도로 양궁(兩宮)을 섬겨 도타운 은총을 받으시고 세종대왕께서 왕세자로 책봉되자 후께서는 경빈(敬嬪)의 직첩을 받으셨고 세종대왕이 즉위하시자 후를 봉하여 공비(恭妃)로 삼았다.

선덕(宣德) 7년(세종14, 1432) 임자에 예관(禮官)의 말을 좇아 아름다운 칭호를 버리고 다만 왕비로 고쳐 봉하였다.

후계선 깊숙하고 한가하며 곧고 조용하며 깨끗한 여덕을 지니고 계시니 세종대왕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왕후가 나아오고 물러갈 때에는 세종대왕께서 언제나 일어서서 경례로써 대우하셨다. 왕비가 됨에 이르러서는 여러 번 천자의 하사품이 있었다. 빈·임(嬪)에게도 예로써 대하고 아래로 시첩(侍妾)에게도 모두 은혜가 있었다. 서출(庶出)의 자녀를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더하였고, 수라상(御膳)을 올리려면 반드시 친히 임하여 살펴보시어 정성과 공경을 다하시고, 임금께 경계의 말씀을 올리는[進戒] 도움은 있었어도 사사로이 뵈[私謁]는 행차는 없으셨다. 증궁의 의범(儀範)이 정중(正中)하시어 교화가 나라 안에 퍼져 흐르게 하였으니 멀리 주나라 태사(太妃)의 풍도를 따라잡을 만하였다.

正統丙寅春 遘疾 世宗 日夜臨視 我 殿下侍側 奉湯藥 三月二十四日辛卯 薨 享年 五十二 諡 昭憲 七月十九日乙酉 安厝于 英陵東室 后 誕八男二女 長 卽今 上殿下 次(世祖御諱)封首陽大君 次瑢 安平大君 次璆 臨瀛大君 次璵 廣平大君 先卒 次瑜 錦城大君 次琳 平原大君 亦先卒 次琰 永膺大君 女長 未笄而卒 贈貞昭公主 次貞懿公主 下嫁延昌尉安孟聃 慎嬪金氏生六男 長璿 桂陽君 次玘 義昌君 次琛 密城君 次璉 翼峴君 次璋 寧海君 次璫 潭陽君 在服中而卒 惠嬪楊氏生三男 長珪封漢南君 次玆 壽春君 次琿 永豐君 淑媛李氏生一女 貞安翁主 未笄 尙慶宋氏生一女 貞顯翁主 下嫁鈴川尉尹師路 宮人姜氏生一男璿 和義君

정통(正統) 병인년(세종28, 1446) 봄에 환후가 위급하시니 세종대왕께서 밤낮으로 임시(臨視)하시고 우리 전하가 곁에서 모시면서 탕약을 받드셨는데 3월 24일 신묘에 승하시니 향년이 52세시며 시호는 소헌(昭憲)이다. 7월 19일 을유에 영릉(英陵) 동실(東室)에 모셨다. 왕후께서 8남과 2녀를 탄생하여 기르시니 장자는 바로 금상전하(今上殿下)시고 다음(세조) -어휘 璵- 는 수양대군(首陽大君)에 봉하고, 다음 용(琿)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이고, 다음 구(璆)는 임영대군(臨瀛大君)이고, 다음 여(璵)는 광평대군(廣平大君)인데 먼저 졸서하였고, 다음 유(瑜)는 금성대군(錦城大君)이고, 다음 임(琳)은 평원대군(平原大君)인데 또한 먼저 졸서하였고, 다음 염(琰)은 영응대군(永膺大君)이다. 장녀는 시집 가기전[下嫁前]에 졸서한 증 정소공주(贈貞昭公主)이고, 다음 정의공주(貞懿公主)는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에게 하가하였다.

신빈(慎嬪) 김씨(金氏)가 6남을 낳으니 장남 증(璿)은 계양군(桂陽君)이고, 다음 공(玘)은 의창군(義昌君)이고, 다음 침(琛)은 밀성군(密城君)이고, 다음 관(璉)은 익현군(翼峴君)이고, 다음 장(璋)은 영해군(寧海君)이고, 다음 거(璫)는 담양군(潭陽君)인데 복중(服中)에 졸서하였다. 혜빈(惠嬪) 양씨(楊氏)가 3남을 낳으니 장남 어(玆)는 한남군(漢南君)이고, 다음 현(玆)은 수춘군(壽春君)이고, 다음 천(琿)은 영풍군(永豐君)이다. 숙원(淑媛) 이씨(李氏)가 1녀를 낳으니 정안옹주(貞安翁主)인데 출가하지 않았으며, 삼침 송씨가 1녀를 낳으니 정현옹주(貞顯翁主)로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에게 하가하였고, 궁인(宮人) 강씨(姜氏)가 1남을 출생하니 화의군(和義君) 영(璿)이다.

我 殿下 顯德王后權氏 贈議政府左議政專之女 誕一男一女而薨 男(端宗御諱) 今封王世子 女敬惠公主 下嫁寧陽尉鄭棕 司則楊氏生一女 幼 首陽 娶 贈左議政尹璠之女 生二男一女 長(德宗御諱) 桃源君 餘幼 側室朴氏生 一男幼 安平 娶 贈左議政鄭淵之女 生二男 長友直 宜春君 次友諒 德陽正 臨瀛 娶 贈右議政崔承寧之女 生二男二女 長澍 烏山君 餘皆幼 廣平 娶 僉知中樞院事申自守之女 生一男 溥 永順君 錦城 娶 贈左議政崔士康之女 生一男 幼 平原 娶 贈左議政洪利用之女 無子 永膺 娶 贈左議政鄭忠敬之女 和義 娶 承政院同副承旨朴仲孫之女 側室金氏 生一男 幼 桂陽 娶 判中樞院事韓確之女 生一男 幼 義昌 娶 副知通禮門事金脩之女 生一男 幼 漢南 娶 戶曹正郎權格之女 生一男 幼 密城 娶 仁順府少尹閔承序之女 生一男 壽春 娶 副知通禮門事 鄭自濟之女 生一男 翼峴 娶 禮賓少尹趙鐵山之女 永豐 娶 司憲執義朴彭年之女 寧海娶 贈左贊成申允童之女 貞懿公主 生四男二女 女長 適敦寧府丞鄭光祖 餘皆幼 貞顯翁主 生二男 皆幼 宜春 娶 右議政南智之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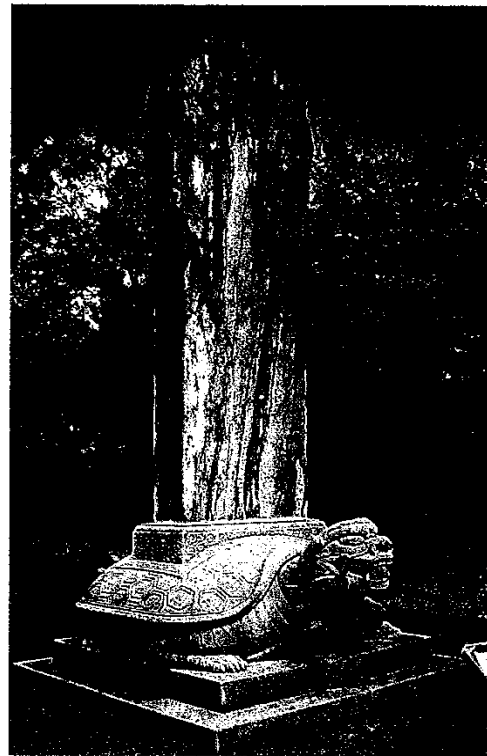
우리 전하의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는 증의정부좌의정 전(專)의 따님인데 1남과 1녀를 탄생하고 승하셨다. 아들은 지금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따님 경혜공주(敬惠公主)는 영양위(寧陽尉) 정중(鄭棕)에게 하가하였고, 사측

(司則) 양씨(楊氏)가 1녀를 낳았는데 어리다.

수양대군은 증좌의정 윤번(尹蕃)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출생하니 장자는 도원군(桃源君:덕종에 추존)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측실 박씨는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안평대군은 증좌의정 정연(鄭淵)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을 출생하였는데 맏아들 우직(友直)은 의춘군(宜春君)이며, 다음 우량(友諒)은 덕양정(德陽正)이다. 임영대군은 증 우의정 최승녕(崔承寧)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남과 2녀를 출생하니 맏아들 주(澍)는 오산군(烏山君)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광평대군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신자수(申自守)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니 영순군(永順君) 부(溥)이다. 금성대군은 증 좌의정 최사강(崔士康)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니 어리고, 평원대군은 증 좌의정 홍이용(洪利用)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자녀가 없고, 영응대군은 증 좌의정 정충경(鄭忠敬)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화의군은 승정원 동부승지 박중손(朴仲孫)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측실 김씨가 1남을 두니 어리고, 계양군은 관중추원사 한확(韓確)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니 어리다. 의창군은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김수(金脩)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니 어리고, 한남군은 호조정랑(戶曹正郎) 권격(權格)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니 어리다. 밀성군은 인순부(仁順府) 소윤(少尹) 민승서(閔承序)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남을 출생하였고, 수춘군은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정자제(鄭自濟)의 따님과 결혼하여 1남을 낳고, 익현군은 예빈소윤(禮賓少尹) 조철산(趙鐵山)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영풍군은 사헌부 집의(執義) 박팽년(朴彭年)의 따님에게 장가들고, 영해군은 증좌찬성 신윤동(申允童)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정의공주가 4남과 2녀를 출생하니 맏따님은 돈녕부승(敦寧府丞) 정광조(鄭光祖)에게 출가하였고, 그밖에는 모두 어리다. 정현옹주가 2남을 출생하니 모두 어리고, 의춘은 우의정 남지(南智)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臣竊惟 化工之妙 著於物 聖人之心 著於政 惟我 世宗 以生知之聖 建中建極 爲人倫之至 善繼善述 闡帝王之孝 九族既睦 萬姓咸和 庶務畢諧 聲名洋溢 天子褒其忠賢 錫予寔繁 隣邦 服其誠信 梯航相繼 臣侍從十年 出入政府六曹 二十餘年 親近耿光 信乎致廣大而盡精 微極高明而道中庸 實東方之堯舜云 昭憲王后 以坤厚之德 配乾剛之聖 母儀一國 化被四方 且有多男之慶 生我 殿下有聖德以承大統 又致魚貫¹¹⁷⁾之寵 有螽斯之多 信乎天作之合而與周之太姒匹休云

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건대 조화(造化)의 교묘(巧妙)함은 만물(萬物) 현상(現象)에 나타나고 성인(聖人)의 정대(正大)한 마음씨는 치정(治政)에 나타나는 것이니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탄생하시면서 사리를 아신[生而知] 성인(聖人)으로서 중앙의 표준[中極]을 세워 인륜(人倫)의 정점(頂點)에 이르시어 잘 이어 받아 밝게 서술(敘述)하여 제왕의 효도를 천명(闡明)하시니 9족이 이미 돈목하고 만백성이 모두 화락하며, 온갖 정무(政務)가 해화(諧和)하니 훌륭한 이름이 4해 8방에 넘치시었다. 그러므로 명나라 황제도 그 지성에 칭탄하여 예우가 대단했고 이웃나라들도 심열(心悅) 섬복(誠服)해서 물(陸)과 바다로 오고 가며 교호(交好)하였다. 신이 가까이 모신지 10년이며 육조와 정부를 출입한 것이 20여 년이다. 뚜렷하니 쇠는 빛깔을 가까이 하매 넓고도 정



英陵 神道碑
瑞草區 內谷洞 獻陵 西岡 英陵 터에서
發掘하여 世宗大王 記念事業會 入口에 復元

+++

117) 魚貫 : 물고기를 꼬챙이에 꿰 것처럼 차례로 줄지어, 차례로 잇따라.

밑하시고 높고도 밝으시니 진실로 동방의 요순(堯舜)이시오, 소헌왕후(昭憲王后)께서는 두터운 곤덕(坤德)으로 성인(聖人)의 배필이 되어서 한 나라의 국모로 그의 덕화가 사방에 퍼지고 또 다남(多男)의 경사까지 차지하신 가운데 성덕 높으신 전하를 탄육(誕育)하시와 대통을 이어 받게하시고 또 한 차례로 잇따른 총은과 자손이 번성함을 누리시니 진실로 하늘이 지어주신 성인의 배필로 주나라의 태사(太姒)와 더불어 견주리рода.

臣 筆力蕪拙 不能稱頌盛美 不幾於畫 天地之大 慕日月之明者乎 然 承命不敢辭 謹拜手稽首而獻銘 曰

신 원래 필력(筆力)이 무추(蕪拙)하고 문장이 비졸(鄙拙)하매 능히 훌륭하게 칭송할 솜씨 없사오니 어떻게 하늘과 땅의 광대(廣大)함을 그대로 그려내며 해와 달의 소명(昭明)함을 똑바로 본뜰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받은 어명(御命)을 사양할 길이 없기에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려 명(銘)을 지어 올리니 다음과 같다.

舜承帝堯	순(舜)이 요(堯) 임금의 자리 이어받으니
重華允協	순임금이 성실히 화합하였고
武繼文王	무왕이 문왕의 왕위(位)를 이으시니
克昌大業	주나라의 대업이 더욱 창성하였네.
德盛而帝	덕은 오제보다 성대하였고
功高而王	공은 삼왕보다 높으셨네.
煥乎有章	환하게 빛나는 문장이 있어
載錫耿光	성덕의 밝은 빛 사책에 실리었네.
與賢與子	어진이에 주고 아들에게 준 것은
天實命之	하늘이 사실상 명하신 것이네.
或禪或繼	넘겨주기도 하고 이어 받기도 함은
惟公匪私	공사(公事)였고 사사(私事)가 아니었네.
惟我世宗	생각컨데 세종대왕께서는
天縱生知 ¹¹⁸⁾	하늘이 내려 주신 생이지지의 성인이라
孝弟之性	효제(孝弟)하는 성품이셨고
忠信之資	충성과 신의는 천품이셨네.
好學不倦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않으시니
周情孔思	주공(周公)의 뜻이오 공자(孔子)의 생각일세.
明明太宗	밝고도 밝으신 태종이시라
惟幾惟深	오직 조짐을 깊이 관찰하시어
廢昏命德	어둠을 폐하시고 덕을 밝히시니
堯文之心	요임금과 문왕의 마음이셨네.
敷奏天庭	명나라에 통고하여 알리니
帝降俞音	황제가 허락의 말을 내려주었네.
旋倦于勤	직책을 다하심에 피로가 겹치시어
乃禪以位	곧 왕위를 내려 물려 주시니

118) 生知 : 생이지지(生而知之). 즉, 태어날 때 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

天子錫命	천자가 고명을 내려
皇華聿至	사신 편에 덧붙여 보내오고
天子錫宴	천자가 잔치까지 내려주어
周行是示	우리에게 바른 도리를 제시해 주셨네.
道積厥躬	궁궐에서 몸소 준수해야할 덕을 쌓으시고
聰明睿智	총명하고 예지하신 우리 임금님
宵衣旰食	정사에 너무도 부지런히 하시며
勵精圖理	힘써 행하시고 이치를 헤아리시어
克承負荷	깊어진 무거운 짐 받들어 행하시니
父王以喜	부왕께서 근심없이 기뻐하셨네.
承歡兩宮	대전·중궁 양궁을 기쁘게 받드시며
愉色婉容	기쁜 안색에 부드러운 표정가지시어
問寢龍樓 ¹¹⁹⁾	침전에 아침과 저녁 문안 때에는
益虔益恭	더욱 경건하고 더욱 온공하셨네.
喪盡其哀	상을 당하여서는 슬픔을 다하셨고
祭盡其誠	제사에는 그 정성을 다하셨네.
天降甘露	하늘이 흰름 송백에 감로(甘露)를 내리니
式昭靈靈	본보기로 그 영감이 환하게 나타났었네.
在宮離離	궁에 계실 때는 화락하시어
罔有偏恩	치우치신 은혜 잊지 않으시고
家法克正	가정의 법도를 능히 바르게 잡으시니
人無間言	끼어들어 이간질하는 사람 없었네.
伯兄居外	큰 형님께서 밖에 계시나
來見源源 ¹²⁰⁾	지주자주 와서 만나 보게 하더니
既而召還	얼마 안 되어 불러 돌아오게 해서
敬愛彌敦	공경과 사랑이 더욱 도타웠네.
因心則友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서로서로 우애하니
斯翁弟昆	아우와 형님 모여서 화합하셨네.
且湛曰樂	또한 나날이 즐기고 즐거워하시니
華萼相輝	꽃과 꽃받침 처럼 서로가 빛나
以及九族	구족에 까지 화목이 미쳐서
恩澤覃施	은혜의 광택이 널리 퍼져 베풀어지네.
振振 ¹²¹⁾ 子孫	마음 인후한 훌륭한 자손들이
誥誥彞斯	메뚜기 떼 모이듯이 수없이 많네.
教以義方	예로서 자손을 가르치니

+++

119) 龍樓 : 아반의 문안을 뜻함. 흥정신성(脩定晨省), 즉,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것.

120) 源源 : 끊이지 않고 자주 만나봄.

121) 振振 : 인후(仁厚)한 모습.

讀書誦詩
儀章有此
嫡庶咸宜
禮遇群臣
刑戮不加
至誠事大
天子褒嘉
何錫予之
條環寶刀
又何予之
袞龍之袍
以禮交隣
隣邦輯和
梯航執贄
萬里一家
民既富庶
仁義點摩
止仁之孝
止敬止信
建中致和
人倫堯舜
銓注法精
僥倖屏迹
任賢使能
各當其職
田制既定
猾吏手縮
不桀不狃
征斂無忒
首作儀像
次定律曆
五禮損益
情文之極
新樂聲容
祖宗功德
會用雅樂
始斥女樂
親臨養老
秋以爲式

글 읽고 시 읊어 공부하네.
의례와 장복에 차등을 두어
적서(嫡庶)의 차례 모두 합당했네.
신하들에게도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형벌과 죽임에도 옳지 않음 없었네.
지극한 정성으로 대국을 섬기니
천자도 가상이 여겨 포장하는데
어떤 물건을 상으로 주었을까.
머리 꾸미개와 고리와 보도이고
또 무엇을 하사 했을까.
곤룡포를 보내 주었네.
예로써 외국과 교린하니
이웃나라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오고 가며 예물로 경의를 표하니
만 리 밖이지만 한 집안과 같네.
백성 부유해진 백성들이 많아져
인의로 점점 감화되어 가네.
인에 머무르고 효에 머무르며
경에 머무르고 신에 머물러
중용의 도를 세워 화목에 이르게하니
인륜이 바로 서서 요순의 세상일세.
인사(人事) 등용하는 법 정밀하여
요행수 바라는 자 자취를 감추었네.
어진 이에 일 맡기고 능한 이를 부리니
각각 자기의 직책을 맡게되고
농지 제도가 이미 정해지니
교활한 관리들 제손 먼저 움츠리네.
결도 맥도 아니게 바른 조세를 정하니
세금을 거두는데 법에 어긋남이 없었네.
제일 먼저 의상[渾天儀]을 제작하고
다음으로 율력(律曆·달력)을 제정하며
오례의 내용을 가감하여 정리하니
인정과 예문의 극치를 이루었네.
음악의 소리와 형용을 새롭게 창제하여
조종(祖宗)의 공과 덕을 찬양하였네.
각종 연회에 아악(雅樂)을 연주하고
비로소 여악(女樂)을 물리치셨네.
양노연에 임금께서 친히 임하시되
가을에 행하도록 법식으로 정하였네.

撰集書史
 監觀得失
 訓民正音
 一洗陋俗
 貢許土宜
 天子有勅
 世子七章
 生光一國
 凡所施爲
 無非燕翼¹²²⁾
 建鎮朔方
 舊疆是復
 威德遠被
 無思不服
 偏師指北
 戎醜喙息
 直搗巢穴
 彼自顛覆
 尺書下南
 倭奴面縛
 歸之京師
 俾就顯戮
 安不忘危
 治不忘亂
 城堡據險
 戈矛乃鍛
 戰艦新造
 堅如鐵石
 火桶發機
 疾若霹靂
 軍資器械
 遠邁前昔
 好生之心
 益致欽恤
 刑罰平允
 人無負屈

경서와 사서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역대 군왕들의 득과 실을 살펴보셨네.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하사
 천한 풍속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토산물로 공물 바칠 것을 허락한다는
 천자의 칙명이 있었으며
 세자에게 칠장의 예복을 내리시니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빛나네.
 무릇 실제로 베풀어 행하심은
 모두가 자손들을 위한 계책이었네.
 함경도 북방 국경에 육진을 세움은
 바로 옛 강토를 되찾기 위함이었네.
 위엄과 덕화가 멀리 퍼져 미치니
 복종하지 않을 생각하는 이가 없었다.
 군사의 무리를 북쪽에 배치한 것은
 많은 오랑캐가 숨을 쉬고 있어서였다.
 곧바로 그들의 소굴을 두들겨 부수니
 저들 오랑캐가 저절로 전복되었네.
 남쪽 일본에는 힐책의 서신을 내려
 중국 번방 노략질한 왜놈을 생포하여
 명나라로 호송하여 돌려보내니
 그들은 극형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네.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 잊지 아니하고
 치세에도 전란시의 어려움 잊지 않았네.
 성곽과 보루를 험지를 의거해 쌓고
 창·검과 무기를 곧 정비하였네.
 전함(戰艦)까지 새로 지어서 배치하니
 국방은 철석(鐵石)같이 견고해 졌네.
 화통에 불을 붙여 포를 발사하니
 빠르기가 벼락 치는 것[霹靂]과 같았네.
 군사감에 비축된 군용 병장기는
 옛날보다 훨씬 뛰어났었네.
 생명을 소중히 하는 심덕으로
 죄지은 자들에 더욱 불쌍히 여겨
 형벌을 할 때는 죄의 형평을 맞게 하니
 억울한 일 당하는 이 아무도 없네.

+++

122) 燕翼 : 조상이 자손들을 위한 계책.

百工技藝
 咸底于則
 不喜玩好
 務從質實
 愈執謙遜
 求言如渴
 巍巍之德
 郁郁之文
 難名之盛
 莫大之勳
 虞周與儔
 漢唐無間
 卅三年間
 爲父爲君
 昊天不吊
 奄棄臣民
 遠邇纏悲
 哀慕如親
 我王嗣位
 至孝由性
 明以繼明
 聖以繼聖
 山陵喪制
 悉遵遺命
 天子致帛
 賜祭諫行¹²³⁾
 節惠定名
 美諡以贈
 厚賻亦至
 恤典斯飭
 俾襲王爵
 錫之冕服
 賚及王妃
 珠冠綵翟
 天子之恩
 實優實渥
 恭惟王后

모든 관원이 자기 재능이 뛰어나서
 모두가 본받을 만한 법칙에 이르게 되었네.
 진귀한 노리갯감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힘써 일하시매 품질과 내용을 따르셨네.
 더욱 몸을 낮추시고 지키고 보존할일 힘쓰시고
 바른말 해주길 목마르듯 기다렸네.
 지극히 높고도 높은 성덕이시여
 문물의 융성함이 청청이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성대함이요
 이보다 더 큼이 없는 훈공이시라
 우순임금과 주 문왕에 비견 되시나
 한나라, 당나라 때엔 듣지 못했던 일이네.
 서른 세 해 동안 재위하시며
 백성의 어버이시며 임금이었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시여
 갑자기 신민을 버리고 승하시니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 슬픔에 얽혀
 애통히 사모함이 제 부모 여윈 듯 하였네.
 우리 임금께서 왕위를 이으시니
 지극하신 효성은 천성으로 타고나셨네.
 명철한 임금이 명철한 임금 뒤를 이으시고
 성군이 성군의 뒤를 이으셨네.
 산릉을 모시고 상제를 행하심은
 모두 다 선왕의 유명(遺命) 따르신 것.
 천자는 상심으로 조의를 표하면서
 제문을 갖추어 제사를 올렸고
 은혜롭게도 이름을 정해 사신을 보내어
 아름다운 시호를 내리셨네.
 두터운 부의도 보내오고
 상중에 행할 의전을 신척하여
 왕의 작위를 이어받게 하고서
 임금의 면복을 갖추 보내주었네.
 왕비에게도 예복차려 보내주니
 구슬로 꾸민 관과 유적(황후의 옷)이었다.
 천자의 후하고 자상한 은혜는
 참으로 넉넉했고 진실로 두터우셨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왕후께서는

123) 諫行 : 죽은 자의 생시행적, 덕업 등을 기록한 만장(挽章)이나 제문(祭文)을 칭함.

開天之妹	하늘이 내리신 아름다운 선녀이시네.
來嬪王家	임금의 집안에 시집오시어
正位乎內	내전의 중궁 자리 바르게 서시고
太妣之德	태사의 덕을 이미 갖추고 계시어
文王之配	세종대왕[文王]의 배필 되셨네.
篤生聖主	후덕하게도 성인 군주를 낳으시니
鴻基益競	큰 왕업의 기초를 더욱 굳세게 하셨네.
既有多男	이미 많은 자녀 두시어서
麟兮播詠	인지가 시(詩)를 지어 읊어 파급되니
實我東方	참으로 동방의 우리나라
億載之慶	억만년 이어 갈 경사로다.
於戲先王	오호라, 우리 선왕께서
嘆興亡鑑	왕후[鑑]를 여의시고 탄식하시더니
星未五周	왕후 승하후 다섯 해도 채 못 되어
忽遺弓劍	홀연히 궁과 검을 남기고 승하하셨네.
因山爲陵	장례를 모시어 능을 만드니
同宮異室	궁(宮)은 같으나 실(室)은 다르네.
仰思日角 ¹²⁴⁾	우러러 임금의 모습 생각을 하니
五內痛裂	오장 육부가 찢어질듯 아파오네.
惟此盛德	생각하건대 이 성대한 덕은
萬代如一	만대가 흘러도 한결같은 것이네.
謹撰梗槩	삼가 그 대강의 내용을 지어서
拜獻銘詞	찬양할 글월 묘비에 새기어 공경히 올리오니
天長地久	하늘처럼 길고 땅처럼 오래도록
焜耀無期	그 빛남은 영원 무궁 하리라.

文宗元年 辛未(1451년) 七月 工曹判書 臣 鄭麟趾 撰

문종(文宗) 원년(1451) 신미 7월 공조판서 신 정인지(鄭麟趾)는 짓다.

+++

124) 日角 : 제왕(帝王)의 골상(骨相)을 칭함.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비신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습기가 찬 탓인지 비면의 명문(銘文)이 거의 탈락되었다. 즉 석비 표면의 결이 1cm 정도의 두께로 떨어져 나가 대리석 내질(肉質)의 연한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의 이수 부분은 너비 96cm로 두 마리의 용이 좌우에서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각법은 매우 정교하고 깊은 음양각(陰陽刻)으로 이룩되었으나, 이 역시 손상이 심하다.

전액은 위에서 96cm 되는 지점에 2행으로 ‘세종영릉지비(世宗英陵之碑)’라고 중서되어 있으며 자경은 12~15cm 정도이다. 비신 오른쪽 하단에는 ‘겸성균대사성신 정인지(兼成均大司成 臣 鄭麟趾)’와 함께 1행 왼쪽에 ‘신 용봉교서(臣 瑑奉敎書)’라는 글씨가 남아 있고 자경은 약 3cm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신도비의 원위치는 세종대왕의 초장지(初葬地)인 서초구 내곡동 산13번지였으나 1974년 4월에 현위치로 옮겨졌다. 이 비의 발견 지점은 구 영릉지에서 약 1km 떨어진 순조의 인릉이 자리한 곳 근처이다. 1469년 여주의 신 영릉으로 천장할 때 이 비를 옮기다가 어떠한 연유에선지 발견 지점에 이르러 매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이 석비의 이수는 비신에 붙어 있으나 귀부는 현지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자연석으로 이를 대용하고 있다.

세종대왕 신도비는 세종대왕의 신도비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구 영릉에 세워졌으며, 조선의 왕릉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신도비라는 점, 이수 부분의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점, 비의 명문은 탈락되었지만 당대의 명필인 안평대군이 쓴 점, 비문의 내용은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조선 초 왕실 신도비 3점 가운데 하나로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헌자료>

《열성지상통기(列聖誌狀通記)》

《전주이씨선원보첩(全州李氏璿源譜牒)》

□ 관계전문가

○ 현 상

- 비신 및 이수(螭首)는 원석이나, 비좌의 원석은 상실되고 최근에 신조됨.
- 비문과 글씨는 안평대군의 필적으로 새겨짐.
- 각자가 마모된 부분이 많으나 석비의 조형예술적 품격을 잘 갖추었음.

○ 내용 및 특징

- 현재 3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 조선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과거와 다른 신왕조의 새로운 석비 조형양식의 진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비록 비좌는 신조되고 비신과 이수도 마모가 심하지만 3기의 조선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규모가 당당하고 예술적 조형성도 매우 뛰어나. 비신과 이수는 종래의 고려 석비 조형의 전통을 탈피하고 중국 당(唐) 나라 석비 조형의 맥을 이어온 명(明) 나라 석비의 조형을 수용한 조선시대 석비 조형의 대표작 중의 하나임.
- 따라서 한국의 석비 조형 예술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좌표를 점하는 문화재로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함.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석비는 1)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해주는 기록물이며, 2) 조성년대가 확실한 조형물로 예술사적 편년을 제공하는 기준작품이며, 3) 비문의 내용은 당시의 한문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4) 글씨는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자료가 되는 등 석조문화재 중에서도 으뜸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함.

2. 이 신도비는 조선왕조 제 4대 임금인 세종의 왕릉 신도비로 조선 문종 2년(1452)에 조성되었으며 비문과 글씨는 안평대군의 필적으로 새겨진 조선 초기 석비의 귀중한 문화재임. 원래 강남구 내곡동 구 영릉 터에 묻혀 있던 것을 1974년에 발굴하여 현 위치(세종대왕기념사업회)로 옮겨 보존되고 있음. 현재 비좌는 최근에 신조되었고 비신과 이수는 글자는 마모되었어도 석비의 조형은 제작당시의 품격을 잘 갖추고 있음. 특히 영릉 신도비는 단 3기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초기 왕릉 신도비 중의 하나로 그간 이 석비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국가 중요문화재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3. 이 석비는 삼국 통일기에 중국 당(唐)대의 석비 양식을 들여와 통일신라시대에 전형을 이룬 후 고려시대까지 계승된 한국 전통 석비양식이 고려의 멸망과 함께 멈추고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이 수용되는 중국 명(明)대의 석비 조형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이어 받아 비신과 이수가 한 돌로 이루어지면서 이수 부분에도 중

국 전통을 따라 반원형의 비신 상부에 오각형의 제액을 내고 그 주위를 여러 마리의 용이 휘감는 형상을 하고 있음.

4. 이와 같은 비신(碑身) 상부 이수부분의 조형이 중국식으로 바뀌는 것은 이미 고려 우왕 3년(1377)에 조성된 회암사 선각왕사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 3년(1394)에 조성된 개성 연복사탑 중창비로 이어졌고 그 이후 건원릉 신도비(1409)에서 훨씬 규모가 장대하고 품격이 당당한 조형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릉 신도비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석비 조형예술의 기량이 진작되고 그 전통이 영릉 신도비로 계승되고 있어 조선시대 한국 석비 조형예술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임이 분명함.

5. 비록 비좌는 신조되어 완형을 보전하지는 못하였으나 비신이 상실되어 완형을 유지하지 못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석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음. 따라서 이 석비가 완형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새로운 조형이 발전해가는 조선시대 석비예술의 최선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석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5. 충주 이상급 신도비(忠州 李尙伋 神道碑)

가. 검토사항

‘충주 이상급 신도비’의 보물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주 이상급 신도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1.5.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2.4)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시도유형문화재 제63호 충강공이상급신도비
- 명 칭 : 충주 이상급 신도비(忠州 李尙伋 神道碑)
- 소 유 자 : 벽진이씨 충강공 종중
-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504
- 수 량 : 1기
- 규 격 : 비신 높이 200cm, 너비 26cm, 대석 높이 68cm, 이수 높이 68cm
- 재 질 : 화강석(비좌, 이수), 대리석(비신)
- 조성연대 : 1716년(숙종 4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현행유지)

비신은 팔각형으로, 여타 신도비의 비신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비신 맨 윗부분에는 두전으로 “參知贈吏曹判書李公神道碑銘”이라 새겨있다. 비문은 당대의 거유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충강공의 현손 이정박(李挺樸)이 썼으며, 두전의 전서는 현손 이정상(李挺相)이 썼다. 신도비문은

충강공 이상급(李尙伋, 1577~1637)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 40여일 동안 대결하던 중,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묘사(廟社)를 받들고 강화도로 들어간 중씨(仲氏) 이상길(李尙吉)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적병을 만나 순절하였다. 비문의 글씨는 충강공의 현손이 쓴 것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없는 편이다. 다양한 형태를 빌려 정성껏 쓴 글씨이나 출처가 없고, 또한 본받을 만한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한 듯 하다.

비단은 오랜 세월에 씻긴 듯한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 정교하지 못하고 별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충강공신도비는 현재의 충북지방 문화재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행유지)

이 신도비는 높이 68cm의 8면 대석 위에 역시 각면의 너비 26cm, 높이 200cm의 비신이 있고, 다시 그 위에 68cm 높이의 4각 이수(螭首)가 얹혀 있다. 비신과 대석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으며, 대석에는 연화문을 새긴 점도 특이하다.

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714년(숙종 40)이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따라서 이 신도비는 비신이 8각이라는 점,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다는 점에서 다른 신도비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수나 대석의 조각 상태가 지방양식을 반영하여 그리 뛰어나지 않으며, 이미 충북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는 많지 않다. 신도비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가 극히 적은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조각이 뛰어나고, 서체도 훌륭하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비석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상급신도비의 경우 현재의 도 유형문화재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현행유지)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이상급(李尙伋, 1571-1637)의 신도비로 사망 77년 후에 (1714)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현손 이정남(전) 이정복(비문)의 글씨로 새겼다. 팔각의 화강석 비좌 위에 팔각기둥형의 대리석제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사각의 이수를 장식한 석비로 전통의 한국 석비에서는 볼 수 없는 팔각을 기본평면으로 구성된 석비이다. 특이한 형식의 석비로 비좌 부분에는 연꽃과 사자, 이수 부분에는 구름과 용을 장식하여 새겼으나 조형성이 범작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가치는 결여되어 있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비문글씨 및 조각양식 지정가치 부족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 현 상

벽진이씨 충강공신도비는 1716년(숙종42)에 현재 위치에 세웠다.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1930년에 건립하고 1981년에 중수한 비각 안에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충강공신도비는 이수·비신·비단으로 이루어진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한 덩어리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다. 이수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뒤엉켜 머리를 아래로 향하며 용틀임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조각이 매우 정교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이수 뒷면 역시 똑같은 모습의 용이 대칭을 이루며 조각되어 있다.

비신은 팔각형으로, 여타 신도비의 비신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비신 맨 윗부분에는 두전으로 “參知贈吏曹判書李公神道碑銘”이라 새겨있다. 비문은 당대의 거유 우암(尤菴)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충강공의 현손 이정박(李挺樸)이 썼으며, 두전의 전서는 현손 이정상(李挺相)이 썼다. 신도비문은 충강공 이상급(李尙伋, 1577~1637)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 40여일 동안 대결하던 중,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묘사(廟社)를 받들고 강화도로 들어간 중씨(仲氏) 이상길(李尙吉)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적병을 만나 순절하였다. 비문의 글씨는 충강공의 현손이 쓴 것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없는 편이다. 다양한 형태를 빌려 정성껏 쓴 글씨이나 출처가 없고, 또한 본받을 만한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한 듯 하다.

비단은 오랜 세월에 씻긴 듯한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 정교하지 못하고 별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충강공신도비는 현재의 충북지방 문화재로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 충강공신도비문¹¹⁹⁾

119) 「碧珍李氏忠剛公墓苑」(,) .

參知 贈判書李公神道碑銘并序

余既爲李忠肅公尚吉撰其大碑之文矣今又以吾友野叟之託又銘參知公墓公忠肅之弟也一門之內何其多賢也憶世道衰矣若而數公者何處得來公諱尚俊守忠齋羅季有恩言佐麗祖有功拜星州將軍其後世遂爲星州人我朝約東有文武全才諱平靖以清白名載史官曰佐郎紹元參奉有蕃郡守碩明教官 贈贊成善善是公高曾祖考贊成公娶都事丁煥女舉四男公其季也早孤力學年三十五

以進士登丙午文科入槐院爲正字著作博士以刑曹佐郎充書狀官賀天申于 帝京未遑道拜平安都重蓋賊臣爾瞻等惡其異己爲柘清塗也未幾病免由刑曹正郎出爲豐基郡守時隣郡有賊黨破城逃死朝廷以爵賞捕賊者仍資金視其爵有差公恥之上攻滅其實故得免焉後凶人鄭造高按使公恥爲屬官卽解歸忠州之別墅耕釣以爲樂諸生挾書請業者甚衆嘗畫使李公時發啓請自從有醜而貴者來請毋行曰欲將以清選見處公微哂曰非所

敢也時蓋奸黨紛至沓廢 母后彝倫晦剝公與忠肅公皆不樂仕進以守素志焉 仁祖反正自諸司官出爲安東大都護府使請公啓請以爲空置諫官外補非所當遂拜掌令執義譽然有直臣風采然不悅者稍多矣季遂及 上將南幸議者謂安東或將爲趙氏管陽求今之尹鐸無如李某於是公以尚衣正出盡除昏朝時滯滯其中豪右有僥倖者公曰如此則 上惠偏於奸猾遂一切徵督以蠲田租之半又與上司爭其是非上司不能堪遂廢閣公就廷尉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宋時烈 글을 지음
玄孫 進士 挺相 篆字를 씀
玄孫 進士 挺樸 글씨를 씀
十三世孫 文學博士 鐘殷 國譯

내 이미 李忠肅公 尙吉을 위하여 그 神道公의 글을 지었는데, 이제 또 나의 벗 野叟의 부탁을 받아 參知公의 무덤에 銘한다. 公은 忠肅公의 아우이니 한 집안에 어찌 그다지도 어진이가 많은가. 아! 世道가 衰微하였는데 이들 몇분을 어디로 좃아 얻어왔다. 公의 諱는 尙俊. 字는 思彦이다. 新羅末葉에 兪言이라는 분이 있어, 高麗의 太祖를 도와 공로가 있어서 碧珍將軍에 임명되었으니, 그 後孫이 드디어 碧珍사람이 되었다. 우리 國朝(여기서는 朝鮮朝를 가리킨다)에 들어와 約東이라는 분이 있어 文武를 兼全하였으니 諡號는 平靜이며 清白吏로 이름이 史冊에 실려 있다. 佐郎 紹元, 參奉 有蕃, 郡守 碩明, 教官 贈贊成 喜善이 곧 公의 高祖, 曾祖, 祖, 考가 된다. 贊成公이 都事 丁煥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네 아들을 두었으니 公이 그 막내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힘써 배워서 나이三五세에 進士로서 丙午(宣祖三九西紀 一六〇六)年 文科에 올라 承文院에 들어가 正字, 著作, 博士벼슬을 지냈다. 刑曹佐郎으로서 書狀官에 뽑혀 明나라 서울(지금의 北京)에 가서 天申節을 하례하고 채 서울에 돌아오지 아니하여, 길 위에서 平安道都事의 임명을 받았으니, 賊臣 李爾瞻이 자기네와 뜻을 달리함을 미워하여 淸官의 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얼마 아니되어 벼슬이 갈리고 刑曹正郎에서 豐基郡守가 되어 나갔다. 이때 이웃 고을에 賊黨이 착고를 부수고 죽음을 도망한 자가 있어서, 朝廷에서 벼슬을 가지고 도적을 잡은 자를 상주었는데 돈을 받고 벼슬에 差等를 두었으니, 公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功績報告를 올릴때에 그 실지를 줄여서 보고하여 그 책임을 면함을 얻었다. 奸臣 鄭造가 道の 監司가 되어 오자, 그 屬官이 빚을 부끄럽게 여겨 곧 벼슬을 버리고 忠州의 농막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낚시하며 즐거움을 삼았으니 諸生이 책을 끼고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자가 이루 수를 셀 수 없었다. 贊畫使 李公時發이 啓請하여 스스로 身分에 맞는 직책에 종사하려 하니, 貴顯한 자가 찾아와서 이를 만류하며 말하기를, 장차 淸官의 人選에 올려서 處分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公은 微笑하여 대답하기를 「감히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奸臣의 무리가 惡을 일삼아 母后를 廢位하기에 이르러서 倫常이 땅에 떨어지니 公은 忠肅公과 더불어 평소의 맑은 뜻을 지켜서 벼슬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仁祖께서 反正

問論逋敘爲寺正遷司諫論 世子嘉禮管求諸華
警正門不宜使迎家至親參錯於采擇之列時 上
意深有所屬遂觸忤甚重亟 命削官賴大臣力事
只遞免久後因唐變有分闕者廢爲從事又從賑恤
使募粟湖南還朝亦低佞散而已出補端川郡郡
出銀貨公曰此利窟也官人少有不謹則身名可惜
遂洗手奉公歲貢外錙銖之贖悉用以代民繇軍丁
之逃故者前時皆責於隣族公又縮節私冗以所餘
充免其侵擾又北荒不尚文學公爲延其稍秀者爲

之師以教其人月朔必親謁夫子廟仍與諸生講論
未幾有以文藝備計者矣其時按使即公司諫時所
指之入固嘗嘆公而亦心服之狀聞其最公去後李
公景曾以御史至民間道追頌公德繼爲延安府使
治績一如端川時又以爲延於頃歲能以孤城捍禦
倭寇况今外憂方殷不可無陰雨之備大修戰具器
械整綴方伯上其事 上嘉賜表裏公有素所鄙者
爲亞使公微諷以愧其心其人慙怒謝歸公亦自免
去拜輔德 世子知公諳練時務每講訖特問公以

軍國軍事其所陳遠未嘗不虛心傾聽乙亥 仁烈
王后薨公以國葬都廳論勸陞通政兵曹參知時國
家已有被兵之憂公每以治軍繕兵脩城池選將帥
爲言識者韙之而時不能用及 大駕避寇于南漢
公執鞫從難觸冒風雪者四十餘日疾病大作一息
僅存而惟傷痛國事日夜涕泣而已 大駕幸三田
公痛哭曰和議之害一至此哉忠肅公陪 廟社入
江都公聞其陷敗不勝求哀之情遂力疾西行遇零
賊被獲犯遂以丁丑二月三日卒于道上春秋六十

하지자, 諸司의 官員에서 安東大都護府使가 되어 나가게 되니, 여러 宰臣이, 諫官에 듬이 마땅
하고 外補는 옳지 않다 하여 머물러 두기를 청하여서 掌令, 執義등 벼슬에 임명되었다. 바른
말을 서슴치 아니하여서 곧은 신하의 風度가 있었으니 公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또한 적지 아
니하였다. 李适이 反亂을 일으켜서 임금께서 남쪽으로 피난하시게 되니, 일을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安東이 혹시 趙氏의 晉陽이 될지도 모르니 이제 尹鐸을 求하러 한다면 李公만 같은
이 없다 하여서, 公이 尙衣院正에서 安東府使가 되어 나갔다. 昏朝光海君의 治世를 가리킬 때
의 稅金의 逋脫과 滯納된 것을 모두 면제해 주게 되니, 豪族이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있었다.
公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임금의 은혜가 狡獪한 자에게 치우치게 된다 하고, 모른 逋脫과 滯
納을 모두 督勵하여 徵收하고, 田租의 半額을 덜어 주었다. 또 上司(여기서는 慶尙監司)와 더
불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다루니 上司가 견디지 못하여 朝廷에 아뢰어서, 公이 義禁府에 나
가 訊問을 받고 의논에 따라 벼슬이 갈렸다. 寺正에 敍用되었다가 司諫院司諫으로 옮겼다.
世子の 嘉禮는 반드시 莘, 擥의 바른 家門에서 配匹을 求하고 逆賊의 집의 至親을 揀擇하는 자
리에 參與시키지 말 것을 論하였는데, 임금께서 公이 마음에 두신 바가 있었던 까닭에 매우 뜻
에 거슬리어 곧 削奪官職을 명하였으나 大臣이 힘써 公을 힘입어서 단치 벼슬이 갈렸을 뿐이
다. 오랜 뒤에 오랑캐의 變亂으로 인하여 장수가 되어 나가는 자가 계청하여서 從事가 되었으
며 또 賑恤使를 따라 湖南에서 곡식을 모으고 朝廷에 돌아왔으나 역시 閑職에서 자리를 옮겨
다녔을 뿐이다. 端川府使에 外補되어서는 고을에서 銀을 생산하였으니, 公이 말하기를, 이는
財利의 고장이다. 벼슬아치가 조금이라도 謹慎하지 않음이 있다면 몸과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
하고, 오직 廉潔을 信條로 奉職하여서 歲貢이외의 錙銖(錙와 銖는 과거 중국에서 쓰이던 무게
의 단위이니 극히 작은 분량을 뜻함)의 남음도 모두 民繇(백성의 繇役)와 軍丁(軍籍에 있는 壯
丁 또는 公役에 종사하는 壯丁)의 逃避 및 有故한 것을 대신하는 데에 썼다. 그 전에는 이를
모두 이웃과 친족에게 물렸는데, 公이 또 私費를 節減하여서 나머지는 그 侵擾를 免하게 하는
데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북쪽 地方은 畵문을 尙상하지 아니하였는데, 公이 그 造詣가 있는
者를 招聘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매달 초하루마다 孔子의 사당에 친히 拜謁하고 이
어 諸生과 더불어 글을 講論하였으니 얼마 아니되어 文과 藝가 모두 成就된 자가 있었다. 당
시의 監司는 公이 司諫으로 있을 때에 指摘하여 彈劾한 인물로서 일찍부터 公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으나 또한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公의 治績을 最上으로 임금께 啓聞하였다. 公이 떠
나온 뒤에 李公景曾이 御史가 되어 갔는데,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公의 恩德을 기렸다.

端川에 이어 延安府使가 되었었는데, 治績이 端川에 있을 때와 한결 같았다. 그리고 延安이 지
난 날에 능히 외로운 城池를 가지고 倭寇를 막았는데 外憂가 바야흐로 急迫한 오늘날 이에 대

六藝忠州黃金谷直亥之原公自幼敦確不苟年未
成童伯氏與忠肅公聯袂取第而歸觀者塞園公獨
閉戶讀書贊成公異而問之曰異日吾自爲之何徒
觀彼爲聞者知其終有成也事忠肅公如事父平生
不事生業故無定於京既老愈不忍相離遂謀小築
於忠肅公側近朝暮相對指神傳爲美談自入太學
不與人妄交所友皆一時名勝及其立朝也適當鞏
凶當路勢焰薰灼而公遇事直前不以禍福有所撓
屈其在費其薩境有爾瞻之慮欲構歡於爾瞻坐而

緩頰公以微辭諷斥澁切聞者吐舌有言鄭造有側
出女甚好公益求之以備掃灑公正色曰吾何以送
女爲乎士夫忍濡迹其門乎及際 聖明尤棘棘不
阿無分寸私往往有陽若推重而陰實排者其終
始踳躐不獨以逆鱗之嬰也故前後歷三十七官而
只三爲諫官一入 冑筵雖有指負惡能以展布哉
惟屢臨州縣盡其心力常以懷小民抑武斷爲務絕
無導道干譽之意猾吏倖民所至側目而其冰蘖之
操無可指言故終不敢瑕玷乃及有追思勒頌者最

於義理之辨言議峻截丙子虜旣僭號洪公復漢極
以大義攻斥和事舉世譁然非之而公主其議甚力
逮至圍城危迫則平日嘗爲正論者無不諱其前言
而公所執彌厲不少沮挫蓋其言曰與其苟生無寧
義死宜神明感公忠憤終誘賊人之衷而俾遂其願
耶忠肅公與仙源金相國諸公效節於江都雖其死
少異而其不朽於陸沈之世則同矣蓋公仲季棟蓀
聯芳而忠肅公慈祥和易與物無忤公固嘗師法而
至於樸質堅確不顧利害則忠肅公自以爲不及也

한 준비가 없을 수 없다 하여 戰具와 器械을 크게 修理하여 整備하였으니, 監司가 이일을 朝廷
에 아뢰고 임금께서 嘉尙하시어 表裏(웃)의 결감과 안간(안)을 내리셨다. 公이 平素에 鄙陋하게 여
기던 자가 亞使(各道의 監營에 있어 都司가 監司의 다음가는 벼슬아치이니 여기서는 都事를 일
컸는 말)가 되어 왔는데, 公이 諷刺로 그 행실을 나무랐더니 그 자가 부끄럽고 분하여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으며, 公도 또한 그만두고 돌아왔다. 輔德(東官職)에 임명되니, 世子가 公이 時務
에 밝음을 알고 書筵의 講論이 끝날 때마다 軍國의 重大한 일을 公에게 물었으며 그 陳達하는
바를 마음을 비워서 귀를 기울여 들곤 하였다. 乙亥(仁祖 一三西紀 一六三五年)에 仁烈王后
(仁祖의 妃 韓氏)께서 昇遐하시니 公이 國葬都監의 都廳이 되었으며 그 勞苦를 다하니 그 功으
로 通政大夫 兵曹參知에 올랐다. 이 때에 이미 나라가 兵禍를 입을 조짐이 있었으므로, 公이
대양 軍士의 訓練, 兵器의 修繕, 城池의 修築, 將帥의 選任등 이에 대한 對備를 논하였으니,
識者는 이를 옮겨 여겼으나 時議가 능히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大駕가 賊鋒을 피하여 南漢山城으로 들어가기에 미처, 公은 고삐를 잡아 從行하였으며 風雪
을 무릅쓰고 國亂에 분주한지 四十여 일에 크게 疾病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나
라 일이 그릇됨을 가슴아파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大駕가 三田渡에 나가시니, 公
이 痛哭하며 말하기를 和議의 弊害가 이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하였다. 忠肅公이 廟社主(宗廟의
神主)를 모시고 江都로 들어갔는데, 城이 失陷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 사이의 情理를 건디
지 못하여 병을 무릅쓰고 서쪽으로 가다가 賊兵을 만나 승격을 당하여 丁丑(仁祖 一五西紀 一
六三七年) 二月 三日에 길 위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나이 六十六세이며, 忠州 黃金谷의 亥方을
등진 언덕에 장사지냈다.

公은 어릴 때부터 몸가짐이 敦篤 確實하여서 구차하지 아니하였다. 나이 아직 成童(一五세)
이 되지 아니하여, 만형님과 忠肅公이 同時에 科擧에 합격되어 돌아오니 구경하는 자가 마을에
메웠건만 公은 홀로 문을 닫고 글을 읽었다. 贊成公이 奇異하게 여겨 물으니, 대답하기를 「다
른날 저도 스스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어찌 한갓 형들이 한 것을 구경하리까」 하였으니, 들
는 자가 그 앞날에 반드시 成就가 있을 것을 알았다. 忠肅公 섬기기를 아버님 심김 같이 하였
으며 평생에 生業을 힘쓰지 않는 까닭에 서울에 집을 가지지 못했다. 나이 늙을수록 더욱 차
마 서로 떨어지지 못하여 마침내 忠肅公집 결에다 조그만 집을 얻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對하
였으니, 搢紳사이에 美談으로 전하여진다. 太學에 들어간 뒤부터 함부로 남과 사귀지 아니하
여 그 벗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時代의 名流들이었다. 그 朝廷에 서기에 미처서는 때마
침 姦惡한 무리가 권세를 잡아서 氣焰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나 일에 당할 때마다 바른 道理
로 앞으로 나아가니 禍福을 가지고 마음이 동요되거나 굴하지 아니하였다.

豊基에 있을 때에는 이웃 고을에 爾瞻의 徒黨이 있어, 爾瞻의 歡心을 사고자 하여 公을 찾아
와서 周旋을 부탁하는 자가 있었는데 公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諷刺하여 물리침이 매우 峻切하

難已 上追錄屬從功 贈公大司憲後以子原從
勳加 贈吏曹判書夫人亦 贈貞夫人夫人密陽
朴氏舍樞胃之女常持貞慎以承公意公守官內外
終不以一毫貽累六親皆稱之男長棟夫人之沒以
哀衷心未幾而大次墳即野叟登文策嘗爲書諫以
言事不阿亦齟齬於世女適奉尹得舉庶子棟舍
知坤武科培其季也棟二男志雄志傑皆司馬其長
入仕墳三男志述志道志達三女適李晚成李昌齡
俞正基余以孤童常事公以先友公嘗教余曰乃叔

評事公嘗語余云吾輩須相戒切勿爲防納事吾不
敢忘吾友言故未嘗有此等事防納蓋形勢家牟利
之名也噫此豈伊川所謂韓持國服義最不可及乎
路所謂舊要不忘平生之言者耶亦可以見公之一
端也銘曰

於戲惟公渾朴厚堅如玉在璞誰見栗然友不至割
泚如幽默人曰夫公無有黑白自秉義展也却直
在昏如矢矧在有道不爲敵敵愛我者以彼趨而進
我退而緩指讓名遠愧彼巧宦蔽垣柏我席靡援

方州巖邑暨乎藩翰湛盧快割騏驥平步奸豪喘汗
稚耆舞蹈耆年朱墨入爲公苦公曰噫歟此猶自效
秩祿稍陞時事罔極卒成道運命之不淑雖云不淑
其身則潔今此於人生也匪樂驅令供頓喫罵詆喝
校之以公誰失誰得與化爲徒闕茲冥極感慕感
公應自慰矧惟家兒克繩風采亦有孫曾文行不怠
是謂受社天定不忒我爹終始百世無初

였으니 듣는 자가 혀를 들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鄭造에게 側室에서 난 딸이 있는데 매우 아름다우니 공은 어찌 이를 구하여 결혼케 하지 않으냐」 하니, 공이 正色하고 대답하기를 「내 어찌 鄭造의 딸을 구하랴. 士夫가 차마 그 집 문에 발을 드러놓으랴」 하였다. 밝은 신임을 만나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몸가짐이 毅然하여서 아첨하지 아니하고, 무릇 일에 一毫의 私情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往往 길으로는 공을 尊重하여 받드는 체하면서 陰으로 배척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終始 뜻을 일치 못함은 홀로 임금의 뜻을 거스린 데 있는 것만 아니냐. 그런 까닭에 前後하여 서른 일곱 벼슬을 거치면서도 단지 세 번 諫官이 되고 한 번 冑筵(世子의 학문을 講論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뿐이니, 비록 抱負가 있는들 어찌 이를 펼 수 있으랴. 오직 여러 번 고을을 맡아 다스려서 마음과 힘을 다하였으니, 항상 殘弱한 백성을 어루만져 사랑하고 힘 있는 자의 橫暴를 억제하는 일을 힘썼으며, 道理에 어긋나게 하여 名譽를 求할 뜻이 없었다. 이르는 곳마다 狡猾한 아전과 國法을 欺罔하여 요행을 바라는 백성이 결은질로 홀거보았으나 그 일음물을 마시고 황백나무를 씹는 淸苦한 생활을 즐기는 節操를 指彈하여 말할 수 없어서 종시 감히 흠잡지 못하였으며 떠나온 뒤에 도리어 追慕하여 돌비를 세워서 德을 기르는 자가 있었다.

공은 무엇보다도 義理를 分辨하는 마당에서 議論이 峻嚴하였다. 丙子(仁祖 一四西紀 一六三六)년에 오랑캐가 皇帝의 名號를 僭稱하자, 洪公翼漢이 大義名分을 들어 極論하여서 和親하는 일을 排擊하니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를 그르다 하였으나 공은 그의 논을 積極 支持하였다. 城이 포위 당하여 危機가 切迫하기에 이르러서는 平日에 일찌기 正論을 펴던 耆도 前에 한 말을 忌諱하지 않는 이 없었던단 공은 그 執念이 더욱 確固하여서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에 이르기를, 구차하게 사는 것이 차라리 의롭게 죽는니만 못하다 하였다. 어찌 神明이 공의 忠憤에 感動하여 마침내 도적을 유인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忠肅公이 仙源金相國(仙源은 金尙容의 號등 여러 분과 더불어 江都에서 節義에 죽었으니. 비록 그 죽음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그 빛이 세상에 길이 남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둘째와 막내인 공의 형제분은 그 이름이 나란히 세상에 알려졌다. 忠肅公은 慈祥하고 和平하여 事物에 接하여서 모나지 아니하였으며, 공은 일찌부터 형을 스승으로 삼아 본받았는데, 淳樸하고 確固하여서 利害를 돌아보지 않는 데 이르러서는 忠肅公도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國亂이 鎮定되자, 임금께서 扈從功을 追錄하고 공에게 大司憲을 贈職하였으며 아드님의 原從勳으로 하여 다시 吏曹判書의 追贈을 더하였다. 夫人도 貞夫人을 追贈하였다. 夫人 密陽朴氏는 僉知中樞府事를 지낸 靑의 따님이니, 항상 두려워하고 謹慎함을 가지고 공의 뜻을 받들었으며, 공은 內, 外職을 지내면서 종시 一毫도 六親에게 累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만아들 棟은, 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슬퍼함이 지나쳐 마음의 병을 얻어 일찍 죽고, 그 다음 아들 愼이 곧 野叟이니 文科에 올라 일찌기 臺諫이 되었으나 일을 말함에 아첨

□ 문화재전문위원

○ 현 상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상급(1572(선조 5)~1637(인조 15))의 신도비이다. 대석(臺石)과 비신(碑身)이 모두 8각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신도비로 보호각 안에 있다. 높이 68cm의 8면 대석 위에 역시 각면의 너비 26cm, 높이 200cm의 비신이 있고, 다시 그 위에 68cm 높이의 4각 이수(螭首)가 얹혀 있다. 비신과 대석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으며, 대석에는 연화문을 새긴 점도 특이하다.

○ 내용 및 특징

이 신도비는 높이 68cm의 8면 대석 위에 역시 각면의 너비 26cm, 높이 200cm의 비신이 있고, 다시 그 위에 68cm 높이의 4각 이수(螭首)가 얹혀 있다. 비신과 대석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으며, 대석에는 연화문을 새긴 점도 특이하다.

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714년(숙종 40)이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따라서 이 신도비는 비신이 8각이라는 점,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다는 점에서 다른 신도비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수나 대석의 조각 상태가 지방양식을 반영하여 그리 뛰어나지 않으며, 이미 충북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는 많지 않다. 신도비의 경우 국가지정 문화재가 극히 적은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 조각이 뛰어나고, 서체도 훌륭하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비석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상급신도비의 경우 현재의 도 유형문화재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 현 상

- 비좌, 비신 및 이수(螭首) 모두 원형을 잘 보존해오고 있음(비각 안에 보존).
- 각자(刻字), 조형(造形) 부분 모두 마모된 부분은 없으나 석비의 조형예술적 품격이 범작을 넘어서지 못함.

○ 내용 및 특징

-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이상급(李尙伋, 1571-1637)의 신도비로 사망 77년 후에(1714)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짐.
-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현손 이정남(전) 이정복(비문)의 글씨로 새겨짐.
- 팔각의 화강석 비좌 위에 팔각기둥형의 대리석제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사각의 이수를 장식한 석비임.

- 전통의 한국 석비에서는 볼 수 없는 팔각을 기본평면으로 구성된 석비임.
- 특이한 형식의 석비로 비좌 부분에는 연꽃과 사자, 이수 부분에는 구름과 용을 장식하여 새겼으나 조형성이 범작을 벗어나지 못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가치는 결여되어 있음.

6.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陝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 經板)

가. 검토사항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는 2008년도 불교문화재일제조사(경남 서부지역)를 통해 조사된 문화재로 2010년 2차 소위원회(9.16)에서 지정검토 대상으로 보류된 사안임.
- 보류 사유는 지정가치는 있으나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소장경위 조사 후 국보 제32호에 추가 지정, 보존·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해인사 관음암으로부터 입수 및 보존관리 계획서(‘10.11.15)를 접수 받았음.
 -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인사 본사와 논의하여 해인사 장경판전에 영구 위탁하는 시기와 절차를 결정할 예정임
- 위 사안에 대하여 2011년 제6차 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자문회의 검토대상으로 보류되었음.
- 2012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10.18) 결과 해인사와 관음암에게 동 문화재에 대한 소유관계 및 보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해인사 1차 의견(‘12.11.16)
 - 동 문화재에 대한 관음암 소유권 인정 및 해인사 장경판전에 영구보관.
 - 동 문화재 명칭은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경판”으로 함.
 - 국가문화재 지정 전 해인사 장경판전에 인수인계함.
 - 관음암 의견(‘12.11.28)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후 해인사와 관음암 문중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간 안에 장경판전으로 봉안될 수 있기를 희망함.

- 해인사 2차 의견('12.12.06)
 - 내전수함음소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되었다는 역사적 근거와 진본 여부가 확인되기 전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신중해야 함.
 - 해인사 소유임이 확정되었고 판이 진본임이 확인되었다면 이 판의 유통경로를 조사해 주기 바람.
- 동 사안에 대하여 2012년 제6차 회의('12.12.13)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인경본' 조사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
- 인경본 현지조사('13.1.15)
 - 내전수함음소 경판(2판)은 기 지정된 경판과 같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기 경판은 해인사의 장경판전으로 입고하고 소유주인 관음암에는 복제경판을 제작하여 전시·열람하는데 이용토록 함
- 해안사 3차 의견('13.1.17)
 - 국보 제32-2호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보 32호에 포함해야 함
 - 해인사 장경판전에 봉안해야함
 - “관음암내전수함음소” 등 별도 명칭 부여는 옳지 않고 통칭 고려대장경에 포함해야 함.
- 해안사 4차 의견('13.2.08)
 - “내전수함음소” 2판의 진본 여부에 대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회신 요청
- 위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관음암 내전수함음소 경판
(陝川 海印寺 觀音庵 內典隨函音疏 經板)
-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 관음암(불교중앙박물관 기탁)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2판
- 규 격 : 전곽 21.8×48.5cm
- 재 질 : 나무
- 형 식 : 경판류
- 제작연대 : 고려

라. 내용 및 특징

1) 형태사항

내전수함음소 경판 內典隨函音疏 經板

고려시대, 나무, 전체 24.7×78×4.1, 전곽 21.8×48.5, 2매

板心題：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刊記：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所藏板：(1, 2), (3, ×)

2) 조사내용

[경판내용] - (문화재전문위원)

내전수함음소는 고려 고종 때 완성한 해인사(팔만)대장경의 수록분으로 1245년(을사, 고종32)에 대장도감에서 각성한 경판이다.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오타니(大谷)대학 소장 고려대장경”에 따르면, 일본 교토 오타니(大谷)대학에 소장되어있는 587상자에 4,995첩의 고려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의 간인본으로 알려졌다. 오타니대학 소장본 마지막 권의 권말에 있는 이색의 발문을 따르면, 이 대장경은 1381년(우왕7) 당시 재상이었던 廉興邦 등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장경에는 국보 제32호인 해인사(팔만)대장경판에 이미 결락되어 영인본에도 수록되지 못한 內典隨函音疏 권481과 권490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전수함음소는 법원주립, 일체경음의, 속일체경음의 등과 함께 해인사(팔만)대장경에만 수록된 소중한 불서이다.

해인사 관음암 소장의 내전수함음소 권490은 오타니대학에 소장중인 대장경의 해당부분의 경판이다. 이 소가 국보 제32호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의 전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대장경을 만든 고려인들이 이 소를 대장경 전질에 포함시켜 인정한 사실을 볼 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경판내용] - (문화재전문위원)

이 『內典隨函音疏』 권490은 2판 3장으로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경판이다. 권수제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에 이어 ‘貞元’ ‘音詮字體 疏釋經文’의 小字와 그 아래 ‘桓’의 函次가 있다. 다음 행에 ‘雪川西巒沙門 釋 行韜 製’라는 저자 표시와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一部十卷 闍賓國三藏般若譯’에서 반야가 한역한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1부 10권에 대한 音疏임을 알 수 있으며 권말에는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표시되어 있다. 1장과 3장 난외에는 ‘德之’라는 각수명이 새겨져 있고 2장과 3장 끝에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第三張 桓’ 그리고 마구리에도 ‘桓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 第三丈’이라는 經名, 卷次, 張次, 函次를 새겼으며, 네 모서리에는 銅製 장식이다.

『內典隨函音疏』는 일본 京都國立博物館에 사경으로 권307이 전해지고, 大谷大學 도서관에도 ‘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靈要門’ 권말에 권481과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卷10 말에 권490이 제책되어 있다. 大谷大學 소장본은 1381년에 廉興邦과 廉悌臣 등의 시주로 印經하였음을 밝히는 李穡의 발문이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관음사 소장의 『內典隨函音疏』 권490은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되어야 할 경판이나 언제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경판내용] - (관계전문가)

이 경판은 <內典隨函音疏四百九十>으로 490권에 해당하는 불경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一部十卷>의 音疏이다. 내전은 부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을 말하며, 음소는 음에 관한 주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불경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실천 덕목은 바로 <육바라밀다>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불경은 대승 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터득하여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전체 내용은 모두 10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품에서 제4품까지는 일반적인 서술로서 대승 반야에 대해서 말한 뒤, 제6품에서 제10품까지는 6바라밀 각각에 대해서 한 품씩 나누어서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승 반야 사상을 6바라밀다의 수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판은 모두 2판으로 앞뒤 양면으로 조각되어 있으나, 음소가 수록된 면은 모두 3면으로 되어 있다. 권수 경계부분에 권490에 해당되는 <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 1부 전 10권을 대상으로 음소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권말에는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판각기가 새겨져 있어 1245년에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판에서 인출한 자료가 일본의 大谷대학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인출시기는 대략 고려 말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판은 합천 해인사 판전에 수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고려 말 이후 어느 시점에 유출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해당 경판에 대한 조사 후 지정)

이 경판은 향후 국보 제32호인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되어야 할 경판이다. 그러나 이 경판이 언제 유출되었는지를 아직 조사하지 못하였고, 또 이러한 경판이 향후 더 발견 또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판의 유출과 보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거친 뒤, 국보 제32호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해인사 대장경판전에 보관 협의 후 지정)

『內典隨函音疏』 권490은 1245년(고려 고종 32)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경판이다.

해인사 대장경판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에 추가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관음암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해인사 대장경판에 포함하는 제반 절차가 선결 된 후에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관계전문가 (해인사 판전에 보관 관리 협의 후 지정)

이 목판 문화재는 현재 합천 해인사 판전에 수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판에 포함되어 함께 보존 관리되어야 하나, 유출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장경 목판은 현재 국보(제32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재이다. 따라서 별도로 지정 관리하기 보다는 해인사 판전에 보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유물 소장자와 관리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문건으로 명시될 때까지 지정을 보류하고, 합의 이후 기 지정된 번호에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지정 예고
 - 보물지정 후 국보승격하도록 함

7. 능창대군 이진묘 출토 망건(綾昌大君 李佺墓 出土 網巾)

가. 검토사항

‘능창대군 이진묘 출토 망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능창대군 이진묘 출토 망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1.2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3.3.1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능창대군 이진묘 출토 망건(綾昌大君 李佺墓 出土 網巾)
- 소 유 자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점
- 규 격 : 30.0×17.5cm
- 재 질 : 명주, 말총
- 조성연대 : 1627년 부장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가치 없음)

망건의 현상은 양호하고 정교하여 완성도가 높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망건에서는 유래가 없는 기하학 문양의 4방 연속무늬 짜임의 정교하면서 예술성과 특이성은 뛰어나다.

조선 왕실 중친의 사용품임은 확인되나 이 망건의 제작지가 중국인지 조선인지

에 대한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하다. 출토지의 확인사항으로 보면 보물지정 신청대상인 망건이 능창군 당시의 부장품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1929년 이장된 능창군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1629년 이장 당시 조선 왕실 종친의 복식자료로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망건은 능창군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1999년 출토 당시 복식자료와 분리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연대, 연고를 기준으로 볼 때의 역사적 자료가치는 감소된다. 더욱이 동반 복식과도 분리된 유물이므로 엄정한 일등 자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교하고 특이한 유물로서의 예술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에 인평대군 묘역 출토품과 함께 일괄 처리하여 민속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없음)

이전묘 출토 망건은 1999년 7월 12~13일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65번지에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全州李氏 麟坪大君(1622~1658년, 仁祖 3男, 孝宗 동생, 능창대군 양자)派의 墓域으로 移葬하던 중 나온 出土遺物 133건 191점 중 하나이다.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이 묘역에서 능창대군(李佺 : 1599~1615년, 宣祖의 孫子), 의원군(李嫻 : 1661~1722년, 仁祖曾孫), 안동권씨(1664~1722년 : 의원군 配位) 이연응(李沆應 : 1818~1879년, 능창대군의 8世孫, 의원군 5世孫) 이재극(李載克 : 1864~1931년, 이연응子) 등 다섯사람(5人))의 유물이 나왔다. 이 유물들은 朝鮮時代 王室과 宗親의 衣生活 및 葬俗 등 생활사에 중요한 자원이다.

보물로 지정 신청한 것은 網巾 한 점이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출처가 정확하며, 현재까지 보고된 것으로 단 한 점 밖에 없다는 큰 가치를 둔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되기에 앞서 미비한 문제점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능창대군묘에서 나왔다는 다른 유물과의 일괄처리 문제 및 같은 묘역에서 나온 5인의 유물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둘째, 묘주의 명칭을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급히 지정하는 것만이 최선책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없음)

능창대군(1599~1615, 선조의 손자)의 망건은 현전하는 조선 초중기의 망건 가운데 상태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드문 유물이다. 더구나 왕족이 사용하던 망건으로 현전하는 망건과는 형태가 다르다. 망건에 달린 옥관자는 상위

신분임을 나타내며 정교한 짜임과 조형미는 우수한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능창대군은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능창대군의 묘는 박물관측에서 도착했을 당시 이미 새로 준비한 관으로 염습상태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로 다른 복식유물은 수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능창대군에 관한 유물은 자리, 구의, 망건, 그리고 명정뿐이다. 이번 지정신청에서 자리와 망건은 신청되었으나 구의와 새로 발견된 명정은 누락되었다. 특히 명정의 경우 묘주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이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능창군 관련 유물목록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 지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능창군 묘 출토 유물 망건은 묘역 이장 시 신분이 확실한 경기도박물관 연구원에 의해 수습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물은 1600년대 초기 망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큰 학술적·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더욱이 4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 수습된 국내 유일의 망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유물이다.

또한 망건에 부착된 매화양의 옥관자는 정2품 이상의 품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써 문헌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일의 자료이며, 꽃잎사이에 당줄을 걸어 넘길 수 있도록 고안한 작은 고리모양은 더욱 그 섬세함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단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조선 초기의 망건 모습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능창대군과의 연관성 소명부족
- 묘역출토 타유물과의 일괄처리 필요

조사보고서

문화재위원

○ 현 상

말총으로 엮고 명주로 마감처리한 수공예품으로 보존상태는 완전히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말총으로 매듭염염으로 제작하고 명주로 단을 부착한 망건으로 대단히 정교한 작품이다. 특히 말총짜임의 기하학적 4방 연속무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망건 가운데에서는 유래가 없는 것이어서 그 제작지를 추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망건의 현상은 양호하고 정교하여 완성도가 높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망건에서는 유래가 없는 기하학 문양의 4방 연속무늬 짜임의 정교하면서 예술성과 특이성은 뛰어나다.

조선 왕실 종친의 사용품임은 확인되나 이 망건의 제작지가 중국인지 조선인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하다.

경기도 박물관 조사 보고서에는 지정신청대상 망건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인평대군 묘역, 능창군 몰년 1615년 부장품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문중묘역 이장시 내관의 복식은 그대로 이장하여 가서 파주에 재매장되었고, 경기도 하남시 당초 능창군 묘에서 돛자리 한 점과 함께 수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3월 18일 경기도 박물관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망건 지정 신청서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능창군 묘의 명정이 경기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과 춘궁리 능창군 묘가 1629년 이장되었던 묘라고 다시 알려왔다.

이상의 출토지의 확인사항으로 보면 보물지정 신청대상인 망건이 능창군 당시의 부장품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1929년 이장된 능창군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1629년 이장 당시 조선 왕실 종친의 복식자료로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망건은 능창군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1999년 출토 당시 복식자료와 분리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연대, 연고를 기준으로 볼 때의 역사적 자료가치는 감소된다. 더욱이 동반 복식과도 분리된 유물이므로 엄정한 일등 자료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교하고 특이한 유물로서의 예술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에 인평대군 묘역 출토품과 함께 일괄 처리하여 민속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문화재위원

이전묘 출토 망건은 1999년 7월 12~13일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65번지에서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全州李氏 麟坪大君(1622~1658년, 仁祖 3男, 孝宗 동생, 능창대군 양자)派의 墓域으로 移葬하던 중 나온 出土遺物 133건 191점 중 하나이다.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이 묘역에서 능창대군(李佺 : 1599~1615년, 宣祖의 孫子), 의원군(李懋 : 1661~1722년, 仁祖曾孫), 안동권씨(1664~1722년 : 의원군 配位) 이연응(李沆應 : 1818~1879년, 능창대군의 8世孫, 의원군 5世孫) 이재극(李載克 : 1864~1931년, 이연응子) 등 다섯사람(5人)의 유물이 나왔다. 이 유물들은 朝鮮時代 王室과 宗親의 衣生活 및 葬俗 등 생활사에 중요한 자원이다.

출토유물들은 1999년 8월4일 인평대군과 종회에서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999년 9~12월에 보존처리를 하였으며, 보수·정리·실측하여 2001년 『전주이씨 묘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광주 고읍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를 발간하였다. 2002년에는 『조선의 옷 매무새-광주 고읍 의원군 일가 출토복식-』을 내고, 특별전 및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1) 墓主 綾昌大君 李佺

능창대군(李佺 : 1599~1615년. 光海君 7)은 元宗(追)과 仁獻왕후 具氏 소생 3男으로 仁祖(1623~1649년)의 동생이며, 宣祖의 孫子이다. 17세(1615년) 때 光海君(1608~1623년)에 의해 喬棟에 위리안치되었다가 그 해 死亡했다. 1623년 仁祖 즉위 후 綾昌君으로 다시 復位되고, 1632년에 大君으로 追封되었다.

능창대군의 첫(1615년) 葬地는 경기도 楊州 群場里였는데, 仁祖(1623~1649년) 즉위(1623년) 후 8년(1630) 正月에 仁祖의 命에 의해 경기도 廣州 古邑(현재 하남시) 남한산 북쪽 기슭으로 改葬하였다. 이 때 官에서 葬禮를 주관하도록 명하였으며, 1等の 예법을 적용해서 시행토록 하였다고 한다.

品階는 몇 차례 바뀌는데 다음과 같다. 이는 수습된 명정(銘旌)에서 확인되었다(박물관 측의 추가 제보 자료에 의함).

(1) 수습된 명정기록 --- 현록대부행승헌대부능창군지구(顯祿大夫行承憲大夫綾昌君之柩)

(2) 品階

① 生時 --- 承憲大夫(宗親 正二品)

② 沒年 --- 1615년(光海 7)

③ 追贈 : 1623년(仁祖 1)--- 嘉德大夫(宗親 從一品)

④ 追贈 : 1630년(仁祖 8)--- 顯祿大夫(宗親 正一品)

⑤ 追封 : 1632년(仁祖 10)---大君

수습된 銘旌의 品階는 死後 1630년에 추증되었다는 ‘顯祿大夫’와 ‘君’으로 銘記되었다.

2) 신청 유물 망건 형태 및 특징

매우 완벽하다. 말[馬]총?으로 무늬를 넣어 짚으며, 양쪽 끝 가장자리의 끈은 무문단(無紋緞)으로 하였다. 양쪽 살쩍부분에 玉貫子(五葉彫刻)를 달았다.

2. 본 유물 網巾의 가치, 문제점, 과제

1) 가치

보물로 지정 신청한 것은 網巾 한 점이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출처가 정확하며, 현재까지 보고된 것으로 단 한 점 밖에 없다는 큰 가치를 둔다.

2) 문제점

(1) 다른 자료 처리문제

신청한 망건 외에 능창대군 墓에서 나왔다는 자료들(현재 신청처인 경기도박물관에서 보내 온 3점 : 돛자리[席]:무늬 있음. 銘旌, 柩衣이다. 다른 자료에는 파손된 솜 옷자락도 있음)도 매우 소중하다.

출토유물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섬유류는 수습 후 초벌정리 즉, 오물처리(정리)에서부터 피륙[織物] · 바느질 · 색 · 무늬 등에 대한 연구 및 전시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흔히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하고 보고되는 일이 많다. 본 신청건 망건도 다른 자료들에 대한 후속 조치(연구, 보존 및 보수처리)가 필요하다.

(2) 墓主 명칭

유물 주인은 ‘綾昌大君’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綾昌君’인가. 이는 유물주인이 정확하다면 사용시기와 관련도 중요하다. 사용시기가 大君 때가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3) 과제

미비한 문제점 해결이 선결이다. 改葬(2차장)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葬俗에 의하면 묘주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정을 전제로 한다면 더욱이 묘주, 시기, 명칭에 대한 것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헌, 유물분석 등 전문가에 의해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가(언제, 어디서, 누가).

(2) 묘주가 직접 사용하였던 것인가.

(3) 1次葬 때(1615년) 것인지, 아니면 2차 移葬 때(1630년) 것인지.

(4) 재료 분석 : 말[馬]총? 人毛? 기타.

4) 다른 유물처리 문제

(1) 먼저 같은 묘역에서 나온 5인의 유물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

(2) 특히 본 망건 외에 능창대군의 묘에서 수습했다는 유물 3점(柩衣, 銘旌, 돛자리[席])에 대한 후처리 및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급히 지정하는 것만이 최선책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 논의해야 함이 순서이다. 특히 이 유물은 宗親에서 이미 수습이 끝난 후 박물관에서 인계받은 것이므로 더 신중해야한다. 박물관 측에서 이에 대해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능창대군의 묘는 박물관 연구원이 도착 당시 이미 새로 준비한 관으로 시신과 복식을 함께 옮겨놓은 상태였고, 그대로 이장 장소로 갔으며, 복식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함. 이후 관문을 열며 파손된 명정, 구의 그리고 관안에 있던 자리, 떨어진 망건을 수습하여 왔다고 함. 그 주의로 다른 유물과는 섞일 일이 전혀 없는 동떨어진 곳이며 망건은 능창대군의 묘에서 발견된 것이 확실하다고 함.)

□ 문화재전문위원

능창대군(1599~1615, 선조의 손자)의 망건은 현전하는 조선 초중기의 망건 가운데 상태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드문 유물이다. 더구나 왕족이 사용하던 망건으로 현전하는 망건과는 형태가 다르다. 망건에 달린 옥관자는 상위 신분임을 나타내며 정교한 짜임과 조형미는 우수한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능창대군 이전 (1599~1615)은 선조의 손자이며 원종[定遠君]의 3남이자 인조의 동생이다. 숙부인 신성군의 후사를 이었으나 능창대군이 왕에 추대되어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명국의 무고로 광해군에 의해 폐서인이 되어 17세에 사사(賜死)되었다. 후에 형인 인조가 즉위하자 능창군으로 다시 봉해지고 1632년 대군으로 추봉되었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1997년 7월 12~13일에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묘역에서 출토된 능창대군 일가 유물을 인평대군파 종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소장하고 있다. 출토 유물 가운데 능창대군의 묘에서는 망건을 비롯하여 자리와 구의, 명정이 출토되었다. 자리와 망건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망건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 구의는 상태가 좋지 못하며 명정 역시 상당히 손상되었으나 명정 위의 글은 남아있어 묘주가 능창대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능창대군의 묘에서 출토된 망건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 망건은 가는 말총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무늬를 시문하며 엮었으며, 편자는 말총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하였고, 관자가 달린 선단과 끈은 무문단(無紋緞)으로 하였다. 관자는 꽃의 형태로 조각한 옥관자로 상위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망건은 매우 뛰어난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유물이다.

능창대군의 망건은 왕족이 사용하던 망건으로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망건과는 다소 형태가 다르며 전례서나 의궤에 기록되어진 망건의 형식과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건의 변천사나 계층별 망건의 사용예도 살펴 볼 수 있어 복식뿐만 아니라 민속, 공예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본 망건에 대해 출처가 확실치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능창대군의 묘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정이 새로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 대한 신분과 생몰년이 분명하여 사료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능창대군은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능창대군의 묘는 박물관측에서 도착했을 당시 이미 새로 준비한 관으로 염습상태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로 다른 복식유물은 수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능창대군에 관한 유물은 자리, 구의, 망건, 그리고 명정뿐이다. 이번 지정신청에서 자리와 망건은 신청되었으나 구의와 새로 발견된 명정은 누락되었다. 특히 명정의 경우 묘주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이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능창대군 관련 유물목록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 지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본 조사 대상인 망건은 1999년 7월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소재 전주이씨 능창대군의 의원군 일가의 묘역을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전주이씨 인평대군과 묘역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장을 위해 유골 수습을 마친 능창대군의 묘에 남겨진 명정, 구의(柩衣), 자리와 함께 수습된 것이다. 현재는 경기도박물관에 전주이씨 인평대군 묘역 출토유물로 일괄하여 보관되고 있다.

○ 연혁·유래 및 특징

능창대군(1599-1615) 이전(李佺)은 선조의 손자이며, 광해군에 의해 17세 되던 해인 1615년 11월 강화 교동에 위리안치 유배되었다가 사망했다. 생시의 품계는 승헌대부(承憲大夫: 종친 정이품 품계), 1623년 추증 품계는 가덕대부(嘉德大夫: 종친에게 주는 종일품 품계)이며, 1630년 현록대부(顯祿大夫: 종친 정일품의 품계)로 추증되었다. 대군으로 추봉(追封)된 것은 1632년(인조 10년)이다.

이장 시 관위를 덮었던 명정에서 현록대부행승헌대부능창대군(懸祿大夫行承憲大夫綾昌君)이라는 글자가 확인됨으로써 망건이 수습된 본 묘는 능창대군으로 추봉되기 전인 1630년에 이장 조성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 유물은 생물연대가 확실한 능창군 묘에서 당시 경기도박물관 박학수연구원에 의해 수습된 것이다. 발견 당시 돌돌 말려서 망건-편자의 끝에 달린 0.4×55.0cm의 당줄(비단 끈)을 감아 묶은 상태였으며, 높이 18.0cm정도의 쥘부채와 흡사한 형상이었다.

펼친 모양을 보면, 오랫동안 둥글게 말린 채 눌러있었던 연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넓게 세로로 깊은 굴곡을 이루고 있으며, ‘망건-앞’ 정 중앙은 18.0cm, ‘망건-뒤’의 끝부분은 8.5cm로 망건의 아랫부분은 반월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운두 8.0cm정도의 직사각형(8.0×55.0cm내외)인 조선말의 망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망건-당’, ‘망건-앞’, ‘망건-뒤’, ‘망건-편자’와 ‘관자’(다섯 개의 꽃잎을 조각한 梅花樣 옥관자)까지 갖춘 모습은 조선 말 망건의 기본구성과 동일하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고은 말총으로 섬세하게 망건의 상부와 좌우 ‘망건-뒤’에 다양한 무늬를 넣어 정교하게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유물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수공예품으로 인정되는 수작이다. 또한 400년을 뛰어 넘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파손된 부분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완벽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본 출토 유물은, ‘망건-앞(정 중앙 높이:18.0cm)’이 ‘망건-뒤(끝부분 높이: 8.5cm)’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착용 시는 ‘망건-앞’이 이마는 물론 앞머리통의 상부까지를 덮어 상투 바로 아래까지 이를 정도로써, 이는 1600년대 당시의 명나라 망건 형태와 흡사한 점이 있고, 또한 곱게 짜 넣은 문양 역시 당시의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문양임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소재의 정밀분석이나 제작과정, 형태변화 연구에서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능창군 묘 출토 수공예품 망건은, 묘역 이장 시 신분이 확실한 경기도박물관 연구원에 의해 수습된 것이 확실하므로 1600년대 초기 망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큰 학술적·자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년의 역사를 갖는 국내 유일의 중요한 망건 자료로서 시사하는 바가 큰 유물이다. 따라서 차후 중요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됨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에서 전해온 당시 수습자(박학수, 김선덕)의 증언내용을 옮긴 글이다.

능창대군의 묘는 박물관 연구원이 도착당시 이미 새로 준비한 관으로 시신과 복식을 함께 옮겨놓은 상태였고, 그대로 이장 장소로 갔으며, 복식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함. 이후 관문을 열어 파손된 명정, 구의 그리고 관안에 있던 자리, 떨어진 망건을 수습하여 왔다고 함. 그 주위로 다른 유물과는 섞일 일이 전혀 없는 동떨어진 곳이어서 망건은 능창대군의 묘에서 발견된 것이 확실하다고 함.

첨부 <망건 관련 자료>

망건은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뒷통수에 걸쳐서 두르는 직사각형의 그물처럼 생긴 물건이다. 冠禮를 하여 상투를 튼 후에는 누구나 곧 망건을 쓰게 되므로 어른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實錄」에 의하면 世宗 2년(1420) 4월에 명나라 사신에게 馬尾 網巾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文宗 2년(1452) 3월에는 망건의 재료로 말총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成宗 19년(1488)에 명의 사신 董越이 지은 「朝鮮賦」에도 朝鮮의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망건이 일반화한 것은 明太祖 때부터로 보이나, 말총 등을 재료로 하는 마미 망건은 萬曆(明神宗:1573-1617)年 間에 이르러 이다. 「三才圖會」에서 중국 망건의 형상을 보면 그 형태가 감투와 비슷하여 머리를 정리함과 아울러 冠의 용도를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꼭대기에 구멍이 있어 상투가 그쪽으로 내밀어지게 되어 있다. 이를 虎坐巾 혹은 囚巾이라 하였던 모양으로 「熱河日記」 중의 太學留館錄에 「호좌건이라 함은 그 앞이 높고 뒤가 낮아서 흡사 범이 쭈그리고 앉은 것 같아 이름함이었고 또 수건(囚巾)이라 함은 당시에 벌써 이를 옳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천하의 頭額이 모두 그물 속에 갇혔다 함을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망건은 관복 착용 시에 관모의 밑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회화 중에는 주로 農工人들이나 노동자 계층에서 망건을 모자처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는 아마도 일할 때 노동의 편리함을 취하고자 함에서 착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관례를 올린 성인의 필수품이었던 조선의 망건과는 용도가 크게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망건의 구성은 윗당줄을 끼우도록 말총으로 고를 촘촘히 뺏어 두른 망건의 윗부분인 망건-당과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말총으로 두껍게 짜고 좌우 끝부분에 아랫당줄을 단 망건-하부인 망건-편자, 착용 시에 이마에 닿는 부분으로 그물처럼 성글게 엮은 망건-앞(앞싸개라고도 한다) 및 촘촘히 엮어 좌우 뒷통수를 감싸는 망건-뒤의 4구획으로 구분된다. 또 망건-편자의 양옆(착용 시 귀 부분)에는 貫子(혹은 圈子라고도 한다)를 다는데 이것은 망건의 당줄을 걸어 넘기는 역할을 하며, 직품에 따라서 재료나 새김장식을 달리 하였다.

관자에 대해, 「經國大典」禮典 儀章에는 “1품에서 3품까지의 백관들은 金, 玉의 貫子를 사용한다” 하였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1품은 漫玉圈子 속칭 反玉環을 달고, 2품은 牽牛花樣, 梅花樣, 苾花樣의 金圈子를 다는데 속칭 雙蟠圈이라고도 한다. 3품은 牽牛花樣, 雜雕花樣의 玉圈子 속칭 鏤八蓮環子를 달았다. 당하 3품 이하 서인은 玳瑁, 羊角, 牛蹄의 小圈을 달고, 서민으로서 호사하는 자는 瑪瑙, 琥珀 등의 小圈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中國에도 이와 비슷한 貫子の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처럼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실제 관자의 사용 예를 보면 1품은 조각 없이 질이 좋고 작은 玉貫子(도리옥), 정 2품은 조각한 대형 玉貫子이며, 당하 3품 이하 서인은 대모, 마노, 골, 각 등을 사용했었다. 조각된 무늬는 花, 竹, 蓮이었다.

착용 할 때에는 網巾을 이마에 두르고 뒤에서 윗당줄로 머리를 졸라맨 후 상투에 잡아맨다. ‘망건-편자’의 좌우 끝에 달린 아랫당줄은 뒤에서 서로 엇바꾸어서 좌우 관자에 꿰어 내린 후에 다시 뒤통수에서 서로 탄탄하게 잡아맨 다음 나머지를 상투에 동여맨다. 망건-앞 윗부분에 달아 장식했던 風簷은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재료로는 대모, 호박, 마노, 밧 골, 각을 사용했었다.

보고사항

1.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국외반출 허가 현황보고

가. 보고사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폴게티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하여 2012년 6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된 국립중앙박물관 신청 3건 중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1건의 국외반출이 소장자의 의사에 따라 무산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외반출 허가 이후 소장자 측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폴게티 미술관에 대여료와 소장자 포함 3인의 미국 초청을 전제로 대여가 가능함을 통보하였으나, 폴게티 미술관 측에서 수용 불가함을 연락받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최종 대여 불가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반출이 무산됨.

다. 추진경과

- 2012.08.24 : 소장자가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임장 제출
- 2012.11.19 :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 대상 반출기간 : 2013년 3월 5일~ 6월 9일
 - 신청 대상 :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1점
보물 제1486호 ‘이광사 초상’ 1점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 1점
- 2012.12.13 :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12.12.27 :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 2013.01.17 : 유물 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 완료
- 2013.02.12 : 소장자가 최종 대여 불가의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달
- 2013.02.25 : 국외반출일(윤두서 자화상을 제외한 2점 예정)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